

2017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

삶과 문화에 대한 116명 시민과의 수다 기록

삶과 문화에 대한 116명 시민과의 수다 기록

2017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

◆ 독자를 위한 안내

1. 본 보고서는 2016년 12월 말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18개 그룹 총 116명이 참여한 시민좌담회의 녹취록을 정리하고, 관련 연구자료 및 제언 등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챕터로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2. 참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과도한 개인정보노출을 막기 위해 발언내용의 일부는 편집하였습니다.
3. 좌담회 발언 내용은 가급적 그대로 담고자 하였으나 효과적인 내용전달의 목적과 말을 글로 옮기는 과정의 한계로 인해, 일부 내용과 표현은 실제 좌담회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4. 본 보고서에 언급된 참고자료는 좌담회 맥락을 고려하여 해당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비매품으로서 공익적 용도로 제작되었으나, 혹시라도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소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5.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는 글 ... 006

조사개요 ... 014

1. 혼자 사는 삶과 문화생활 ... 016

- [2030 청년 1인 가구] 2030 혼족 청년을 만나다(1)_취준생
- [2030 청년 1인 가구] 2030 혼족 청년을 만나다(2)_대학생/대학원생
- [3040 여성 1인 가구] 화려한 싱글녀의 문화생활
- [3040 남성 1인 가구] 여가와 문화에 대한 혼남들의 수다
- [4050 중년 1인 가구] 다시 또 싱글라이프! 혼자도 좋다
- [6070 노인 1인 가구] 청춘의 마음으로 사는 홀몸 노인

2. 자녀와 함께하는 삶과 문화생활 ... 108

- [3040 전업맘] 아이를 위한 문화 즐겨요! 나를 위한 문화 원해요!!
- [3040 워킹맘] 바쁜 워킹맘의 즐거운 문화생활
- [3040 워킹대디] 프렌디 아빠의 여기문화 탐구

3. 황혼의 시간을 사는 삶과 문화생활 ... 164

- [50대 중년 남성] 50대 남성의 자기주도적 문화생활
- [베이비부머] 인생 후반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베이비부머
- [65세 이상 노인] 노인이라고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죠.

4. 21세기 소년소녀의 삶과 문화생활 ... 212

- [1516 청소년] PC방, 팬덤문화... 현재를 즐기자!
- [1819 청소년]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5. 다르지 않은 이웃의 삶과 문화생활 ... 240

- [장애인] 장애없는 문화생활을 향한 외침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기
- [다문화가정] 새로운 삶터에서의 문화생활
- [외국인노동자]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여는 글

더다이즘; 예술로 더 새롭게 문화로 다 즐겁게

서울은 경제적 성공과 한류로 인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이며 종묘, 조선왕릉 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경복궁, 덕수궁 등 5대 궁이 있는 역사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이 많고 지금도 도시 곳곳의 유휴공간은 문화적 공간으로 재생되고 있으며, 거리, 공원, 광장, 청계천, 한강 등에서는 사계절 다양한 축제와 여러 문화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문화적 도시환경에도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영화를 제외하면 10%를 선회하는 수준이며, 행복지수는 미미하게 증가할 뿐 시민들이 느끼는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져 50~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문화재단은 문화향유 제고를 넘어 일상 속에서 시민 누구나 문화 예술을 누리는 **더 즐겁고 다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알아보고자 다양한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만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일반 시민들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이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듯이, 문화적 감수성 또한 정량적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의 데이터만으로는 시민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18개 그룹 총 116명의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며 숫자로 알 수 없는 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재 서울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2030, 3040, 중년, 노인 등 연령대별 1인 가구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전업맘, 워킹맘, 워킹대디 등 자녀와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50대 남성, 베이비부머 및 65세 이상 시민 등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시민들과도 만

났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생활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세 차례의 전문가들과 사전좌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시민들은 평범했고 다양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는 한 단어 속에 천만의 삶이 담겨있듯이, 우리가 만난 18개 그룹의 평범한 시민들은 청년, 노인, 워킹맘, 다문화, 청소년 등 그들을 지칭하는 몇 개 단어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다양한 삶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천만의 삶이 공존하는 도시인만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은 다양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몇 개의 숫자와 한정된 경험으로 시민들의 삶을 추측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이 함께 비껴야 함을 깨달으며 '문화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력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을 만난 우리는 개개인의 삶 속 문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문화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알고 있음에도 녹록하지 않은 삶에 지쳐 문화예술을 즐길 만큼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이미 수많은 미디어나 다양한 기회를 통해 문화예술이 일상적일 만큼 충분히 즐기기도 했고, 어떤 시민들은 문화예술이 아닌 여행, 스포츠 등 다른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문화는 지금도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주요한 요소이며, 사회변화를 싹 틔울 중요한 씨앗이라는 것 또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2017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울시민의 삶과 문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한편 잘 모르는 다양한 삶 속에서의 문화 생활에 대해 현장예술인과 문화행정, 문화기획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공유하여 시민들의 더 즐겁고 다 행복한 삶을 위해 공공 문화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여해주신 116명의 시민과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문화 : 따로 또 같이, 문화는 일상에 스며들다

도시민의 삶에서 행복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새삼 상기하지 않더라도 행복이 사람들 삶의 궁극적인 지향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서울에 사는 천만의 우리 모두는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을까? 개인의 행복감은 우리 모두의 심리적 태도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공공 부문의 정책적 개입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까? 한 사회나 개인의 행복감은 측정가능 한 것일까?

최근 행복을 둘러싼 이렇듯 많은 질문들과 사람들의 행복을 높이려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한 사회나 도시가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행복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서울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끝없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메트로 폴리스라는 거대 도시가 되었다. 서울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성장의 풍요로움을 경험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과거의 시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2012년 UN은 『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를 발간하면서 공공부문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시작해야 함을 강조했다. UN의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된 국가나 도시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시민들은 과거 수 십 년에 비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지만 우리들의 삶이 과연 과거에 비해 더 나아졌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사회의 발전수준을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던 일반적 기준에 대한 본질적 문제 제기였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성장은, 한 국가의 성장은, 한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오늘날 세계 대도시들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시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즉 사회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문제는 도시의 경쟁력 확보는 더 이상 경제 성장만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난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이미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발전국가의 도시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사회의 '질적

성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란 정황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서울을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전면에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

사람들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복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을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세계 각 국가와 도시에서 주요 사업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 역시 행복과 웰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였으며, 2011년부터 '더 나은 사회 Better Life Initiative'를 통해 세계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행복한 삶 프로그램(National Wellbeing Programme)을 시작하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해 공동체의 행복지표를 구성하였다.¹ 개인적 웰빙, 관계, 건강, 일자리, 생활환경, 재정, 교육, 거버넌스, 경제, 자연환경 등 10개 영역으로 구성된 영국의 행복지표는 영국민의 삶의 객관적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와 사람들의 주관적 태도 등을 측정하는 지표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를 근거로 영국국민들의 행복상태를 파악해보면, 주거환경을 포함하는 생활환경 영역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았지만 교육영역과 재정영역에서는 행복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유럽연합(EU)에서도 전체 유럽연합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지표(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에 사람들의 웰빙(wellbeing)을 측정하는 부문을 개발하여 2013년부터 지표에 포함하였다. 프랑스 역시 국민들의 심리적 감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시간사용에 관한 조사(American Time Use Survey)에 웰빙을 측정하는 모듈을 포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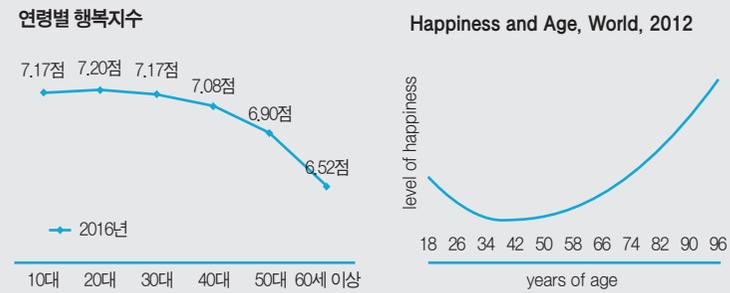
¹ 영국 통계청(www.ons.gov.uk),
『National Wellbeing Measures』, 2014.9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가하는 중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필자는 서울서베이²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울 시민들의 행복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과 연령이다. 예상하겠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보다는 행복하다. 물론 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소득 증가분만큼 개인의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연령이다. 서울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덜'행복하다. 이 점에서 서울시민의 행복감은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감과 차이가 난다. 소위 'U 패턴'이 전 세계 사람들의 연령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형태이다. 즉, 전 세계 사람들은 젊

² 서울서베이는 서울시의 도시사회정책 지표체계로 도시의 사회구조 변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가치와 의식, 소비와 문화 등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수요를 예측하거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서울시는 서울서베이를 위해 매년 서울시민 20,000가구 15세이상 가구원 전수조사를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데이터를 보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다.

을 때 행복감이 비교적 높으며, 이 행복감은 40대 중반까지 계속 하락한다. 그러나 이후 50대, 60대 등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차 행복해진다. 그런데 서울은 아니다. 서울시민들은 나이 들수록 행복감이 툭 툭 떨어진다. 중장년층, 고령자들의 행복감은 점차 바닥을 향해 돌진한다(아래 그래프 참조). 전 세계 사람들은 젊을 때 행복감이 비교적 높으며, 이 행복감은 40대 중반까지 계속 하락한다. 그러나 이후 50대, 60대 등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차 행복해진다. 그런데 서울은 아니다. 서울시민들은 나이 들수록 행복감이 툭 툭 떨어진다. 중장년층, 고령자들의 행복감은 점차 바닥을 향해 돌진한다(아래 그래프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삶의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서울시민에게 '문화생활과 문화향유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일까?' 분석에 따르면, 문화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문화소비 항목에 따라 사람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클래식공연 관람, 영화관람, 연극관람, 미술관관람, 대중음악공연 관람 등의 문화예술 소비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서울시민들의 행복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클래식 공연 소비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 행복감의 증가 정도는 영화 관람 빈도의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응성거림이 들린다. 맞다. 필자의 분석 결과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이제 응성거림을 정책과 연관시켜 논점을 끌어내보자.

서울시민들을 위한 문화정책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가? 서울시의 문화소비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모두 그렇다고 말한다. 그렇다. 따라서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소비는 행복한 삶에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서울사람들,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중

한편 서울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거대한 메가시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90년대를 지나면서 인구총량이 줄어 들고 있다. 인구변화의 핵심은 전체 인구 규모가 줄어든다는데 있기 보다는 인구의 구조가 바뀌는 데 있다. 사람들의 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 이상을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5년에는 그 비율이 12.3%에 달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2026년에는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5). 2026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의 수는 31.4명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2000년의 10.2명에 비해 세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고령 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이 26년 사이 세 배로 가중될 것이라는 말이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문화소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인구변화이다. 서울의 1인가구는 2015년 센서스 기준 서울 전체가구의 29.5%인 112만가구이다. 잠깐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1980년 서울 1인가구는 8만2천 가구에 불과했다. 1인가구란 말이 낯설었던 그 시기, 단지 4.5% 사람들만이 혼자 살았던 것이다. 이로부터 5년 후인 1985년 1인가구는 15만 6천 가구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2000년에 오면 혼자 사는 가구가 무려 오십만을 넘어선다. 이 속도가 지속되어 2015년 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 1980년에 비해 지난 35년 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려 13.5배 증가하였다. 더욱이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동질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서울에서는 4種4色の 1인가구가 살고 있다. 도시문화를 이끄는 전문사무직 골드족으로 혼자 살아가는 삶을 즐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20대에서 30대 초반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소위 '산업예비군' 그룹인 청년1인가구, 4~50대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형성된 '불안한 독신자 그룹', 고령화의 영향인 실버세대 고령자 1인가구 등은 사회정책적 대상이 되는 1인가구들이다. 다양한 1인가구들이 소비하는 문화 역시 다양할 것이다.

변화하는 서울에서 문화소비와 문화적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의 문화소비와 서울의 문화생산, 참여적 문화활동 등에 관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조사하며 분석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한다. 그 중 하나가 '문화에 관심이 좀 있다'는 소위 '문화고관여자(cultural heavy user)'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이 조사에서 서울 시민의 문화소비는 세대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였다. 스마트 문화에 열광하는 20대, 문화=행복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는 30대

화려한 싱글녀들은 어쩌면 우리가 예상한 당연한 결과이다. 필자의 관심을 끈 문화소비 세대는 중장년, 고령층이다. 흔히 '시니어'로 불리는 5,60대들의 문화 소비 특성과 문화가 그들의 일상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놀랍게도 이들 세대는 문화적 낭만성을 향유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 활동을 하는 액티브시니어들로 이들에게 문화는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니어세대들에게 일상의 행복, 높은 삶의 질,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문화생활 만족도'가 중요했다. 즉, 문화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의 문화만족도는 단지 문화활동의 양의 많고 적음보다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는가 하는 문화소비의 질(質)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이다.

서울시민의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서울의 다양하게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문제,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다양한 시민들 속에서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까? 앞으로 문화정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다양해져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문화소비 특성과 연관시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정책 입안의 근거 자료가 풍부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서울시는 문화 분야의 통계자료가 가장 취약하다. 문화통계와 통계를 만드는 기준으로서의 문화지표는 과학적이고 효과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다행히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의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해 문화소비 패널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시민중심 문화 지향'이라는 정책 방향이 분명하다. 문제는 시민은 하나의 단일집단이 아니고 그 안에 다양한 시민이 존재하며, 이들의 문화소비 특성 역시 다양하다는 것이다. 문화소비 집단의 다양성과 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필자의 분석에 근거하면 서울시의 문화정책은 공연예술 확장에 보다 집중되어야 한다. 클래식공연 등 공연예술을 경험한 시민들이 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전문공연장을 더 많이 만들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일상생활 속에 문화가 스며들게 하고 참여하는 문화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차원적인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시민의 문화생활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자.

“서울시민들의 문화소비는 세대와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소비 층 중에서 30대를 보면, 여기에는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트렌드셋터로서의 화려한 싱글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문화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컬처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가진 30대 여성들에게 문화생활이란 가족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소비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문화소비를 이끌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30대 싱글녀에게는 실험적 문화상품 등 문화컨텐츠가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30대 컬처맘들에게는 가족단위의 문화소비에 적합한 문화 상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이와 함께 문화공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문화시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는 게 역시 아주 중요한 요인인거죠.”

한 도시의 문화란 그 도시의 정체성과 다름없다. 정체성이란 그 혹은 그녀가 누구 인지를 말해주는 표상이다.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과 문화적 삶의 모습이 서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서울의 문화정책은 이렇듯 사람들의 문화소비 성향과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이 확장된 문화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좀 더 세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변미리(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센터장, 사회학)

조사개요

조사목적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활동 참여 실태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와 더불어 심층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서울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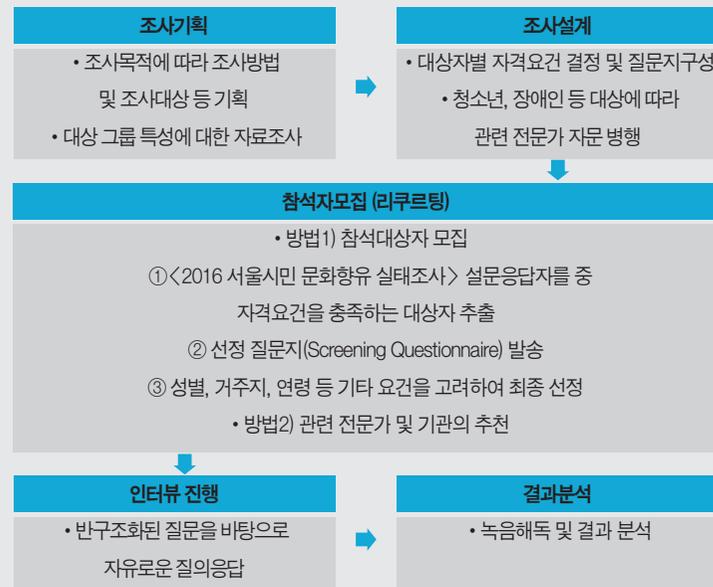
2016.12.27. ~ 2017.11.26. / 총 18회

조사방식

3~7명의 그룹이 참여하는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반구조화된 면접방식 : 사전에 준비한 '공통질문 및 대상별 특성질문'을 바탕으로 현장 분위기와 여건에 따라 진행자의 재량에 따라 진행(공통질문: 여가시간의 활용, 최근 참여한 문화활동, 문화의 의미, 문화정보 습득경로, 동호회 활동 참여 여부, 문화활동 소요비용의 비중, 문화활동의 장애요소, 제안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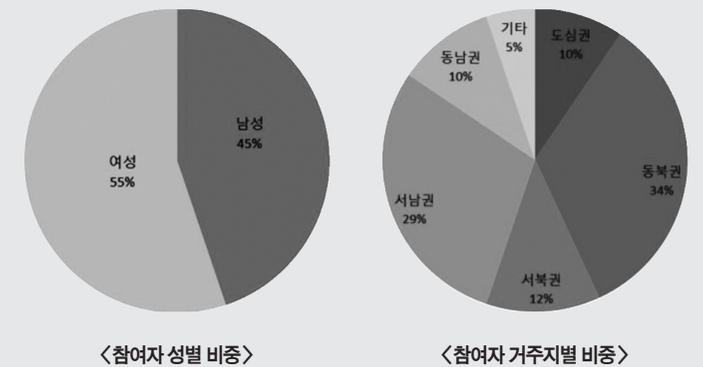
조사진행



조사참여자

18개 그룹 총 116명 참여

구분	대상	개최시기	참여인원	구성방식
1	2030 청년 1인가구 (취준생)	'16.12.27.(화)	6명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설문응답자들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2	2030 청년 1인가구 (대학생/대학원생)	'16.12.27.(화)	7명	
3	4050 중년 1인가구(이혼,별거,사별)	'17.03.21.(화)	7명	
4	3040 미혼여성 1인가구	'17.03.28.(화)	7명	
5	6070 노인 1인가구	'17.04.04.(화)	6명	
6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17.04.04.(화)	7명	
7	3040 전업맘	'17.04.18.(화)	7명	
8	3040 워킹맘	'17.05.16.(화)	7명	
9	3040 워킹대디	'17.05.23.(화)	7명	
10	50대 중년남성(동호회 활동 참여자)	'17.06.13.(화)	7명	
11	3040 미혼남성 1인가구	'17.06.20.(화)	7명	
12	65세 이상 노인(다인가구)	'17.07.04.(화)	6명	
13	1516 청소년	'17.08.26.(토)	7명	관련 전문가/기관에서 추천
14	1819 청소년	'17.08.26.(토)	7명	
15	장애인	'17.09.27.(수)	6명	
16	북한이탈주민	'17.11.11.(토)	7명	
17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17.11.24.(금)	5명	
18	외국인 근로자	'17.11.26.(일)	3명	



연구윤리 준수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 정리를 위한 녹취 및 사진 촬영 등에 대해 사전 안내 후 동의를 구하였고, 녹음 자료는 녹취해독 후 폐기하였음. 심층인터뷰 그룹 별 참여자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하였음(예, 가명사용 및 김O영)

혼자 사는 삶과 문화생활

- [2030 청년 1인 가구] 2030 혼족 청년을 만나다(1)_취준생
- [2030 청년 1인 가구] 2030 혼족 청년을 만나다(2)_대학생/대학원생
- [3040 여성 1인 가구] 화려한 싱글녀의 문화생활
- [3040 남성 1인 가구] 여가와 문화에 대한 혼남들의 수다
- [4050 중년 1인 가구] 다시 또 싱글라이프! 혼자도 좋다
- [6070 노인 1인 가구] 청춘의 마음으로 사는 홀몸 노인

'외로움(loneliness)'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며, '고독(solitude)'은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Language has created the word 'loneliness' to express the pain of being alone. And it has created the word 'solitude' to express the glory of being alone.

_폴 틸리히(Paul Tillich, 독일 종교철학자)



2030 혼족 청년을 만나다(1)

취준생, 무직, 산업예비군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 ◆ **일시** 2016. 12. 27.(화) 16:00
- ◆ **진행**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6명
 1. 김0현 : 20대 남성, 무직(아르바이트), 마포구 거주
 2. 박0정 : 20대 여성, 무직(아르바이트), 도봉구 거주
 3. 유0라 : 20대 여성, 취업준비생, 광진구 거주
 4. 이0영 : 20대 여성, 취업준비생, 성동구 거주
 5. 김0지 : 20대 여성, 취업준비생, 동작구 거주
 6. 이0연 : 20대 여성, 취업준비생, 관악구 거주

요약 정리

문화활동 범위에 대한 생각

- 여가 시간은 학교 공부나 직장 업무, 가사 등을 뺀 모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시간이 매우 적은 편임
- '문화활동'을 일상적이지 않고 목적성이 있는 활동이라는 의견과 TV시청, 영상이나 음악 감상 등의 일상도 문화활동이라는 의견이 혼재
- 광범위하게는 여행이나 관광 같은 여가활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활동까지 문화의 범위로 생각하기도 함
- 혼자 있을 때 영화나 음악을 틀어놓는 일상도 문화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통해 일상에서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도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문화활동의 목적

-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혹은 자기성장을 위해 문화생활을 하기도 함
- 무료하고 지치는 일상을 잊기 위한 이유도 포함
- 문화를 즐기는 것이 목적이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음
-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계기로서 문화 활동을 활용하기도 함 (독서나 영화 관람 소모임 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가짐)

문화활동의 특성 및 장애요소

- 문화생활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음. 자신이 원하는 취향과 시간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반영
-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화생활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움
-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활동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경제적·시간적 부담 때문에 가격이 고가라도 횟수를 줄여 원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며(선택과 집중), 그 외에는 저렴한 콘텐츠를 찾는 편임
- '문화생활=노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취업준비생이 문화생활을 할 때에는 죄책감을 느껴야할 때가 있음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멀더라도 찾아가서 원하는 콘텐츠를 즐기는 편임
- 하지만 지리적 접근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음. 거리는 곧 시간이자 비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편임

동호회나 지역 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애로사항

- 온라인을 통해 모임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독서나 영화 관람 소모임에 관심이 있음
- 하지만 일부의 부정적 사례(목적 외 이성교제로 활용, 개인정보노출 등)로 인해 동호회나 소모임에 대한 신뢰감, 안전성 등에 확신이 없어 참여를 꺼리기도 함
-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살거나 잦은 이사 등의 이유로 지역 애정이 적은 편이나 지역문화활동의 경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이 생긴 사례도 있음
- 지역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주로 어린이, 주부, 어르신 대상이 많아 청년들이 참여할 만한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의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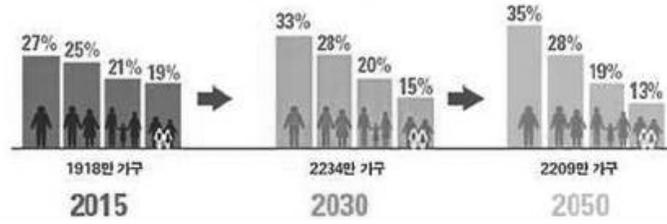
공공 문화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제안

- 공공기관의 문화뉴스레터나 '문화가 있는 날' 등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화생활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영향도 있음
-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해주었으면 함
- 문화정보 앱, 뉴스레터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시, 보다 편리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으로 제공받길 원하며, 큐레이팅을 통한 맞춤형 정보 원함
- 청년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금전적 지원 확대(바우처, 할인 등)

수다 기록

2030년 이후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1-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2016) '대한민국 2050 미래 향해'

2015~2050년 국내 형태별 가구수 예측



진행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년실업 증가 등의 이슈와 더불어, 혼밥, 혼영 등 나홀로 문화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 1인 가구의 삶과 문화생활이 어떠한지 이야기 나누고자 이번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0현 저는 마포구 합정동에서 2년 반째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김0현입니다. 졸업은 했고요. 제가 취업 준비는 하지만 그냥 졸업하고 놓고 있습니다.

박0정 저는 혼자 산지 한 12년~13년 정도로 꽤 오래됐어요. 경상도에 살다가 어렸을 때 서울로 상경을 해서 하숙생활을 오래 했고요. 중간엔 동생이랑 함께 살았던 적도 있어서 온전히 혼자 아니었지만 지금 다시 혼자 살게 된지는 1년 정도 됐고요. 도봉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졸업한지는 오래 됐어요.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재취업을 해야죠.

유0라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고요. 이 동네에서 산지는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대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언니와 같이 살았는데, 언니가 외국으로 가는 바람에 혼자 산지는 5년 정도 되었어요.

진행 그럼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서울에 혼자 사는 건가요?

유0라 부모님이 지금은 강원도에 살고 계시지만, 아빠가 군인이시다보니 이사를 많이 다녀서 고향이랄 게 딱히 없어요.

이0영 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서울로 와서 혼자 산지 6년째예요. 지금은 성동구에 살고 있고, 회사는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를 2년 넘게 다니다가 최근 이직해서 다음 달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김0지 포항이 고향인데, 대학 진학하면서 서울에 왔어요. 동작구 대학이 원룸에서 7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이0연 전 신림동에 살고 있어요. 제가 고시 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직장을 그만두면서 들어갔어요. 거기가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이었어요. 거기서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원래는 직장생활을 할 때는 직장 근처에서 혼자 살았어요. 다른 분들처럼 대학에 오면서 혼자 살게 됐어요.

청년 1인가구라 더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향유해요

진행 타 지역에서 살다가 대학진학 때문에 서울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지금 생활비는 본인이 벌어서 쓰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나요?

유0라 아예 지원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일단 전세보증금은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도 직장생활을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생활비는 제가 모아 놓은 돈을 쓰고 있죠.

김0지 1년 동안 인턴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걸 지금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전세금은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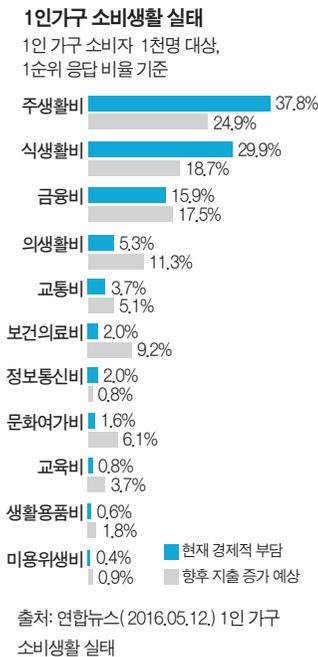
진행 전세금이나 월세 같이 주거비용이 해결되면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비교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좀 생기는 건가요?

유0라 그런 면이 있긴 하죠. 하지만 부모님처럼 같이 사는 친구들을 보면 식비나 주거비가 해결되다보니 오히려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드리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는 대학생이 아니다보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거비가 해결되면 생활비 부담이 줄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우리는 청소나 빨래 등등 모두 스스로 다 해야 하잖아요. 비용이 전혀 안 들진 않죠.

진행 독립해 살 때 가처분할 수 있는 돈이 많은지 적은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라도 달라지겠네요. 그럼 혹시 오늘이나 최근에 하신 문화생활은 뭐가 있었어요?

TV시청, 인터넷, SNS도 문화생활 아닌가요?

유0라 전 요즘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제가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 영화를 좋아해서 다양한 영화를



챙겨 보는 편이에요. 클래식 공연이나 뮤지컬을 보러가진 않지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일화 된 것 같긴 한데.

진행 본인의 문화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가요?

유0라 네. 혼자 있다 보니까 밥 먹을 때 모든 시간에 영화나 음악을 틀어놓게 돼요.

진행 그걸 문화생활이라고 느끼세요?

유0라 글썽요. 강의를 듣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문화생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문화생활이라고 느끼는지 물어보신다면 글썽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진행 뭔가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나요? 예를 들어 무료로 유튜브를 보다가 유료로 영화를 다운받아 볼까 하는 생각이요.

유0라 유료와 무료 콘텐츠 여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제가 만약 영화를 본다고 하면, 영화를 보기에 앞서 그 영화를 해설해 놓은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볼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영화만 보는 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유료로 뭔가 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뭔가 큰 감동이 있었다면 문화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진행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요즘 누구에게나 인터넷, 스마트폰이 중요하잖아요. 혹시 P2P나 토렌트를 사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김0현 네.

진행 (6명 중 안한다는 사람이 1명뿐이자..)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0연 불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접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친구들이 그걸 추천해서 시도한 적이 있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런지 잘 안되더라고요. 포털사이트에서 영화를 천원 2천원 내고 다운받으면 한글자막도 깔끔하게 나와요. 친구들이 다운받는 걸 보니까 한글 자막도 따로 해야 하고 복잡해서 차라리 1,2천원 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0현 제 생각에 요즘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범위도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유튜브 시청 같은 걸 문화

생활이라고 안치면 아예 문화생활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요즘 사람들이 무료 영상 콘텐츠를 보는 것조차도 문화생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행 예술, 공연 관람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여행도 문화생활일 수 있겠네요. 그럼 혼자 살 때랑 다른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살 때랑 문화생활에 차이점이 있나요?

이0연 문화생활을 선택할 때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3-4년 전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함께 영화를 자주 보러갔는데, 제가 돈을 내더라도 부모님 취향에 따라서 영화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영화표를 계산해주시면 좋긴 하지만요. 혼자 사니까 영화도 제 마음대로 골라 볼 수 있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진행 문화생활을 할 때 누구와 함께 가는지, 누구의 취향으로 결정하느냐 문제도 중요한데 1인 가구는 그런 점에서 좀 자유롭겠네요. 그럼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문화생활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김0현 어려움은 없어요. 1인 가구니까 더 편하고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행 아까 일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충분한가요? 혼자 살면 쉬는 날 빨래도 해야 하고, 일상에 매여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질 것 같은데요.

이0영 저는 여가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물었을 때 학교나 직장의 강제적 업무를 뺀 모든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일상적으로는 정말 여가 시간이 적어요. 예전 직장이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10시에 출근해서 정말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집에 오면 자야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도 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TV 보는 것까지 전 정말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저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을 다 여가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밥 먹을 때 아니면 뭔가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하니까요. 그런 시간까지 문화시간이라고 해야 뭔가 자신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행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갖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럼 그걸 도와줘야 하는 게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인 가구가 물론 시간도 부족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깐요. 이런 분들을 위해 잘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0영 그런 경우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 했듯, 여가시간이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정말 좋은 걸 봐야 잘 보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공연을 봤을 때 돈을 더 주더라도 그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공연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IPTV나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는 게 저에게 더 큰 효용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뉴스레터 같은 걸 보면 사실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게 많아요. '저 배우가 연기를 잘 할까?', '노래를 잘 할까?'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아야 저도 기분 좋게 공연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잘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진행 요즘 IPTV 콘텐츠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게 독려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이0영 네. 전 정말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저렴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공연하는 사람의 수준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더 보게 되는 이유도 영화가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문화 콘텐츠는 아직까지 영화만큼의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끔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질이 높아져야 사람들도 비싸더라도 자기 돈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진행 혹시 이0영님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하하)

이0영 아니에요. 제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니까 밥 먹는 거나 옷 사는 걸 즐기고 그런 문화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했어요.

진행 저희 서울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보면 20대 문화열광족이 좋아하는 문화콘텐츠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혹은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다는 건 취향이 쌓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 같거든요.

김0지 저는 고향이 시골이라 문화생활 관련한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TV 보는 것도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공연이나 전시를 보겠다는 이런 열망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문화생활을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데,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안 보거든요. 영화든 공연이든 정말 재미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보는 편이라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문화행사 참여로 내가 사는 지역에 애정이 생겼어요

이0연 전 재미있는 걸 찾는 게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고시촌에 살게 됐는데 딱 한 가지 이유가 돈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애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애정이 생긴 게 고시촌 영화제 때문이었어요. 고시촌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같이 카페나 청소년회관에서 상영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거든요. 동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흥미로울 것 같았고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고시촌이 깨끗한 동네도 아니고 되게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즐기며 영화 보고 맥주도 마시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최근 들어 가장 재미있었던 경험이었어요. 혼자 영화를 보거나 비싼 뮤지컬을 봤던 때도 재미있었지만, 저랑 관련된 지역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랑 보는 것도 충분히 즐거웠어요.

진행 저희가 최근에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기존처럼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고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0영 제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성동구에 있는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공연장 주변 동네에 호기심을 갖게 됐고, 결국 이사 오게 됐어요. 어린이 공연 중에서 작품성이 있고 어린이들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공연을 올렸을 때는 제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과연 주민들이 이것 좋아할까 싶은 공연도 있었어요. 그렇게 큰 공연장을 만들어 놔는데 좋은 작품이 많이 공연되지 않으니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좋은 공연을 많이 올렸을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때 왔던 관객들이 다른 공연도 보러 오는 걸 저는 일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얼마 뒤 선거철이었는데 공연장을 확장한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외연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많은 거 같아 그때는 좀 의문이 많았어요.

유0라 저는 아까부터 문화의 경계가 어디인지 고민돼서 계속 말을 못하긴 했는데



데요. 항상 문화생활에 관심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뉴스레터를 많이 보는데 정형화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매월 보는데 내용이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얘기하신 거에 다 동의하거든요. 하나 달랐던 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문화가 있는 수요일' 행사는 좋았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평일인데 꼭 뭔가를 해야 할 거 같은 마음이 들어요. 퇴근할 때 영화라도 혼자 가서 보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나라에서 시민들에게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냥 안 보고 지나갈 수 있었던 영화인데 '그냥 한 번 보지 뭐.' 하면서 또 다른 걸 보게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광진구 문화예술회관에서 플랏을 배우고 있거든요. 플랏 레슨 받는 게 문화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진행 레슨을 받으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발표회도 같이 하나요?

유0라 그런 건 안 해요. 그 동네 살면서 수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영상 매체로 얻는 만족도가 큰 반면, 플랏 레슨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한 거라 가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문화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진행 그럼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활동을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이 볼 땐 플랏 연주가 음악, 예술 활동인데 왜 유0라 씨는 문화생활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동도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문화생활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게 문화생활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싼 공연을 보러 가야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문화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이게 과연 문화생활인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0라는 원래 학교 다닐 때 플랏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0라 아니요. 전 체육활동을 좋아해서 등산, 수영, 요가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음악이나 미술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관을 가도 재미있는 걸 모르겠고... 그래서 미술이랑 음악 중에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음악이 아닐까 해서 의무감으로 시작한 거예요.

진행 그럼 우리는 왜 문화생활을 할까요? 문화생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유0라 스스로를 키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좀 더 제대로 즐겨보고 싶기도 하고요. 클래식을 들어도 잘 모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면 도

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 클래식 공연도 보러 가시나요?

유0라 한 번 정도 본 거 같고요. 그것보다 유튜브로 플랏 독주 같은 것도 들어보고 해요. 여러 음악 중에 플랏은 어떻게 들리나 유심히 들어봐요.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런 감각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 같아요.

진행 문화생활을 하는 목적이나 계기는 뭡까요?

이0연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영화라도 안 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전 그래서 영화를 보기도 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데 공통점을 찾기 어렵잖아요. 같은 영화를 봤으면 그걸 계기로 얘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진행 그럼 결국 문화 자체를 위해서보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위해서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네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박0정 저는 일상을 잊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상이 무료하고 지쳐있을 때가 많은데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영화잖아요. 영화관에 가면 그 공간이 주는 아늑함도 있고,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영화관에는 정말 자주 가요. 전지도 영화관처럼 나의 일상을 놓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이나 미술관에 자주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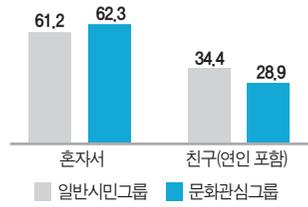
진행 누구랑 같이 가세요?

박0정 혼자 가요. 같이 가면 좋은데 취향이 잘 안 맞아요. '난 별로야.' 이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나 기사로 영화 정보를 알아보다가 GV라고 관객과의 대화 이런 데도 찾아갔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혼자 즐기다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고, 감독과 배우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요.

진행 혼자 가지만 거기서 누군 만난다는 건가요?

박0정 만난다기보다 공유하게 되죠. 나와는 다른 생각을 얻을 수 있어요.

진행 1인 가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사회적 욕망 때문에 문화생활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생각했었는데, 박0정씨한테는 해당되지는 않겠네요.



1인 가구의 여가활동 동반자 조사결과
일반시민과 문화관심집단 모두 혼자라는
응답이 60% 이상.
출처: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중
별도분석

박0정 네, 제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GV같은 게 있잖아요. 전시도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오디오 가이드는 지루하잖아요. 가이드 해주는 사람을 통해 작품 설명을 듣고 싶어도 혼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항상 단체 위주라서 그냥 혼자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극은 비용부담도 크고, 제가 만족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진행 혼자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나홀로족이 문화활동을 할 때는 뭔가 연결되고 싶은 사회적 욕망이 있을 것 같다고 가정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자꾸 억지로 그룹 지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결혼하고 싶은 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파트너를 만나거나 외롭게 사는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처럼, 1인 가구도 사회적 연결을 위해 문화생활을 한다는 가정을 세워봤거든요. 아닌가요?

나홀로 문화예술활동,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봐요

이0영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전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서 문화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모임을 한다든지,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작은 모임을 주변 사람들끼리라도 만들어서요.

진행 직접 모임을 만드셨나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해주는 업체도 있던데.

이0영 아니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 받아서 같이 영화를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책을 읽거나 해요. 그걸 해야 일상생활이 만족스러울 것 같아서요. 맨날 회사 사람이나 학교 사람들만 보니까,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특히 친구랑 갈 때 취향 때문에 많이 고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일상에서 큰 고민 중 하나였거든요. ‘혼자 즐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나와 취향 맞는 사람과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싶었어요.

진행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끈끈한 만남이 아니라 그냥 알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가요?

이0영 네 같이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진행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끈끈하고 깊은 만남을 염두에 두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문화활동의 목적이라

는 거죠? 많은 것을 배우네요. 유0라님은 아까 플랏을 배운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시나요, 아니면 일대일로 하시나요?

유0라 플랏은 그룹으로 배우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게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수영수업에서는 함께 뭘 하자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행 플랏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는 걸 희망하세요?

유0라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수준이 너무 다르다보니까 제 연습만 하고 가거든요.

진행 혹시 최근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있으세요?

박0정 옛날에 공연수업에 참여한 적 있어요.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아서 기타, 수영도 배웠고 시립미술관에서 하는 시민프로그램으로 수채화도 배웠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개인이 운영하는 아카데미나 학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진행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게 일반적인 패턴일까요, 아니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독특한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2-30대이기 때문에 다른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봤을 때 특별한 게 있을까요?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생활의 계기나 방법 중에 혼자 살기 때문에, 혹은 내가 20대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돈이 부족해서 저렴한 콘텐츠를 주로 찾아요

이0영 20대, 특히 1인 가구들은 확실히 돈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의 범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영화티켓 값도 이제 1만2천원, 1만5천원 이렇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학교나 작은 독립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자주 봐요. 집 앞에 CGV가 있어도싼 곳을 선택하고, 공연도 몇 십만 원짜리 뮤지컬을 보는 것 보다 1만원에서 1만5천원 공연을 자주 선택하게 돼요.

진행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공연이 퀄리티가 좋나요?

이0영 그게 안 되니까 IPTV를 이용해요. 그 정도 가격에 좋은 질의 공연을 보기 어려우니까요. 제 형편상 그렇게 비싼 공연을 보면 다른 데서 엄청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 거의 반은 포기한 상태예요. 차라리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월 5천 원씩 내고 영화를 보는 게 일상에서 훨씬 중요한 문화생활이에요. 나

머지 전시회에서 이삼만 원을 지출하고, 몇 십만 원짜리 공연은 나중에 취직하면 보자는 생각에 거의 포기하죠.

진행 그럼 공공기관이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싸게 해주면 좋겠네요.

이0연 꼭 퀄리티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걸 찾기가 어려운 게 문제예요.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유0라 1인 가구가 연결되고 싶어서 문화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회사 끝나고 강남역 쪽에서 영어회화 모임도 참석하거든요. 꼭 1인 가구만 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요. 영어회화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소개하고 교류하는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등산 같은 경우도 2-30대 동호회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도 가서 보면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진행 사실 관람 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티켓을 산 뒤, 앉아서 보다가 끝나면 나와서 집에 가다보니 동선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문화 관람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반적인 관람 형식이 아니라, '작가와 대화' 같은 건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뭔가 함께 공감대를 갖고 본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알지만 연결됐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동호회에 가입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예요.

김0현 전 사실 영화관을 자주 가게 되거든요. 종로에 있는 서울아트시네마를 가면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어요.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는 안 하지만 저 사람도 이 영화를 보러 왔구나, 계속 인지를 하거든요. 얇은 인간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경우도 거기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안면 익히는 게 좀 빨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도 이 영화를 보러왔네, 뭘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뭔가 아는 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행 인간이 어쨌거나 사회와 연결되고 싶은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촛불집회를 가도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훈훈한 정서가 있잖아요. 사실 문화활동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주장 하기도 하죠.

김0지 저는 집에서 계속 혼자 있으면 혼잣말도 많이 하거든요. TV 보다가 '정말 웃긴다!' 그러면서요. 여자들은 특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혼자 살면 하루에 말

해야 하는 양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게 힘들긴 해요. 문화생활 할 때 콘서트나 락 페스티벌에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알지도 못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같이 군중 속에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야 문화생활을 한다는 주변 인식 바뀌었으면 해요

진행 여기 말씀 들어보면 경제활동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고, 다시 뭔가를 준비 하기도 하시는데요. 경제활동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둔다, 이렇게 됐을 때 경제적으로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것 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김0지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뉴스레터를 계속 받아보면서도 예전에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는 확인조차 안 해요. 보러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누군가 티켓을 줘서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생겨도 '난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이렇게 맨날 놓고 있구나.'하고 죄책감 같은 게 생겨요. SNS에 글을 올리면 '애는 정말 걱정이다, 취업할 생각이 없나봐.'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거 같기도 하고요. 문화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진행 문화가 곧 여유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도 문화생활을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네요.

이0연 전 오히려 일을 그만두고 남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돼요. 아까 수요일마다 할인해주는 거, 예전에 일을 할 때는 퇴근 후 영화나 간단한 공연을 보러 가도 가족들이 별 말을 안했는데 지금은 주위에서 '너 뭐 하나. 20대 후반인데 결혼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일을 할 때는 핑계거리가 많았는데 일을 안 하니 핑계거리가 없죠.

진행 근데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연 보는 걸 다른 사람에게 꼭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SNS 때문에 그런가요?

이0연 저는 SNS에 제 일상을 올리지는 않는데, 통화를 하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뭘 봤는데 재미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너 언제 보러갔었냐?"는 식의 대답이 많이 돌아왔어요. 부모님도 그렇고요.

진행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꿔주는 게 서울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겠네요.

여유시간이 많아지면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즐겨요

이0영 전 오히려 회사를 지난 6월에 관두고 7월부터 재취업을 준비할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문화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싼 걸 보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취업준비시간은 제가 고정적으로 학원을 가지 않으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도 다양한 시간에 보러 갈 수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잘 버티려면 내게 문화생활이라는 원동력이라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 자유롭게 열심히 즐겼던 것 같아요.



유럽청년카드연합의 청년 카드. 30세 이하 청년들이 유럽 내 영화,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처: 유럽청년카드 연합 홈페이지

진행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해서 그런 걸까요?

이0영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땐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문화생활을 하기 보다 차라리 먹는 데 돈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시간이 생기니까 다른 여가 생활에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업급여를 더 찾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행 예를 들면 평일 낮에도 이용하고요?

이0영 네.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평일 낮에는 미술관이나 어디를 가도 조용하잖아요. 그런 여유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주말에 줄 서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좋았어요.

진행 혹시 문화누리카드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박0정 처음 들어요.

진행 문화 바우처인데요. 문화부에서 따로 차상위계층에 한 가구당 5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카드를 줘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줄 때 지자체나 정부든 문화 바우처 같은 걸 써서 준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문화누리카드 대상으로 청년 1인 가구를 포함하지는 건 아니고요.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정부든 지자체든 실업 상황이나 구직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형태가 된다면 어떨까요? 한편으론 그런 거 줬잖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요인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차피 활용을 안 할 거라는 의견도 있겠고, 그게 있으면 쓰겠다는 의견도 있겠고요. 그냥 한 번 여쭙보는 거예요. 바우처는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카드를 서울시에

서 기획을 한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에 가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김0지 좋을 것 같아요.

김0지 오히려 그게 있으면 정당화 될 것 같아요. 나 이거 받아서 쓴다고요.

진행 다 긍정적으로 보세요?

유0라 네. 요즘 통신사랑 연계된 영화 할인이 많잖아요. 웬만하면 할인받아서 하게 되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할인되는 게 있다면 '어, 싸이지.' 하고.

이0영 그리고 그런 혜택이 있다면 문화예술 관련 학원을 다닌다거나 다른 취업 연계활동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박0정 저는 캘리그래피를 최근에 두 달 정도 배웠어요. 어렸을 때 못했던 욕구가 있어서 성인이 되면 다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내가 잘 하는지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업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너무 비싸요. 저는 그래서 내일배움카드라고 근로자카드를 이용해서 들었어요.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근로계약서만 입증되면 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2-300만 원정도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걸 자기 시간에 맞춰 컴퓨터라든지 액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캘리그래피가 그나마 취미 관련된 강좌고 다른 건 다 자기개발 프로그램이에요.

진행 우리가 실업보험료를 낼 때 거기 직업교육이 포함돼 있어요. 근데 문화 여가와 관련된 건 없군요. 예를 들어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에 화술이나 인터뷰 기술, 연극 교육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문화시설, 청년층 위한 문화프로그램 부족해

진행 서울, 수도권에서 보면 공연장 빅5가 있어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시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광나루라든지 그런 데서 공연이나 전시회를 1년 내에 관람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0현 전 백남준 아티스트를 좋아해서요. 경기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백남준아트센터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엄청난 걸 하

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나하는 생각도 들었고, 돌아오는 길에 차도 많이 막히니까 왜 보러갔는지 회의감이 들었어요. 가서 만족했는지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체력소모가 너무 크니까 다시는 못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나치게 멀거나 교통편이 나쁜 곳에 위치해 있으면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가까운 데를 주로 이용해요.

유이라 혼자 하는 활동에선 가까운 게 중요하거든요.

박이정 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멀더라도 찾아서 가요. 계속 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바를 했는데 서촌에서 했거든요. 그 쪽에 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더라고요. 박노수 미술관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2천 원 정도. 또 여관을 개조해서 하는 전 시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관심이 가면 멀어도 다 찾아가요.

진행 사실 찾아보면 주변 가까운 곳에 문화를 즐길 곳이 많은데 질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대학로나 중심가로 나와야 할 것 같고, 동네 문예회관 가면 질이 낮을 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있는 문화 컨텐츠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만큼 열심히 정보를 안 찾는 건 아닐까요?

유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진행 독일에 음대가 많은데, 음대 졸업할 때 연주회를 초등학교 광장 같은 데서도 해요. 그럼 피아노 독주회든 성악이든 거기 동네 주민들이 와서 많이 들어요. 나름대로 졸업연주회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했겠죠. 물론 유명하지 않은 예술가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구나 가족들만 가죠. 만약 독일처럼 가까운 교회 강당이나 동네 회사 강당에서 졸업연주회 같은 공연을 한다면 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유이라 전 광진구 정보도서관에 자주 가요. 거기에선 연주회나 여러 가지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좀 해요. 제가 다 참여하진 않지만, 뭐가 있는지 염두에 두고 내가 관심 있으면 가서 보기도 해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센터도 있고 정보도서관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항상 콘텐츠가 주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보는게 많아요. 과연 20-30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이현 전에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의 독주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진짜 다 아는 사람만 온 거예요. '나는 왜 이걸 듣고 있나.' 퀄리티를 떠나서 다 아는 사람만 와 있으니까 자리도 불편하고 빨리 떠나게 됐어요.

진행 예술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오히려 벽을 치는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하죠.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졸업 연주회를 하면 가서 듣고 좋다고 박수를 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음악을 몰라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된 동아리 있다면 참여하고 싶기도 해

진행 혹시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김이정 동아리도 이상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남자분도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하고 싶어도 신청하기를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진행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검증 안 된 동아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김이정 지역에서 하는 동아리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진행 사실 모든 모임들이 때론 정치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죠.

이이연 여자라서 겁나긴 해요. 소모임이라는 앱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추천을 해서 그 앱을 다운받았더니 동호회 종류가 많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너무 반대를 해서 못 들었어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무섭긴 한데, 그래도 교류를 하고 싶은 욕심은 좀 있어요.

진행 서울문화재단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건전한 곳으로 검증이 된다면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이이연 네. 그렇겠죠.

디자인 개선, 시민과의 소통, 청년 위한 프로그램 필요해

진행 마무리를 할까요? 혹시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서울시 에 바란다, 하는 점 있을까요?

유이라 요즘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정말 많고 뛰어나잖아요. 뉴스레터를 보낼 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같이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사람들이 확인하나 싶었는데 그 뉴스레터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박0정 서울시 뉴스레터는 디자인이 좀 예뻐지면 좋겠어요. 일단 다른 미술관이 나 영화관에서 오는 건 좀 예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잘하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거 같아서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0현 저 같은 경우는 문화 캘린더 앱을 제안하고 싶어요. 뉴스레터는 너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오늘 여기 근처에 어떤 공연이 있는지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공공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정보가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이0영 전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나 뉴스레터를 보내실 때 큐레이팅을 좀 3차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정말 2-30대에 맞는 공연을 추천해준다든지...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가족 대상이라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정말 2-30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세밀하게 타깃을 잡아서 만드는 게 수익이나 관객을 늘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 행 공공은 거의 습관적으로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 같네요.

이0연 고궁 입장이 만 26세 미만은 무료거든요. 제가 고궁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넘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고궁에 한복 빌려서 입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최근 야간 개장 할 때도 한복 입으면 무료라고 해서 2만원을 주고 빌려입고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진 행 그럼 무료입장 연령을 올려줬으면 하는 건가요? 보통 문화부에서 청소년을 기준으로 할 때 만 25세로 하거든요. 학생할인 하면 대학생하고 같은 나이에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만25세까지는 청소년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이0연 공짜로 들어갈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하하)

진 행 왜 2-30대를 겨냥한 공공 마케팅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사실 2-30대는 특별히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굉장히 문화생활을 활발히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아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취업 준비, 소득이 낮다, 어떤 안 좋은 조건이라도 다른 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활발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건 2-30대가

생각하는 문화활동의 범위가 넓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또한 2-30대는 조금만 더 지원이 뒷받침되면 훨씬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오늘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30 청년 1인 가구

2030 혼족 청년을 만나다(2)

학생 그룹(대학생, 대학원생)

- ◆ **일시** 2016. 12. 27.(화) 18:00
- ◆ **진행**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장0희 : 20대 여성, 대학생(아르바이트), 동대문구 거주
 2. 차0영 : 20대 여성, 대학생, 동대문구 거주
 3. 이0인 : 20대 여성, 대학생, 서대문구 거주
 4. 이0영 : 30대 여성, 대학원생, 강서구 거주
 5. 한0나 : 30대 여성, 대학원생(아르바이트), 경기도 거주
 6. 장0진 : 20대 남성, 대학생(아르바이트), 동작구 거주
 7. 김0영 : 20대 남성, 대학원생, 관악구 거주

요약 정리

문화활동 범위에 대한 생각

- 일에서 벗어난 모든 활동을 여가이자 문화라는 의견부터 문화활동은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즐기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다양
- 예술성 있는 콘텐츠 감상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까지도 문화활동으로 여기기도 함
- 집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도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나, 청소나 설거지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는 것은 문화생활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문화활동의 목적

- 스트레스 해소, 일상의 무료함 해소, 재미를 위해 문화생활을 함
- 다른 사람들과 공통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하기도 함
-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한 목적도 상당부분 차지하며 특히 일반적인 남성들은 문화활동의 주목적이 되기도 함. 대부분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는 편임
- 경제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예술 콘텐츠를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직접 예술 창작을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음

문화활동의 특성 및 장애요소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 많아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부담을 크게 느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찾아서 활용하는 편임
- 문화생활의 참여정도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없는 것 때문은 아니며 개개인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는 의견
- 1인 가구는 시간활용의 자율성 때문에 문화생활 선택도 자유로움
- 문화생활을 하는 장소와의 거리가 선택의 중요한 요소임. 거리가 시간이나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며, 특히 이동에 대한 시간이 아까움
- 특히 공연은 관람 후 늦은 시간일 경우 많아 귀가에 대한 부담 큼
- 경제적·시간적 여건 개선 시 관람보다 참여형 문화생활을 하고싶다는 의견도 있음

동호회 활동 및 지역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애로사항

- 학교동아리는 소속감이 있는 대신 의무감, 강제성이 있는 반면, 사회에서의 동호회나 소모임은 같은 취향을 가진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단발성이거나 비강제성이라 자유롭고 편한 편임
-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동호회 가입 꺼리기도 함
- 지역 문화 시설이나 자치구 축제는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청년들이 참여할 프로그램 부족하다는 의견

기타 공공 문화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제안

-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이 양적으로 많이졌으면 함.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 서울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문화적 기회에 편차가 크다고 생각됨. 지역별 기회균등을 고려해주었으면 함
- 아마추어동호회 지원에서도 예술성에 중점을 두는 편으로 보임. 스트리트댄스 등 좀 더 대중성 있는 장르나 분야에도 지원확대 필요
- 시민동호회 지원 시 조직화 된 동호회를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단발적인 모임이 더 많은 편임. 단발적 모임도 지원해주었으면 함

수다 기록

10년 전과 비교해 25~29세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었음을 알 수 있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단위: %, 명)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평균 가구원 수	
25~29세	2003	100.00	40.43	28.69	28.53	2.36	2.07
	2010	100.00	50.25	31.49	16.98	1.27	1.75
	2014	100.00	60.43	21.77	17.30	0.49	1.62
30~34세	2003	100.00	12.63	16.78	62.36	8.23	3.07
	2010	100.00	21.81	27.57	46.20	4.42	2.57
	2014	100.00	26.80	23.99	45.74	3.46	2.44
35~40세	2003	100.00	5.35	7.05	73.42	14.19	3.66
	2010	100.00	11.54	13.48	64.67	10.31	3.27
	2014	100.00	16.41	16.16	59.98	7.44	8.97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각 연도); 이수욱 등(2015) 개인용.

진행 안녕하세요. 2030 1인 가구인 분들을 모시고 문화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특히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신데요. 학교와 같이 소속이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사시는 곳이나 아르바이트 여부, 혼자 살지만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장희 저는 대학교에 좀 오래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친구들이 '엄모나이트'라고 하는데, 내후년 졸업이 목표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살고 있고요.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어요.

차영 저도 대학생, 졸업예정자입니다. 수원 출신이고, 통학을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졸업하면 서울을 떠날 예정이에요. 지금 아르바이트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수원 본가에 자주 들르는 편이고, 경제적으로는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인 대학생이에요. 저도 학교에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생활비를 해결하기는 하는데, 부족하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손 벌리기도 해요. 집은 대치동이지만 통학이 너무 힘들고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이영 저는 대학원생이고요. 원래 고향이 대전인데 20살 때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사실 집을 떠나 산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생활비를 아끼려고 친구들과 같이 살거나 고시원에서 살고, 친구 언니와도 살고요. 지금 제 공간에서 혼자 산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얼마 전까지 일을 해서 경제적인 것은 제가 부담했는데, 지금은 일을 쉬고 있어서 그 전에 벌어들인 돈을 까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재택근무나 과외 같은 것도 했었고, 한두 장짜리 짧은 글 같은 건 프리랜서로 일이 들어오면 작업해주고 그런 식으로 일 했어요.

한나 저는 원래 집은 서울이지만 회사가 멀리 있어서 독립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서울의 복잡함이 싫어서 역으로 경기권으로 직장을 다녔어요. 경기도에 살면서 주말에는 서울에 와서 문화활동을 즐기는 편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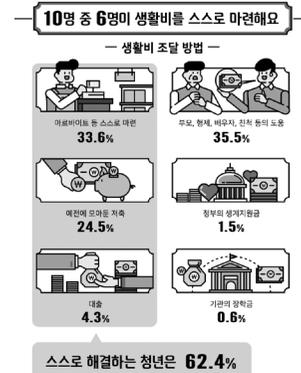
김영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고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인데, 본가가 이사를 해서 지금 성남시 중원구 쪽에 있어요. 그래도 학교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전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주말에 본가에 갈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어요.

장진 저는 대학생인데 아는 분 사업을 도와드리면서 간단하게 서류 정리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2009년에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군대갔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5년 정도 혼자 살았네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지방에서 올라와서 실제 혼자 자취하는 분들과 주말에는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경우, 이렇게 구분될 수 있네요. 최근에 한 문화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장진 클림트 전시회에 갔어요. 자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동안 벌여놓은 돈으로 약간의 사치를 부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문화생활비 충당이 힘들어요



2017년 조사에서 경기도 청년 10명 중 6명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진행 혼자 사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장진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런 면에서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과 혼자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생활비를 제 스스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 범위가 많지 않거든요. 문화를 최하위 순으로 올려놓게 되니까 대부분 선택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진행 그럼 왜 돈이 없는데도 문화생활을 하는 걸까요? 부모님 댁에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은 적지 않나요? 어떠세요?

차영 솔직히 제가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취미가 공연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공연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싫어하셨는데 혼자 사는 지금은 (문화시설이 근처에 있어서) 집에 돌아와도 시간이 그렇게 늦지도 않고

요. 지출에 대해서 간섭을 덜 받으니까 자주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 생활비는 부모님이 주시는데 문화활동에 대해 돈 쓰는 걸 뭐라고 안 하세요?

차0영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생기는 비정기적인 수입은 다 제 개인 용돈이라서 그걸 쓰거나 이벤트 참여를 정말 많이 해요. 이벤트로 무료 티켓이 생겨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가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장0희 저는 한 2주 전에 사진전에 갔다 왔어요. 사실 돈이 드는 것보다 무료로 된 걸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박노해씨는 거의 무료로 전시를 많이 하셔서 주기적으로 보러 가고 있어요. 무료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전 대전이고 향인데 지역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대전에서는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지방보다 무료 문화활동의 기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진행 혼자 사는 사람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유튜브 보는 거잖아요. 젊은 층에서는 영화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봐도 문화활동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0영 전 사실 집에 TV 없이 산지 오래 됐어요. 유튜브는 잘 보지 않고, 그 시간에 주로 책을 읽어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하죠. 저희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좀 가면 한국영상자료원이 있어요. 거기서 옛날 영화를 복원해서 틀어주거나, 제가 못 봤던 걸 재개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무료거든요. 또 집에서 10분 정도 가면 일반 영화관도 있어서 심야나 조조로 영화도 봐요.

한0나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 바쁘다보니 여가생활을 자주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법이지만 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죠. 그것도 하나의 문화 활동이 됐고요. 사실 회사 일을 벗어난 모든 활동이 전 여기고 문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문화생활이 바로 컴퓨터로 영화를 다운받아 본 것이에요. 유튜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0영 제가 최근 즐기는 여가 활동 중엔 유튜브 시청도 있네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보고요. 게임도 하고, 춤추는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

진행 시간 날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짬짬이 하는 여가 생활과 문화생활에는 좀 간극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여가 생활과 문화생활은 같다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는 사람도 있어요.

장0진 혼자 살면 유튜브를 통해 뭔가를 볼 때 가만히 앉아서 보진 않는 거 같아요. 집안일을 하면서 본다든지, 빨래를 개면서 본다든지 하니까 그걸 딱히 문화생활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전 한 달에 한 번, 정 안되면 세 달에 한 번이라도 전시회든 영화관이든 가서 뭔가를 즐기는 편이에요.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즐기는 것이 문화생활이지, 집에서 영화를 다운받아서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봐도 딱히 문화생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진행 그럼 진짜 충분한 문화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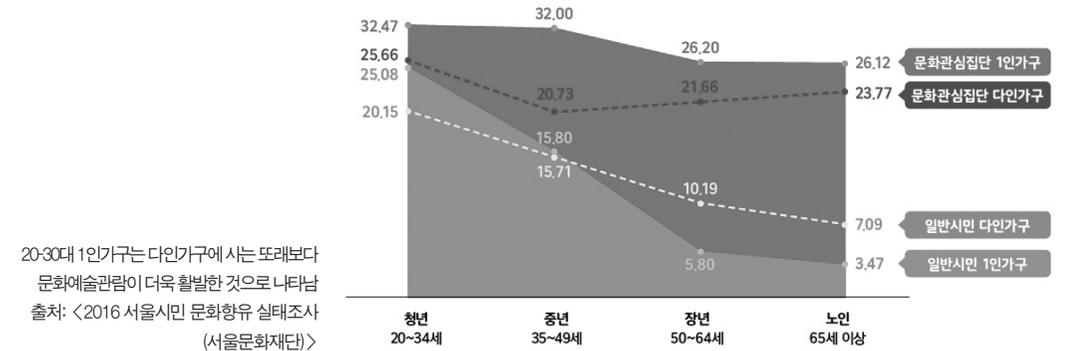
장0진 그렇진 않아요.

진행 왜 그럴까요?

김0영 취업준비생 입장이라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2-3대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어쨌든 취업이잖아요.

진행 아까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래나 청소 같은 기본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이0인 저도 동의하긴 하는데 집안일을 해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문화생활을 못 했던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밖에서 영화보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하면 돼서 그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더 제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예요. 물론 제 경우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가족들과 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나 오늘 공연 볼래' 하며 혼자 나가기 좀 눈치가 보여요. 그렇다고 가족이 모두 공연을 보러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이나 1인 가구 직장인의 경우엔 사실 문화생활하기 힘들어요. 집안일도 있고, 회사일도 다 있으니까요. 학생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직장인들은 옷 입고 회사도 가야하고 집안일을 다 해놓아야지 다음 한 주가 시작되거든요. 또 집에서 쉬기도 해야 하나까 시간적으로도 힘들죠. 경제적인 사정은 각자 다르니까 또 다른 이유로 힘들 수도 있고요.

모임을 통해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요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관계 만들기 등 문화생활 이유 다양

진행 어떤 이유 때문에 문화생활을 하시나요?

장0진 그냥 스트레스 해소가 가장 크고요.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모여 파티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한다면, 서로 모르는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놀아본 적도 있어요.

진행 그 사람들이 같이 파티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일까요?

장0진 그때는 모임의 취지가 있었거든요. 바쁘게 살아가느라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고 사는 팍팍한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모임을 연결해주는 사이트 '온오프믹스'를 통해서 사람을 모집했거든요. 28명 정도 왔어요.

진행 요새 그런 게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말은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산다.'는 말은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 같기도 했는데, 실제로 젊은이들이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나 봐요. 젊은 분들한테도 그런 사회적 연결 욕구가 정말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0영 저도 '온오프믹스'를 통해 모임 같은 곳에 나가본 적도 있어요. 요즘은 시간이 안 나서 잘 안 나가긴 해요. 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성향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사소하게는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라 두렵기도 하지만, 한 번 만나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진행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인데 괜찮으신가요?

이0인 '오늘 같이 모여서 뭐 보러 갈 사람들 모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긴 정말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 직장인,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매주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동아리 모임이 예요. 정말 독서 좋아하는 거 하나만으로 다른 조건은 상관없어요. 함께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이 학교 동아리랑은 좀 다르네요.

진행 요즘 학교 동아리 잘 안되지 않나요?

장0희 저는 사진 찍는 게 취미라 온라인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과 스팟을 정해서 출사를 나가거든요. 학교에 사진 동아리가 있긴 한데, 동아리는 소속감을 요구하고 주기적으로 활동하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야 동아리가 유지 되고 다음 해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니까요. 근데 출사모임은 단발성으로 모집하고, 그날만 잘 놓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으면 또 다음번에 만나기도 하고요. 좀 더 자유로운 만남이라 좋아요.

진행 취향을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모임으로도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적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문화정책에서는 '문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사회적 소속감에 대해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요. 결혼을 일찍 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하죠. 요즘 대학에 가면 개인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회적 연결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겠죠. 그럴 때 스포츠나 종교, 문화활동이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런 걸 찾고 싶는데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나요?

장0진 요즘은 워낙 인터넷에 정보가 많다보니깐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지쳐가요. 1, 2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다보니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직접 발로 다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가 다 인터넷에 있고요. 독서 모임이라든지, 교육강좌 같은 것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장0희 저는 학교 동아리와 개인적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동아리로 사람들을 좀 더 깊게 만나는 편이에요. 같은 학교에 있다는 것 자체로 소속감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것과는 별개로 내 관심을 공유하고 싶을 때 단발적 모임을 갖는 편이에요.

진행 문화생활이 어떤 활동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는 왜 서울 문화재단에서 안 해주지? 문화정책이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이0영 딱히 문화정책이 뭔가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건 없어요. 음.. 그냥 저는 잡지사에 근무하는 친구 덕분에 초대권으로 공연과 연극을 많이 봤는데 친구가 잡지사를 그만두면서부터 비싼 티켓을 스스로 구입하기가 어려워 공연과 좀 멀어지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 정말 가고 싶어도 3-5만원 을 넘지 않는 선으로 가게 돼요.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 할인이 많았지만, 대학원생 할인은 없기 때문에 학부 학생증을 가지고 다녀요. 깐깐하게 확인하지 않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혜화동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은 집에서 멀어서 잘 안가요.

진 행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는 있는데 멀리까지 마음을 내서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이0영 네 솔직히 시간이 아까워요.

진 행 문화활동은 누구하고 같이 하는지도 중요하고, 사람들과 뭔가를 공유한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주로 혼자 하시는지, 아니면 누구와 같이 가시나요?

이0영 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임을 굳이 찾지는 않아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한 공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걸 찾지 않아도 “이 영화가 새로 나왔대,” “이 책이 새로 나왔대,” “같이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말 보고 싶은데 뜻이 맞지 않은 건 혼자 다니기도 해요.

진 행 근데 가족과 같이 살면 문화활동을 할 때 가족들과 함께 가나요?

이0영 같이 가면 좋지만, 어른들과 같이 가게 되면 영화를 보더라도 지막이 없는 한국 영화 위주로 보게 돼요. 엄마랑 동성애 관련된 연극을 보러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하고 볼 때는 별 스토리 없는, 몸으로 이것저것 해주는 묘기 같은 걸 주로 보게 돼요. 할머니랑은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고요. 내 취향을 반영하기 어렵죠.

한이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다니다가도,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갔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왠지 함께 문화생활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가장 최근에 본 연극도 엄마랑 봤어요. 그런 패턴이 적어도 여성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은 모르겠지만요.

진 행 두 남자 분들은 가족과 같이 문화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의무감을 느끼나요?

김0영 제 주변에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서 가끔 영화관에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막이 없는 것 중에 고르거나, 재개봉하는 옛날 영화를 보러가거나 합니다.

차0영 저 같은 경우엔 부모님이 오빠랑 같이 여가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남자 분들도 같은 가족의 일원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 행 어떤 이유로 같이 가라고 하시는 거죠?

차0영 오빠보다 제가 문화생활을 더 좋아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화보다 공연을 더 좋아하거든요. 부모님은 영화관이 가까우니까 오빠랑 영화관에 같이 가라고 가족 간에 유대감을 강요하는 게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저희가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 행 다른 분들은 어떤 이유로 문화생활을 하시나요?

장0희 사실 가족들과 문화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엄마와 함께 가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항상 각자 하는 편이에요. 전시회를 보고 좋은 감정을 나누면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게 싫어요. 문화생활은 각자 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편이에요.

진 행 문화생활이라는 게 여가생활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개인 취향을 깊게 파고든다고 하면 가족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문화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체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적 교류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대중교통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사시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장0희 네, 전 혼자 산지 오래됐거든요. 초반에는 망나니처럼 놀면서 전혀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취준생이라서 사회에 나간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조금씩 가족들이랑 살 때가 그리워져요.

진 행 그걸 해소하기 위해 일부러 동아리 활동을 하시나요?

장0희 네, 사실 가족이 그리긴 하지만 부모님 곁에서 살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친구가 좋을 때라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진 행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김0영 저도 같이 살 때보다 혼자 살 때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오늘 할 일이 없으면 좀 외롭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가족과 살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해소하는 것 같아요.

진 행 친구를 만나면 술을 마시나요?

김0영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진 행 친구들과 만나서 문화활동을 하려고 하면 너무 건전해지나요?

김0영 (하하) 갑자기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 행 꾸준히 평소에 동아리 활동을 해왔어야만 가능하겠네요.

김0영 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아요. 관람이나 감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춤추고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대학교 때 춤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직장인 댄스 동아리에서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진 행 동아리 활동하는데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나요?

김0영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란 게 있으면 부모님을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혼자 살면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니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조금 압박감을 느껴요.

진 행 문화생활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없나요?

차0영 무료 공연이나 상설전시가 의외로 많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아야 그런 정보도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종로에서 면접을 보고 근처 두산아트센터에서 하는 상설전시회를 둘러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이런 것도 하나의 가볍고 간단한 문화생활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종로에 두산아트센터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로에 면접 보러 간 길에 들 수 있었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기회가 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면 심리적 압박이 크니까 찾아보는 시간 자체가 아깝죠. 마음의 부담도 크고 위치가 멀면 꺼려지는 것 같아요. 굳이 멀리까지 가는 건 기피하게 돼요. 또 다른 사람과 같이 가면 그 사람 일정에 맞춰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생기고요.

진 행 그럼 문화생활 하실 때 혼자서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차0영 저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친구들과 같이 가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전문가처럼 어떤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가기 싫어요. 그냥 서로 각자 감상하면 좋는데 뭔가를 원한다면 함께 하기 부담스러워요.

진 행 기본적으로 오늘 좌담회 참석하신 분들은 뉴스레터도 받아보시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문화생활에 관심이 있다고 봐겠지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끼나요?

장0진 일반 남자들보다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여자 분들보다는 아닌 것 같고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하고 역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 주변에선 제가 문화에 가장 많이 관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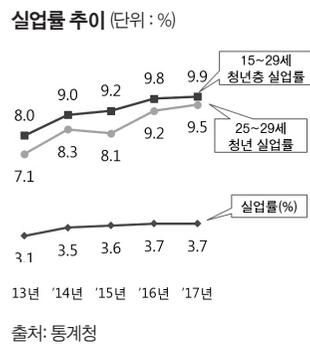
진 행 어떤 점이 다른 남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김0영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장0진 전 옛날에 인터넷으로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예술 관련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예술 작품도 보면 좋겠다.’ 하고 찾아보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진 행 그럼 1인가구는 왜 문화생활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역량 개발을 위해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차0영 20대라면 공감할 텐데, 과제 때문에 박물관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지정해 줄 때도 있고, 어떤 수업에서는 아무 전시회나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을 관람하고 리포트를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어떤 수업에서는 “이촌은 지하철을 안 갈아타고 갔다 올 수 있으니 이촌에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설 전시회가 있다고요. 상설 전시회가 무료인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관심 있어 보이



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거나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이랑 가곤 했어요. 이렇게 약간은 권유를 통해서 문화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0인 저는 재미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문화생활을 왜 하는지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아서 지금 생각해봤는데요. 딱 드는 생각은 재미있고 제가 하고 싶니까 하는 것 같아요.

한0나 저도 재미있어서 하고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외부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기자 활동을 했었고, 대학교 들어와서 명동에 있는 문화교류센터에서 대학생 자문단활동을 했어요. '문화'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데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제 삶에 녹아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연애 할 때 문화생활 빈도가 급격히 높아져요

진 행 얼마 전에 광주에서 문화향유실태조사를 한 걸 보면 2-30대 남자의 특성은 다른 쪽과 좀 달랐어요.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본인이 아니거나 가격에 상당히 예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추정하건대 여자친구에 의해서 문화향유를 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2-30대 여자와는 다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거든요.

장0진 말씀하신대로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와 색다른 걸 경험을 하고, 어떤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문화활동을 하기도 하죠. 물론 선택권은 저한테 없고요. 지금은 연애를 안 하니깐 어쩌다 한 번 잘 차려입고 나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가격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김0영 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을 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가고, 가수 공연 관람은 많이 해요. 저에게 문화생활은 어떤 예술성을 가진 콘텐츠를 감상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 카드게임도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커뮤니티에 전략을 짰 걸 올려서 이야기한다든지,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문화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요. 유튜브에 이런 쪽에 정통한 사람들이 올려놓은 전략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진 행 사실 설문조사할 때도 어디까지 문화생활이라고 여기는지에 따라서 '문화 활동을 얼마나 하십니까?'에 대한 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젊은이들의 문화활동 패턴을 조사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도 문화활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면 해보고 싶은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장0희 극단에서 일반인을 모집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나중에 직장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어요.

진 행 그런 것들은 접근하기 쉬운 편인가요?

장0희 네, 본인의 의지나 용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전보다 기회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한0나 저도 알아봤는데 한 달에 3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는 문화를 잘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는 것들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나 취업이 다 해결되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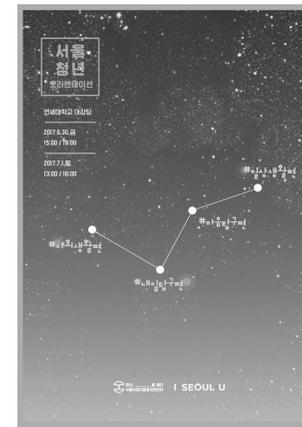
이0인 경제적 시간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는 그냥 관람하는 정도였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직접 참여하고 창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글을 써보고 싶어요.

진 행 예술동아리나 문화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유가 끝나고 술 먹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고, 나중에 전시하는 게 목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적 성취감을 갖고 싶은 경우도 많은 것 같네요. 우리는 지꾸 예술로 사람들끼리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한0나 요즘 모임 찾는 앱이 많잖아요. 대부분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문화를 만들고 마을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30대는 쉽게 정보를 주지 않아요.

진 행 지금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뭔가 선한 목적이 필요해요. '좋아서 노는 모임을 왜 지원하나요?'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연대감을 만든다는 걸 지꾸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0영 학교 동아리는 소속감을 요구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게 개인정보 부분과 연결돼서 거부감이 클 것 같아요. 가족들과 사생활이 단절되어 있는 2-30대들도 많잖아요. 개인을 존중하면서 집단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자발적으로 집단을 만들어야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강제성을 띄고 결과를 요구할수록 사람들의



서울시는 2017년 5천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의지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진행 지금 혼자 사는 동네에서 알고지내는 커뮤니티나, 같이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차0영 전 학교 바로 뒤에 살아서 동네보다는 학교에 소속감이 커요. 주로 동아리 방에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이0영 가족, 친구 말고 동네 자체에 알게 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래층에 살아도 만나면 무서워서 놀랄 정도로 매년 낯설어요. 특별히 돈을 내고 어딘가에 나가서 인사를 나누기 전에는 같이 뭘 해볼 일이 없어요. 문화센터 같은 곳은 낮 시간대에 수업이 많고 또 너무 어머니들만 계셔서 젊은 애가 왜 이리데 왔지 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술동아리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요. 빈도수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참여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진행 서울문화재단이 예술적 성취를 지향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그런 모임을 지원하면 믿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낮에 젊은이가 왜 왔지?”하는 눈길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동아리를 왜 하는지 묻는다면, 아마도 인간이니까 하는 거겠죠.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말이죠. ‘1인 가구는 사회적 연결을 원할 거기 때문에 문화생활이 연결고리가 될 거다.’라는 가설은 조금 잘못됐네요. 2-30대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행 서울문화재단이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있으신가요?

한이나 (재단이 운영하는 공연장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할인이 되나요?

진행 할인은 극장이나 전시회마다 다 다르죠. 대학원생은 거의 안 되죠.

이0영 나이로 24살까지 해주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청소년은 24살까지인데 다른 데서는 만19세, 고등학생까지라고 정의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 데어 오는 혼선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진행 혹시 서울에서 축제를 많이하잖아요. 그런 행사에는 많이 참여해보셨나요?

장0희 성북구에서 매년 라틴아메리카 관련 축제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2-3년째 매년 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잘 안하는 주제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자치구에서 하는 행사는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0영 진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구 행사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는데 타깃 자체가 지역구 어르신들 대상이에요. 그런 건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죠.

장0희 동네에 따라 좀 다른데 성북구는 대학교가 많고, 서대문구나 마포구도 구 자체에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외곽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0인 저는 양재천이나 한강에서 하는 마라톤에 자주 참여했어요. 구에서 하는 건 연령대가 너무 높아서 못 가겠고요. 한강에서 하는 서울시 주최 축제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김0영 9, 10월에 관창은 행사가 많아요. 제가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에 ‘출단’으로 두 번 참가했었고 최근에는 그냥 즐기러 갔었거든요. 하이서울페스티벌처럼 시에서 하는 페스티벌은 보통 믿고 참여하는 편이에요.

진행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아닌가요?

김0영 네, 특히 주변 남자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혼자거나 아니면 ‘출단’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함께 가요.

집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진행 이제 재단이나 시에 제안하고 싶은 것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 할까요?

이0인 전 공공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문화생활은 진짜 거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거리는 시간이나 비용과 관련이 되니까요. 요즘 서울시나 구에서 하는 행사는 자꾸 어떤 지점으로 불러요. 시청으로 부르다거나, 문화센터로 부르다거나 하면 거기까지 가야하는데, 교통이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것만 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근처에 볼거리 놀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가면 딱 건물 하나, 센터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멀리 떨어진 곳에 가는 것보다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차0영 방금 생각했는데, 좀 특색 있는 문화행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2-30대의 눈길을 끌려면 라틴아메리카처럼 굉장히 명확한 주제를 잡아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진심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서 널리

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SNS는 너무 홍보가 많아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다들 판단하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친구가 재미있다, 이걸 특색 있다 하면 같이 가거든요. 요즘 플리마켓이 많은데 정말 다 업자들이고 주제도 똑같은 경우가 많아서요. 공공사업을 할 때 주제와 타깃을 확실히 하고, 소수라도 확실히 마음을 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0인 저는 대규모 사업이 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만 해도 대부분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 삶에 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관심사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대규모 행사를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개최해서 그런 사람들도 경험해보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0영 『문화+서울』 같은 잡지도 더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대학원생 할인이 되면 확실히 더 많이들 볼 것 같아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저에게 10만원이 있는데 A, B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하고 싶은 A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 할인이 적용돼서 둘 다 5만원에 할 수 있으면 A와 B를 모두 할 수 있거든요. 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직접 해봐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아닌 것도 많아서요. 기타도 쳐보고 싶고, 플리마켓도 배워보고 싶은데, 특히 플리마켓처럼 몸 쓰는 건 수강료가 너무 높고 무용화도 8만원 이상이고요. 그런 준비물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아예 리스트에서 빼게 돼요. 확실히 가격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 후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장0희 저희 학교에는 교양수업이 다양한 편이에요. 체육 수업, 춤 배우는 수업, 아니면 어떤 수업은 한 학기 내내 문화 공연만 보여주는 교수님도 계세요. 저는 사비로라도 이 수업 참여하겠다고 해서 같이 공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학생일 때 그나마 풍족하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0나 밤늦게 끝나는 공연이나 콘서트들이 많아요. 근데 혼자 공연보고 집에 들어갈 때 정말 무섭거든요. 교통편이 해결이 잘 안되는데도,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보러가는 거예요. 또 제 친구들 중에는 시력이 안 좋거나 이동이 어려운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친구들은 가는 길조차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준다면 다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김0영 전 지역별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관악구에 사는데 관악구는 문화적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문화를 향유하는데 거리가 중요한 요소인데, 문화 인프라가 다 강북 쪽에 있고요. 강북에 다녀오는 게 꽤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되어 있

는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수요는 강남에 몰려있는데 강북에서만 그런 문화 행사를 하니깐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대중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성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대중적인 걸 원하거든요. '춤단'의 경우 현대무용 선생님들이 거의 그런 안무를 가르쳐주세요. 춤단에 왜 들어왔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경험하는 게 좋아서라고 하지, 안무가 너무 좋아서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중문화에도 그런 순기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트리트 댄스는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한 순기능이 많거든요. 제가 팀을 만들어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받는 걸 신청했는데, 스트리트댄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순수무용을 지원해야 해서 TO가 별로 없다고 했어요. 좀 아쉬웠죠. 젊은 이들은 대중문화 쪽이 수요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장0진 저는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하는 청년수당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떠올랐는데요. 문화 향유에 있어서 비용 부담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문화 지원이 있었으면 해요. 또 문화생활을 할 때 영화나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온오프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동아리를 지원할 때 일정한 규모 이상, 일정기간 이상 운영하는 조직에게만 지원이 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인 모임이 이뤄질 때 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행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040 미혼여성 1인가구

화려한 싱글녀의 문화생활

- ◆ 일시 2017. 3. 28.(화) 19: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이0식 : 40대 여성, 공무원, 은평구 거주
 2. 차0영 : 20대 여성, 대학생, 동대문구 거주
 3. 김0림 : 30대 여성, 디자이너, 서초구 거주
 4. 이0영 : 40대 여성, 창업준비 중, 용산구 거주
 5. 임0우 : 40대 여성, IT디자인, 구로구 거주
 6. 조0연 : 30대 여성, 대기업 근무, 동작구 거주
 7. 김0향 : 40대 여성, IT 기획, 광진구 거주

요약 정리

문화활동 범위에 대한 생각

- 문화활동에 대해 대부분 일상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다만, 그 일상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를 향유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음.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하는 30대가 있는 반면, 앞으로의 퇴직과 노후를 대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하는 40대가 있었음
- 비슷한 연령의 여성 1인 가구임에도 생활여건은 물론 각자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보는 것으로, 특히 연령이 많이질수록 앞으로의 삶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보임

문화활동의 특성

-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 개인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하고 있음
- 문화활동에 있어 관람 횟수보다는 양질의 좋은 문화콘텐츠를 선별하여 접하고, 많게는 전체 소득의 70% 가까이를 문화에 소비하기도 하는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시간적인 여유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각자만의 적합한 문화생활을 찾아 참여하고 있음
- 주중 저녁에는 심야영화를 보거나 집에서 IPTV를 통해 영화 또는 여행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근처 가까운 미술관을 방문하는 등 각자만의 문화생활 방법을 취하고 있었음
- 또한 문화 관람도 많이 하지만 창작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에 참가하는 등 여러 유형으로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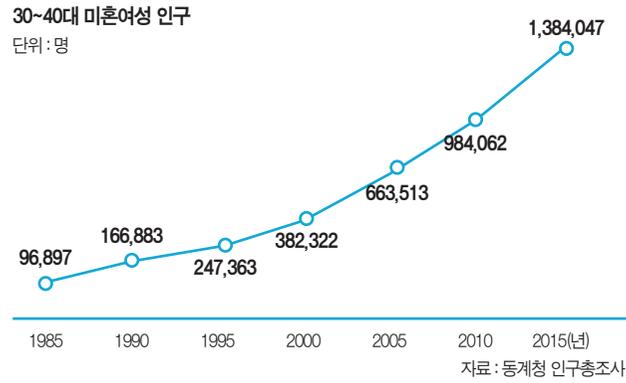
동호회 활동 참여경험과 애로사항

- 대부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잠시 활동한 적이 있었음. 다만, 동호회의 성격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인간관계로 인해 본질이 흐려졌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동호회 보다는 개인에게 맞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드러남
- 그러나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이들과 교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으며 가끔은 그런 모임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해소하고 싶어 함
- 재즈동아리, 해금교실과 같이 동호회를 통해 꾸준히 문화 활동을 실현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음. 그리고 이러한 동호회 속에서 즉흥적으로 소모임이 만들어지거나 해체되는 등 다양한 관계로 발전하거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활동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

- 여성 1인 가구이기에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많지 않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문화 활동을 못 한다는 것 보다는 위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편임
-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중 낮에 하는 좋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대상이 육아맘과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 다양한 연령대의 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직장인들을 고려한 저녁 시간대의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었으면 함
- 특정하게 여성 1인 가구를 구분 짓기 보다는 그냥 혼자 사는 1인 가구로서 정책이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으면 함. 특별히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여성이기에 배려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음

수다 기록



진행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조0연 평소 전시를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영화나 전반적인 문화생활을 종합적으로 좋아하는 30대입니다.

임0무 구로에 살면서 IT관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대에 음반 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공연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많이 접하는 편이고요, 평소 재즈를 좋아해서 재즈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0영 저는 40대이고, 용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다가 현재는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실 직장인일 때는 문화생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문화가 있는 날'에 전시를 보러 갔어요. 저는 연극, 뮤지컬보다는 미술 관련한 문화생활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평상시에 자전거를 타고 서울 구석구석을 다니려고 최근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0향 저는 웹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즈를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작년에 서울재즈페스티벌에 가서 재미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사랑해서 영화관 VIP 회원이기도 해요. 영화는 보통 한 편 혹은 두세 편을 연달아 보기도 해요. 그 외에 책을 읽고, 여행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여행 때문에 회사를 관둔 적도 있어요. 미술도 꽤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고흐 전에 갔는데 관람객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봐야지 했는데, 정말 네덜란드에 가서 고흐의 작품을 직접 보고 왔어요. 제 성격이 뭐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꼭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미술관에 꼭 들르는 편이고, 문화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김0림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온지는 8년 정도 되었어요. 지방에 살 때도 뮤지컬을 보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했는데요, 평일에 막차를 타고 서울에 가

서 공연을 보고 다음 날 첫차를 타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공연을 한 번 보고나면 뭔가 내 삶이 다시 리셋 되는 기분이에요. 사실 이전에 뮤지컬 '라이온킹'을 보고 너무 반해서 그 공연을 보러 후쿠오카, 도쿄 등을 다녀왔어요. 좋아하는 것이 하나 생기면 여러 번 반복해서 관람하는 편이에요. 배우들이 누구인지, 또 그 배우의 컨디션에 따라 공연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봐요. 집에서는 드라마나 영화도 열심히 보고 핸드폰에는 항상 영화 콘텐츠를 저장해서 다녀요. 연극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그 분 추천으로 연극도 가끔 보고, 사실 뮤지컬은 가격이 조금 비싸서 최근에는 질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런 삶은 싱글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0미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특성상 장기간 휴가를 낼 수 없어서 여행은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나 수필을 쓰기도 했는데요. 제 꿈은 나만의 책 한 권을 출판해 보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힘들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글을 쓰고는 해요. 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집에서 드라마나 세계 여행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챙겨보는 편이에요. 저희는 화식할 때도 영화를 보고 간단히 저녁을 먹는 패턴이라 영화는 꾸준히 보고 있어요.

이0식 저는 공무원이에요. 작년에 용감하게 11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어요. 저는 연 초에 일 년 계획을 모두 세우고 과감하게 결정해서 행동하는 편이에요. 저는 클래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내셔널 오케스트라에 가입하고 기부도 많이 해요. 예전에는 영국에 너무 보고 싶은 공연이 있어서 휴가를 짧게 내고 딱 그 공연만 보고 온 적도 있어요. 생활비 중 문화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70%가 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말고도 전반적으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현재 익숙한 활동 및 향후 희망 활동

항목(%)	현재 익숙한 활동			향후 1년 내 희망활동
	전체	성별		
		남	여	
혼자 식사하기	77.2	77.5	76.8	8.3
혼자 쇼핑하기	67.6	60.8	76.5	9.1
혼자 운동하기	46.9	43.5	51.5	19.7
혼자 문화 생활하기	41.0	35.9	47.6	23.1
혼자 취미 활동하기	38.7	33.6	45.3	21.8
혼자 술먹기	38.3	40.3	35.6	9.1
혼자 국내 여행가기	24.3	27.4	20.3	48.9
혼자 해외 여행가기	17.8	16.8	19.0	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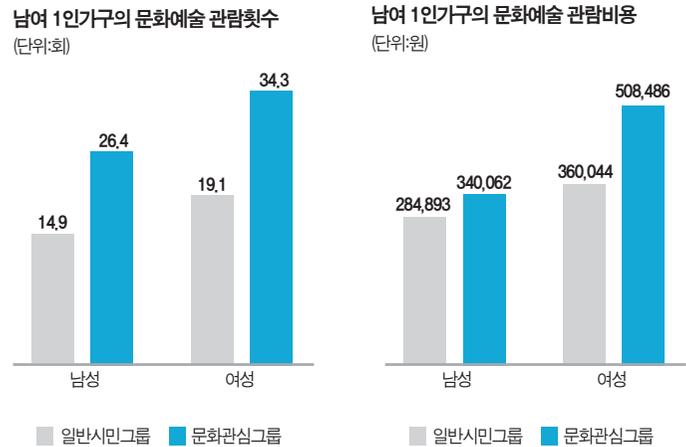
혼자사는 여성의 47.6%는 혼자 문화 생활하기도 익숙하다고 응답함
출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문화 활동, 혼자라고 주저하지 않아요

진행 자연스럽게 문화 이야기로 넘어왔는데요. 퇴근하고 주말에 쉴 때나 여유

있을 때는 뭘 하세요?

조0연 저는 회계 쪽이라 야근이 많은데 영화나 공연 보는 것을 좋아해서 심야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잠이라도 줄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연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관람하고 그래요. 보통은 대체적으로 보고 싶은 게 정해져 있고, 즉흥적으로 반, 계획해서 하는 게 반인 것 같아요. 심야에 영화를 보러갈 때는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가기도 해요. 내가 가는 시간에 남들과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고려하지는 않아요.



출처: 서울문화재단(2017)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재구성

임0무 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그룹지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모임 안에서 즉흥적으로 소모임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래요. 기존에는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사실 친구들과 간다고 해도 마음이 안 맞기도 해서... 저는 시간 날 때 해외여행 보다는 국내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소 걷는 걸 좋아해서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 이전에는 경상도 투어를 3일 정도 하기도 했어요. 여행의 목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관광하면서 구석구석 둘러보는 것에 투자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는 다른 친구는 부산에 좋은 호텔에서 책을 보면서 쉬고 온다고 하는데 이해는 되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것을 보는 편이라 대부분 찜질방에서 지내거나 그래요. 지난번에는 부여와 공주를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도 했어요.

진행 주로 어떤 곳을 다니세요?

임0무 모르니까 관광 코스를 보는데 관광단지 같은 것은 저와 맞지 않아서 자연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해요. 여가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게 다니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부여에 가도 박물관에 들르고 걷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요.

사실 예전에는 전시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벽에 붙은 그림을 뭐 하러 보나 싶었는데 도슨트 설명을 듣고 다시 한 번 둘러보니 그 그림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전시가 좋아졌어요. 지금은 시간이 맞으면 즉흥적으로 전시를 보기도 하는데 마니아처럼 보는 건 아니에요.

이0영 저는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편은 아니고요. 주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여유 있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주로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 집에서 컴퓨터나 TV로 뉴스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용산구에 이사 온 지 4년이 넘었는데 용산구 마을 구석구석은 잘 몰라서 산책 겸 골목골목을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시간을 보내요. 영화는 두 달에 한 번은 꼭 보는 것 같아요. 영화는 저를 웃게 해주거든요. 7년 전 독일에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독일에서는 좋은 전시가 있으면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많이 보러 다니곤 했어요. 거기서는 회원 제도가 잘 되어있기도 하고, 디자인 관련된 직업인에게 할인이나 무료 관람 혜택이 있어서 더 많이 봤어요. 지금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시에서 주는 혜택으로 문화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진행 문화생활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김0림 저는 일상이 문화라고 생각해요. 취미생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는 편이에요. 노년을 우아하게 보내고 싶어서 그림을 배운다는 분들도 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족감으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나 여행 같은 것들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일상이 문화생활이라고 봐요.

임0무 살아가는 것이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여유를 즐기는 거죠.

이0석 문화를 통해 힐링이 되거나 공부가 되기도 해요. 문화는 일상의 일부분이지 취미생활과 구분 짓는 건 아닌 듯해요.

진행 여가나 문화시간에 비용이나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김0림 그림 그리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재료비에 이동 비용, 사람들 만나서 먹고 쓰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를 살찌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만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액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단은 즐겨요.

문화생활을 위해 따로 적금을 들어요

김0향 작년에는 매주 영화관을 갔었고, 만 원짜리 영화를 1년 내내 보았으니 영화에 대한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또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평생 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500여권을 읽었어요. 여행을 위해 적금도 들어요. 1년 뒤 여행 갈 것을 생각해서 1년 목돈으로 마련해서 다니는 편이에요. 문화생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편이지만,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요. 돈이 없을 때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여행을 다니다보니 오히려 우리나라 것에 더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지금은 해금을 배우고 있어요. 경복궁은 입장료가 저렴하지만 너무 좋은 곳이고, 해설사의 설명도 너무 좋아요. 비용을 적게 들고도 질 좋은 문화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면 찾아가서 하는 편이에요.

김0미 퇴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서 보통은 집에서 IPTV를 통해 여행 프로그램을 2-3시간 정도, 질릴 정도로 봐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순위를 정해서 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돈을 안 쓰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어요. 서울의 생태공원에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다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녹음해서 듣거나 해요. 저는 은퇴 후에 쓰려고 최대한 절약하고 있어요. 제 직장이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과 가까워서 김밥 한 줄 들고 간단히 산책을 하는데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뒤편에 있는 작은 폭포에 앉아서 쉬기도 해요.

문화 동아리에서 관심분야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해요

진행 동호회처럼 같이 만나서 활동하시는 게 있나요?

김0미 10대 때에는 감성이 절로 넘쳐서 시를 쓰곤 했는데 삶이 각박해지다보니 아름다운 시가 분노성 말투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10대 때 쓴 시가 좋아보여서 글쓰기 동호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제가 워낙 게으르다보니 오래는 못했어요.

임0무 재즈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음반 제작 회사를 다닌 적이 있는데 재즈가 메인 분야라서 여기 저기 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랑 만나서 재즈 동아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모임 안에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양한 직종 종사자 분들과 함께하다보니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해요. 그 중에서 취향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접하다보니 실망하기도 하고요. 다양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상처 받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게 좋아요. 제 또래 결혼한 친구들은 육아맘, 직장맘이라 본인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건강하고 또 이제 정말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찾는 편이에요.

김0림 지방에서는 지인을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서울에서는 완전히 독립을 하면서 공연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강좌를 들으면서 디자인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골목골목을 답사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도 시작하게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1이었다면, 100을 향해 진화하는 느낌이었어요. 페이스북은 좋은 점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게 무섭기도 해요. 지금은 골목을 답사하면서 그림에 취미도 생기고 사진도 찍다보니 골목 그림 모임에 함께 하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보고 듣고 경험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고, 인생 계획도 바뀌었어요.

진행 문화생활을 하는데 지방과 서울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0림 저는 진해에 살았어요. 주변에 마산, 부산, 창원이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었어요. 기껏해야 문예회관, 영화관 정도인데 서울은 페이스북을 매개로 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강좌나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훨씬 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김0향 요즘에는 해금을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봉사활동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활동 중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외국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자 한국어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그러다 그 모임에서 어느 한 분이 대금을 연주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통악기를 배우려고 찾아보다가 해금을 배우게 됐어요. 저는 악기 하나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배우고 있어요. 다들 3-40대 중반으로 8시에 시작해서 2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그래요. 예전에는 재즈 댄스 동호회를 하면서 탱고도 했었는데 주로 몸을 쓰는 무언가를 해 왔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정적인 것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북 페스티벌에 참여해 잔디밭에 누워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강연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니 동호회를 들어볼까 했지만,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웬지 저와 맞지 않아서 그냥 혼자 책을 읽고 블로그에 글을 써보는 정도예요.

임0무 저는 밴드로 모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퇴임하신 고등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이 와서 풍물반 OB들끼리 모여서 공연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친목 도모 차원에서 밴드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점점 문화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이0식 저는 모임을 나가다가 그만두었는데요. 감동적인 음악을 그냥 듣는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감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음악적 지식을 뽐내기에 바쁘더라고요. 무슨 지식의 장 마냥 변질되는 동호회가 싫어서 나왔어요. 오히려 직장인 위주의 피아노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음악적인 것을 공유하는 게 더 좋았어요.

조0연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게 큰 목표라 글쓰기 동호회를 가입한 적이 있는데, 비전공자들끼리 발표하는 자리에서 너무 심한 비평의 목소리를 듣고 오히려 글을 쓰는 것이 두려워져서 안 나가게 됐어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은데 매달 모임에서 정하는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것이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 두었어요. 영화 동호회도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본인의 영화 지식을 뽐내려는 분들이 있어서 한두 번 참석하고 가지 않았고요.

김0미 동호회 하면서 인간관계를 신경 쓰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혼자 놓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편안하게 책을 읽다가 사람 구경도 하고 스카이 공원 같은 곳에서 커피도 즐겨 마시고 그래요.

저에게 딱 맞는 공공기관 문화프로그램을 찾기 힘들어요

진 행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집 주변 공공시설 문화 프로그램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0미 저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낮에 가보니 아주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0식 서울시립미술관은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전부 낮에만 해요. 런치박스 프로그램은 꼭 한 번 참여해보고 싶은데 못 가고 있어요.

진 행 그러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조0연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전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문화생활을 하는 시민들이 진짜 많다고 느꼈어요. 오픈하기도

전에 10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분들도 많아요. 평일 운영시간을 조금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장점

항목(% , 1+2순위)	전체	성별
자유로운 생활과 의사결정	84.4	남성 81.0 여성 88.8
혼자만의 여가시간 활용	75.9	71.1 82.0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부담 부담 없음	12.4	14.0 10.3
경제적 여유	11.6	15.9 6.0
직장/학업 등의 몰입	9.7	11.4 7.5
가사일이 적어서	5.9	6.2 5.4

자유로움, 혼자만의 여가를 혼자 사는 장점으로 꼽음
출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김0림 저는 스쿼시를 했었는데 초급, 중급, 고급으로 단계별로 그룹지어 하던 것을 이사 후 다른 센터에서는 모든 레벨의 사람들이 함께 운동을 하니 흥미를 잃었던 적이 있어요. 공연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처음 공연을 볼 때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는 흥미가 없었는데 팜플렛의 설명을 보고 난 후 다시 관람을 하니 너무 쉽게 이해되고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요. 문화는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레벨의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0향 서울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에 다니는데요. 도서관에서 인문학이나 철학 관련해서 좋은 강의가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육아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나서 가보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저에게 잘 맞지 않아요.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있는데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특히 직장인을 배려한 저녁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더욱 아쉽고요.

임0무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보통 주 5일 근무자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해요.

김0림 언제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문화 활동이 나를 좀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문화를 취미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돈을 투자해서라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제 본업 외에 5개 이상의 직업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깊이 알고 만족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문화생활을 하며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진행 혹시 문화생활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0연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일을 하면서 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단기간으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힐링이 돼요.

김0향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출퇴근을 하면서 책을 읽는데 잃어버린 감수성을 찾아주는 것 같아요. 너무 디지털화된 관계에 얽매어서 쌓인 걸 풀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화 콘텐츠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생활 중에도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면 변화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문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0영 저는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하면 평소에 문화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영화를 보기도 하지만, 주로 여유시간엔 모자란 잠을 자거나 쉬는 편이에요. 그러다 문화생활을 하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게 되고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독일에 살 때와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고 야근이 당연시 되다 보니 저녁이나 주말에는 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기는 어려워요. 그런 조건들이 개선되었으면 해요.

김0미 근로시간만 단축되어도 문화생활이 활성화 될 텐데,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0영 저는 시간이 없어서 동호회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동호회가 나이대별로 틀이 정해져있고 너무 목표지향적인 면이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삶과는 맞지 않아요. 저는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시간을 보내거나 직업과 관련 있는 부분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 영역과 동떨어진 것을 찾으려고 애쓰지는 않았어요.

김0향 야근하고 집에 오면 허탈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밤을 세워가며 영화를 보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문화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해도 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0영 사회가 갑자기 바뀌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당장은 퇴근

후 저녁에 주민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어요. 저녁 타임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겠어요.

진행 가족과 함께 살 때와 비교해서 1인가구이기에 달라진 것이 있나요?

김0영 지방에서 29살까지 살았는데 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혼자 살게 되면서 저녁에 공연을 보고 밤새 놀다가 아침에 맥도널드를 먹으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의 자율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퇴근 후 짧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24시간 나를 위해 생활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진행 늦은 시간에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가다보면 무섭거나 밤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적은 없으신가요?

김0림 지방에 살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심야버스도 있고, 굳이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머물 수 있는 곳도 많아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요.

임0무 지금 혼자 산지 5년이 되어 가고 원룸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위험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혼자 여행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여행을 못가는 건 아니잖아요.

김0미 사실 혼자 사는 여성 1인가구는 아프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파트 단위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해주거나 모임이 마련되어 교류가 있었으면 해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은 있는데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진행 여성 1인가구를 위한 문화공간이나 문화 활동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요?

조0연 최근에 뮤지컬 '아이디'를 봤는데 싱글여성 패키지가 있어서 관람했어요. 음료도 제공해주고 좌석도 별도로 마련해줘서 좋았어요.

김0림 싱글여성이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싱글이라는 것, 여성이라는 부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고요.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스토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봐 일부러 조심해요.

김0향 아까 독일 사례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연간 바우처 제도가 있었으면

해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행사는 많지만 제대로 피드백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의 날 행사도 가봤는데 막상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고, 열린 대학도 찾아봤는데 딱 맞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서 그런지 여성 1인 가구여서 문화 활동에 특별히 방해 되는 요소는 많지 않았어요. 그보다 문화에 대해 공유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아쉬워요. 그리고 주변에 문화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하고 싶은 문화 콘텐츠가 있었으면 해요.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진행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이이식 1인가구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건 오히려 불편해요. 여성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 프로그램이 내용이나 대상, 시간대가 다양해졌으면 해요.

김이미 결혼, 출산 등의 문제와 연관시켜 여성 1인가구는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도 행복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김이림 제 친구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무작정 저를 따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문화 활동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공공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이향 찾아가는 심리상담처럼 어떤 문화 콘텐츠가 있는지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한 문화 컨설팅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이영 제가 사는 지역에는 문화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고 관심만 있으면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문화 프로그램 자체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임이무 문화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하고 싶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건 아마도 문화에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공유하고 깊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조이연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경제권은 나에게만 있고 내 자산은 오직 나만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료라도 괜찮은 프로그램에는 참여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접근이 쉬운 프로그램부터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또 지역에 따라 문화 혜택의 격차가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어요.

3040
미혼남성
1인가구

여가와 문화에 대한 혼남들의 수다

- ◆ 일시 2017. 6. 20.(화) 19: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이0규 : 30대 남성, 사무직, 미혼, 관악구 거주
 2. 이0희 : 40대 남성, 수화통역, 미혼, 강서구 거주
 3. 김0재 : 30대 남성, 사무직, 미혼, 구로구 거주
 4. 최0성 : 30대 남성, 사무직, 미혼, 광진구 거주
 5. 권0달 : 30대 남성, 사무직, 미혼, 관악구 거주
 6. 김0일 : 40대 남성, IT계열, 미혼, 동작구 거주
 7. 유0진 : 40대 남성, 학원강사, 미혼, 노원구 거주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문화활동의 종류

- 그룹 인터뷰 대상이 주로 사무직인 관계로, 퇴근 후와 주말을 여가시간으로 인식(노동 외 시간을 전부 여가시간으로 인식)
- 일상적인 여가생활은 주로 TV 시청, 웹 서핑, 영화 관람 등의 활동이며, 부가적으로 해외여행이나 캠핑, 등산을 가거나 전공과 취미에 관한 동호회 또는 봉사활동을 함
- 특별한 외부활동 보다 휴식을 겸한 집안에서의 활동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 이성 교제 유무에 따라 여가시간을 보내는 문화활동의 종류가 달라지는 편임
- 여성과 함께할 때에는 대부분 여성의 문화적 취향에 맞추며(축제, 전시 등), 자신이 원하는 활동은 자신만의 시간에 하는 경향이 있음(스포츠, 자동차 등)
-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문화 경험에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한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임

문화정보의 습득 경로와 정보 이용의 어려움

- 각 기관의 메일링 서비스나 소셜 미디어 페이지, 지인의 추천이 주를 이룸
- 기관의 메일링 서비스에 대부분 시정홍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과도한 정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어려움
- 수용자의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가구형태 등에 걸맞은 맞춤형 문화정보의 수신을 원함
- 메일을 잘 열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문화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수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문화활동의 장애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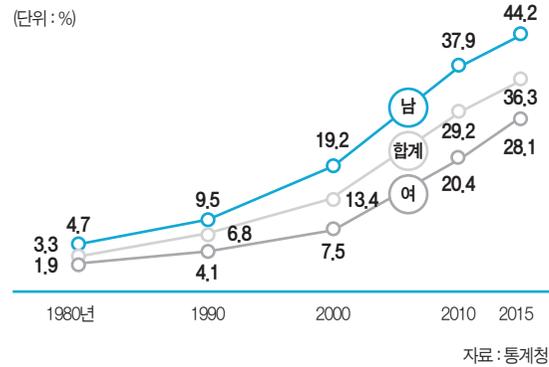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3040 미혼남성들은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적은 편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 야간시간대, 직장과 거주 지역 인근에서 운영하는 문화기관, 문화행사가 적어 평일에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든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얽매이는 시간으로 인해 자신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남자가 혼자 문화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어, 주체적인 문화생활을 하고 문화활동의 장르를 다양화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 되도록 저렴한 문화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문화활동의 장르와 본인의 필요 정도에 따라 비용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었음

공공 및 기타 바라는 점

- 문화 예산 확충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폭넓게 시행
-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와 야간시간대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증대
-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아이디어 수렴
- 문화정보 전달의 개인화 기능 강화
- 문화행사를 통해 싱글남녀가 만나는 장 마련
-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 제안

수다 기록

30대 미혼인구 비율 추이
(단위: %)



출처: “싱글 공화국... 30대 10명 중 4명은 미혼”. 서울신문(2016.12.19.)

진행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유0진 반갑습니다.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연극배우셨는데, 아버지의 모습을 봐와서 그런지 굉장히 문화예술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다른 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길 기대합니다.

김0일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고,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와 파트너 단 둘입니다. 저는 세미나와 강연에 참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면 가만히 듣고만 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좌담회는 능동적으로 의견도 교환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저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최0성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고요,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독신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김0재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건 자신 있는데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고 해서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조금 궁금한 마음에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이0희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왔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0규 30대이고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YOLO 붐이 불고 있고, 서울문화재단이라고 하니까 문화 향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 사는 1인 남성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1인 가구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임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권0달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아무 것도 안 해도 시간이 잘 가요

진행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보통 일하지 않는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때 주로 뭘 하시면서 여가 활동을 하시는지요?

김0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비슷한 게 뭐냐면 집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가요. 말 그대로 뭉쿨뭉쿨하고 TV보고 인터넷 좀 하다보면 시간이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즐겁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그런 약속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활동을 하고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건 아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여름에 팬티 한 장 입고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나마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보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0규 저도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요. 집에 있으면 시간관념이 점점 흐려져서 뭘 하는지 모르게 시간이 잘 가요. 영화도 자주 보고 모임에도 자주 참여하려고 노력하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유0진 저는 혼자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해서 시간이 나면 자주 가고요. 또 공연 보는 걸 좋아해서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1년에 30작품 이상을 봅니다. 영화도 필이 꽃이면 자주 새벽에 가서 보고요. 저는 다운 받아 보지는 않아요. 사실 공연계도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배우뿐만 아니라 제작진들도 그렇죠. 주위에 연출하거나 배우하거나 제작하는 지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김0재 나이에 따라 여가 활동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2-30대 초반, 중반, 그리고 지금의 여가 생활이 달라요. 예전에는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피곤한 것 없이 갑자기 동해를 갔다 온다거나 그렇게 여가를 보냈거든요. 친구들과하고 지내는 걸 좋아해서 시간 구분 없이 언제든지 활동적으로 지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나이의 영향인지 뭔가를 하는 게 귀찮아졌어요. 다음에 할까 미루게 되고요. 예전에는 연극 보러 대학로에 자주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좀 멀어서 잘 안 가게 되고요. 근처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걸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여가 시간인데 시간은 빨리 가고, 결국 쉬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이0희 나이에 따라 문화생활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

서 움직이기 귀찮거나, 애인이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애인이 있어서 데이트를 하면 주도적이진 않아도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되니 문화생활이 소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에서 하는 이색 체험에 관심이 많아요

진행 혹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이희 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잘 없어요.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해도 어디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진 저는 어머니랑 충무아트홀에서 킬 미 나우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작년도 똑같은 걸 봤는데 올해 캐스팅이 바뀐 탓에 보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랑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김재 최근에 사이판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했습니다. 원래 자격증이 있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런 이색 체험을 하는 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해외와 관련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앞으로도 그런 활동들을 자주 하고 싶습니다. 해외 영화나 음악, 길거리 문화도 관심이 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약기도 많고요. 해외 관련 프로그램도 찾아서 보게 돼요.

권달 저는 최근에 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알려주시는 법문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법률 쪽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예전부터 법률 강좌를 들어왔습니다. 보통 강좌를 하면 5회 이상 하는데, 1년에 3번 정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최성 저는 서울시에서 이메일로 뉴스레터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무료 문화행사라든지,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밤도깨비 야시장에 많이 다녔는데 올해도 다녀왔고요. 캠핑을 좋아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풀오토캠핑장에도 주말에 자주 가요.

진행 혼자 가세요,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가세요?

최성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혼자 갑니다.

이규 저는 목표를 세워야 뭔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건강과 운동을 목표로 세우고 작년부터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힙합, 방승 댄스를 하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살사 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으니까 해보라고 권유를 받아서요. 재미있고, 추억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모임이나 동호회를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몸 쓰는 일이고 공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또 올 상반기부터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를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화예술과 결합해서 너무 잘 해냈더라고요. 등산도 많이 가보자 해서 올해는 북한산, 수락산, 관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진행 갈 때는 혼자 가세요, 같이 가세요?

이규 저는 혼자 가는 편입니다.

진행 그럼 동호회는요?

이규 1주일에 두 번씩 모입니다.

혼자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임일 저는 몇 달 전에 DDP에서 하는 한국화 강연회에 참석했어요. 화가 선생님이 자기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고 한국화의 장단점에 대해 강연하셨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국화를 그려보는 체험 시간이 있었어요. 책상 자리마다 붓하고 화선지가 다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붓을 만져보고 30년 만에 처음 수묵담채화를 그려봤는데요.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 나중에 여유가 되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문제는 남자들은 이런 문화 활동에 참여할 때 결국 여자친구든 아내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막상 혼자 참여하기가 뽀뽀한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다 커플끼리 가족끼리 왔는데 혼자서 해봐야 즐거움을 나누지는 못하잖아요. 영화는 혼자 볼 수 있지만, 연극을 보거나 체험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는 역시 동반자의 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 저는 예전에 코엑스에서 하는 애완견 애완묘를 위한 박람회에 다녀온 게 기억나네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서 구경하러 갔고, 끝나고 밖에 나와서 근처 푸드트럭도 이용했습니다. 봉은사 쪽 잔디밭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한 공연단이 와서 퓨전 국악 음악을 연주해주시더라고요. 코엑스도 즐기고 푸드트럭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도 즐기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SNS와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 문화 정보를 얻어요

진행 보통 문화정보를 어디서 구하시나요?

이희 저도 서울시에서 오는 이메일을 받지만, 열어보지 않아서 정보를 몰라요. 서울시나 문화재단에서 문화 공연하는 단체와 연계해서 저에게 맞는 맞춤 정보를 선별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규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데요. 카톡 플러스친구같은 걸로 보내주면 클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울시 이메일을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메시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 저도 회사 생활이 바쁘지만 시간이 날 때 서울시에서 보내주는 이메일을 가끔 살펴봐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구나하고 볼 때마다 생각해요. 시간이 더 나면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바쁘다보니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서 정보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요즘 SNS 활동을 워낙 많이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을 통해서 지인과 정보 공유를 많이 해요. “어떤 좋은 전시회를 하니 여자친구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추천하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고요. 가끔 괜찮은 데는 주말에 직접 갔다 오고 합니다.

유진 저도 페이스북을 잘 봐요. 일단 제가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에서 정보가 오고요. 지인이 ‘좋아요’를 누르면 저한테도 뜨니까 참고하기도 해요.

김일 서울시에서 메일링 하는 뉴스레터를 저도 받아보고는 있는데 이건 개인 맞춤형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으로 갈 거예요. 문제는 시정 홍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정보가 아닌 자기들이 홍보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주 하니깐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 맞춤형이 가능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일 메일에 너무 시정 홍보 내용만 담으면 사람들이 결국 구독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누가 궁금해 하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신다면 구독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까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 저는 서울시 뉴스레터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다보니 항상 비슷한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차라리 각 구 별로, 혹

은 권역별로 사람들이 근처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안내해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일상이 피곤하고 힘든데 접근성이 좋은 이벤트를 안내해주면 어떨까요? 생업에 바쁜 소시민들은 이런 걸 봐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행, 봉사활동, 강좌... 다양한 문화생활 즐겨

진행 혹시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나 소속된 활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최성 저는 보통 여행을 혼자 가지만 성향이 맞는 동행을 구해서 같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목적지 관련 전문 여행 카페가 많아요. 인도면 인도, 유럽이면 유럽 관련 카페에 동행 게시판이 있어요. 그쪽 게시판에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하다보면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 사람과 여행 가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출발하고요. 그런 케이스는 30% 정도이고, 주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합니다.

진행 그렇게 만나서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성 네, 있죠. 두세 번 정도. 라오스 등 동남아 쪽으로 같이 갔고요. 이번에 인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유진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레크레이션 해드리고 웃음 치료도 해드리는 모임이 있어요. 뮤지컬 배우도 있고, 미술사도 있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한 시간 동안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요. 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지하철이나 길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는 다르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뭔가 생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가면 재미있어하시고 좋아하세요.

권달 저는 법문학 강좌 들으시는 분들과 같이 재판을 방청하고 판결하는 걸 보고는 해요. 저는 사실 법학을 전공해서 법률에 관심이 많고 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같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IT 업계 분들도 계시고 군인도 있어요.

이희 저는 정기적으로 사회인 야구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기가 있고요. 팀에서 격주로 토요일마다 2시간 정도 훈련을 해요. 원래 야구를 좋아했지만 실제 사회인 야구는 해본 적 없었어요. 같이 어울려서 하는 재미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전에도 함께 어울려서 하는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그런



1인 남성 가구 소비 트렌드(2016.10.19.)
출처: BC카드 공식블로그(blog.bccard.com)

취미가 생기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김재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꾸준히 영화를 보고 있는 편이고요. 장르 구분 없이 액션이든 코미디든 자주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또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는 전시회를 자주 가는 편이에요. 관심 있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놓으면 그때그때 계속 소식이 오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 없이 이메일이 오면 바로 신청하고 찾아가는 편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 저는 패턴이 계속 바뀌는데 혼자 있느냐,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으면 매주, 혹은 매 달 문화생활을 두세 개씩은 해요. 저는 문화생활을 주도하는 편이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내서 티켓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연애 중일 때는 계절마다 가을에는 재즈 페스티벌도 가고, 여름에는 캠핑 다니고, 영화관은 1주일에 한 번은 기본이고요. 많게 갈 때는 거의 매일 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딱 혼자가 되는 순간 그런 시간을 여행 준비에 많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연애하면 문화활동을 하고요. 저는 그런 패턴이 계속 지속됐던 것 같아요.

몰입하기 위해서 혼자 공연을 봐요

유진 여자친구나 누군가와 동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공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같이 가면 몰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연이 끝나고 나오면 그 감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너는 남자가 우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다 올라가도 감정을 다 추스르고 천천히 나가는 편인데 “야, 빨리 나와. 뭐해?” 이러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보거나 아니면 코드가 맞는 사람과 같이 가야 하는데요. 비싼 작품은 15만원이 넘기도 하는데 같이 공연을 보자며 추천하는 것도 그렇다고 제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혼자 가는 편이에요. 그게 편하고요.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 앉아 있으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또 다른 삶을 잠시 살았던 것 같고, 희노애락이 느껴져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좋아요.

이규 저도 예전에는 사람들과 공연에 같이 다녔는데 지나고 나면 공연에 대한 기억보다는 같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남는 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공연은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무조건 혼자 가요.

일상적? 특별함? 문화적 경험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인식 달라

진행 지금까지 말씀하신 문화생활이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이벤트로 느껴지시나요?

유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제 삶의 에너지, 삶의 일부분이죠. 한 때는 배우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그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요즘 공연을 많이 보면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행 어린 시절부터 접해온 경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진 네, 또 제가 레크리에이션을 전공했고, 주위에 예술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죠. 영화를 보고 커피숍에서 ‘A가 주인공이 아니라 B가 주인공이었으면 또 어땠을까?’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스토리를 상상해본곤 해요.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최성 문화생활은 비용이 안 드는 무료 문화체험부터 큰돈을 들여야 할 수 있는 고급 문화활동까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문화생활은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오페라나 사교 파티 같은 거라고 여겼어요. 요즘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특별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찾아서 하려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원래 금액으로는 관람을 안 하고 카드사에서 오는 1+1이나 얼리버드 티켓을 이용해서 주로 할인 구입하는 편입니다.

이희 문화생활이나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녹아들어있는 상황이 아니고 무언가를 찾아서 즐겨야 한다면 검색하는 시간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해야 하니까요.

이규 일상적으로 남자들은 친구들 만나서 당구치고 술 마시고 하니까 문화생활은 좀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애할 때와 아닐 때의 문화생활이 달라요

진행 그럼 문화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이 있으신가요?

유진 저는 하는 일이 좀 자유롭다보니 시간적 제한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공연

을 많이 보면 금전적 지출이 많죠. 어떤 때는 한 달에 6-70만원을 쓰기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낯이고 행복이고 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술 먹고 내는 돈과 비슷하거든요. 저는 술을 안마시니 따지고 보면 비슷한거죠. 저는 행복한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해요.

진행 3040 미혼여성 좌담회에서는 수입의 70%를 문화생활에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김이재 저는 연애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문화생활이 180도 달라요. 연애를 안 할 때 보통 남자들의 문화생활은 술문화, 운동문화죠.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술, 술, 술. 조금 달리 해봐야 게임을 하거나 당구장에 가거나 하는 정도예요. 술 마시거나 주말에 야구하고 농구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연애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요. 지금은 연애 4-5년차 됐는데 연애 초반과는 다르게 좀 다양하고 풍요로운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이규 제가 올해 1월에 대학로에 온 이후 5개월 만에 온 거거든요. 1월에 여자친구와 공연을 봤는데 2월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진짜 대학로에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연애 할 때 영화는 워낙 자주 봤고, 또 여자친구가 공연, 전시회를 좋아해서 예술의 전당도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는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 영화 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여자친구 없을 때 가장 큰 제약은 문화생활에 대한 지가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안 생기거든요. 문화생활은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문화활동을 할 마음이 생겨요

권0달 저는 일을 늦게까지 해서 문화생활을 잘 못해요.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0규 저는 정신적인 여유가 있어야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개인적으로 큰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쪽에 신경이 집중되다보니 주말이 되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평온한 생활에서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이0희 시간이 없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문화생활에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야구를 좋아해도 제가 좋아하는 팀의 홈 경기장이 대전이라 평일

에는 갈 수 없어요. 주말에 가려고 해도 대전까지 가는데 시간과 비용도 들어요.

어린 시절 문화 경험 많지 않지만 학교나 종교 통해 경험하기도 해

진행 또 다른 질문 드릴게요.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문화예술 교육이나 동호회,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현재 문화생활을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으신지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김이재 어렸을 때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교회 행사에 많이 참여했어요. 성가대에 들어가서 악기도 연주하고요.

진행 악기는 어떤 악기를 하셨나요?

김이재 저는 드럼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기타를 쳤는데 치다보니 기타는 내 길이 아닌거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드럼을 치게 됐어요. 잘 하지는 못했지만 같이 어울려서 음악을 했어요. 그때는 신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 봉사 활동이나 음악 행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성가대에서 베이스 담당이었는데 노래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너무 즐겁고 자부심 느끼며 자랐어요.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 스스로 마음가짐도 그렇고, 어렸을 때 추억이 지금도 의미 있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유0진 저도 학교 다닐 때 교회를 통해서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어요. 또 저는 배우가 꿈이었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 때도 문학 책 뒤에 나온 대본으로 짝꿍이랑 대사 연습을 했어요.

이0규 전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유도를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는 성당에서 봉사나 기도 모임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주말에 잠깐 미사나 보는 정도지만, 문화 쪽은 굉장히 성당 활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0성 지금은 집 앞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조금만 가면 길거리 공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게 전무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따라서 극장가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부모님께서 문화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도 문화생활을 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영화를 보면 상류층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클래식 공연을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렸을 때 해보아지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찾아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자주는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문화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어릴 적 문화경험이 많지 않은 영향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접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아규 저도 공감되네요. 아까 어렸을 때 문화생활을 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했더니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저의 유일한 목표는 대학 가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하다못해 독서도 금지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집과 학교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교회나 절을 다닌 것도 아니라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낸 때가 80년대였어요. 그때는 문화생활이 언감생심이었죠.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시내에 극장이 딱 한 개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스포츠 경기, 공연도 많고요. 늘 전시회가 있고, 지방 축제도 한 사백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린 세대들은 정말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최이성 저는 사는 동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홍대나 혜화, 광화문에 살았으면 제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거리에 나오면 뭔가 예술적이고 다 예쁘잖아요. 20대 때 서울 외각에 살아서 문화적인 것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엔 영화관이 바로 앞에 있어서 영화를 자주 보고 지방 축제도 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계절 마다 다르잖아요. 대학 축제도 있고, 벚꽃 축제도 있고요.

진행 주로 여가생활을 집 가까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직장 가까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걸 찾아가기 위해 대학로나 예술의 전당에 가시나요? 시간이나 비용을 어느 정도 들이시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김이재 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여가 생활에 차이가 있어요. 차가 없을 때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게 힘들어서 가까이에서 많이 찾았어요. 지하철로 근처에 있는 미술관 이런 데를 주로 찾아갔다면 차가 생기고 나서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동네든 부산이든 광주든 가죠.

진행 비용은 얼마나 들이시나요?

김이재 20대 때와 30대 때가 좀 다른데요. 20대 때는 많이 아껴야 했다면,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크게 비용 걱정을 안 하고 내가 한정된 시간에 얼마만큼 하고 싶은 걸 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최이성 시간이 부족하고 피곤하면 동네에서 즐기는 편이고요. 특별한 관심사가 생기거나 이슈가 있으면 조금 멀리도 가는 식이고 비용은 크게 상관없어요.

유이진 저는 개인적으로 공연장 위치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작품이 좋거나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다고 하면 찾아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서울 내에서만 다니고요. 비용은 자유롭게 지출하는 편이에요. 일이 바쁠 때는 한 달 동안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기도 해요.

여가문화생활은 삶의 활력, 관계형성, 일상에서의 해방

진행 그러면 여가문화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생활에 문화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아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시 여가생활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시간만 흐르고 내 인생에 별다른 추억이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여가생활을 챙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년 꼭 과제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요.

김이일 상투적인 얘기지만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말에 동의해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회사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니까 주말에는 어떻게든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일상에 돌아왔을 때 삶의 활력소가 되거든요. 또 그런 게 삶에 자꾸 자극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이재 저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같이 문화생활을 하면 같이하는 사람들에 따라 문화활동은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느껴요.

이이희 인간관계 형성도 있고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생활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부분도 많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을 때문에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이성 저는 전시회 같은 문화생활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서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과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

간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의 2/10 정도도 채 되지 않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반복적인 일상을 탈피해 제가 자주 접하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하면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축제나 콘서트, 전시회 어딜 가도 저한테는 너무 새로운 것이다 보니 그런 활력을 느낄 수 있어요.

권0달 저도 얼마 전에 공연도 보고 미술관도 갔었는데, 그런 문화생활은 태어나서 처음 하는 활동이거든요. 일하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은 것 같아요. 일 생각만 하니까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일 이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전시회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맞춤형 정보제공, 야간 프로그램 확대 등 원해

진행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공공기관이나 서울시에 바라거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문화 측면에서 3040 남성 1인가구를 위해 고려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0성 남자가 혼자 가도 어색하지 하지 않은 콘셉트의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0희 문화생활도 하고 이성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도 좋아요.

유0진 실제로 어떤 공연에서는 4월 14일 블랙데이에 싱글들만 관람하는 이벤트를 해서 끝나고 뒤풀이를 주관해서 하더라고요.

최0성 저출산 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하하하하)

김0일 문화생활을 많이 하게 하려면 연인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해요. 일본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미혼남녀 소개 시켜주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최0성 저는 서울시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보기 전과 후의 인식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몰랐던 곳에 많은 세금을 쓰고 있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퇴근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대부분 6-7시면 끝나요. 야간에 특화되어 있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하고 반영했으면 합니다. 최근 홍대·신촌에서 물총페스티벌 하는 것도 처음에는 대학생 아이디어라고 들었어요. 그런 걸 하니까 시민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되는 거죠.

이0희 '문화가 있는 수요일'을 좀 더 늘려주면 좋겠어요. 매 달 하루이다 보니 할인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김0재 밤에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이 좀 더 생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하루 종일 생업에 매진하다가 저녁에 여가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녁에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많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좌담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다른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문화와 관련한 정보도 얻어가고 나의 문화생활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볼 기회도 되는 거 같아요.

김0인 서울시 메일링 서비스를 좀 더 개인화했으면 해요. 지금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을 받게 되고, 또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빅데이터가 각광받는 것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3-40대 남자들인데, 가정이 있는 3-40대와 가정이 없는 3-40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한테 가족 행사 보내줘 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이별, 연령별, 성별, 1인가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0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일반인들과 외국인과 교류가 늘어났으면 해요.

진행 주신 제안들 잘 모아 정리해서 적절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싱글라이프! 혼자도 좋다

- ◆ **일시** 2017. 3. 21.(화) 19:00
- ◆ **진행**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김미미 : 40대 여성, 직장인, 이혼, 은평구 거주
 2. 김이성 : 40대 남성, 자영업, 이혼, 은평구 거주
 3. 서이수 : 50대 남성, 직장인, 비동거 가장(기러기아빠), 송파구 거주
 4. 윤오옥 : 40대 여성, 직장인, 이혼, 남양주 거주(직장: 용산구)
 5. 이이숙 : 50대 여성, 전업주부, 이혼, 은평구 거주
 6. 최이은 : 50대 여성, 번역, 이혼, 용산구 거주
 7. 허이호 : 50대 남성, 종교인, 이혼, 노원구 거주

요약 정리

문화활동의 범위에 대한 생각

- 문화활동을 일상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 외 모든 시간으로 인식함.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음에는 취미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자전거로 서울을 탐방하며 글을 써 기고하는 등 생계에 직접 연결되는 사례가 있었음
-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이기도 한 현재의 중년 남성들은 문화 활동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사치스럽다 느끼기도 함. 하여 바둑을 두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취미생활이라고 지칭하는 등 문화 활동을 어색해하고 본인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었음

문화활동의 특성 및 장애평소

- 문화 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관심만 있다면 주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처음이 어렵지 여러 번 접하면서 문화에서 문화로 이어져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 1인 가구이기에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시간에 대한 자율성은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문화접근성의 어려움으로 다인가족일 때와 비교하여 문화생활이 크게 풍요로워 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간이 자유로워 즉흥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영화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온전히 나만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은 있음

- 반면 이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였다면 지금은 혼자이기에 외로운 부분도 있음.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도 나름의 가정이 있고 여건이 맞지 않아 같이 할 수 없음. 또한 취향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문화생활에 방해가 되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함
-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은 되지만 1인 가구만의 제약이라고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탐색해보면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체험프로그램 등이 많이 있으며 할인받지 않고 관람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함
- 이전에는 가족들을 따라다니며 그나마 접할 수 있었던 공연을 지금은 혼자서 어떻게 공연을 보고 문화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음. 젊은 시절에는 가족들을 위해 돈벌이를 하느라 익숙하지 않았던 문화이기에 문화생활이 더 어렵게 느껴짐.
- 특별한 문화생활이 필요하기보다는 말동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함.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 우울증에 노출될 위험이 큼.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 문화생활을 할 때 일부러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익숙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보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임

동호회 및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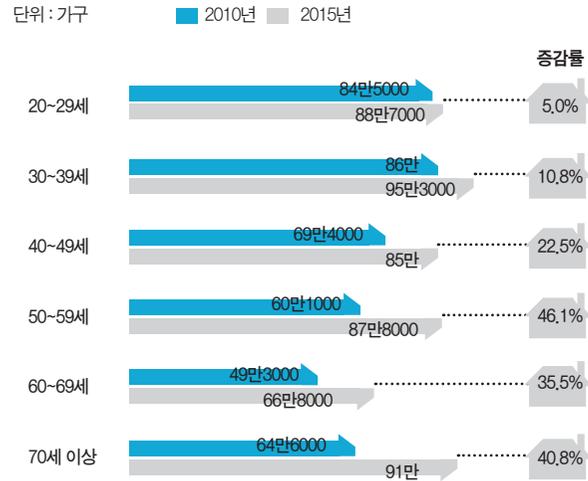
- 친구들과 소소하게 맛집 투어를 하거나 자전거, 산악회 등에서 활동함. 최근에는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생활을 하기도 함
- 지역 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영어교실이나 컴퓨터교실과 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아 중년을 포커스로 한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

기타의견

-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운영하였으면 함. '문화가 있는 날'이 평일이라 아쉬움은 있지만 잘 활용하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많아 유용한 부분도 있음
- 문화바우처를 통한 문화 활동 시 주변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혜택범위(동반자 포함 혜택적용 등)를 넓혔으면 함

수다 기록

연령별 1인 가구 변화



출처: "혼자 사나요? 1인가구 키워드 셋... 노년·중년·여성" 블로그 싱글리스트

진행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윤0옥 저는 서울에 살다가 최근 집값 때문에 남양주로 옮겼어요. 직장이 용산구에 있어서 거의 모든 생활은 서울에서 하고 출퇴근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출퇴근 교통편 때문에 문화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또 평소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일찍 자야하니 문화생활을 즐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영화는 가끔 봐요.

최0운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기와 극작을 하다가 지금은 일본어 번역과 통역 일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지만 일이 없을 때는 수입이 없으니 굉장히 힘들어요.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게 과연 문화생활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0미 저는 원래 종로구에 오래 살다가 은평구로 이사한지 2년 정도 되었고요. 원래부터 책,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음악도 골고루 들으려고 해요. 라디오를 들어도 클래식, 국악 등 편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문화생활이 다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연은 비싼 것도 많지만 시에서 하는 강연이나 초청 공연 등 저렴하고 좋은 게 많아서 찾아보고 있어요.

허0호 저는 중랑구에 오래 살다가 노원구로 온지 6년 됐고요. 젊을 때 군대에서 다치고, 무역 한다고 외국을 많이 다니다가 지금 짝딱 망해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문화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어느 날 영화 '피아니스트'를 봤는데 전쟁 속 포로인 피아니스트가 독일 장교에게 불려가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는 장면이 마음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나서부터 나도 예술을 해보자 해서

연극, 영화 등을 자주 보고 공공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해 문화기행도 갔었어요. 한때는 밀바닥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희망을 찾고 있어요. 우연히 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거죠.

이0숙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시를 쓰거나 사진, 그림을 하는 문화계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고요. 문화생활을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혼자서 시간 날 때마다 즉흥적으로 다녀요.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서 3-4년 동안 문화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서0수 송파구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형적인 기러기 아빠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은 회사 직원들하고 지내요. 영화나 TV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에게 문화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에 가서 도슨트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연 중에서도 연극을 좋아하는 편이라 자주 연극을 보는 편이에요. 가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지만요. 주말에는 주로 혼자 지내는데, 인시동에 자주 가요. 여러 국가의 외국인을 보는 것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해요.

김0성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서관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동네 주민들끼리 직접 운영하는데 아주 프로그램이 좋아요. 요즘에는 이곳에 가는 게 삶의 낙이에요. 폭염에는 대피소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도서관과 다르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어요.

자신의 취향에 맞고 필요한 문화생활이면 바빠도 시간 내어 가죠

진행 1인 가구는 혼자 살다보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다인가구였을 때 비해 집안일을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요?

윤0옥 다인가구였을 때도 어차피 혼자 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없었어요. 어지르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혼자인 게 편한 것도 있어요. 혼자라서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없어요.

서0수 1인 가구라고 해서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생활과 관련해서

는 시간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향이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는 거죠, 직원들에게도 한 달에 한 번은 공연을 보라고 권유합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혼자여서 더 좋은 문화생활

진행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50대부터 동호회 활동이 많아진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외로워서 문화생활을 더 활발히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문화생활은 보통 누구와 하시나요? 혹은 동아리 활동을 하시나요?

김이성 여가의 대부분을 스포츠로 보내는 편이에요.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도 자주 하고요, 1인 가구의 장점이 어느 시간이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자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의 숨은 곳을 취재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매체에 실리기도 했어요.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문화생활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기사를 쓰려면 미술관, 박물관도 직접 다녀야 하니 자연스럽게 문화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원고료로 생계에 도움도 되면서 문화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인거죠.

최이운 그래도 혼자 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친구와 같이 가면 좋지만, 친구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잘 안나요, 1인 가구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혼자 가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건 감동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재미있는 걸 봐올 때 서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쉽죠.

윤0옥 전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즐기지 않아요, 특히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과 취향이 맞아가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다 급하게 패키지라도 가려면 싱글요금 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군가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하하) 영화를 혼자 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싫어요, 혼자 공연장에 가면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소심해지기도 해요.

윤0옥 지금은 아들이 유학을 가서 혼자 살지만, 같이 살 때는 아들이랑 취향이 비슷해서 같이 영화도 자주 봤어요, 공연을 많이 볼 때는 거의 매일 봤는데, 아들이 유학 가고 이런 즐거움이 줄었어요, 가족하고 같이 보면 대화가 돼서 좋거든요.

김미 저는 딸과 단 둘이 살았을 때는 딸 취향에 맞춰서 영화나 공연을 많이 봤

는데요, 혼자가 되니까 내 마음대로 골라서 혼자 잘 다녀요, 뮤지컬은 매달 보지는 않지만 3-4개월에 한 번씩은 보려고 해요, 문화 동반자가 없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건 꼭 하는 편이에요.

이0숙 딸하고 둘이서 살다가 얼마 전에 결혼시키고 혼자 산지 얼마 안됐는데요, 딸과 저 둘 다 주관이 뚜렷하다보니 같이 살 때도 따로따로 문화생활을 즐겼었고, 지금도 거의 혼자 가요, 친구들과 같이 가면 감동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집중을 못해서 문화 활동은 혼자 해요, 평소 연극 한 편 안보는 친구들과 연극 관람을 같이 가면 새로운 세상이라고 극찬하지만 그때 뿐이더라고요, 매번 데리고 다니자니 내 문화생활에 방해를 받아요.

허0호 연극이나 영화, 뮤지컬을 보고 산에 다니면서 외롭고 힘든 걸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문화적인 거리를 걷거나 문학관도 다니고요, 누가 공연이나 전시에 초대해주면 다니기 바빠요, 시간이 지나다보니 이젠 혼자인 것도 눈치가 안 보여요, 혼자 하는 게 재미있어요.

서0수 저는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그 친구들 코드에 맞춰서 문화 활동을 하려고 해요, 평소에는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면서 여가 생활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한 취향은 없어요, 젊었을 때에는 공부와 직장생활 하느라 문화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가족이 있을 때에는 아내의 취향에 따라 제가 끌려 다녔어요, 저는 사실 뮤지컬을 제일 좋아하는데 보고 나면 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TV나 영화처럼 화면 속에 사람이 나오는 것 보다 뮤지컬이나 연극처럼 실제 사람이 나와서 공연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왜 보는지 잘 이해가 안돼요.

서울 1인가구의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책수요
출처: 변미리 (2015).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551-573.

	골드세대	산업예비군	불안한 독신자	실버세대
가치관	• 개인주의 • 개성과 다양성 존중	• 3D 업종 기피 • 풍요롭게 성장한 세대의 가치 담지자	• 가족가치 약화	• 대가족제 약화영향
경제 환경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 청년실업	• 중장년 실업	• 낮은 경제 능력
사회 문화적 환경	• 가부장적 가치의 완화 • 긍정적 싱글 이미지	• 사회 浮遊층화 가능성	• 기러기가족 • 이혼율 증가	• 고령화사회의 중심세력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거리가 많아요

진행 보통 문화생활 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화생활이 힘들다고 느끼시곤 하나요?

서0수 전 인사동에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사동 갤러리는 무료인 곳이 많아요. 공연은 반 정도 직접 사고, 나머지는 초대받아서 가곤 해요. 술 한 잔 안 먹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힘들 수 있죠.

허0호 저는 장애인이라 모든 문화생활 비용이 반값이에요. 공연, 전시 말고도 지하철 등 여러 가지가 할인되니 원할 때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거나 문화공간에 쉬었다가 와요. 이런 것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해서 넉넉하지 못하지만, 문화생활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문화누리카드를 받아서 사용하기도 하고,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예술 사이트를 방문하면 이벤트가 많아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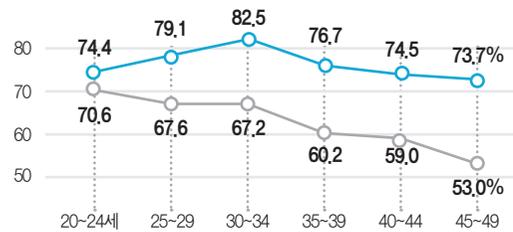
김0미 관심만 있으면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공기관이나 다른 여러 홈페이지를 보면 이벤트가 많죠. 서울에는 시립미술관 프로그램도 좋고 관심만 있으면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동호회를 3개 정도 하는데 그 중에는 또래들과 먹방 투어를 하며 여행하는 모임도 있어요. 요즘에는 철마다 지역축제에 가서 지역의 특산품도 보고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둘러보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진행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조금 돈을 내야 하죠?

김0미 공짜인 것도 있고 조금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경제 상황 때문에 문화생활을 못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인가구 연령대별 삶 만족도

연소득 1,200만원 이상, 20~40대 1인 가구 1,500명 대상 조사



출처: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 42%는 하루 두끼 '혼밥''. 연합뉴스(2017.02.23).

윤0옥 뮤지컬이나 공연은 금액이 비싸서 자주 못 보고 큰맘 먹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벤트에 응모를 해서 많이 보러 가는 편이에요. 제 돈 주고 보려니까 자주 못 봐요. 이런 이벤트는 행동이 빨라야 하고 정보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밑바닥 인생도 문화생활을 하다보면 달라져요

진행 문화예술이나 문화생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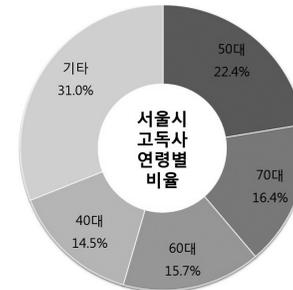
허0호 정말 밑바닥에서 예술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 졸임 없는 1인 가구도 많고 정말 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과 몇 번 같이 문화생활을 해봤는데, 경험하고 나면 그 분들 삶이 달라지더군요. 밑바닥 인생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은 희망의 씨앗이라고 봐야 해요.

서0수 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8년 정도 혼자 살다 보니 그냥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주변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 증상이 심각해요. 70%는 우울증이 있는 거 같아요.

허0호 혼자 있을 때 가끔 순간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풍족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10%는 풍족한 사람이고, 나머지 30%는 중간층, 4-50%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이 있어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치매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노숙자도 벽에 혼자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미친 게 아니라 외로움을 풀 곳이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너무 외롭고 분출할 곳이 없으니깐요. 그런데 가끔 혼자 연극 보러오는 사람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며 얘기해보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어서 연극을 본다 하더라고요. 영혼이 메말라가는 걸 문화예술로 치유해야 해요. 마음의 치유가 중요한 거죠.

이0숙 문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다지 큰 제약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취향은 어느 정도 타고 나는 게 아닐까요?

김0미 문화를 일단 직접 접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흥대 벼룩시장도 접해본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상에서나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 함께 문화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0-60대 혼자사는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큼. 또한 이혼 등의 가족특성과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이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출처: 서울시복지재단(2016),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

최이운 동네 문화가 확 와 닿네요. 작은 동네에서 하는 문화운동이 오페라같이 큰 공연을 접하기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게 우리 동네 근처에는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요. 도서관도 많지 않고, 도서관 프로그램도 컴퓨터 정보 교육이나 어린이 영어교실 위주라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싼 공연료가 가장 큰 제약인 것 같아요.

서0수 문화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거창하고 화려하게 느껴져서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아껴서 공연을 보는데도 먹고 살 만하다고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요. 특별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는 않고 그냥 편하게 가서 보고 즐기는 게 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허0호 언젠가 청계천 근처에서 예술인들과 주변 공장 근로자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고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큰돈을 투자해서 번듯한 행사를 하고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저렇게 어울리는 것 자체가 문화생활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0성 저는 자전거를 타는데 이런 것도 스포츠가 아니라 생활 속 문화라고 생각해요.

윤0옥 제게는 업무를 빼고 먹고 잠자는 일상생활 모두가 문화생활이에요. 즐겁게 웃을 일이 있으면 문화생활 아닌가요?

문화생활 참여 기회 확대 원해요

진행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에 바라는 바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0수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문화 활동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김0미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해요.

허0호 문화 접근이 어려운 소외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도 있던데요. 서울 문화재단은 그런 문화 이벤트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김0성 한 달에 한 번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여러 번으로 늘렸으면 해요. 평일보

다는 주말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축제도 참여가 중요한데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서울시 경복궁 야경 산책처럼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해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으면 합니다.

윤0옥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진행 오늘 좌담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070 노인 1인 가구

청춘의 마음으로 사는 홀몸 노인

- ◆ 일시 2017. 4. 4.(화) 16: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유0길 : 60대 남성, 아르바이트, 미혼, 노원구 거주
 2. 김0산 : 70대 남성, 무직, 사별, 부천시 거주
 3. 이0순 : 60대 여성, 무직, 미혼, 종로구 거주
 4. 박0자 : 60대 여성, 주부, 이혼, 성동구 거주
 5. 김0영 : 60대 여성, 무직, 사별, 노원구 거주
 6. 김0열 : 60대 남성, 사무종사자, 미혼, 양천구 거주
 7. 박0호 : 70대 남성, 자원봉사, 사별, 동대문구 거주

요약 정리

문화생활의 범위 및 의미

- 문화를 많이 즐기고, 즐겼던 이들의 경우 문화가 삶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함
- 반면 문화가 특별한 경험이라 생각하는 이들은 과거의 생활과 비교하거나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의 삶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보임
- 대체적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문화생활의 범주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사회 흐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모든 이들이 영화를 본다고 하여 문화생활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개인에게 맞는 문화생활을 찾는 것이 중요

문화활동의 특성 및 장애요소

- 60대 이전까지는 생계를 위한 사회활동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건강이나 퇴직을 사유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향유함
-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살피는 편임
- 대부분 혼자보다는 여럿이 문화를 즐기고 나누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며, 이런 측면에서 1인 가구이기에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문화/여가 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으나, 대체적으로 1인 가구로서의 문화생활의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였음

- 소극적으로 문화생활을 하는 이들은 문화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집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 위주로 즐기기도 함
- 다만 소극적이고 혼자 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여행을 다니거나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는 등 나름의 문화생활을 찾아 생활하고 있었음
- 전체적으로 문화생활은 자원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하거나 무료 문화행사를 찾아다니는 형식이었으며, 특별히 관심 있는 문화생활에만 금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임

동호회 및 지역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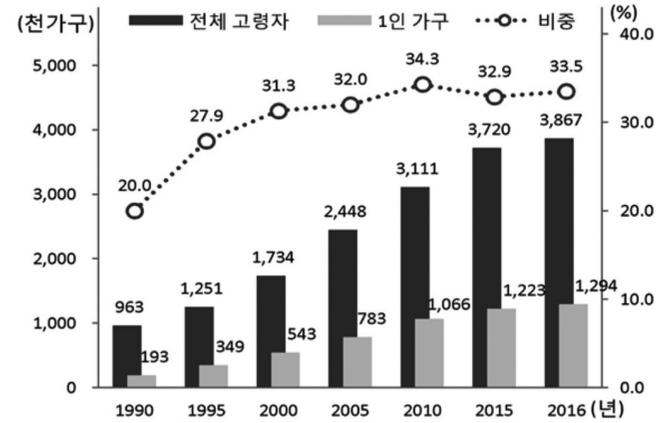
-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나 주민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컴퓨터를 통해 스스로 탐색하고 참여하고 있음
- 때로는 주민센터의 운동시설이나 노인복지관의 운동시설, 투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동호회나 정기적인 모임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밀려났던 공허함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시설에서의 대부분의 문화프로그램이 여성 위주로 짜여 있어 남성들은 참여하기 꺼려워 함

기타의견

- 많은 시민들이 누리고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 요구가 컸음
- 나이나 건강상으로는 노인일지 몰라도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원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취급을 받는 것에 힘이 빠지기도 함

수다 기록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출처: 통계청(2017). 2017 고령자 통계

진행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김0열 저는 양천구에서 왔습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이라 문화 자체를 크게 즐기지는 않았는데요. 삶이 팍팍하다보니 복지회관 같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통해 문화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0호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알아서 문화해설사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문화해설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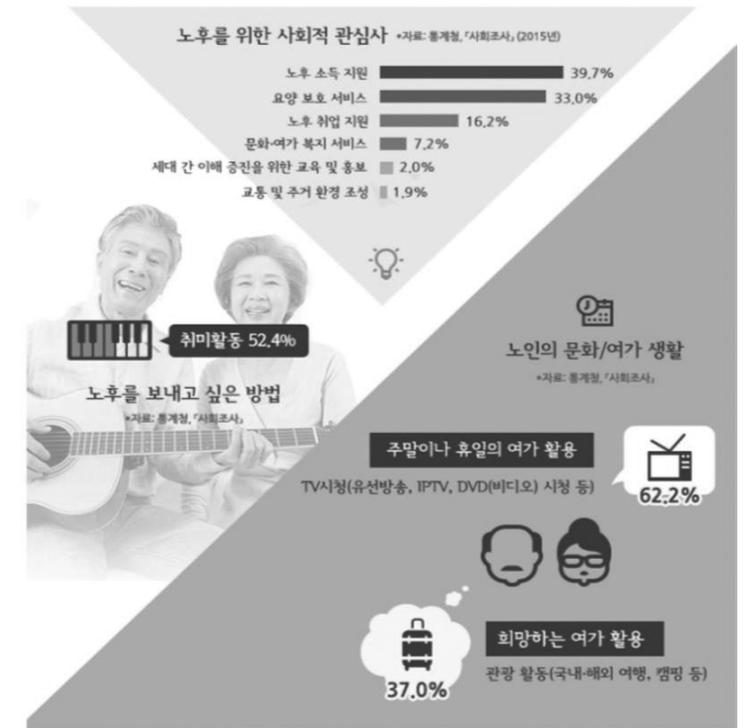
유0길 저는 노원구에 살고요. 평소 음악 감상을 하거나 영화관이나 전시회에 주로 다니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본을 전공해서 그런지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 한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화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김0선 저는 사실 문화생활이라고 따로 하는 건 없고요. 배낭여행을 하고 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8년 전에 뇌경색으로 몸 한쪽이 마비됐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5년 전에는 한 달 정도 유럽 여행을 혼자 다녀왔습니다. 1981년에도 유럽을 방문했었는데 그때에 비해 한국인 배낭여행객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0순 저는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자원봉사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과학관 등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적 답사를 좋아해서 많이 다녀왔습니다.

박0자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고요. 이전에는 정적인 활동만 하다가 지금은 시간 있을 때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0영 저는 노원구에서 왔고 얼마 전부터 성인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니고 있는 늦깎이 학생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게 됐고, 그 계기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나 여행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사는 것 자체만으로 삶이 팍팍해서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이나 향토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참여하다보니 지금은 성인을 위한 학교에 다니며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만을 위한 시간이 많이 생겼지만 좋아하는 오페라나 연극은 너무 비싸 거의 볼 수 없어 대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출처: e-서울통계102호
서울 노인의 노후생활

은퇴 후 오히려 문화생활 기회가 늘었어요

진행 최근에 활동하신 문화생활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김0열 저는 올해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전라도 전주를 지인들과 다녀왔어요.

박자 저는 성동구에 있는 아트홀이나 서울시립미술관도 자주 가서 천경자 그림을 보고 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런치박스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은데 매번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처럼 노인 1인가구 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다함께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진행 젊은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셨나요?

박자 젊을 때는 소극적으로 집 근처만 돌아다녔는데 2012년부터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력이 닿는 대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덕수궁이나 서울역사박물관도 시간만 있으면 다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삶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젊은 시절에 문화활동을 좋아하긴 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건가요?

박자 젊은 시절에는 시간도 없지만 주로 정적인 활동을 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돌아다닐 여유가 생겼고 시간 부족으로 단절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문화를 많이 즐기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은 생각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박호 전 시간이 나면 탁구를 쳐요. 회비를 걷고 하는 모임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여행도 가요. 지난번에는 전라도에 여행을 갔어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보면서 이렇게 가꾸어 놓으니 공부도 되고 문화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제 은퇴한지는 10여년이 지났는데 문화해설사 봉사도 하고요. 봉사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 교육도 받아요. 그 동안은 대학에 들어가 취업하고, 결혼 후에는 돈을 버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다보니 여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60세가 지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나더라고요. 3년 전부터는 신문이나 TV를 보지 않아요. 그런 시간에 책을 읽던지 서울시 여행 코스에 대한 해설 원고 등을 정리해요.

김영 저는 작년에 친구와 북촌 한옥마을에 여러 번 갔었어요. 서울시에 미리 예약을 하면 해설사가 안내를 해준다고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좋았습니다. 외국인이나 다른 한국 사람들은 해설사 없이 그냥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해설을 듣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순 4월 1일은 장국영이 자살한 날인데요. 저는 장국영 팬클럽 회원이라 해마다 그의 영화를 보러 다닙니다. 올해 행사에 가보니 영화관이 있는 동네가 고즈넉

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평소에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고는 하는데, 책을 볼 수 있는 책상도 있어 학교나 도서관 같았어요. 요즘 영화관이나 서점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개념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기능이 달라지고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았어요. 집이 서촌 근처인데 평일에는 술집만 보이지만 주말이 되면 도로에 예술적 분위기가 느껴지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관처럼 변해요. 문화를 즐긴다는 생각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유길 저는 음악 전공자라 교회 봉사활동으로 악기연주를 해요. 때로는 친구들과 예술의 전당이나 서울시 행사에 가서 관람하기도 해요.

김선 저는 딱히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오래전부터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요즘은 구청에서 컴퓨터 수업으로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배우는 정도예요. 그 외에는 지난번에 유럽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녔는데,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것부터 뭐든지 혼자 다 해봤어요.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애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문화는 특별한 것!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줘요

진행 문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있으신가요? 문화생활은 일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특별한 건지요?

김영 저는 문화생활을 누리는 게 특별하게 느껴져요. 지금 색소폰을 배운지 1년 정도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 줄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몸이 아프다보니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뭐라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든지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유길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항상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는 것도 '내가 과연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문화 정책이 일반 대중을 위한 방향으로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이열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문화생활이 과소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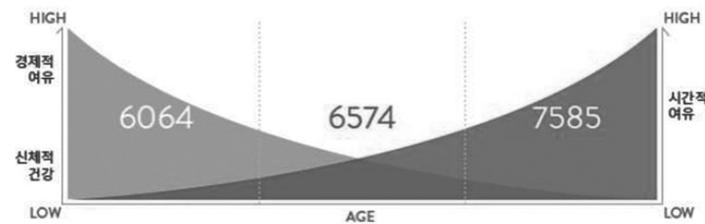
박호 젊었을 때 다국적기업에서 일했는데 당시에는 우리 회사만 주5일 근무였어요. 그렇다보니 토요일에 뭔가를 같이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찾아서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많은 걸 못해봐서 좀 아쉬워요. 은퇴를 하고 나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되었나보다'하고 나이든 사람들 스스로 생각했으면 해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

리 만나서 문화생활도 하고 대화를 하면 예전의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좋거든요.

이0순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을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그 나라의 문화를 살려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가 거창하거나 심각한 것이 아니라 베풀 끝에 있는 이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박0호 문화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동남아에서 여행객들이 탐방을 오면 드라마 촬영장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이 찾아오는 것도 문화의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6085 세대별 라이프 스타일의 비교



출처: 님스코리아(2016), 6085라이프스타일 보고서

무료이지만 질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찾아요

진행 문화생활을 하실 때 주로 무료로 이용하시나요?

김0열 저는 보려고 마음을 먹으면 돈을 모아서라도 봐요.

김0선 저는 문화생활을 잘 몰라요. 집에서 영화나 음악을 다운 받아보는 정도 같아요. 여행은 돈이 많이 들지만, 가만히 앉아서 영화나 음악을 다운 받아보는 건 돈이 안 들어서 아주 좋아요.

이0순 그것도 문화생활이죠!

김0선 그게 문화생활인가요?

박0호 그럼요. 집에만 있지 말고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서울 시내에 있는 해설은 전부 무료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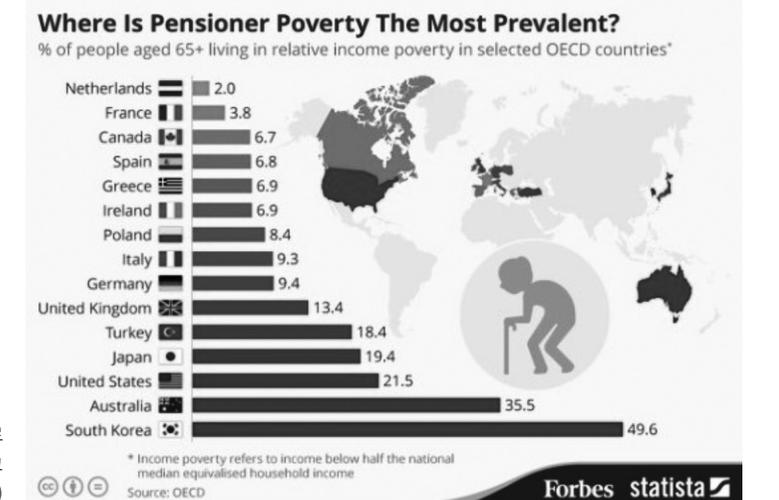
김0선 그런 건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 내어 다니기도 어렵잖아요.

박0호 혼자 신청해서 다녀도 돼요. 전쟁기념관에 가면 대한민국 역사를 꼭 접할 수 있는데 거긴 저도 혼자 가요. 혼자 들어도 좋아요.

이0순 혼자 잘 하는 걸 보니 젊은 사람 스타일이시네요.

박0자 문화생활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무료이지만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질 좋은 프로그램은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와 같이 가고 싶기도 한데, 잘 없어요. 그래도 메일을 확인해보면 축제와 행사 정보가 많아서 조목조목 찾아보고 약간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김0영 연극은 공짜 티켓을 구해서 보는 편인데 책은 반드시 돈을 주고 사보는 편이에요. 또 서울시의 무료나 저렴한 강좌도 많이 살펴보고 인터넷 강좌를 통해 오카리나를 배우고 있어요. 정말 서울 시내에 미술관이며 박물관이 얼마나 많은지 종로에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공간들이 있어요. 너무 많고 다 좋아요.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 49.6%로 OECD 국가 중 최고
출처: OECD(2016)

노인도 혼자 문화활동 잘 즐겨요

진행 정보는 다양하게 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대부분 문화생활은 혼자서 하시나요?

김0영 혼자 사니까 언제든 시간 제약 없이 갈 수 있어서 좋지만 혼자서 가기 힘든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친구들과 가고 싶기는 한데 친구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저와 시간 맞추기도 쉽지 않죠. 그래도 친한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추천도 하고, 박물관이든 유적지든 시장골목이든 해설하는 분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냥 보는

것과 전문가에게 듣고 보는 것은 달라요.

유0길 저도 친구들과 함께 외국 유명 교향악단이 와서 공연하는 그런 걸 보고 싶지만 어려운 클래식이라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어떤 문화냐에 따라 친구들과 동행하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그래요.

박0자 저도 때에 따라 다르게 해요. 그런데 내가 좋으면 혼자라도 가는 편이고 항상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가는 편이에요. 강요하지는 않고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가고 권유는 하지만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박0호 저는 친구들과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만 없으면 손주들 데리고 다녀요. 고등학생부터 꼬맹이까지 있으니까요.

김0열 저는 지인이랑 가기도 했지만 자주 가지는 않아요.

진 행 친구 분들과는 관심사, 활동 내용에 따라 모이시나요, 아니면 근처에 사는 분들과 주로 어울리시는지요?

김0열 저는 지역 복지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주로 운동시설을 이용해요. 문화 프로그램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박0호 저는 어떤 문화 활동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탁구는 동네에서 치고, 다른 활동들은 대부분 관심사를 따라 움직이는 편이에요. 동네 친구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그래요.

이0순 저는 인터넷 동호회 위주로 활동하다보니 관심사대로 모이는 것 같아요. 동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넷 신청, 글자크기 등 노인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필요해요

진 행 문화정책 프로그램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김0선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아요. 꼭 여자남자를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참여할만한 게 많지 않아요. 여자들은 노래 부르고, 남자들은 컴퓨터만 하고요.

유0길 제가 얼마 전에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수강한 남성은 저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나가다가 민망해서 그만 두었어요.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박0호 자치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자치구와 교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양도성은 종로구를 비롯해서 성북구 중구 등 여러 구가 걸쳐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끼리 교류하거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원칙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같이 공유되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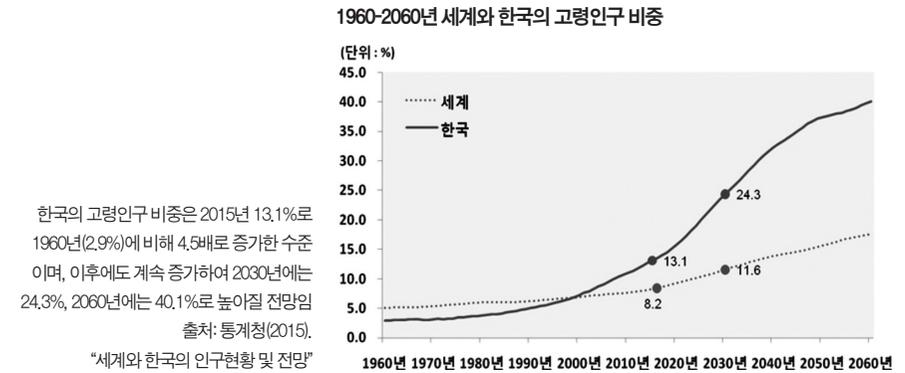
이0순 문화 소식이 적혀있는 유인물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박0호 맞아요. 문화시설이나 행사 자료를 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요.

유0길 대부분 컴퓨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해요.

김0영 저는 경북궁에서 하는 야간 투어를 신청하고 싶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빨라서 그런 건지 선착순 마감이 일찍 되어서 신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김0열 컴퓨터를 잘 한다고 해도 신청할 때 입력할 것이 많고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청춘이에요

진 행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0선 아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0길 저는 미혼이라 그런지 노인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김0선 저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디 가면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게 싫어서 전철 타도 일부러 서서 가요.

김0영 어제부터 65세 이상 전철 무료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걸 받으니까 '이젠 내가 노인이구나.'생각이 들었어요. 무료로 탈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요.

김0선 어떤 곳에서는 지하철 패스를 찍으면 "고령입니다"라고 나와요. 그 얘기 듣기도 싫어요.

이0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지난번 '이야기 할머니'라는 봉사활동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 싫어서 일부러 신청 안했어요.

박0호 나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다른데요. 일 년이 다르게 걸음걸이도 다르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청춘이에요.

진 행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이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0영 저는 문화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생활이 없었으면 어떻게 삶을 즐겼을까 싶어요. 이전에는 집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생활의 7-80%가 문화생활처럼 되어 버렸어요. 일상의 사소한 것들도 문화라고 생각하니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박0자 문화생활은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떤 환경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를 즐길 수 있으면 기쁜 것이예요. 나이 먹는 것을 서러워만 하지 말고 6-70대가 되면 무료로 되는 모든 것들을 즐겼으면 해요.

박0호 문화생활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60대 이상이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일상생활에 얽매어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와 집단에서 자기만의 생활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해설사 활동을 하는 이유도 공부도 되지만 대인관계를 넓히고 자기 수양도 되기 때문이에요. 문화생활은 자기가 만들어야 하지만 공공에서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마음을 열고 참여할 계기가 있기를 바라야 할 것 같아요.

유0길 문화 정책에 전반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0영 바라는 것은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들도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진 행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삶과 문화생활

[3040 전업맘] 아이를 위한 문화 즐겨요! 나를 위한 문화 원해요!!

[3040 워킹맘] 바쁜 워킹맘의 슬기로운 문화생활

[3040 워킹대디] 프렌디 아빠의 여기문화 탐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다. ...[\(중략\)](#)...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면 부모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_박혜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중에서](#)

3040 전업맘

아이를 위한 문화 즐겨요! 나를 위한 문화 원해요!!

- ◆ **일시** 2017. 4. 18.(화) 11: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권0별 : 30대 여성, 초등학교 2인 자녀, 강북구 거주
 2. 권0진 : 30대 여성, 미취학 2인 자녀, 서초구 거주
 3. 이0영 : 40대 여성, 미취학~초,중학생 3인 자녀, 광진구 거주
 4. 오0선 : 40대 여성, 미취학 1인 자녀, 중랑구 거주
 5. 조0주 : 30대 여성, 미취학 1인 자녀, 강서구 거주
 6. 정0나 : 30대 여성, 초등학교 1인 자녀, 노원구 거주
 7. 한0은 : 40대 여성, 미취학/초등학교 2인 자녀, 구로구 거주

요약 정리

문화생활의 범위

- 자녀의 연령에 따라 문화생활의 중점 대상이 달라짐. 연령이 낮은 자녀가 있을수록 자녀 위주의 공연이나 체험 등을 찾아다니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었음
- 어린 자녀를 둔 육아맘은 문화생활의 범위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높은 연령의 자녀를 둔 육아맘은 자기개발을 하거나 강연, 교육활동 등을 통해 자신만의 여가/문화생활을 구축하고 있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서의 문화생활은 특별한 것이며, 여행과 같이 계획이 필요한 것임. 하지만 점점 자신만의 문화생활을 찾아가며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고 변모해가는 것으로 보임

문화생활의 특성

- 문화생활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체험 등을 찾아보고, 특히 저렴하게 즐기면서도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함
- 서울시에서 하는 다양한 무료 공연들의 이벤트를 찾아 응모하고, 아이에게 꼭 필요한 강좌나 공연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음
- 그러나 대부분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아이대상의 공연이 아니면 동반하기 힘들고, 특히 자녀의 연령차가 심하게 나거나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데리고 밖을 다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음
- 도서관은 자녀들과 함께 하기에 적합한 장소인 동시에 육아맘의 문화생활

장소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음. 주민센터나 지역문화시설, 백화점 문화센터의 강좌에도 참여하고 있으나 시간대가 적합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 육아맘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해 조조영화를 보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며, 손글씨 쓰기, 요가 등 개인 시간에 맞는 여가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었음

문화생활의 제약

- 아이와 동반이 가능한 공연시설이 부족하고, 생활권 주변의 문화프로그램과 시설이 부족함
-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수업들이나 공연들이 있지만 선착순이거나 너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어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참여인원을 늘려 다양한 이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 자신을 위한 문화생활을 원하면서도, 본인을 위한 문화생활을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가사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 활동하거나 참여하기를 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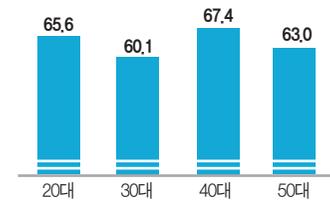
기타 제안이나 의견

- 프로그램 구성이 너무 상투적이고 대부분 주최 측의 상업성이 우선시 되는 축제에 대한 개선의견이 많았음. 우수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지자체에서도 축제에 대한 예산을 늘려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면 함
- 다둥이 육아맘의 경우 대부분 자차를 이용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차 여부 및 주차료에 대한 부담이 있음. 아이와 함께 이용하는 문화시설의 경우 어느정도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운영시스템 마련 필요

수다 기록

출처: "깜깜이 인사에 '승포녀' 눈물...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고과 꼴찌" 매일경제 (2017.12.05.)

애 키우느라 일 못하는 30대 여성 (단위=%)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 기준. 자료=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대보다도 낮은 30대 고용률 (단위=%)



*지난해 기준. 자료=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진행 이번 시간에는 1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3040 여성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은 저는 구로구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7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 위주로 문화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주로 밤늦게 해서 즐기기가 어려워요. 평소에 서울시 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더 들여다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이나 저는 노원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딸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위주로 다녔는데요. 아이가 좀 크다보니 제가 보고 싶은 공연이나 문화 프로그램 중 초등학교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주 저는 강서구에 사는 6살 남자아이 엄마고요. 12주차 임신부이기도 합니다. 아이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무료 공연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영화는 대부분 만화영화 위주로 봤고요. 아이가 조금 크면서 유모차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아서 주말에는 아이 아빠와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동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해요. 예전에 아이를 안고 볼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데 수유하는 분도 계셨어요. 사실 정신없는 공연이기는 했지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하면서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극장에서 하거나 아는 사람만 찾아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서울에 이런 공연을 하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오선 저는 중랑구에서 왔고, 미취학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공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영 저는 광진구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7살 남자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다보니 함께 어디를 가기는 어려운 편이고요. 아직까진 대부분 큰 아이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도 좋

아하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도 문화라고 생각해서 근처 문화원을 주로 이용하면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어요. 대부분 공연, 전시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참여 교육도 좋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고, 전통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엄마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권진 저는 서초동에 살고요. 6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공연 예술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잠시 했었어요. 36개월 이상이면 부모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많지만 사실상 같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은 둘째가 아직 3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못 본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위주로 보는데, 조부모님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활발하게 문화생활을 하는 아이 엄마들도 있는데 저는 주로 동네 근처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권별 저는 2학년, 5학년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제가 선택해서 아이들과 문화 공연을 보고는 했는데 아이들이 크니 자기 취향이 생겨서 보겠다고 하는 것들도 가끔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다보니 기동력이 생겼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활동은 찾기 어려워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하고 싶네요.

진행 최근에 한 문화활동이 있으신가요?

조주 저는 고양인 강릉 근처에 갔다가 허난설헌 축제를 즐기기도 했고요. 백화점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최근 미녀와 아수 공연을 1인당 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관람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는 가까워서 가끔 아이 없이 혼자 좋은 강연들을 들으러 가기도 해요.

권별 저는 지난 번 청계천 도깨비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청계천 야시장도 구경하고 사이사이에 있는 푸드 트럭에서 음식을 사서 청계천에 앉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물론 즐거워했고요. 평소에 먹지 않는 스테이크를 야외에서 먹으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 미세먼지가 많고 사람들이 맥주를 들고 다니기도 해서 아이 정서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은 저는 구로구에서 하는 거리 축제를 다녀왔는데, 구나 시에서 하는 축제 대부분이 먹거리 비중이 7-80%는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볼거리와 체험색션이 각각 10%씩 되는 것 같아요. 먹거리가 다양하거나 맛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서비

스도 별로인데 가격은 비싸더군요. 체험 같은 경우에도 체험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콘텐츠가 비슷비슷해요. 한두 번 가보면 거의 비슷해서 아쉬워요. 또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하는 축제도 다녀왔었는데 가을 잔디마당에서 퓨전 음악 공연도 하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들이 있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이와 함께, 혹은 나 홀로 문화생활을 즐겨요

오선 저는 아이와 함께 가는 것도 좋지만, 보통 제가 즐거운 공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나 주로 가는 문화정보 사이트를 인터넷 즐겨찾기에 등록해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요. 야외 무료공연, 아이와 함께 하는 무료 공연 등을 찾아보고는 합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하는 것과 아이 없이 낮에 혼자 볼 수 있는 저렴한 공연을 구분해서 찾아봅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공연은 거의 안보고요. 작년에 국립극장의 야외 작은 공연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30분짜리 짧은 공연을 보면서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영화도 혼자 조조영화를 보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조조영화, 창극단 공연도 보고, 최근에는 명동예술극장에서 하는 미디어도 보고 왔습니다. 아이들보다는 제 위주로 보고 있죠.

한은 저도 낮 공연을 찾아보는데 거리가 멀거나 소수 인원으로 모집하는 것들이 많아 참여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도 '브런치콘서트'를 하는데 워낙 소수로 모집하다 보니 참여하기가 어렵고, 혼자 누릴 수 있는 건 조조 영화를 보는 정도입니다.

권진 저는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점심에 런치 공연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한 달에 한 번 1-2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어서 즐겨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는 게 힘들지만 힐링이 될 수 있어서요. 매달 열심히 가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맞으면 가고 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서 국립극악원에서 하는 공연도 보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전통 놀이 등 아이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영 저는 일주일 세 번 정도 아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가고나면 요가와 장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공연을 보러 찾아다닐 시간은 없어요.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가끔 주변 공원이나 근처 문화원에서 장구 공연도 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일찍 하원해서 아직은 참여하지 못하고 사진만 찍어주고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공연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구경보다는 직접 참여하거나 도서관 행사에 참여해요. 저도 아이보다는 제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정이나 저는 노원구에 살아서 근처 북서울시립미술관 등 근접해 있는 곳에서 짧게 다녀오기도 하고요. 아이와 함께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일산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어쩌다 하루 날을 잡고 여행을 하면 한 가지 문화체험만 하고 오기는 아까워서 아이가 학교에 하루 결석하더라도 하루 종일 놀다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뮤지컬 공연을 목동까지 보러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에 비해 연기력 등 공연 질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이가 하나이다보니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도 좋은 공연은 놓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 어릴 때, 4-5살까지는 제 선택에 의해 공연을 수동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체험 위주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운전할 못해서 서울을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있는 동안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예요

진행 주로 여가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은 저는 막내가 7살이라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10시에 등원시키면 2-30분이 훌쩍 지나가요. 2시에 큰 아이가 오기까지는 온전히 제 시간입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아이 데리러 가고 거의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보니 3-4시간 정도가 저의 시간이예요. 보통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 밥 먹고 수다 떠는 게 90%예요. 10%는 쇼핑이나 영화 보는 활동 등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가고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 정도만 하고 있고 더 이상의 문화생활은 어려운 편이죠.

권진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어린이집보다 더 일찍 하원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육아에 지쳐서 뭔가를 할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10시-2시 반 정도 5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 온전히 제 시간인데, 시간적 여유는 부족하지만 일을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날에는 친구들과 이랑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시를 보러 다녀요. 동사무소의 주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오는 등 동네에서 주로 문화생활을 하는 편이예요. 동사무소가 예전에는 낙후된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리노베이션을 해서 더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국립중앙도서관도 갔더니 디지털도서관이고 너무 좋는데 동네 분들은 대부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국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는데 우연히 가보니 너무 좋아서 남편과 함께 가서 점심도 먹고 왔어요. 친구들과 수다 떨거나 혼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이0영 국립어린이도서관도 좋아요.

권0진 저도 거기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는 길이 언덕이라 불편해요.

이0영 국립어린이도서관은 봉사점수를 따려는 친구들이 거기에 상주해 있어서 그냥 아이들을 맡기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엄마들도 잠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요. 특별한 조건 없이 어린 아이들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이대면 전부 가능합니다.

권0진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영화도 많고요. 다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아직 그런 기회는 못 누려봤습니다. 정보에 민감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선착순 인원 안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오0선 저는 아침 9시 20분에 버스를 태워 보내고 종일반을 하다 보니 아이가 오후 늦게 와서 제 시간이 꽤 있어요. 집안일 하는 시간을 제하면 보통 4시간 이상은 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조조영화는 못 보지만 연극, 영화 등 다양하게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강좌 있어요. 서울예술치유허브센터에선 그림책과 미술치료사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보니 그림책을 통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전은 하지만 멀리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주말에 아이와 중랑구, 아니면 노원구 정도 근방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어린이도서관이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작은 도서관도 있지만 너무 오래된 책들만 있어서요. 주로 국립도서관을 이용해요.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없고 주차료에 대한 압박도 있어서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가 시간을 배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조0주 10시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주로 저는 헬스클럽에 가요. 또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있는 백화점 문화센터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강좌를 들으러 가요. 홍대 서점에서 가끔 저자강연회 등이 있어서 몇 번 참석해봤네요. 저는 10시부터 3시까지 집안일을 하거나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합니다. 요즘 태교한다고 컬러링북이나 음악을 듣고 하는데 힘들어요.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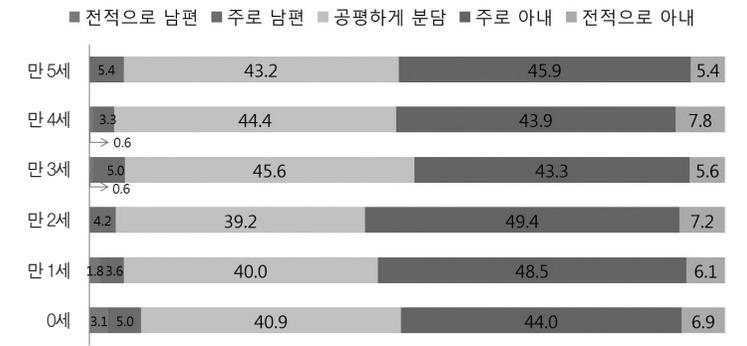
권0별 작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애들이 어린이집보다 빠른 시간인 1시에 돌아와서 힘들었어요. 올해는 아이가 방과 후 활동을 시작하니 3시 반 정도에 와서 너무 좋아요. 3월 한 달간은 뭘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독서도 하고 아이들 볼 책들도 챙겨오는 정도만 했어요. 집에서 조용히 혼

자서 하는 활동을 좋아해서 손글씨 쓰기, 십자수 등을 하고 있고, 아이가 늦게 오는 것이 적응이 되어가는 중이라 이제 슬슬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처의 공원에서 산책하고 다른 엄마들과 차 마시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진행 이런 문화활동이 일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건가요?

이0영 첫째 둘째를 모두 기관에 맡기니 몇 년 만에 시간이 나서 요가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문가 요가를 하고 있어요. 막내 아이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1시 30분 정도에 집에 오니 9시 반에서 1시까지가 제 시간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요가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걸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요가가 특별했는데 이제는 일상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식구들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남편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걸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간 자녀양육 역할분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오0선 저는 아이 낳고 2년 동안 모유수유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는 공연, 영화 보는 것이 수개월에 한 번 정도 있는 특별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다른 엄마들은 용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스스로 해보려 하지 않아요. 검색해서 문화생활 하는 것 자체를 엄두도 못 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일반적인 엄마들이 대개 그래요. 친구들과 이야기해도 화두가 요리나 육아, 가사 관련된 게 많지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아이들에 맞추려고 하고 자기 개발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정신이 없다고는 하는데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저는 동네 이준마들과 수다 떠는 시간이 오히려 아깝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진행 이렇게 다른 것은 미혼일 때부터 쌓아온 문화적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 이 아닐까요?

한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5살 될때까지 직장생활을 했었고, 그 후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 쉬고만 싶었어요. 2년 전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주말부부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쉬고 싶고 다른 것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TV를 잠깐 보는 정도였죠. 둘째가 조금 크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 돌보는 게 힘들어서 쉬는 게 좋아요. 멀리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영화를 보는 건 여행 가는 것처럼 큰맘 먹고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일처럼 느껴져요. 앞으로 큰 애가 자기 스스로 할 때쯤이면 저도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뭔가를 즐기기보다는 아이들이 커가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배워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요. 온전히 저의 정신적 안락을 위해 문화 활동을 찾아 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만나는 사람들도 학교 엄마들에 집중되고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니, 학교 엄마들이 오히려 가족 같아요. 아이들이랑 다 함께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니 주변 사람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쳐져 있거나 앓아 있거나 편히 쉬고 싶어 해요.

권진 문화생활 이야기인지 여자의 인생 이야기인지 구분이 잘 안가네요.(하하) 저는 아이들이 6살, 4살이다 보니 4-5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탈출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둘째가 어린 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갑자기 뭘 하려니 힘들었어요. 작년 여름에 엄마들 대상으로 영어 강좌를 만들어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아침부터 아이들도 빨리 보내야하고 바쁘더라고요. 강좌 하나뿐이라 남편도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강좌를 계속 하다 보니 시댁이나 남편의 인식도 변해서 요즘에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런데 문화생활은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과 정보를 구하고 집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문화생활을 위해 나가고 공연을 보는 것도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저만 그렇게 아니라 사실 남편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네요.

아이의 성향이나 나이에 따라 문화생활을 즐기는 패턴이 달라요

조주 성격에 따라서, 또 아이가 하나인지 둘인지,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주머니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안 좋아해서 주로 아이와 다녀요. 수유를 해야하다보니 쇼핑몰이나 백화점 위주로 다니고요.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영화관이 흔치 않아 지금은 예전처럼 보고 싶은 영화를 실컷 보지는 못해요. 그래도 영화를 조금 늦게 본다고해서 뒤쳐진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엄마라는 역할에 조금씩 적응하면서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즐겁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동네 아이 엄마들과 놀이터에서 하원 하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1-2시간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영 아이 하나일 때와 둘 일 때의 차이가 너무 큰 거 같아요. 그나마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는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돼, 저녁 8시에 하는 공연도 친정 엄마에게 잠시 작은 아이를 맡기고 함께 보고 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크면서 어디 가냐고 묻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터울이 있으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달라서요. 오히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우리세대는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인터넷이라도 이어져 있지만, 이전세대의 엄마들은 정말 세상과 단절되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진행 컴퓨터를 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나 저는 시간이 나면 일상적으로 컴퓨터를 켜는 편이에요. 가끔 남편이 부탁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검색해 엑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는 정리한 문화 정보도 주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도 했어요. 제 친구는 컴퓨터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데 알려줘도 문화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권별 저는 예전에 잠시 컴퓨터와 게임에 빠져서 아이 없는 시간에 가끔 게임을 했어요. 지금은 시부모님처럼 같이 살아서 그런지 그런 시간은 거의 없고, 주말에는 항상 밖에 나가려고 해요. 주말마다 밖에 나가려면 뭔가를 찾아야 해서 사실 그 자체도 일이지만, 주중에는 시부모님과 항상 집에 같이 있으니 주말이라도 아이와 밖에 나가려고 노력해요.

나 자신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주로 투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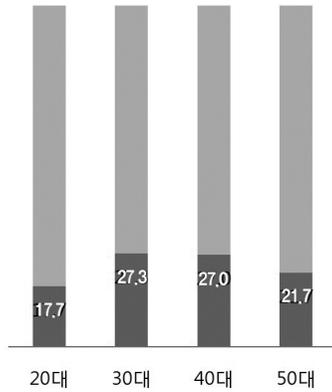
진행 소비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나 가족 위주로 하시는지요?

권진 저는 4인 가족이다 보니 가족들과 한 번 주말에 나가서 공연을 보면 3인 가족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을 체감해요. 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5-10만 원 정도만 쓰고 있어요. 매주 나가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같이 쓰는 주말을 위해서 주

중에는 거의 안 쓰려고 노력해요.

진행 무료 공연이나 행사를 찾아다니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지출비용 비율(%)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이이영 어린이대공원 상상나라는 주차도 무료라서 한 달에 몇 번씩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북서울미술관은 중학생 대상으로 공동체 조형 수업들이 있어서 참여했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악기와 강사진을 제공해서 수업하는 강좌나 공연도 좋은데 무료인 것도 많아요. 다둥이 가족이라 더 기회가 많지만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해요.

오오선 나를 위해서 보는 공연은 3만원이 넘어가면 아무리 좋아도 거의 안 가요. 아이와는 저렴한 야외 공연만 봐도 뭘 먹거나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공연비라도 아끼려고 무료 공연을 주로 봐요. 여름·겨울에 아시테지 축제는 만 원 정도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꼭 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최소 비용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알아보는거죠.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무료이거나 저렴한 공연을 위주로 찾아가요. 조조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조주 아이들이 TV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하는 공연은 가끔 가고요. 소셜커머스에서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곳을 알아봐요. 가격말고도 아이가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여 가능해야하니 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할로윈 쿠키 만들기 클래스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참가비는 만원이었지만 나중에 상품권도 주고, 앞치마와 각종 재료들을 나눠줘서 정말 좋았어요. 또 터닝메카드 배틀에 참여해서 배지 선물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이런 작은 것에 굉장히 행복해하잖아요.

오오선 이벤트 당첨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뽑히는 건 5명~10명

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사연도 적고 사진도 찍어서 응모해 양떼 목장도 무료로 다녀오고 너무 즐거워했는데, 최근엔 복잡한 게 많아서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조조주 포털 사이트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책이나 문화 코너를 가끔 살펴보고요. 또 공연도 무료로 관람기회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서 관심사로 등록해서 보고 있어요.

정이나 저도 확률 낮은 것은 안하고 돈 주고 보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 가능 인원이 적어서 참여를 잘 못 하고 있어요. 사실 가정주부라서 기다렸다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무료 이벤트를 하려면 관심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요.

권이진 정보력이 대단한 분들이 많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고 가네요. 근처 백화점에서 영상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키즈카페처럼 좋았어요. DDP에서 했던 토이스토리 전도 좋았고요.

권0별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대부분 점심을 먹고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코스로 다녀요. 예를 들면, 남산 과학관에 가서 하루 종일 저렴하게 즐기고 돌아오는 거죠.

진행 참여하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권이진 제가 운영하는 모임은 아주머니들 4-5명이 만나서 영어 공부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 좋아요.

이이영 저는 요가를 10년 이상 하니 가르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내가 배우는 것이 우선이지만, 집이나 공간을 대여해서 동네 육아맘 대상으로 아이들 성장이나 집중력 회복 모임을 만들어서 한 시간 동안 요가와 경락 마사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대부분 중3 이상의 육아맘들이라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분들 통해서 설명회를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오오선 저는 중랑구 도서관에서 동화활동가 수업을 들으면서 모임을 해요. 그림책 읽어주기, 놀이나 꾸미기 등을 재능 기부로 하고 있어요. 북 페스티벌에 나가본 적도 있고요.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하는 관계 놀이가 즐겁고 재미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재능 기부를 하면 가끔 소정의 차비 정도를 주세요. 낮 시간에 잠깐 가서 저의 재능을 나누는 것이 좋아요. 그림책, 음악, 미술치료사 등 활동이 즐거

운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에게 해주기도 하면서 그런 고정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정이나 주민 3명 이상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주민참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를 통해 3개월 동안 '엄마표 미술놀이'를 운영했어요. 마음 맞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동네 아이들에게 8번 정도 수업을 했는데 연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아쉬웠어요.

권0별 아이가 1학년일 때 친구 엄마들 모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보통 그때 마음 맞는 엄마들이 모이게 되죠. 그럼 엄마들, 아이들이 함께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해요.

결혼 전에는 저녁 공연, 여행 등 다양한 문화생활 즐겼죠

진 행 결혼 전 싱글일 때와 비교해보면 문화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단점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조0주 저녁 늦게 하는 공연은 보기 힘들어요. 보고 싶은 공연을 못 보는 아쉬움이 있지만, 대신 평일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오0선 저는 결혼 전에는 시간 압박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니 시간 압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전 10시부터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시간을 쪼개면서 아껴 쓰니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긴 하네요.(웃음)

권0별 우선 아이와 함께 다니다보니 시간만큼이나 거리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주로 문화생활을 하는데 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관찮은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료로 하는 것들도 유익하고 시설도 좋아서 공공 문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권0진 정보력이 있으면 도서관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육아맘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0은 저도 결혼 전에는 공연을 보거나 여행 위주로 문화생활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 지역 축제, 가족 단위 사업들을 살피게 되었어요. 작년에 서울문화재단 사업도 많이 찾아봤는데 여성을 위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 행 그럼 어느 시간대가 적절한가요?

한0은 저는 오전 11시가 좋다고 생각해요. 오후 1-3시는 힘들고 11시에 하는 문화사업이 있으면 여성 참여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진 행 접근성이 중요한가요?

한0은 구로구에 있는 구로아트밸리도 어린이 위주고 어른을 위한 공연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선착순이라 경쟁률이 높아서 힘들어요.

오0선 주민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는 건 좋은데 프로그램이 어린이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뿐이에요. 요기는 경쟁률이 높고요. 주민센터에 젊은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중랑구청에서도 '문화공감'이라는 예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선착순이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브런치 같은 공연도 많아지면 좋겠어요.

한0은 직장 다닐 때 회식을 문화 브런치로 했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세종문화회관이나 대학로, 종로 다 너무 멀어서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 행 워킹맘과 비교해서 문화생활에 차이가 있을까요?

한0은 전업맘은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시간이 많지만 비용 부담으로 무료 체험 위주로 선호해요. 워킹맘은 시간은 없지만 돈을 지출하는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일 할 때는 5만 원짜리 공연을 두 번 보여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잘 생각하고 열심히 골라서 봐요. 질 좋은 공연을 싸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0선 제가 아는 어떤 워킹맘은 집 근처에 사는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공연도 보고 주말에도 여행 다니고 비용 부담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워킹맘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다니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자신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해요

진 행 육아맘에게 어떤 문화적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0영 저는 아이가 셋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어서 차로 움직이다보니 주

차 가능 여부에 따라 문화생활과 장소를 결정하기도 해요. 주차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거죠.

오선 서울거리예술축제가 봄에도 했으면 해요. 또 그런 축제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처음 아이들과 함께 축제에 갔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예산문제나 여러 여건 문제들이 있겠지만 두 번 정도는 했으면 하고, 시나 구 축제도 활성화 됐으면 해요. 또 주민동아리 지원 사업도 비용이 80만원인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이나 동아리 지원 사업의 경우 재료가 대부분이고 자체 강사료 책정이 불가능해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야만 가능하고요.

오선 이런 공공지원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단기로만 진행되는거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줬으면 해요. 구에서 하는 페스티벌의 경우, 지원이 적어서 인근 학교 동아리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다보니 아이들의 참여도가 낮고 흥미를 쉽게 잃어요. 이런 축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민예술대학
출처: 서울문화재단

진행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이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만을 위한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강연회도 주로 육아나 교육을 위한 내용이고, 축제도 가족 축제가 많고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온전히 나만을 위해 즐길 수 있는 컨셉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이나 최근에 유명가수가 엄마들을 타겟으로 토크 콘서트를 하던데요. 팬들의 연령이 30~40대 엄마들이다보니 그렇게 한 거 같아요. 이런 콘서트가 또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진행 서울시민예술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이거나 저렴한 강좌 형태로 다양하게 있어요. 낮 프로그램도 있으니 자녀들이 없는 시간에 강좌를 들으며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쓸 수 있어요. 엄마들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오영 남서울미술관의 미술 수업에서 아이 동반은 안 된다고 해서 수업을 못 들은 경험이 있어요. 아이와 동반할 수 있는 수업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이은 저도 무료 공연을 갔다가 7세 미만의 아이는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큰 아이만 들여보내고 작은아이와 전 밖에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같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오선 국립극장은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해요. 대학로에 예술인돌봄센터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들 위주로 놀이방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권아진 예술의 전당도 만 3세 이상이면 이용 가능한 놀이방이 있어요.

오선 시민대학에서 그림책 관련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수업은 저녁에 있어서 못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 엄마들을 위해 오전에도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했어요.

한이은 원하는 건 시간이 잘 안 맞고, 시간이 되면 관심가는 프로그램이 없고 그래요. 인문학 강좌도 깊이있는 수업도 필요하겠지만 교양 수준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수업도 있었으면 해요.

진행 수요에 맞게 적절한 시간 배정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문화생활의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권아별 아이가 크니 나만을 위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헛헛하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화생활을 하면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것 같고, 특히 아이와 나의 관계, 가정생활의 만족도도 확실히 더 커질 것 같아요.

권이진 아이만 보다가 스스로 하나씩 무언가를 해낼 때면 내 자신이 축축해지는 시간이 찾아와요. 사실 나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나를 위한 시간과 아이들을 위한 시간 모두를 가지려면, 시간 조정도 필요하고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할 것 같아요.

이이영 저는 집에서 세밀화를 그리기도 하는데 집중도 되고 좋아요. 이런 취미 생활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남편도 좋아 보인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TV로 인문학 강좌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전기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게 많아요. 선착순 행사도 참여 할 수 있죠. 문화생활은 개개인의 삶의 방식 차이와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안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지원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선을 정리한다든지, 안내하는 분을 배치한다든지 등의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복춘처럼 개방형 화장실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부수적인 지원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에도 공공에서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오선 문화생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화생활은 저의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힘들고 지칠 때 위로를 받는데, 만약 이런 문화생활이 없었다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야회 축제나 행사에서 고가의 먹거리나 체험 같은 상업 행위가 사라졌으면 해요.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야외 행사 때 시설 관리 유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줬으면 싶더라고요.

조이주 아이가 3살일 때 '비긴어게인' 영화를 극장에서 혼자 봤는데 '아! 내가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볼 때와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또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가족 단위 음악 행사가 많아졌으면 해요. 유모차 대여 지도도 시청이나 광화문 등 관광지 위주였는데 더 확대가 필요하고 수유실 위치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있었으면 합니다.

정이나 회사 다닐 때 혼자 대학로 뮤지컬을 보는 것도 삶의 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주었지만, 아이들과 문화생활을 통해 친밀해지는 것도 즐거워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축제들이 많지만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고 홍보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정보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해요.

한이은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문화생활로 즐거움을 느끼고는 했어요. 문화는 삶의 활력소고 리프레쉬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아이를 키우면서는 그런 시간이 줄

었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한 문화생활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어요. 공연과 축제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소식을 늦게 듣거나 마감이 일찍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보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해요. 축제나 체험 행사도 참여 가능 인원이 좀 늘었으면 하고요. 지역에서 하는 공연은 재능 기부가 많아서 그런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브런치 콘서트로 실력 있는 분들의 공연을 접했으면 해요. 다양한 지역에서 양질의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3040 워킹맘

바쁜 워킹맘의 즐거운 문화생활

- ◆ 일시 2017. 5. 16.(화) 19: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방0영 : 30대, 사무직, 미취학 1인 자녀, 강남구 거주
 2. 오0경 : 30대, 사무직, 초등학생 1인 자녀, 성북구 거주
 3. 임0희 : 40대, 사무직, 초등학생 3인 자녀, 관악구 거주
 4. 정0경 : 40대, 프리랜서, 초등학생 1인 자녀, 강남구 거주
 5. 박0주 : 30대, 사무직, 미취학 2인 자녀, 금천구 거주
 6. 신0아 : 40대, 사무직, 미취학 1인 자녀, 도봉구 거주
 7. 허0정 : 30대, 공무원, 미취학/초등학생 2인 자녀, 관악구 거주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여가생활방식

- 보통 자녀가 잠든 후 TV 시청, 악기 연습, 스마트폰을 하거나 집안에서 휴식을 취함
- 남편이나 조부모와의 협의 또는 협력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 등 개인시간을 영위
- 점심시간을 쪼개어 여가시간으로 쓰기도 하며, 최근 문화회식 트렌드로 야근/회식 대신 전시/공연 관람을 하기도 함

일상적 문화생활의 유형

- 지인, SNS, 포털사이트, 지역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등을 통해 문화정보를 얻음
- 가족과의 문화생활이 다수며, 공휴일을 계산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큼
- 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다자녀일수록 더욱 그러함, 이벤트 응모를 많이 하는 편)
- 자녀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와 함께 문화생활을 함

자신을 위한 문화생활방식

- 비정기적으로 혼자 또는 친구를 만나서 문화생활을 하는 정도가 거의 전부임
-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은 학부모나 예술교육모임 등이 해당하나 많지 않음
- 자신만을 위한 시간에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비용을 투자하고자 함
- 자신의 문화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아이와의 관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함

문화생활의 애로사항 및 공공영역에 바라는 개선사항

- 시간적 제약이 큰 편이므로 평일 저녁, 주말 문화프로그램 확대 필요
- 일상생활(거주, 직장)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이 증대
- 엄마/자녀의 교육을 따로 운영하되 예술교육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 동일하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자녀의 교육 중 엄마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
- 주민센터, 지역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소 형식적이거나 질적 만족이 낮은 경향이 있으므로 기초 마을단위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질적 향상
- 구 단위를 초월한 보편적 차원의 단계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수다 기록

워킹맘, 왜 힘든가요?



퇴근 후에도 집안일, 육아 때문에 쉴 수가 없다.



직장에서 휴가를 내기가 어렵다.



워킹맘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정책 지원이 아쉽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출처: "2013워킹맘 고통지수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진행 자기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0희 관악구에 살고 있는 딸 셋의 엄마예요. 큰 애는 6학년, 둘째는 4학년, 막내는 1학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대중적인 문화, 쉽게 갈 수 있는 문화에 관심이 많고 서울시와 시립미술관 뉴스레터도 받아보고 있어요.

오0경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딸애가 하나 있는데, 아들 쌍둥이만큼 활동적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 어릴 때는 부모님께서 문화행사에 잘 데려다주시지 않으셔서 몰랐는데 애가 하나다보니 저랑 달리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많이 배우러 다니고, 가끔 미술관에 가기도 해요.

방0영 6살 된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인천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왔는데 서울시는 너무 잘 돼있는 거예요. 매주 오는 서울시 이메일을 다 꼼꼼히 체크하고 '이번 주는 어딜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스케줄을 늘 고민해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문화경험을 많이 못 시켜줘서 시간 날 때 마다 아이와 뭔가를 하러 다니려고 해요.

신0아 도봉구에 살고 있고 4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2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즐길 만한 문화생활이 많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즐겼는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니까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 위주로 움직이다보니깐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많은 걸 보여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0경 2학년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박0주 저는 금천구에 살고요. 초등학교 5학년과 6살인 딸 둘을 키우고 있어요. 큰 애를 키울 때는 주말마다 나름 비싼 뮤지컬을 보거나 키즈카페를 가곤 했어요. 큰 아이가 학교에 입학한 뒤 어떤 전업맘이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국립극장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을 저렴하게 거의 무료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큰 애가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화생활을 했다면 그 뒤로는 정보를 활용

해서 주말마다 시민청에 가거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 가는 식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고요.

허0정 9살 딸아이와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살고 있지만 직장 때문에 강서구에 거의 상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비싼 문화생활은 거의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국립 시설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맞벌이기구의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애로사항	사례수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데가 없다	(121)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91)
근무시간이나 갑작스런 상황에서 도움 받을 곳이 없다	(73)
아이가 아플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	(72)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직장맘의 퇴근시간이 맞지 않는다	(58)
공휴일/휴일/방학 중 근무 시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49)
근무시간이 길어 아이가 늦게까지 기관에 있어야 한다	(34)
양육의 책임이 경제, 환경 등의 문제로 조부모에게 전가된다	(26)
양육에 대한 회사, 사회적 배려가 없다	(25)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맡길 데가 없다	(24)
늘 시간에 쫓겨 사는 삶	(22)
보육/양육비 부담	(20)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다	(17)
방학때 아이들 맡길 데가 없다	(15)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하나 양육/주거비용이 높아 어렵다	(11)
보육기관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다	(10)
늦은 시간에 아이를 찾으러 가면 어린이집 눈치가 보인다	(10)
아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10)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퇴근해도 여가시간은 많지 않아요

진행 보통 직장일이나 집안일을 하지 않으실 때 여가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걸 하면서 지내시는지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0영 여가라고 할 시간이 있나요?

오0경 집으로 또 출근하는거죠. (웃음)

박0주 아이들 재우고 괜히 자기 아까워서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디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진행 평일에 직장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 아이들을 돌봐야하니 다들 쉬는 시간이 없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만의 시간이 확보되면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리고 그 중에 혹시 문화생활이라고 할 만한 게 있으신지요?

오0경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영화를 한 편 봐요. 남편 이랑 합의를 봤는데 그 날은 남편이 아기를 봐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딸이 주말에 댄스수업을 듣는데 그때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는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2시간 반 동안 걷고 딸아이가 끝날 때쯤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제가 돌아가서 밥 차려주고는 해요. 이런 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어요.

방0경 모범적이시네요. 저는 아주 가끔이지만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웃음) 모임에 참여하고 강의를 듣거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연휴가 길 땐 아들만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 보내면 또 제 세상이 오는 거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블로깅도 하고 있어요.

히0정 저는 개인적으로 악기 배우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하고요. 저녁 때 혼자 연습하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행사가 많은 부서라서 한번은 너무 우울한 날 “행사 있어요.”하고 혼자 대학로에 다녀온 적도 있어요.

정0경 저는 계획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여행도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요. 남은 시간이 있으면 나만의 리스트를 적어 두곤 하나씩 해요. 보통 남편과 아이와 함께 다니고요. ‘풍경 좋은 곳리스트도 만들어서 하나씩 가요. 가까운 데라도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준비하는 편이에요.

공공 문화 프로그램은 엄마의 정보력과 스피드가 중요해요

진 행 최근에 기억에 남는 문화 활동이 있으신가요? 공연이나 전시를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여행이나 산책, 운동 등 다양할 것 같아요. 혼자 혹은 아이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으니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해주세요.

임0희 작년에 국립국악원에서 아이들 국악을 가르쳐주는 10개월 과정을 신청했어요. 두 아이를 등록해놓고 매주 토요일 날 국립국악원에 가는 거죠. 제가 주말에 근무가 많아서 출근해야 할 때는 아빠가 데려다줬는데요. 처음에 저는 남편이 되게 화를 많이 낼 줄 알았어요. 10개월은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하더라고요. 아이도 배웠지만, 아빠도 함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10개월 과정을 저렴한 가격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선발되긴 했어요. 마지막에는 ‘우면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무엇보다 정부나 시에서 하는 행사는 엄마의 정보력과 스피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 참 잘했구나.’란 생각에 뿌듯했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라 여가의 경계를 설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이들

이 어릴 때에는 재우고 나면 시간이 밤 11시여도 그냥 자는 게 너무 아까워서 TV만 봐도 좋더라고요. 아이 셋이 서로 케어해줄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내가 좀 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네 이층마을 이랑 에어로빅도 하고 아침에 전화영어도 하는 등 제 시간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피곤하기는 한데 어쨌든 잘 시작했구나 싶어요.

히0정 (임0희에게) 국립국악원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엄청 센 건데 축복받으셨네요.

임0희 그 전에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작년에 했던 거는 아이들만 하는 거였어요. 국립국악원도 지인 통해 알게 됐지만, 이런 공간이나 정보들은 지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워킹맘은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동네 도서관도 좋은 여가의 공간인데, 가끔 쉬는 날 오후 햇살 좋을 때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이 진짜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정0경 국립국악원 말씀하셔서 기억하는데, 연말에 송년음악회 신문 전단지가 온 거예요. 오자마자 부리나케 전화로 예약해서 국립국악원 송년음악회를 즐겼거든요. 가까운 곳인데도 그때 처음 가봤어요. 이렇게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구나 싶었죠.

진 행 좀 전에 참여자 한 분께서 ‘문화+서울맨 뒤에 문화 캘린더를 보고 딱 체크하시더라고요. 역시 엄마의 정보력과 스피드가 중요하구나 싶네요. 다른 분들은 최근에 문화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즐긴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히0정 저도 국립국악원 너무 좋아서 유료로 가입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 중에 6월 말부터 여름 내내 토요일마다 잔디밭에서 무료 공연을 해줘요. 그러면 식구들끼리 돛자리 펴놓고 간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볼 수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신0아 저는 회사가 시청 근처예요. 서울시립미술관이 가까운데 점심시간에 직장인을 위한 예술가 런치박스를 신청해서 직원들과 함께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박0주 연휴 때 아끼랑 영화를 보는 정도인데, 저는 정보력이 부족하고 스피드도 좀 느린거 같아요.

포털사이트, 뉴스레터, SNS 등 온라인으로 문화정보 얻어요

진행 보통 문화정보는 어디서 받으시나요?

오0경 저는 유스내비(www.youthnavi.net)에서 많이 봐요.

진행 유스내비는 서울시에서 만드는 어린이·청소년 문화정보 네비게이션이죠.

오0경 유스내비에 아이들과 하기 좋은 체험이 많아요. 최근에도 제가 유스내비를 통해 '우리옛돌박물관'을 알게 돼서 갔다 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무료로 해설해주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랑 같이 보고 커피도 마시면서 3-4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좋았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도 적고 무척 마음에 들어서 자주 와야겠다 싶었어요. 힐링이 되더라고요.

임0희 서울시에서도 문화정보를 뉴스레터로 자주 보내요. 그걸 타고, 타고 들어가면 정보가 많아요.

정0경 저는 페이스북 친구들이 '좋아요'한 포스팅을 통해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정보를 많이 접해요. 직장생활하다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도 하고요.

허0정 출퇴근할 때 네이버 문화판을 기본적으로 매일 보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주말에 즐길 거리를 미리 계획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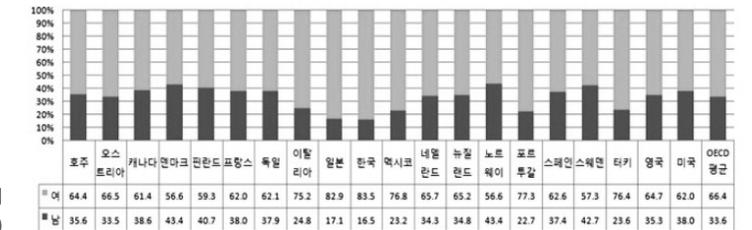
진행 그럼 문화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어쩌다 한 번 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어요. 주중에 아이들과 시간을 잘 보낼 수 없으니까 주말에는 시간을 짜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주중에 너무 힘들었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과 같이 쉬다가 어쩌다 한 번 나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어떠신지요?

오0경 일단 빨간 날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계획하는 편이에요. 5월에 징검다리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때 학교가 방학이라 저도 연차 써서 연휴 내내 같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숙제를 다 하면 아이들이랑 다 함께 나가서 하루는 영화 보고, 조계사도 가고,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도 태워주고요. 시골 부모님 댁에 1박2일 다녀오기도 하는 식으로 연휴를 즐겼어요. 평일에는 못 해주니까 주말에는 나가서 즐기려고 해요.

방0경 애가 아직 6살이라 문화생활을 잘 몰라요. 그렇다고 무조건 끌고 가서 이거 보라고 하면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보를 찾아 계획을 세우고 '이건 이리저러한 공연인데 갈래?'하고 아이에게 물어봐요. 간다면 가고 아니면 집에서 놀거나 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걸 해요. 꼭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행사는 계속 장점을 말해서 아이를 설득해요. 그러면 가끔은 '엄마 소원이라면 내가 같이 가줄게.'라고 아이가 따라가 줘요.(웃음) 우리 아이는 다섯 살부터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요, 서점을 좋아해서 서점도 가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행사에도 자주 가는 편이고요.

신0아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좋아하는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공룡을 보러 간다든지 하는 정도예요. 얼마 전 하남 쪽에 앵무새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체험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가사분담률(무급노동시간 비중, %)



출처: 일생활균형재단 뉴스레터 (2017.07.14)

진행 지금 대체로 아이들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서 간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혹시 본인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하는 건 있으신가요?

오0경 일단 나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려면 남편의 협조가 필요하죠. 제 버킷리스트에는 혼자 한라산 백록담 올라가보기 같은 게 있거든요. 남편에게 올하는 꼭 가고 싶다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3박 4일은 애를 혼자 봐야 하는 거잖아요.

임0희 저는 문화생활에 갈망이 많았어요. 문화정보 메일을 보고 관심이 가면 예약을 해서 가는 편이에요. 퇴근해서 급하게 애들 데리고 가거나 저 혼자 가거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 문화적인 코드가 맞는 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제안하면 같이 예약해서 저녁을 먹고 간다든가 해요. 회식의 일환으로 가기 때문에 신랑에게 굳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 문화생활을 할 때에는 시간을 맞춰서 신랑에게 통보하고 만나는 편이에요. 연극, 공연 시설은 사실 집에서 좀 멀어요. 항상 끝나면 저녁 늦은 시간이라 집에 가는 걸 걱정이 되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근처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진행 사실 짬 내서 문화생활 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여기 오신 분들은 문화생활을 많이하시는 것 같네요. 새로운 곳에도 가지지만, 잘 알려진 곳을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생활권 안에도 시설이 많은데 가지 않는 건 정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시간대가 안 맞아서인지 궁금합니다.

박주 첫 애가 5학년인데요, 첫 애가 어릴 때는 아이를 업고 매주 토요일에 국립극장에 가서 연극 관련 프로그램을 들을 정도로 제 에너지나 열정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가 태울이 좀 나서 새로 육아를 시작하다보니 사실 거기까지 갈 에너지가 없어요. 국립극장은 집에서 1시간 반이나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제가 하고 있는 문화생활은 주로 저희 집에서 4분 거리 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거나 멀지않은 문학관에 다녀오는 정도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라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좋다고 그러면 어디든지 갔었는데 이제는 긴 시간을 오고 갈 자신이 없어요.

정오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평일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낭독해주면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 공연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문학과 음악을 함께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 예고로 그림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평일 낮 아주 애매한 시간에 해서 못봤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후 4시는 아이들 학원시간 피크 타임이거든요. 공공에서 하는 문화 행사는 시간 할애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걸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임희 저녁시간에 하거나 며칠에 걸쳐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정 저는 되도록 지출을 줄이려고 생각하다보니까 대형 기관에서 하는 질 좋지만 저렴한 프로그램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동네를 간다면 관악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악원 유료회원을 위한 기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관악 어린이창작놀이터는 가깝지만 아이들과 상황이 잘 안 맞아서 아직은 못가봤어요.

비용이 부담돼서 저렴하거나 무료 프로그램을 찾아요

진행 사실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워킹맘은 시간도 없어 정보를 찾을 여력도 없을테니 쉽게 찾을 수 있는 큰 행사를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 생각이 조금 어긋난 것 같네요. 어떠세요?

임희 첫 애만 있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자주 가곤 했는데요, 이제는 작은

아이에게 맞춰서 문화생활을 하다보니까 큰 애는 좀 시시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에너지 고갈 얘기하셨는데 정말 공감 돼요. 큰 애 때는 매주 문화센터에서 하는 연극을 보러갔었는데 막내한테는 못해주고 있거든요. 힘들더라도 세 아이 모두에게 맞춰서 문화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가격에 민감해져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말에 좋은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갔는데, 다자녀 할인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먼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가족이 다섯이라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문화를 찾으려고 해요. 예전에 한 번 공원에 가서 극단에서 하는 인형극을 봤는데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했어요. 공원에서 그냥 해주는 건데도 아이들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보게 됐지만 좋은 기회였고, 그런 양질의 공연이 좀 많은 공간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이경 영화는 비용이 들기는 하는데 큰 공연은 무료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벤트에 응모를 하고 선정되는 경우에 가요. 신해철 씨를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추모 공연에 꼭 아들을 데리고 가요. 처음에는 시끄러운 데도 그냥 자고 하더니 어느 날은 자기가 같이 드림 치는 시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재능이 있는가 싶기도 해서 계속 공연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경 저는 비용을 좀 쓰는 편이거든요. 뮤지컬 보물섬도 보러 갔다 왔어요. 저희는 맞벌이고 애가 하나다보니까 욕심내서 하는데 다만 한정적이죠. 특히 뮤지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해서요.

정오경 저는 아이가 하나뿐이지만 저학년이고 아직 어리다보니 저렴해도 알찬 공연을 많이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벤트 응모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박주 저도 비용을 좀 쓰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채 되지 않지만 뮤지컬도 봐요. 가끔 보니까 좀 더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애랑 공연을 보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공연을 본 후에 뭘 느꼈는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싸게 돈을 들여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가면 애가 몸을 비비 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본전 생각이 나서 그 뒤로는 그냥 친구들과 가거나 혼자 다녀요.

진행 문화생활 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써야 된다고 목표치나 한계치를 두시는 건지요?

허정 미혼일 때는 돈을 털어서 여행을 갔었거든요. 결혼 하니까 그건 잘 안 되고요. 그래도 신혼 때는 공연 로얄석, VIP석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애기가 태어나니

까 5만원 내에서, 둘째 태어나니까 3만원 안에서 해결하자고 나름의 기준을 정했어요. 돈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서 저렴하면서 질 좋은 공연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방0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연말에 하는 공연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가요. 근데 신랑 빼고 저만 가요. 아이를 하나 끼면 5만원 내에 해결해야 하나가요.

진 행 비용을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시간을 내서 활동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얘기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방0경 아이 성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6살인데 정말 10초를 가만히 못 앉아있어요. 같이 연극을 보면 몸을 비비꼬면서 “엄마 언제 끝나? 언제 집에 가?”하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하지?’ 그런 걸 고민하다보면 집중하기 어렵죠. 최근에 푸드 페스티벌을 했는데 12시쯤 가서 8-9시쯤 왔거든요. 처음 두 시간은 계속 옆에서 “엄마 집에 가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먹을 걸 좀 가져다주니까 그제야 잔디밭에 누워서 공연을 보더라고요.

허0정 저도 그래서 딸은 데리고 잘 다니는데, 아들은 잘 안 데리고 다니게 되요. (웃음) 제 또래 친구들이 거의 다 얘기 엄마라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딸을 데리고 가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매개가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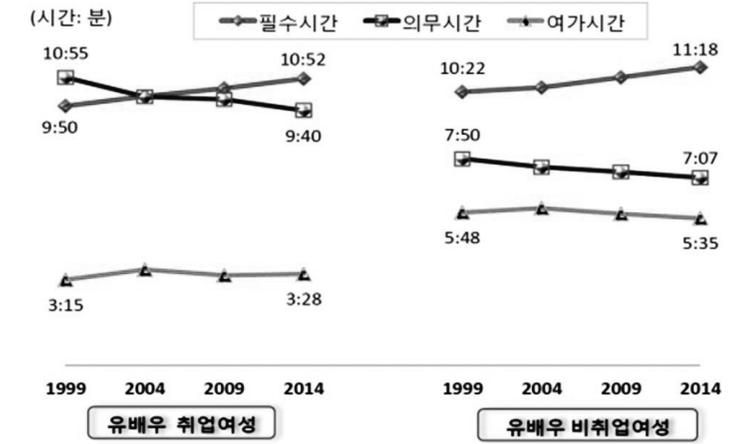
진 행 문화 활동할 때 동호회라든지 모임에 참여하시나요?

방0영 저는 오래 전부터 신해철 팬클럽이에요. 1년에 3번 정도 공연이 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도 해요. 얼마 전 신해철 생일에는 팬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즐기고 했어요. 다행히 그때 우리 아들이 시골에 가서 편하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즐기고 했어요. 또 예전에 인천 살 때 엄마들 카페가 되게 잘 됐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플라마켓도 열고 문화생활이나, 육아, 공동구매 같은 정보도 얻어요. 또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동호회 활동도 짬짬이 하고 있어요.

박0주 저는 대학 친구들과 공연을 함께 보는 정도인데 사실 동호회는 아니에요. 그냥 큰 애 친구들 엄마들과 같이 영화를 볼 때도 있고요. 보통 주말에 워킹맘 둘, 전업맘 넷이 모이는 편인데요, 아이들이 5학년이니까 애들끼리 있으라고 엄마들은 영화 한 편 보고와요.

임0희 제 경우에는 워킹맘 엄마들끼리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유치원 때 같은 반 친구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동네 텃밭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빠들까지 합세해서 지금 멤버가 12명이예요. 해마다 캠핑도 같이 가고 문화생활도 같이 해요. 엄마들끼리 어디를 가거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소중한 모임이에요.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취업여부별 시간활용 변화



출처: 통계청.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 (1999년~2014년)"

시간이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활발하게 여가생활을 하게 돼요

진 행 혹시 결혼하기 전 싱글일 때와 비교했을 때 문화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얘기해주셨는데 이런 제약도 있다,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다,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0정 저는 어릴 때 직장인이 되면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탕고를 꼭 배워야겠다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되자마자 흥대에 가서 동호회에 가입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밤이 늦어도 집에 안 들어가기도 했는데, 결혼하니까 집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하하) 또 아이가 태어나니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술도 참아야 하고, 돈도 아껴 써야 하고요. 제약 이야기를 하니 참 슬프네요. 그래도 애들이 태어나면서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동심, 어린이들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박0주 저도 시간적인 제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여행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못

해요. 좋은 점으로는 육이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같은 동화책을 읽어도 큰 애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둘째 때 느끼는 게 있어서 울컥 할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몰랐을 경험이지요.

정0경 맞아요. 동화책도 제가 어릴 때는 억지로 봤는데 아이와 함께 보면서 새롭게 보이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약이 많아요.

신0아 나를 위한 시간이 적은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책을 좀 읽게 된다는 점은 좋은 점이고요.

방0영 저는 결혼 전에는 문화생활에 돈을 많이 썼어요. 제 고향에서는 서울처럼 문화적 혜택이 없었어요. 유명한 대중기수 콘서트도 표가 안 팔려서 취소되기도 하는 문화 불모지였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버는 돈의 40%를 공연 보러가는 데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좋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문화에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가는데 “임신한 몸으로 야구장을 가면 어떻게 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사회 당첨됐다고 가서 보자고 하면 “영화를 돈 안주고 공짜로 보는 방법이 있어?”하고요. 그렇게 신랑과 관심과 취향이 다르다보니 문화의 제약이 너무 컸어요. 아직까지 신랑이 약간 눈치를 주는 건 있지만,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신랑이 데려다주거나 아이를 봐주던가 해요.

오0경 저도 남편이랑 취미가 달라서 그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전 뽀뽀한 일정으로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정말 여행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재즈를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정적인 취미 생활을 해요. 결혼 직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게 결혼 전 후의 차이일 것 같아요.

임0희 저희 남편은 뚜렷한 취미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니 주말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자”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큰 아이 어릴 때 당일치기로 인근 경기도 여행을 많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둘째, 셋째를 낳으니 움직이는 것에 제약이 많았어요. 좋은 거 보여주려고 갔는데 아이들이 차에서 쓰러져 자는 걸 보면 하나하나 업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힘들 때가 많았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나’ 싶다가도 ‘아이들 마음에 원가 하나 남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가곤 해요. 아이들 때문이라도 계속 움직이는 건 결혼하고 좋은 점이긴 해요. 아이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소파와 한 몸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비가 오는 날이면 모르겠는데 해가 나는 날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에게 좀 미안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까요. 아이들로 인해 좀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진 행 워킹맘으로서 주변의 전업주부와 문화생활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오0경 일단 외벌이보다는 좀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금전적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내 몸이 부서진다는 거겠죠.

임0희 아무래도 제가 버는 게 있으니 공연을 선택하더라도 좀 통 크게 쓸 수 있어요.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박0주 제 주변의 전업맘들과 비교해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인거 같아요. 주중에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시간만큼은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말에서 위로를 받아요.

오0경 사실 저도 공감해요. 아이들과 어떻게 주말 시간을 함께 보낼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계획하려고 좀 더 신경쓰게 되는거 같아요.

임0희 전업맘들은 평일에 엄마들끼리 모임을 하며 아이들을 같이 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평일에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죠. 저희는 주말에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평일에 다른 사람들과 문화를 즐길 수 없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진 행 저도 비슷해요. 주중에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힘들기 때문에 또 아이에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이한테 부족함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학부모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도 만나니까 차차 극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위안 삼고 있어요.

임0희 실제로 고학년이 되면 직장맘과 전업맘의 모임의 경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아이 성향에 따라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런데 1-2학년 때는 엄마 친구가 내 친구, 이런 경향이 있죠. 직장맘 아이들은 거의 돌봄 교실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친해지고요.

저를 위한 여가시간도 가져야겠어요

진 행 자녀와 함께이든, 혼자 하든 문화생활을 누리는 일이 특별하다고 여기시나

요, 아니면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0경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휴가이자 여유라고 생각해요.

정0경 일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하는 게 그런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함인데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항상 애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문화생활을 못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탁 깨우쳐지는 게 있네요.

방0영 저는 아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문화생활이 제 생활의 일부가 됐듯이 아들도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문화에 관심이 생겼을 때에 어렵게 생각하고 '저걸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건 좀 해도 된다는 마음이었으면 해요. '문화를 즐기면서 보내는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일부야.'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꾸 같이 데리고 다니게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저는 집에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이든 하려고 애쓰고 또 아이에게 다음엔 같이 하자고 해요.

신0아 신랑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에 야구를 다니거든요. 신랑은 자기를 위해서 여가를 쓰는데 저는 '그럼 나도 한 달에 두 번은 나가서 놀 거야하면서도 애 보느라고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찾아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임0희 친구들끼리 한 달에 만원씩 모아서 연말에 뮤지컬 보러가면서 밥도 먹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작년부터 모임을 만들었어요. 오랜만에 공연을 봤는데 그 기억이 오래 남아요.

진 0행 그럼 워킹맘에게 문화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허0정 정신건강을 위해 워킹맘에게 문화생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문화생활을 하고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이들은 기분 좋게 일하게 돼요. 회사 업무라는데 내가 노력하는 만큼 잘 되는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팀워크라든지, 회사내외부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악기는 연습하면 늘거든요. 내가 노력한 만큼 풀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에 안정되는 것 같아요.

박0주 문화활동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일 저녁 문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해요

진 0행 워킹맘을 위한 문화 지원이 제도화된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방0영 아이를 봐줬으면 해요.

오0경 봐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와 같은 시간에 따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아이의 미술 수업, 엄마는 엄마의 미술 수업.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같다면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일 밤이나 주말에 영화도 그렇게 보거든요. 애들끼리 넣어주고 같은 시간대에 비슷하게 하는 엄마 취향의 영화를 엄마들끼리 보고요. 영화 끝나면 나와서 만나고요.

임0희 평일 저녁에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퇴근하고 가족들에게 밥을 주고 나와서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거나 함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요. 엄마들이 그런 데 가면 위로받는 게 있거든요. 그냥 수다만 떨어도 위안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주변에 편하게 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는 문화에서 참여해서 활동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아직 우리는 수동적으로 보기만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고요.

방0영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면 기초,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른 구로 이사를 가더라도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악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배울 수 있게요. 그런 프로그램을 짜기가 어렵겠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강북에서 강좌를 들던 사람이 강서구나 강남구로 가더라도 계속 그 내용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화생활을 즐기면 아이도 함께 행복해져요

진 0행 문화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오0경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즐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활력이 결정 돼요. 또 아이한테 더 친절해질 수 있어요.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무기력해지잖아요. 업무 수행능력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문화생활을 하고 나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몸이 힘들어도 정신이 더 맑아지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좀 더 애한테 집중해주게 돼요. 두 번 만에 화 낼 걸 다섯 번 만에 화내고요.(웃음)

방0영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 있으면 주말 내내 하늘만 보고 벽만 보고 그랬을 텐데, 아이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 아침 일찍 눈 뜨고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어제까지 회사에서 아팠던 것 같은데 그 시간만큼은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계속 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정0경 정보를 찾아보면 항상 아이 중심의 문화 정보를 찾았던 것 같은데, 말씀 듣다보니 나 자신만을 위한 문화생활 정보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강남구에는 좋은 게 많은데도 안 갔다는 게 아쉽네요.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즐겨야 한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0주 전 늘 에너지가 고갈돼서,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곤 하는데 늘 갔다 오면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문화생활을 즐겼다는 사실에 성취감도 느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면 더 뿌듯하고요. 제 스스로 느끼는 게 많아져서 그게 만족도로 연결돼요.

집이나 직장 가까이, 문화생활공간 많아지길 바래요

진 0행 마지막 질문이에요. 서울시나 문화재단 등 공공영역에 비라는 것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0영 저는 솔직히 예술가 런치박스 프로그램을 정말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평일 점심시간이라 못 갔어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매달은 아니더라도 주말에 한 번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공연이나 전시 보면 5-7시에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회사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다보면 7시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주중과 주말 프로그램을 골고루 기획해주셨으면 해요.

오0경 점심시간에 직장맘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의도나 강남, 그런 데도 그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회사가 시청 쪽에 있을 때는 혼자 시립미술관에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 위치에서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정0경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민센터나 구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놓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큰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해요. 사실 몇 번 가봤는데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임0희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이 어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내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지면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집근처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밥 먹고 슬리퍼를 신고 올 수 있는 걸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해요.

진 0행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렌디 아빠의 여가문화 탐구

- ◆ 일시 2017. 5. 23.(화) 19: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염0철 : 30대 남성, 사무직, 미취학 2인 자녀, 종로구 거주
 2. 박0용 : 30대 남성, 교육업, 미취학 1인 자녀, 서대문구 거주
 3. 나0민 : 40대 남성, 자영업, 초등학교/중학생 3인 자녀, 중구 거주
 4. 이0훈 : 40대 남성, 은행원, 미취학 1인 자녀, 관악구 거주
 5. 양0식 : 30대 남성, 공무원, 미취학 2인 자녀, 관악구 거주
 6. 임0찬 : 40대 남성, 자영업, 초등학교 1인 자녀, 종로구 거주
 7. 전0길 : 40대 남성, 영업직, 초등학교 2인 자녀, 성북구 거주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여가생활방식

- 보통 자녀가 잠든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음악 감상 등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편이며, 자녀의 연령이 높은 경우 아내와 둘이서 심야영화를 관람하고 오기도 함
- 정기적으로는 평일 여유시간(자영업자), 주말(전일제 직장인)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예술 강의를 수강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 체험, 문화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음
- 대부분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급적 자녀의 연령이나 취향에 맞는 문화생활을 선택함
-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 여가시간은 언어교육이나 예술교육 등에 참여하기도 하며, 비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기도 함

문화정보를 얻는 경로와 습득방식

- 지역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와 자치신문, 블로그, 지인(본인/아내의 주변인) 등을 통해 문화정보를 얻음
- 주로 아내를 통해 문화정보 습득을 하는 편이지만 본인도 스스로 찾는 편임
- 주말의 스케줄을 미리 계획하여 아내와 자녀의 스케줄을 조정하는 편임

자신만을 위한 문화생활방식

- 대체로 자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문화생활을 즐기
-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실제 그런 시간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도 있으나 육이를

함께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힘든 아내에 대한 미안함 등 심리적인 이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자신을 위한 문화생활은 청소년, 청년 시절 경험하거나 경험하고 싶었던 장르(오케스트라, 피아노 등)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았음
- 자신만을 위한 문화생활에 되도록 비용을 아끼려는 경향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나 기타 프로그램이 대부분 여성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 부담을 느끼는 편임

공공영역에 바라는 개선사항

-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캠핑), 문화행사를 공공영역에서 좋은 서비스로 저렴하게 제공되길 바람
- 남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과 자녀들이 좋아하는 체험프로그램 증대
- 기존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서 운영하는 콘텐츠의 전문성 및 질적 강화가 필요
- 수요자의 여건(지역, 시간, 연령대)이나 취향에 걸맞은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운영

수다 기록

서울시 워킹대디의 시간사용실태

구분		평균		
		비 맞벌이가구 남성	맞벌이가구	
			남성	배우자
전체		426명(100.0%)	569명(100.0%)	569명(100.0%)
근로시간	집에서 나가는 시간	7시 33분	7시 32분	7시 53분
	평일 출근시간	8시 26분	8시 25분	8시 35분
	평일 통근시간(편도)	53.4분	52.7분	41.8분
	평균 근로시간	9시간 24분	9시간 14분	8시간 05분
	집에 도착하는 시간	19시 43분	19시 33분	18시 22분
아근/모임 횟수	아근 횟수(주당)	1.8회	1.7회	0.9회
	휴일/공휴일 근무 횟수(한 달)	1.6회	1.9회	1.1회
	회식/모임횟수(주당)	0.9회	1.0회	0.6회
생활시간 (평일 하루 기준, 시간분)	개인여가시간	1:06	1:07	1:04
	자녀돌봄시간	1:14	1:19	2:11
	가사참여시간	0:36	0:47	1:33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지원방안 연구

진행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임오찬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고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남자아이 한 명이고요. 문화 활동에 목숨 걸지 않고, 가능 범위 내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식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고, 첫 애가 다섯 살, 둘째가 세 살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평소 저를 위한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로7017 근처예요. 아이는 중학교 1학년 큰 딸, 4학년 둘째 딸, 초등학교 2학년 막내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이 셋을 계획을 했고, 집사람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대표고요, 사무적인 것은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을 약간 조정할 수 있어서 관심있는 여가문화활동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대학교 때 오케스트라도 했었고, 그런 인연으로 군악대로 갔다 왔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문화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막내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화생활이라고 해도 아이가 유치원에 갔을 때 영화를 보는 정도가 다였고요. 군악대, 오케스트라 지인들이 연주를 한다고 하면 한 번 가서 보는 정도였어요.

이오훈 관악구에 살고 3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4년 동안 애가 없어서 아내와 문화생활도 많이 즐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전업주부라 독박육아를 하니 주말에는 가급적 제가 독박을 쓰고 있어요. 주말에는 아이에게 어떤 재미있고 새로운 걸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염오철 저는 직장인이고 외벌이입니다. 첫째가 6살, 둘째가 3살입니다. 앞 분들 말씀에 공통점이 너무 많네요. 저도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오용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고, 5살 남자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고 지금 아내 뱃속에 16주 된 딸이 있습니다.

전오길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입니다. 다른 분들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는 맞벌이를 해서 평일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고, 또 저는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합니다. 아내가 문화 관련 전공으로 대학원을 졸업해서 서울 시내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잘 쫓아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가 좋아할만한 문화생활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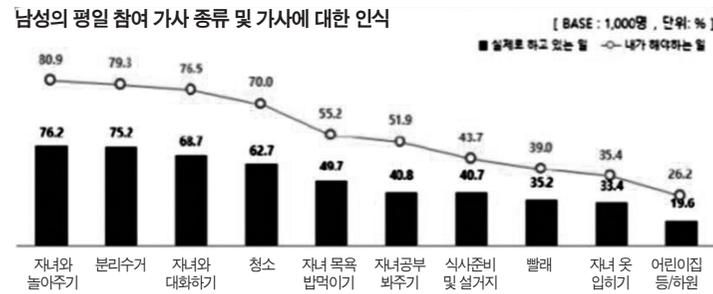
진행 오늘 이야기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최근에 한 문화 생활, 여가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혼자 하신 것이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든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민 저는 평상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아이들과 함께할 기회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말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어요. 아이들이 셋이라 어디 여행을 가고는 싶지만 잘 못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세 가족이 함께 영월로 캠핑을 갔어요. 두 가족은 캠핑을 자주 다니고 저희는 초보라서 텐트도 처음 쳐보고 막막했는데 아이들이 2박3일 동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동안은 콘도나 펜션으로만 다니다가 아이들이 커서 한 번 캠핑을 갔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고기도 구워먹고 영월 근처 김삿갓 유적도 보러 갔고, 고씨동굴도 처음 가봤어요.

임오찬 5월에 민속박물관에서 예상 외로 좋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어른들 기준에서는 좋은 행사인줄 잘 모르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런 곳은 다 아이 위주잖아요. 우리는 가서 집꾼과 집사 노릇을 했지만 아이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또 뚝촌 서커스 공연을 봤는데 제가 봐도 잘했어요. 아이가 그게 인상 깊게 남았나 봐요. 지난 번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 캠핑장에 갔었어요. 폐교를 개조한 곳이었

는데 마룻바닥이 부러져있거나 꺼져있더라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성도 없어보여서 좀 그랬어요. 또 다른 캠핑장은 시설은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조금 불편했어요. 아이들과 캠핑장에만 있을 수 없으니 인근 문화시설을 찾아보는데, 차로 한참을 가야 해요. 좋은 취지로 다른 지역에 있는 캠핑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양0식 최근 다녀온 곳은 청계천 서울로 7017이었어요. 차를 놔두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한다고 아이를 설득해서 9년 만에 짧은 나들이를 떠났네요. 저도 서울에 오래 살면서 서울역 고가도로가 남영동 방향으로 있을 때 버스를 타고 많이 지나 다녀서 추억이 아련했어요. 저희 딸이야 알 리가 없지요. 아이는 알지도 못하고 아빠 손잡고 끌려왔으니까, 우리 아이는 거기 있는 트램펄린 타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7017을 갔는데 아빠가 생각하는 것과 딸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요. 아빠는 예전에 차가 많이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였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열차도 다 보이고, 남대문도 보이는 걸 즐기는 거예요. 딸은 조형물이 많다, 꽃이 많다, 공연을 한다, 맛있는 것도 사먹을 수 있다, 심지어 트램펄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가족단위로 이렇게 해서라도 공감대를 맞춰서 여행을 다녀야겠다는 큰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지원방안 연구

아이가 어떤 문화생활을 좋아할까 고민해요

이0훈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독박육아를 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떻게 아내의 스트레스를 풀어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는 곳과 가까운 예술의전당에서 발레 공연을 볼 수 있게 기회를 찾았어요. 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 삼아 국악을 들으면 엄청 움직이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국악 공연을 보러 간 적도 있어요. 줄타기도 하고 공연도 하는 걸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보더라고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염0철 전 지난번 강원도 속초에 가족들과 다녀왔어요. 가서 바다를 보자고만 하고 구체적인 계획없이 움직였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일정을 짜면 기대감이 올라

가고 실망감도 커지니까요. (웃음) 바다에 가서 물도 만지고, 아기 동물원에 가서 돼지, 소, 양 만지는 활동도 하고요. 그런 여행을 몇 번 해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특별하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만의 시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저와 아내도 즐겨야 하니까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분배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도심이다보니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걸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으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박0용 저는 아이가 집에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예를 들면 트럭, 포크레인, 자동차 경주 같은 거요. 밖에 나가도 아이는 트럭이나 포크레인으로 놀거든요. 그래도 집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주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내가 임신 16주라 시끄러운 곳을 힘들어해서 요즘은 북한산에 많이 다녀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아이가 어려서 함께) 영화나 공연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야외 공연이나 정동 야행이나 서울로7017 길거리 행사 정도 가요.

나0민 서울로 7017이 사는 곳과 가까워 몇 번 갔었는데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양0식 홍보를 많이 하니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전0길 첫째 딸이 박물관을 굉장히 좋아해서 민속 박물관은 한 30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친구들과 카톡을 해요. 둘째 아들은 문화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과랑 치고받고 해요. 두 아이 성향이 달라서 조금 힘들어요. 지난번에는 연휴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양평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고생만 하다 왔어요. 갈 만한 곳이 수목원밖에 없으니 애들이 놀게 없더라고요. 이쪽 수목원에 갔다가 저쪽 수목원에 가니 아이들이 산 좀 그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리고 서울이 요즘 좋아진 것 같아요. 첫째가 어릴 때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문화공간이나 행사에 가면 가격이 조금 들더라도 항상 좋은 자리로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료 티켓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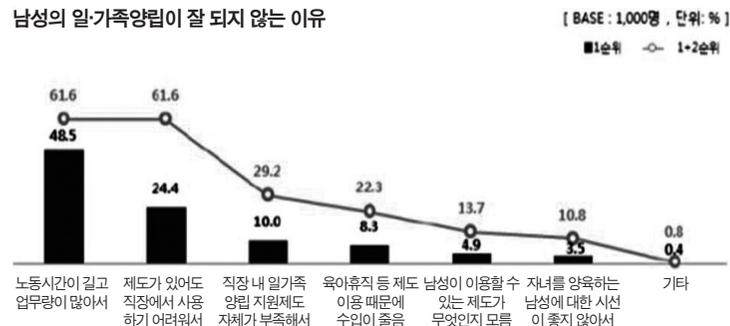
어쩌다 나만의 여가 시간이 생겨도 불안해요

진0행 일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아닌 여가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뭘 하시나요?

염0철 저는 아이들을 일찍 재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면 잠들거든요. 야근 하는 날은 11시에 들어오니 아이들은 다 자고 있죠. 그러면 평소 읽고 싶은 책을 읽고요. 주말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집 근처에서 스페인어 강의를 듣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0찬 아이들을 일찍 재우는 것도 사실 빛 공해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빛 공해 때문에 이사를 몇 번을 다녔는지 몰라요. 캠핑 가서 전원을 끄면 알아서 자던데요. 도시는 빛 공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문화생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혼자서 즐기면 좀 양심에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세 식구가 함께 다니다 보니, 어느 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불안해서 한 시간도 못 버텨요. 지금은 나 혼자 즐기는 문화생활은 약간 사치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문화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버킷리스트는 많지만 못가죠. 그런 부분은 섭섭해요.

나0민 저는 동창을 자주 만났는데, 한 달에 3-4번은 지속적으로 만나서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아내가 배려를 해줬죠. 다양하지는 않지만 저 나름의 여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 트럼펫을 잠깐 했어요. 집에서는 시끄러워서 할 수 없지만 교회에 가면 할 수 있어서 악기를 다시 해보곤 했어요. 본격적으로 하는 건 힘들고 혼자서 자기 만족할 정도로요.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5), 서울시 3040 워킹대디의 일가족양립지원방안 연구

양0식 다들 어려운 가운데도 문화생활을 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고 여가도 그래요. 아기가 잠든 다음에야 저의 여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마저도 제가 피곤할 때는 꿀아 떨어져요. 처음에는 아이들 재우는 것도 힘들어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죠.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재우는 게 덜 힘들어졌지만 혼자 영화를 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로 예전에 흘러갔던 노래 듣고 뮤직비디오도 보며 별 거 아닌 것에 긍정적인 힘을 얻기도 해요. 육아를 극복할 수 있던 동력은 아이러니하게 직장 에서 보내는 여가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주말에 일부러 야근 잡아서 나오기도 한다.”는 동료의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얼마나 집에서 시달리면 차라리

야근을 잡아서 주말에 나오겠나 싶어요. 아내도 힘들겠지만, 남자들도 못지않게 힘들기 때문에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가정에 공여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동의를 받아서 반가를 내고 꿀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친구도 볼 수 있는 시간인거죠. 결혼 전에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귀중한 시간이라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뭘 할지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봐요

진 행 일곱 분 모두 서울시 온라인 회원이세요. 그만큼 시에서 나오는 공공기관의 문화정보를 얻으시려는 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문화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전0길 저는 공공기관의 문화정보는 거의 메일로 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깔끔하지 않고 찾기가 어려워요.

임0찬 공공기관의 문화정보 안내는 너무 권위적이에요. ‘이거 합니다.’하고 끝이에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한데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오는 정보도 인터넷 블로그나 지인들을 통해 검증을 해봐요. 공공에서 하는 행사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 시립과학관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직접 체험하기에는 공간에 한계가 보였고, 어린 학생들이 봉사로 행사를 진행해서 안전도 미비했어요. 오픈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해는 돼요.

이0훈 아내는 아이 때문에 정보 검색할 시간이 없어서, 주로 제가 주말에 뭘 할지 알아봐요.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블로그를 참고해요. 네이버에 지역별로 축제가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걸 참고하기도 해요. 제가 주말에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어떨 때는 황재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내도 만족하고요. 어떨 때는 ‘고생만 하고 왔구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 주는 잘 보냈 다 싶을 때가 많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쇼핑물 위주로 다녔는데, 자치구나 시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아내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해요.

진 행 관악구에 사시죠? 관악구에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있어요. 유아, 초등 저학년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임0찬 아이가 저학년이면 종로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추천 드리고 싶어요. 거기

접속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시설은 참 잘 되어있어요.

나0민 저희 집은 아내가 아는 주변의 정보력 좋은 아주머니들이 정보를 알려줘요. 그 중에 괜찮겠다 싶은 것을 아내가 이야기하면 저는 따라가는 편입니다. 서울 시내 구청에서도 메일로 뉴스레터가 오고, 자치 신문도 있고요. 이런 게 오면 저는 좀 읽는 편이에요.

임0찬 공공기관의 뉴스레터나 자치신문에는 종종 ‘내일 뭐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뭐지?’ 싶기도 해요.

나0민 물론 급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2-3주 전에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어요. 그 정보대로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선별해서 괜찮은 곳이 있으면 가요. 중구는 충무아트홀이 있는데 중구 구민을 위한 무료 공연이 종종 열려요. 금년새 씨가 지휘하는 공연이었는데 열린음악회 같이 좋았어요. 최정삼급 지휘자에다가 해설도 곁들여졌어요. 그런 행사를 접하면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때도 이메일로 지원하는 거였는데 운이 좋았는지 됐더라고요. 저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신문을 통해 정보를 접하기도 해요.

박0용 메일도 오지만 팜플렛도 오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도 이용합니다.

진 행 대체로 활발하고 꾸준히 주말마다 뭔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활동 들은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하시나요? 혹은 어쩌다 갑자기 기회가 닿는 대로 하시는지요?

양0식 아내와 아이들 스케줄이 가능하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요. 당장 닥치는 공백은 그때그때 찾는 편이에요. 관공서는 일방적인 타임 스케줄에 따라 안내되기 때문에 블로그 검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체험을 다녀왔다, 서울로가 개장했다, 이런 점이 좋았다고 설명해주는 리뷰가 있으니깐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보내주는 정보에는 불편한 점에 대한 리뷰가 잘 없잖아요. 어떤 점이 불편했더라, 그런 건 미리 대안을 찾아가면 그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서 준비를 나름 하게 돼요. 아이랑 가니까 더 그래요.

나0민 육아 관점에서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출판사나 박물관이나 전시회, 고궁, 국회 등 그날그날 아이들 데어섯 명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큰 애는 그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둘째는 엄

마들끼리 만든 정기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그 사이사이에 비정기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이들 문화생활이지 어른들의 문화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냥 쫓아다니는 거죠. 다 엄마들인데 아빠가 끼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은 정기적으로 문화생활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연휴가 있으면 미리 계획을 하고 어딘가 다녀오곤 하지만, 짧게 가는 것은 갑작스럽게 계획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어른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건 힘든 것 같고, 아이들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요.

기혼자	남성	여성	전체
육아 때문에	46.9%	24.9%	37.9%
체중/건강관리가 되지 않아서	37.4%	35.4%	36.6%
취업(재취업)이 안 돼서	5.5%	37.9%	18.7%
성적이 낮아서	21.2%	6.1%	15.0%
일이 많아서	9.0%	14.1%	11.1%
직장 만족도가 낮아서	1.7%	23.8%	10.8%

출처: “육아스트레스 워킹대디가 워킹맘보다 심해”. 한국경제 (2015.07.10.)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활동이 더 익숙해요

진 행 그런 문화생활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0민 지금은 일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큰 애가 중학생이다 보니 아이들끼리 재울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는 아이들끼리 두고 나온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가능해요. 그래서 아내와 집 가까운 영화관에 걸어가서 영화를 보기도 해요. 조조만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상영하는 영화도 볼 수 있게 된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문화생활을 좀 더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염0철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거나 아내가 운동하는 건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 단위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행사를 맞추려면 빈 날짜가 비정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끼워 맞춰서 다른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임0찬 저 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은 일상이고, 혼자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생활도 처음에는 좀 특별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일상에 녹아든 것 같아요. 아이에게 몇 번 공연관람이나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주니까 아이가 눈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휴일이나 쉬는 시간 틈틈이 아이와 함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많이 찾아봐요. 어린이 뮤지컬을 보기도 하고 국립국악원에도 가보고요. 그러다 피곤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관공서에 전화해서 언제 행사가 또 열리는지 알아봐요. 그렇게 몇 번 경

힘하다보니까 이전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다 강남에 있는지 몰라요.

박이영 저는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저의 문화생활과 가족의 문화생활이 나뉘져 있지 않아서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민속박물관에 다녀왔는데 그게 저의 문화생활이기도 한 거죠. 지난번에는 장모님이 오셔서 아이를 봐줄테니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와 할 게 없더라고요. 막상 시간이 생겨도 영화는 시간이 맞지도 않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흥대에서 팔빙수 먹고 바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아이과 같이 있는 삶 자체가 제 일상인 것 같아요.

이오훈 문화생활은 아니지만 골프나 등산을 회사 생활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 즐기며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내가 즐기면 그것이 특별한 것 같지 않고 일상인거죠. 그렇게 즐기면 기분전환도 되는 것 같아요.

진행 자녀와 함께 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모임에 속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임이찬 모임을 해도 주기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비정기적으로 간간히 할 수만 있죠. 저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싶긴 하지만, 자영업을 하다보니 그런 모임에 시간을 쓰면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걸 각오해야 하니까 부담이 돼요. 옐로(YOLO)하려다가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진짜 하고 싶은 건 가족들 양해를 구하고요. 주말과 평일 저녁에는 가족에게 충실하고 밤에 잠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즐기려고 합니다.

나오민 저는 음악 연주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의 친했던 형들, 동기들, 후배들이 행사가 있다고 종종 문자를 보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아직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또 하나 따려다보니 시간이 잘 안 나요. 그것까지 가게 되면 아내에게 할 말이 없어져요. 제가 개인적인 시간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아내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모임에 가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크지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남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은 드물어요

진행 문화생활하시면서 불편하신 점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이찬 제가 강좌를 듣기도 하는데, 가보면 여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남자들은 안

온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어쩌다 꼭 듣고 싶어서 가보면 가끔 여자들이 저를 별나게 보는 것 같아 좀 아쉬워요. 남자들은 술만 먹고 문화생활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를 듣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는데, 항상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웃음) 특히 국립박물관에서 야간에 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만드는 것도 재미있고 주차료도 반값이었어요. 혼자 유유히 밤길 드라이브하면서 갔다 오면 남산타워도 짝 보이고 좋아요. 수강료는 1만원으로 저렴해요.

양오식 저는 3-40대 남자들이 문화센터를 가서 강좌를 수강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가면 청일점이 되죠. 거기엔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지만 그만큼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도 교양 강의 들어보고 싶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는데 일단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니까 정작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요. 나쁜 말로 포기하고 좋은 말로는 희생인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화생활 현장에 남자는 없고 여유가 되시는 여성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강좌를 하는 시간에 남자들은 집에 없어요. 강좌에 가려면 개인적인 의지도 중요하지만 짬을 내어 가더라도 밤에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해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0철 회사 동료가 최근 사설 성인 피아노학원에 갔대요. 피아노를 배우고 같이 놀러가거나 연주회도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가면 남자가 7, 여자가 3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남자들도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욕구가 맞아떨어지니 엄청 흥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행 서울문화재단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미생별곡이라는 국악, 판소리, 연극을 결합해서 직장인 애환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었어요. 거기는 직장인 남성분들이 좀 오셨어요. 그런데 보통 남자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도 않지만 모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것을 마련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필요를 고려해야 할까요?

박이용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동아리활동을 했던 추억을 되살리는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민 저도 속해있던 동아리에 너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 친구도 학창시절 때 합창을 했는데 지금도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뀌어서 스포츠 등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수요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염0철 예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어를 전혀 못해서 답답했어요. 집에서 걸어가면 30초 거리의 카페에서 스페인어 강좌를 한다고 하니 '이건 꼭 해야 돼'해서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연애마냥 모든 걸 바쳤던 걸 지금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또 직장인이라 계속 앉아있다 보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까 말씀 드린 피아노 학원이 좋은 게 거기 등록하면 전국 36개 지점 아무데나 가서 연습할 수 있어요.

임0찬 시에서 3040을 위한 강좌는 없어도 50대를 위한 강좌는 있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웃음) 3040 서울시민을 위한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040세대 자체가 스스로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문화 소비자가 안 되어 봤기 때문이죠.

나0민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수요가 없다고 금방 없어진 적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 정말 좋았는데 말이죠. 좀 더 지속적으로 기다려주고 수요를 개발하려는 노력없이 그냥 없어지니 많이 아쉬웠어요.

임0찬 공공 주관이든 민간 주관이든 겪어보니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소문 내려면 없어져버려요.

나0민 이런 것이 예산과 관계가 있으니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 논리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그런 걸 조금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지속해주면 (수요의) 적정선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넘기 전에 끝나 버려서 아쉬워요. 프로그램이 많은데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0훈 저는 공짜로 운동 수업을 해볼까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시간이 나도 '공짜니까...'하는 생각에 잘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악기도 마찬가지인거 같아요. 그럼 비용을 내면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민간-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출석을 얼마 정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공공에서 하는 강좌는 저렴한데 돈을 얼마 안 내니까 자주 빠지게 되고 그러다 결국 신청도 안 하게 돼요. 출석률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더 해준다든지, 수강료를 일부 환급하는 방식도 있고요.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
출처: 일·생활균형재단

진행 여가나 문화생활에 금전적,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나요?

전0길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면 토요일에 가요. 평일에는 저녁 시간이나 가족이 잠깐 모여서 밥 먹고 얘기도 하고 산책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에 3-4시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아이가 커서 토요일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희는 아이들에게 올인 하는 편이에요.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만나는 게 여가생활이에요. 내 시간이 생겨도 '뭘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껏해야 영화보고 TV 보고 컴퓨터를 하죠. 저는 나이 먹으면서 이제는 어딜 가서 뭘 배우는 것도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아내랑 기껏해야 영화관에서 영화보고 커피 마시고 아이들 진로 걱정하고, 거의 이런 이야기니까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노력은 하는데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좌 애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좋았던 것은 아이들과 대학로 연극학교에서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 것에서 재미를 찾지 저 혼자 뭘 해야겠다, 제 정체성을 찾자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소소하게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체험은 꼭 할 생각은 있어요. 목공 체험도 좋고요.

주중에는 힘들고, 주말 대부분을 문화생활에 투자해요

진행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할애하시는지요?

나0민 전체 시간에서 5%가 안 넘는 것 같아요. 많지 않죠. 저도 6월부터 피아노 강좌를 예약해두긴 했어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태권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끊어주더라고요. 저희 애들 셋은 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주변 복지관에서는 수강료가 싸고 어른들도 가르친다고 해서 6월부터 하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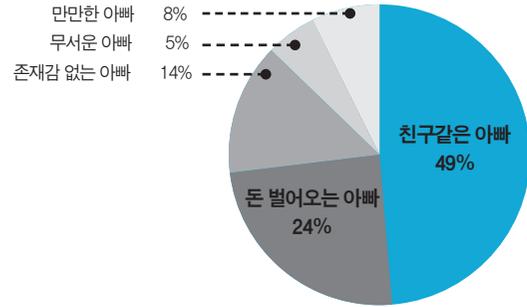
이0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주말 밖에 시간이 없죠. 무료로 하는 건 신청 자체가 힘들고요. 막상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용은 다른 걸 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건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생활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술자리도 있고, 야근도 하고 나면 평일에 저만의 시간은 거의 없어요. 비용적 측면 보다는 시간이 부족해요.

임0찬 가계 전체에서 문화에 지출하는 비용은 엔겔 지수 다음으로 높아요. 일하는 시간은 주 5일이니깐 최대한 빨리 끝내고 주말 이틀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있고요.

진행 아내가 하는 문화생활과 본인이 하는 문화생활에는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결혼 전과 결혼 후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0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문화활동을 하는 편이에요. 피아노도 배우고, 교회에 가서 트럼펫도 하고요. 아내가 저한테 “항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남편”이라고 하는데, 그 만큼 저는 문화생활을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래도 아이와 관련된 문화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건 에어로빅과 인형극을 배우는 정도고요. 그 외에는 아이들을 배려한 활동이죠.

난 어떤 아빠인가



출처: "존재감 제로였던 아빠의 변신".
머니에스(2013.05.07.)

박0용 저와 아내는 다르지 않고 비슷한 편이에요.

임0찬 저는 아내와 취향이 모두 다 달랐는데 나중에 애기가 생기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보니 서로 동화됐어요. 결혼을 한 3040세대는 가족 단위로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아내의 문화생활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양0식 가족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도, 관심사도, 좋아하는 장르도 달라지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어디론가 훌연히 떠나지도 못 하고요. 차가 있지만 홀로 떠날 때는 버스나 열차를 타고 행선지 없이 다니는 게 나름의 문화향유였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하기 힘들어요. 아내가 “왜 혼자 가려고 하느냐, 가족이 같이 가야 한다, 숙소는 쾌적하고 좋은 데 잡아야 된다,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웃음) 남자들은 찜질방이나 민박, 싼 게스트하우스도 괜찮은데, 아내와 같이 가면 10만원이 넘는 숙소를 예약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번거로워서 여행을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또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아이 데리고 지하철, 시내버스타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아이가 어리다보니 매운 것도 못 먹고요. 그런 소소한 것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요. 정작 내가 바라고 꿈꾸는 문화 향유는 물 건너갔구나 싶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관점에 철저히 맞춰야 하는구나. ‘언제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는데 아이가 커가다 보니 조금씩 개선

되는 것 같아요.

이0훈 제 나름대로 문화생활로서 운동경기 관람을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야구를 보러 다니고는 했지만 요즘에는 잘 못 가고요. 아이들과 가면 VIP 티켓을 사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어서 더 자주 못 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나를 위한 문화생활은 최근 2년 동안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어떨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종종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잔소리를 들어요. (웃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게 뿌듯하기도 하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무료 공연을 많이 참석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그런 건 더 잘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방 친구들은 아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죠. 그나마 아이가 좀 크면 나아지지 않을까 위안 삼아 생각합니다.

전0길 사실 남자들 문화는 뻘하잖아요. 술 먹고 당구 치고 주말에 야구 하거나 야구 보러가고요. 아내는 그나마 대학원을 다니며 뭔가를 배운다든지 하는데, 저보다는 문화생활면에선 좀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아이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문화생활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주변 친구들은 한두 명씩 멀리 이사 가고, 결국 친구들과 함께 하던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뀐거죠.

문화생활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환기시켜줘요

진0행 본인의 삶에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화생활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염0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스페인어를 배우게 됐지만, 그 전에는 ‘나는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24시간 동안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주일에 2시간이지만, 취미활동을 하면서 오롯이 나에게 쏟는 시간이 있다는 자체가 제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일 말고, 가족 말고 나만의 시간이 채워지니까요. ‘그래,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걸 좋아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내 삶을 환기하게 돼요. 그 시간이 한 주의 에너지예요. 그런 걸 아내에게도 주고 싶어서 아내에게 “아이에게 발레를 시키지만 말고 네가 하면 어때”해서 아내도 발레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별 것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그렇게 활동 하는 게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박0용 저는 평일에 쉬기 때문에 주로 평일에 문화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제 쉬는 날을 기다려요. 그 시간이 제 삶의 주목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임0찬 문화생활을 통해 가족이 함께 몰입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공연을 보더라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고르게 되고 함께 보고나면 이야기도 나누고요. 어떤 공연은 보다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도 동화되어 박수를 치고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이런 문화생활이 없으면 사는 게 뻑뻑해요.

이0훈 저도 평일엔 피곤하고 힘들어도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고 피로해소가 돼요. 지금은 혼자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하면서 재충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아이들과 TV보고 책 읽어주는 게 다인데, 특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같이 나가서 뭔가를 하면 자기만족도 되고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전0길 문화생활이 별 거 아니잖아요. 함께 도시락 까먹고 계란 까먹는 재미죠. 저와 아내는 '행복이 별거 있느냐, 그냥 저렇게 웃고 살면 되는 거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0민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 시스템에 점점 더 얽매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좀 안타깝워요. 막내아이는 1학년인데도 주말만 기다리는데 그런 걸 보면 지쳤구나 싶어요. 외국의 아이들은 공부보다 놀이를 많이 즐기잖아요. 그런 여가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여가시간도 짧고 또 전투적으로 즐기잖아요. 여가시간, 문화생활을 할 여유가 있어야 삶도 행복해지는 거죠.

양0식 오늘 많은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아빠 본인이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문화생활도 아이를 인솔하기 위해 아빠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찾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0행 서울시나 재단, 공공기관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염0철 문화정보를 얻는 채널이 다양해졌잖아요. SNS에서 지인이 추천하기도 하고,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내가 찾아봐야하는 것 말고 내 성향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위치와 시간, 취향에 맞는 행사를 맞춤형으로 정보를 찾기 쉽게 보내줬으면 해요.

박0용 저는 지금도 정말 좋아요.

전0길 요즘 서울은 정말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체험이나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전문가들이 진행하지만 약간 미숙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긴 하겠지만 뭔가 참여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기도 하고,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죠.

임0찬 공공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공을 위해 만든 시설인데 해외관광객들에게도 무료인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외국에 가보면 그 나라사람들은 무료여도 외국인한테는 유료인 곳도 있고, 외국인들은 아예 관광세를 내기도 하잖아요.

양0식 서울문화재단에서 사업을 기획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요. 다양한 시간에 여러 번 진행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보실 것 같아요.

진0행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의 시간을 사는 삶과 문화생활

[50대 중년 남성] 50대 남성의 자기주도적 문화생활

[베이비부머] 인생 후반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베이비부머

[65세 이상 노인] 노인이라고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죠.

젊게 살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어.

You're never too old to be young

—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중에서

50대 중년 남성

50대 남성의 자기주도적 문화생활

- ◆ 일시 2017. 6. 13.(화) 19: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이0옥 : 50대 남성, 공공기관, 용산구 거주, 역사문화(동호회)
 2. 정0훈 : 50대 남성, 벤처경영, 마포구 거주, 사진(동호회)
 3. 김0진 : 50대 남성, 자영업, 광진구 거주, 통기타(동호회)
 4. 박0주 : 50대 남성, 공무원, 강서구 거주, 영화(동호회)
 5. 정0양 : 50대 남성, 의료기사, 중구 거주, 사진(동호회)
 6. 백0옥 : 50대 남성, 경영직, 서대문구 거주, 클래식악기(동호회)
 7. 심0기 : 50대 남성, 학교강사, 송파구 거주, 시(동호회)

요약 정리

일상적인 문화생활의 범위와 향유 방식

- 일상적인 문화생활은 음악을 감상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고,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음
- 문화생활에 지출되는 비용은 한 달에 평균 3-4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스스로 느끼기에도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편임
- 대체로 한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이었음
- 뮤지컬, 연극과 같은 공연콘텐츠의 관람을 지양하는 이유는 티켓 구매비용이 높고, 연령대가 맞지 않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문화 관련 동호회 활동의 방향

- 활동내용: 문화예술교육(악기교육) 수강, 전문인력(역사해설사) 양성 및 활동, 문화자원봉사활동(사진촬영, 시집만들기), 음악·연극공연 등
- 동호회 참여 계기: 젊은 시절의 꿈을 실현, 지인과의 친목도모, 지적 만족감 충족, 사회공헌을 위한 욕구 등
- 동호회 활동의 의의: 지친 삶의 에너지,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
- 동호회 활동의 필요요건: 명확한 집단적 목적성, 개인의 열정, 편 가르기 문화 지양 등 다양

이전과는 다른 중년의 문화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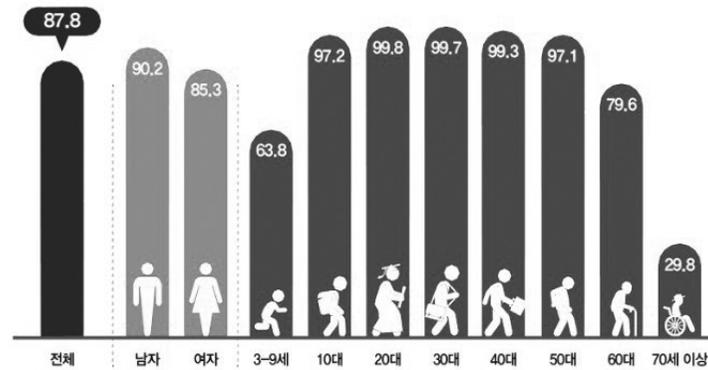
- 젊었을 때는 만들어진 것을 향유하는 경향이 컸던 반면, 중년이 되어서는 자기주도적인 문화활동을 지향
- 육체적 노화에 따라 젊었을 때에 비해 비교적 신체를 많이 쓰지 않는 방법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음
- '먹고 살기 위해' 쫓기듯 공부를 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유롭게 학습하고자 함
- 부모부양, 자녀결혼, 노후준비 등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적인 비용부담이 있어 문화생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움

공공영역에 바라는 개선사항

- 동호회 모임을 위한 공적 공간 제공 및 보조금 지원
- 공공 콘텐츠 장르의 다양성 강화 및 질적 제고
- 사회적 갈등(종교, 이념, 세대 등)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 정부 및 공공기관(50+재단, 문화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 문화활동 소요비용(박물관 입장료, 뮤지컬 관람비 등) 절감 방안 모색

수다 기록

스마트폰 이용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진행 다양한 연령에 따라 시민여러분들을 모시고 문화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0대 남성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0옥 저는 공공기관에 말단으로 근무하며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다니다가 만 50세에 잘려서 다시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 대기업에서 일할 때 보다는 급여는 적지만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요. 제가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역사공부를 하다가 한 3년 전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0진 광진구에 살고 있고 자영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서울시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그 동안 열심히 음악회 활동을 하다보니 지금은 회원이 1,700여명이 될 정도로 커졌어요.

정0훈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20여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재작년에 퇴직을 했고요, 지금은 소셜 벤처를 창업해서 경영 중입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사진 관련한 것이고요, 회사 다니면서 10여년간 사진 관련된 취미생활을 해왔고요, 퇴사한 다음에 시간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공원 사진사'라고 하는 시니어 사진가들이 자원 봉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공원사진도 촬영을 하고, 사진 공부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 출사도 가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0양 저는 중구에 살고 있고, 의료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사진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임이 생기면 따라가서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인이 하시는 '느림보 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모임에서는 독서토론회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역사탐방이나 인문학기행도 해요.

박0주 저는 집은 강서구고요, 공무원입니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안정적이라 선호직업이라고는 하는데, 어떤지 잘 모르고 막연히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알고 보면 과로로 죽거나 자살을 해서 신문에 자주 나오기도 해요. 생활하다 보면 봉급, 수당, 일 그리고 잠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남는 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공무원이 하기 좋은 동호회가 사진 동아리라 3년 동안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 외 관심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요.

백0옥 50대 중반이고요, 서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가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살았어요. 그러다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창업을 하면서 서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저 혼자 주말에 골목을 여행하는 게 취미활동이자 문화 활동이에요. 그리고 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심0기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고요, 학교 강사예요. 문학관련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글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시를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관련 모임이 많아요. 같이 시를 읽거나 토론도 하고요.

동호회 활동 외에도 공연, 음악, 공방 등 다양한 문화생활 즐겨요

진행 동호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우선 문화생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어서요. 여가라고 할 만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럴 때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하셨던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그런 걸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정0양 얼마 전에 <킬 미 나무>라고 하는 연극을 봤어요. 지인이 티켓선물을 해서 집사람과 보러 갔어요. 지체 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아빠의 이야기인데요, 지체 장애인을 혼자 돌보다가 그 아빠마저도 아파서 장애인이 된 거죠. 치매랑 비슷한 질환에 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아들을 케어를 못하니까 "날 죽여줘."라고 해요. 인력사라고 하죠? 스스로 치료받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환자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젊은 관객들은 연극을 보고 다들 울더라고요. 저도 집사람하고 보고 오면서, '내가 늙어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식들에게 폐 끼칠 수도 있겠다. 내가 진짜 끝내고 싶은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함께 이야기도 했어요.

백0옥 대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시간이 나면 근교로 나가서 식구들과 가볍게 산

책, 등산을 하고 오는 걸 좋아해요. 그 외에는 평소 주중에 여가시간은 없죠. 저희 식구들이 음악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내도 대학교 다닐 때 클래식기타 동호회에서 만났거든요.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기타를 연주해요. 딸도 피아노를 전공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 CBS 음악방송에서 강석우씨가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서 해외 오케스트라 연주회 티켓 두 장에 당첨되었는데 딸과 집사람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가람미술관에서 그림만 봤네요.(하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학 동아리 후배가 하는 공방에도 가요. 가서 크지 않은 가구를 만들어요. 제가 집에서 필요한 가구는 없지만 후배의 일도 거들 겸, 자투리 자재로 가구 만들어보는 재미 겸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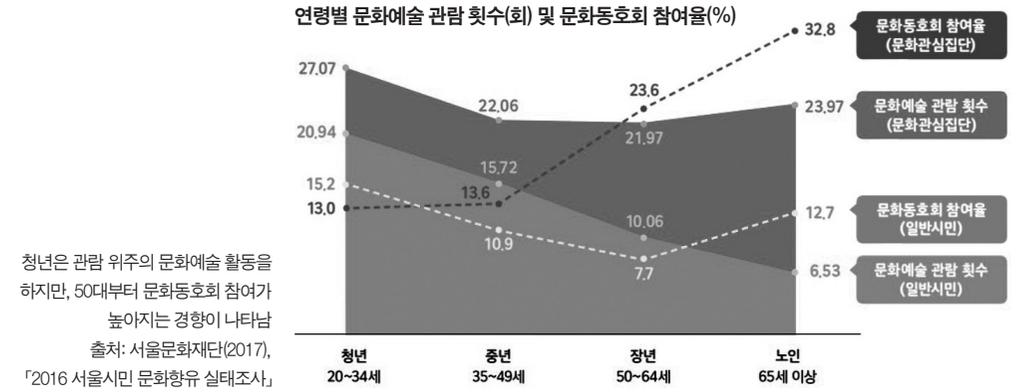
정0훈 상암동에 있는 작은 책방에서 종종 재즈 공연을 해요. 저녁시간에 가서 집사람이랑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책방이지만 차도 파는 곳이에요. 그 책방은 아내가 자주 가자고 해서 함께 가요. 그리고 사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대KT&G 상상마당에 '라띠끄'라는 프랑스 작가 사진전이 있어서 갔었어요.

이0욱 저는 문화활동은 자주해요. 모임행사가 매주 수요일에 있으니까요. 다른 요청으로 하는 강의나 행사까지 감안하면 주 2-3회씩 하는 격이네요. 그런데 그건 여기나 취미라기 보다 거의 부업이 돼버렸고, 순수하게 문화생활은 집사람과 영화 보는 것밖에 없네요.

정0양 저는 서울 토박이라 서울 강북 지리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애들이랑 많이 걸으면서 구경을 하거든요. 지지난주 주말에는 서울역 고가, '서울로 7017'을 갔어요. 그리고 솔솔 걸어서 시립미술관을 갔어요. 그 곳에서 천경자 전시를 보는데, 역시 볼 때마다 집중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날은 천경자 작가가 미돈나를 그린 게 있더라고요. 미돈나 초상을 그릴 정도면 최근까지 그림을 그렸나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아이들과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경험은 그렇고요. 주말이면 애들하고 같이 연극도 종종 보러 갑니다.

박0주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이 영어공부 겸해서 주로 팝 음악을 들어요. 가사도 공부하면서 힙합, 올드팝 다양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말 아침에는 음악을 들어야 될 한 것 같아요. 한 번 들으면 한 3-4곡 정도 들어요.

김0진 저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에 공연을 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전에 주 1회 이상 연습도 해요. 공연을 하고 가수가 있으면 이것(술)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막걸리나 한 잔씩 하고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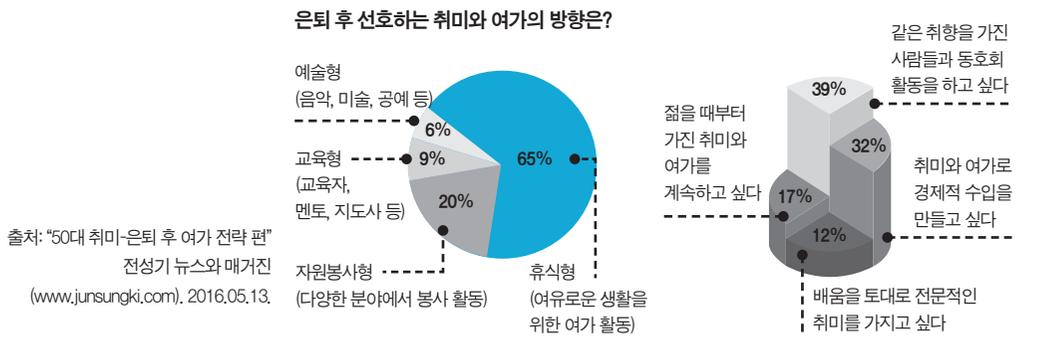
진행 동호회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 외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면에서는 관련 정보를 어디서 주로 얻으시나요?

박0주 대부분 인터넷이나 SNS로 정보를 얻어요. 이번에 인천 인문학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것도 메일을 보고 3만원에 다녀왔어요. 3만원이 안 아깝더라고요. 밥 주고, 입장료 나눠주고, 책도 한 권 얻어왔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진짜 많이 알려주셔서 유익했어요.

심0기 저도 SNS, 페이스북,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요. 또 저는 문학을 하니까 모임이 많아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서도 정보를 얻어요.

백0욱 요즘에는 메일링 서비스를 잘 해주잖아요. 서울문화재단도 그렇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같은 곳에서 주로 정보를 얻고 다니고 막 그래요.

이0욱 서울역사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런 곳들을 죄다 즐겨찾기 해놓고 홈페이지를 자주 들여다보며 정보를 얻어요.



가까운 이들의 추천, 자아를 찾고 싶어서, 사람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이유로 동호회 활동 참여해요

진행 지금 문화동호회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떤 계기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셨고, 지속하는 이유나 동력이 뭔지, 동호회 활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0훈 나이 들어서 갖게 되는 취미로 사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좋은 데 가서 예쁜 꽃, 나무, 동물 사진 찍는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는 거예요. 나도 살면서 뭔가 보람 있고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데 사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는 모임도 그런 거예요.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공원의 사계를 담은 동시에 공원에서 하는 이벤트를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찍는 사진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서로 뭉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요. 사실 금전적인 이득은 하나도 안 생기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요. 모든 동호회에서 그렇듯이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도 생겨 나가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보니 다른 사람들 보다 쉽게 마음이 통해요. "이런 일 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서 해보자."고 제안해도 의견일치가 쉽게 나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로 사회기여를 한다는 부분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박0주 참 공감이 되네요. 저도 사진 동호회를 해보니 나중에는 지치더라고요. 예쁜 거, 풍경 위주로 찍는 사진은 찍고 나면 처박아 두고 보지 않아요. 내가 직접 겪은 거나 가족들과 여행가서 찍은 것들은 계속 보잖아요. 사람이 없는 풍경은 생명이 없는 사진인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그만두게 된, 아니 그만둔다기보다 보류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0욱 50+센터가 있어요. 5060대 대상으로 별의별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거기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열심히 활동하면 좋아요. 우리나라의 남자들 보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분이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모임 중에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택해서 열심히 하면 재미도 있고 생활하는데 도움도 될텐데 말이에요. 저도 센터에 참여하다가 지금은 따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역사 강의나 행사를 통해 부수입도 생기고 있고요. 지금은 본의 아니게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주로 한양 역사를 다루는데, 왕실역사문화는 강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주로 흔히 아시는 북촌, 서촌, 청계천, 정

동, 한양도성 이런 것들 위주로 강의합니다. 강의하고 감사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테마가 달라요. 첫째 주는 전통놀이. 둘째 주는 체력단련을 위해서 걸으면서 진행하고, 셋째 주는 도보투어. 넷째 주는 버스투어. 이렇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행 그럼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이0욱 원래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어릴 적부터 역사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마흔이 넘은 어느 날, 인생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서 10여년 전부터 역사공부를 깊이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강의도 쫓아가서 듣고, 교수님들과 답사도 가고 심포지엄에 나가도 보고, TV도 그런 것만 보고요. 요새는 주로 신문에서 자료를 많이 얻어요.

백0옥 저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 시간은 레슨 받고, 나머지 한 시간은 같이 손발 맞춰서 연주를 해요. 그야말로 7살짜리부터 70살 노인까지 있으니 재미있어요.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되지만, 동네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악기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여서 연주를 해요. 아내는 바이올린, 저는 첼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악기를 생전 처음 잡아 본거예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작년 6월에 집사람이 오케스트라를 만든다는 진단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걸 많이 경계했어요. 그러다 아내가 하자고 해서 결국 같이 갔죠. 특히 제가 종교가 없고 기독교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오케스트라 모임을 교회에서 한다니가,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갔어요. '쓸데없이 종교가 내 삶을 파고들어오면 안되는데.'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주의했는데, 다행히 걱정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요즘 1년째 활동하면서 생긴 고민은 실력이 더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가 될 건 아니긴 하지만요. 가르쳐주시는 분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걸 생각하면 그만둬야 하나 싶기도 해요. 제대로 연주는 안 되고 깡깡거리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니깐 좋아요. 연주 끝나면 사우나나 운동하고 온 것처럼 개운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죠. 사실 크게 얻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0기 시 동호회를 하는 동력은... 글썄요. 글은 사실 그냥 쓰는 것이지 이유는 없어요. 지하철을 타거나 걸을 때 글이 문득 떠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은 곤두서 있어요. 일부러 시를 만들려면 어려워요. 일상적 언어를 가지고 시를 만든다는 게 말이죠. 전 딱히 정해진 시간에 글을 쓰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문득 찾아오는 걸 수시로 메모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 동호회를 한다는 이유를 말할 단계는 전 지난 것 같아요. 동호회에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을 보면, 이런 활동이 생계

를 위한 돈벌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를 찾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살다보면 문득 드는 물음을 사람들이 글이나 책에서 찾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독자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진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만 글을 통해서도 많이 해소하는 것 같아요.

김0진 제가 하는 음악 동호회는 동네에서 장사하는 형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를 해보라고 권하면서 시작되었어요. 공원 한쪽에서 그렇게 공연을 하려는데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겨우 받아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회원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나 온라인 카페도 만들고요. 그래서 온라인 카페는 회원이 1,700명 정도 됩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하는데 그럼 한 50여명 정도 와요. 그런데 그 50명도 모임이 힘들어요. 계속 음악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매주 하는 것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우리가 공연을 하면 공연을 보는 시민들이나 공무원은 좋아하지만, 우리 돈 들어서 공연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보조금이라도 좀 받으면 더 열심히 잘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진 행 요즘에는 동호회활동 지원하는 곳이 많아요. 아까 50+도 있고 저희 재단도 있고요. 중앙정부도 생활문화진흥원이라고 해서 동호회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동호회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0옥 50+센터 꼭 찾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거길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진 행 동호회활동에 있어서 보조금 같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셨는데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0기 동호회나 모임은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걸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시집을 만들어낸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이벤트나 목표가 있어야 해요. 음악을 하시는 분은 공연이겠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골에 연세 많으신 분들과 시, 문학은 거리감이 커요. 그래서 할머니들 중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구술을 받아 적는 거예요. 할머니들 특유의 지역 사투리가 있어서 재미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신랑 욕하는 것도 시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시는 고상하고 배운 사람들, 도시 사람들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다가가 보면 같이 참여했던 분도 즐겁고, 하는 이도 보람차요. “내가 언제 글을 이렇게 남겨보겠냐,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라고 하세요. 그런 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백0옥 모임에서 보조금도 있으면 좋고, 계기나 목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좋은 뜻에서 모여도 결국은 사람관계 때문에 모임자체가 깨진 것을 많이 봤어요. 모임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친해지게 되고, 누구 씨 하던 게 형, 동생이라 부르게 돼요. 그러면 금방 10년 사귀 친구처럼 친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이게 조금 화목하게 돌아가는 게 싫다가 말소리가 나와요. 그런 부분만 안 생긴다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0주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친한 사람들끼리 술 모임이 되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런 모임은 길게 못하고 곧 흩어져요. 직장에서 만나서 모임하는 사람들은 근무평정, 승진 같은 거 때문에 만나거든요. 보통 제일 윗사람이 회장이 되죠. 이런 모임은 퇴직하면 회비 낼 돈이 부족하니까 안 나가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3년 안에 모임 80%가 깨져요. 그런데 운동으로 만나는 모임은 오래가는 거 같아요. 운동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 사심 없이 만나다보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동인이 중요해요.

특별한 문화활동도 지속적으로 하면 일상이 돼요

진 행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시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이0옥 저는 일상이입니다.

정0훈 문화예술 여가활동에 있어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는 건 일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때때로 참여하는 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0양 전 수영을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운동이 일상인거죠. 문화 활동은 주로 주말에 애들하고 어울리는 정도예요. 그건 일상이지만 문화활동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할 것까지는 없지만 내 생활이고 일상이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뭐 운동을 하면서 간간히 연극을 본 다든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동네 한 바퀴라도 돌면서 남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동네 유적지를 본다든가, 그런 건 늘 해요.

백0옥 일상이나 특별 하느냐의 경계를 어떻게 놓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틈날 때마다 하니 대단한 일은 아니고 일상이죠. 근데 제가 20대

후반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20년 가까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심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니깐 사실 특별해요. 오늘도 사실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서울로 7017'도 올라가 보고 '서울시티타워'도 가봤어요. 솔직히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시간에도 없지만 그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깐 생각해보면 특별하기도 해요.

박주 예를 들어, 사진, 여행 이런 게 처음에는 특별하게 생각되지만, 사진 같은 경우도 막 찍고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든 게 늘어서 글이랑 사진이 조금 늘어요. 나중에는 사진하고 글이 결합돼서 스토리가 되거든요. 어느 수준으로 가면 글을 잘 쓴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재주가 있는지 알게 되면서 특별함이 일상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 처음에는 특별하게 시작했다가 일상화되더라고요. 특히 좋아할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 일상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진행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50대의 중년이신데요. 세월이 변하면서 문화생활도 어떻게 변했는지? 문화생활을 하는데 나이가 제약이 될 때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정오훈 젊었을 때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향유하는 문화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만들어진 공연이나 작품을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일상생활의 원동력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언제까지 끌려가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다보니 문화생활도 구경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주체적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이런 게 저에게는 나이 들면서 바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행 또 나이가 들면서 제약이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정오훈 제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 은퇴를 하거나 곧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저는 다행히 집사람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적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주 청년일 때와 중년을 비교하면 명확하게 다른 게 체력이예요. 젊었을 때는 체력이 좋고 관절도 튼튼했거든요. 옛날에는 운동도 과격한 농구나 마라톤을 했

는데 이제는 관절이 아파서 탁구, 당구를 주로 해요. 그 외에 독서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책을 읽을 때는 예전에는 시험이나 승진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요. 음악 듣는 것도 젊을 때는 귀가 먹을 정도로 이어폰을 끼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래 음악을 들으면 귀가 아파요. 지금은 귀에 안 꽂아요. 엠프로 듣거나 TV로 감상해요.

심기 젊을 때는 연애를 하니깐 그래도 문화생활을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부터는 먹고살기 바빠서 문화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니깐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니까 조금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옛날하고 다르다고 느낀 건 젊었을 때는 영화를 보면 새벽까지 봤는데 이제는 해가 지면 제법 졸려요. 마음은 진짜 괜찮아도 실제 육체적으로는 힘에 부치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팀장급 이상 되는 직책의 젊은 친구들이 아직 얘기 같이 보이는 걸 보면,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마음속으로 제 자신이 아직 젊다고 여겼거든요.

이오욱 전에는 영화를 2시간 이상 보는 동안 화장실을 안 갔는데 요새는 가요. 나이 들고서는 절대로 힘쓰는 거 안 하고 머리 쓰는 것만 하죠.

박주 중년의 단점이 늙어간다는 건데, 중년이 되고 참 좋은 것은 내가 읽고 싶은 거 읽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같아요. 젊었을 때는 쫓기면서 사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걸 갈망하잖아요. 지금은 자꾸 마음 이 비워지더라고요. 편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에는 인색한 게 사실이에요

진행 다양하게 문화생활 하시는데요, 주로 그런 활동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집 근처에 가까이 있는 문화공간을 많이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거리가 먼 곳도 찾아다니시나요?. 그리고 문화생활 할 때 비용을 얼마나 들이시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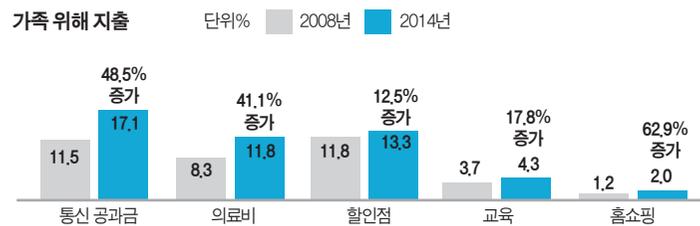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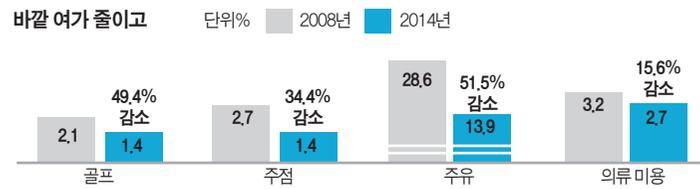
이오욱 저는 집 가까이에 가는 곳이 있고, 집 멀리에도 가는 곳이 있어요. 멀리 가는 것도 사실 서울 시내, 한양 사대문 안이라 교통비만 드는 정도죠. 입장료는 거의 안 들어요. 스케줄을 짜서 이동할 때 가급적 한 번에 보면 거의 돈이 안 들어요. 책은 주로 동네 도서관을 이용해서 봐요. 서울시 도서관 거리가 있어서 잘 안가요. 반납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과 영화관은 동네 쪽을 이용하고 나머지 문화생활은 역사 동호회 중심이다보니 서울 사대문 쪽을 이용하고 있죠.

박주 전 애들이 성년이 되어도 충분히 읽을 것 같은 책은 무조건 사요. 그러니 도서관은 갈 필요가 없어요. 영화나 인문학 강좌에 쓰는 비용은 평균 비용이 3만원 내외예요. 아니면 응모를 해서 공짜로 가요.

백옥 제가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문화생활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돈 쓰는 건 인색한 게 사실이에요. 친구들과 하루 저녁으로 10만 원은 가볍하게 먹으면서도 책 사는 건 중고서점을 우선 먼저 가게 되고요. 영화 정도면 모를까. 연극은 잘 안 보러가요. 우리 나이 또래가 볼 수 있는 연극은 사실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뮤지컬이나 음악회는 내 돈 내고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정양 저는 문화활동도 하고, 운동도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문화활동은 가족들하고 같이 연극, 영화 보러 가는 건데 그리 많지 않고요. 가족과 쓴 걸 1/3로 나누면 제가 문화활동으로 쓰는 돈은 한 달에 3-4만원 이내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도 오래두고 봐야 하는 건 새 책을 사는데, 소설 같은 책은 중고서점 가서 사요.

심기 도서관은 돈을 내지 않아서 종종 가는데요. 요즘에는 도서관이 지역학교와 연계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조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출처: "지금 한국에선 아빠의 귀환" LA중앙일보(2015.04.28.)

자발적인 동호회 모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진행 동호회 활동하시는 데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지 바라는 점을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기 제가 느꼈던 것은 의외로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는 거에

요. 낮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직업이 있는 분들은 평일 저녁이든 주말이든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곳도 안내 프로그램이 미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서울문화재단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저는 문학을 하는 입장이지만, 음악하시는 분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 돈이 많지 않거든요.

김진 아까 제가 보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동호회는 공연을 하니까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돈이 꽤 들어요. 악기 보관하는 것도 한 달에 10만원이 들어요. 마이크만 해도 15개, 모니터 6개, 스피커가 4개 그런 걸 돈 들어 보관하는 거예요. 또 공연하기 위해 그런 걸 차로 싣고 가면 용달비 줘야하고요. 회비라도 잘 걷혀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서 힘들죠.

심기 서울문화재단 같은 공공기관이 기업체와 매칭해서 후원을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도 할 수 있고요. 자발적인 모임들도 몇 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거예요. 소모임, 동호회모임, 취미모임을 계속해서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문화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들은 정말 TV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이가 더 들수록 이런 모임이나 활동을 좀 더 생활화 하는 게 필요해요. 정부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 동호회 활동에 기업이 후원하게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 동호회 활동 외에 더 제안하고 싶으신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주 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치구를 예로 들면 문화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간이 짧아요. 가격이 싼 건 맞아요. 여하튼 기간이 짧으니까 다시 등록하려면 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해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강서구민은 양천구민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있다고 하면 2-3개는 교류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특장점도 살리고 유기적인 조화가 되죠. 또 하나가, 많은 문화프로그램들이 너무 식상해요. 사람들이 한 번씩 해본 것 보다는, 못해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심기 문학모임을 하면서 지역의 절이나 명소를 찾아다니는데요. 가서 보면 느

끼는 게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시만으로는 일반인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작품 전시나 공연을 할 때, 스토리가 먼저 제시되면 좋겠다 싶어요. 바이올린 연주회라고 해도 단순히 작가소개, 작품소개만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재미 없거든요. 충분한 자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스토리를 붙여서 상품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백0옥 요즘 사회적 갈등이 많잖아요. 종교, 이념, 세대 등 때문이에요. 문화생활을 하다보면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공간도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대 간의 벽을 깨는 게 쉽지 않은데 문화 쪽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요.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0양 일반인들이 문화활동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또 공연예술 비용이 너무 비싼 경향이 있어요. 뮤지컬은 한 번 보려고 해도 10만 원 단위가 넘어가요. 연극도 비싸긴 마찬가지고요. 그걸 낮춰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은 문화활동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해주거나, 문화바우처 발행을 해줬으면 해요. 중·고등학교 때만이라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공공장소는 자국민 에겐 공짜로 해주는 게 옳다고 봐요. 싱가포르 박물관은 자국민한테는 공짜예요. 근데 관광객한테는 입장료만 1인당 8-9만원을 내라고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자국민한테는 자국의 문화활동을 알리고, 자국의 역사를 배우는 비용을 최소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박0주 오타와나 워싱턴 가면 무료가 엄청 많아요. 세계명화들이예요. 외국인에게도 무료가 많아요.

이0옥 저도 문화생활에서 동그라미 4개 들어가면 잘 안 뵙니다만 좀 안타까운 게 궁궐도 입장료가 1-3천원이잖아요. 박물관에서 하는 전시회는 공짜고요. 개인적으로는 돈이 안 들어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론 좀 안타까워요.

백0옥 저도 미술관을 자주 가거든요. 근데 계절이 바뀌는데도 콘텐츠가 크게 안 바뀌어요. 같은 걸 또 봐야 돼서 동기가 안 생겨요. 물론 무료라 좋지만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지 못해서 지친다고요. 결국 돈 들고 갈 수 있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돈의 한계에 부딪혀요. 무료인 것도 좋지만 콘텐츠에도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녁이 있는 삶을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0훈 영국은 저녁 6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없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다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향유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취미활동이든, 문화활동이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말이죠. 어떻게 그런 문화가 생겼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활 습관을 경험해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들어서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먹고 살려고,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뛰어다니다 보니 사실 적극적으로 고민하거나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젊었을 때 30대일 때라도 뭔가 한 가지라도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해요. 조금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면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계기를 던져준다면 좋겠어요.

백0옥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술 먹고 당구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같이 공차고 당구치고 술 먹는 것밖에 안 해봤는데 나이 먹고 갑자기 문화생활 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 지도 모르겠고요.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요즘 애들은 물론 우리랑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경험시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0옥 중학생들 보면 자유학기제가 생겼잖아요.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걸 접목해서 경험하지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50+의 경험과 자유학기제의 수요를 어떻게 연결 시켜줄 수 있다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진 행 네, 늦은 시간까지 즐겁게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해주신 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베이비부머

- ◆ **일시** 2017. 4. 11.(화) 19: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6명
 1. 윤0구 : 1963년생, 남성, 무역업, 기혼, 광진구 거주
 2. 임0영 : 1963년생, 여성, 강사, 별거/이혼, 동작구 거주
 3. 박0권 : 1960년생, 남성, 건축업, 기혼, 강남구 거주
 4. 김0희 : 1956년생, 여성, 주부, 기혼, 도봉구 거주
 5. 정0근 : 1955년생, 남성, 은퇴, 기혼, 강서구 거주
 6. 오0주 : 1955년생, 남성, 자영업, 기혼, 성북구 거주

요약 정리

문화생활의 개념 및 범위

- 문화라는 개념은 최근에야 쓰인 것인지 공연이나 영화를 보는 것은 문화라기보다는 취미생활이라 생각할 수 있음
- 문화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고장 가고 술을 먹는 것이 문화였다면 지금의 문화는 영화보고 공연을 즐기는 것이라 봄. 현재의 젊은이들이 50대가 되면 또 다른 것이 문화로 다가올 수 있음
- 문화는 일상과 구별할 수 없으며 특히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영화 관람은 일상이라 받아들여짐. 반면 관람이 아닌 여행과 같은 것은 좀 더 계획이 필요하고 부담이 있어 문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만약 문화에 맛집 투어나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치는 것도 포함된다면 문화의 범위는 다양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음. 개개인 간 차이가 있으나 문화가 편하고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기도 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문화생활

- 문화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게 가입되어 있는 포털을 통해 이메일로 소식지를 접하여 선택하게 됨.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다룰 줄 알기에 정보를 접하는데 문제는 없음
- 나에게 맞는 문화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고, 가족들과 함께하여 좋은 문화생활이 있다면 오히려 나홀로 해야만 즐거운 문화생활 부분도 있음. 이 부분은 가족의 형태/자녀들의 독립여부에 따라 다르며,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그 나이인 경우

- 부부끼리 혹은 나홀로 문화를 즐기고,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은 경우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찾으려 노력함
- 문화생활에 금전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부담 없이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북카페를 이용해 책을 보거나, 예술영화관을 통해 영화를 관람하고, 저렴한 티켓을 찾아 자신만의 방법으로 검색하는 것으로 드러남
- 반면 공연 관람의 경우 경제적 부담 및 공감하기 어려운 콘텐츠 등의 이유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외면하기도 함. 관람의 형태보다는 직접 악기를 배우고 봉사활동을 하고, 요리를 배우는 등 참여 형태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베이비부머 세대만의 특징

- 퇴직이후 동창생 또는 직장 동료들 단위로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임
- 오피스텔이라는 공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최대한 자신과 가족의 삶에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리를 배우는가 하면 가족을 생각하여 가끔은 그들의 취향을 고려한 문화생활을 선택하는 등 가족적이면서도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음
- 놀 줄 모르는 이들이지만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탐색과정을 하고 있으며, 완전한 노인도 중년도 아닌 베이비부머 세대들만을 위한 문화적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공영역에 바라는 개선사항

- 시간적 여유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세대이므로 문화생활에 대한 무료·할인 등의 지원을 원함
- 생활권 중심의 프로그램 마련을 원함. 또한 대부분 노인이나 여성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강사 선정이 고려되어야 함
- 영화관의 경우 다양한 카드 혜택이 있지만 관람형태의 문화생활 외 참여형태의 강좌 식 문화생활은 할인혜택이 거의 없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어려움
- 아파트 게시판이나 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더욱 적극적인 홍보 방식과 맞춤형 문화지원으로 문화생활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수다 기록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 현황 2015년 인구총조사 내국인 기준



출처: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급류'에 주목하라.'한겨레, (2016.12.28.)

진행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0주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미술이나 문화 분야에 사실 관심은 많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우연히 시청 앞에서 무료 공연을 봤어요. 굉장히 큰 무대의 공연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외에는 제가 직장생활을 광화문 근처에서 했는데 12시 반부터 세종문화회관 뒤뜰에서 직장인을 위한 공연을 종종 보긴 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였다고 볼 수 있죠.

김0희 저는 도봉구에서 왔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전 영화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0구 저는 광진구에서 왔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1963년생인데 베이비붐머 막내라 오늘 이 자리에 온 기분이 새롭네요.

정0균 저는 1955년생이고, 은행원으로 30년 정도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직장생활 할 때 배웠던 색소폰을 불고는 합니다.

임0영 저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한국적인 것 위주로 문화생활을 해요. 난타 공연도 백 번 넘게 봤네요.

박0권 저는 건축 관련 일을 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시절에는 서울시 도시 개발 쪽에 참여했어요. 그 동안 문화생활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공공기관과 같이 일을 하면서 문화생활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 공짜표가 많이 생기는데 자주는 못 갑니다.

진행 그럼 최근에 했던 문화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윤0구 저는 오늘 참석하기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세종문화회관 운동주 100주년 관련 기획전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김0희 저는 토론을 많이 하는데요. 영화 사일런스를 보고 마음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요즘에는 책을 원작으로 뮤지컬이나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책은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지만 영화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함께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기 좋은 것 같아서 영화를 자주 봅니다.

정0균 저는 문화생활을 거의 안 하는데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이 회화전을 한다고 해서 가봤어요. 무료관람이기도 하고 시간도 나서 가봤는데 별 다른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고 그냥 보고만 왔습니다.

임0영 저는 국립극장에서 하는 '향연'이라는 무용극을 봤는데요. 3-4년 전부터 이 공연은 티켓이 전부 매진되는 공연이에요. 무용단이 너무 멋있어서 국립무용단 서포터 역할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국립극장에서 무용을 하면 또 보고 싶을 뿐더러 내년에도 '향연'무용극을 하면 또 관람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보통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오0주 저는 집사람이 바람 쐬고 싶다고 해서 전시와 영화를 보고 왔어요. 집사람은 좋아했는데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저 바람 쐬러 가는 정도였어요. 여행은 크게 마음을 먹어야 갈 수 있으니까 힘들고, 대학로나 시청은 걸어서 2-3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니 가까워서 가끔 가요.

육아기 부재에 대한 미안함으로 아이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해요

진행 이 시기가 아마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뭘 하시나요?

정0균 저는 여가시간과 일 하는 것이 구분되지는 않아요. 색소폰을 불기도 하고 수요일에는 저녁 예매로 찬양에 참여해요. 지금은 서울지역혁신센터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에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진행 그럼 동호회 활동이나 발표회 같은 것도 하시나요?

정0균 양천구에 코리아나 오케스트라라고 있는데요. 현악 말고 관악만 하는 동호회입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하고 교회에서만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하철 구석에서 연주하는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있어요.

윤0구 저는 젊은 시절에 일에 치여 살다보니 애들이 아빠도 못 알아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무역업을 하며 수입은 이전보다는 적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집사람이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다보니 여기 대학로에 대해서 잘 알아서 집사람과 가끔 나와서 데이트를 하거나 저녁을 먹고 가기도 해요. 또 애들과는 일 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뮤지컬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가 셋이라, 가족이 다섯 명인데 항상 직접 예매해서 보고는 합니다. 여가생활은 전적으로 집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피곤하지만 아이들 어린 시절 때 함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진 행 여가 시간에 다른 것보다 연극을 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0구 대학로에 나오면 할 것도 많고 연극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만 집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같이 맞출 수 있는 게 이렇게 소소한 것밖에 없습니다.

임0영 저는 집 가까이 영화관이 있어서 부담이 없는 편이라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VIP회원이라 더 싸게 볼 수 있어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전에 시간 날 때 영화 보러가고는 했는데 이제는 안 가려고 해요. 우리 세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전 시간에 영화관에 많이 오시는데 영화 관람 중에도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먹고, 시끄럽게 떠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문화생활을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0주 젊은이들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웃음)

김0희 동숭아트시네마라는 영화관은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북카페도 있고 가끔 연주회도 해요. 의외로 수준 높은 독립영화도 상영하곤 합니다. 영화관이 40석 정도 되는데 평소에 가면 5-6명 정도 밖에 없어서 너무 좋아요. 수준 높은 영화들을 상영하니 기분도 좋고 만족감이 높아요. 책과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오0주 저는 회사 퇴직하고 조그만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하는 친구와 일을 안 할 때는 북한산 쪽으로 산책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박0권 저는 주중에 술을 많이 먹고요. 요즘은 돈이 별로 안 들어서 당구도 쳐요. 사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집사람도 친구 만난다고 밖에 나가고 애들도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뭘 할까 생각하다가 걸어서 영화관에 가보기도 하고 연극이랑 뮤지컬도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한 시간 잠깐 재미있을 뿐이지 제목도 못 외울 정도로 기억에 남진 않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봤는데, 공연 후 막걸리 한 잔 하는 자리에 연극 주인공이 합류하게 돼서 기억에 남는 정도예요. 사실 생활이 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연극표도 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 앞에 LG아트센터가 있는데 일 년에 2번 정도 갔네요. 라움미술관에서 피아노 공연도 봤어요. 예전에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었는데 지금은 캣츠 외에는 생각나는 것도 없어요. 기회는 많아졌지만 수준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창작극 리메이크에 외국 작품 가져다가 하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학로에도 골목마다 공연장이 많은데 발전하는 느낌이 없어 보여요. 독립영화는 일반 극장에서 상연하지는 않는데요. 실험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냥 수준이 그렇고요. 옛날과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어요. 문화의 날이라 공짜로 보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실버 할인도 되니까 보기는 하는데 질적 수준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진 행 문화 정보는 어떻게 얻으시나요?

박0권 서울시 사이트를 통해서요.

임0영 서울시나 예매사이트, 카드회사에서 계속 이메일로 뭐가 오잖아요. 보다가 선택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현수막 같은 데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윤0구 대형 콘서트나 나이든 사람들이 가는 콘서트가 주로 현수막이 붙어요. 요즘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라 관창은 것 같아요. 전 주로 책을 사기 위해 온라인 서점에 가입해놓으면 수시로 메일이 날아오니까 관심 있으면 봐요.

김0희 저는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는 소식을 접해요.

젊은 시절에는 문화생활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진 행 지금 하고 계신 활동들이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겠지만, 어느 60대 분은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는데 그건 문화생활이 아니라 취미 생활이고, 문화생활은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오주 그런 취미를 가지고 사는 게 문화생활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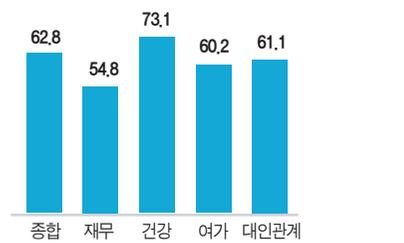
윤구 취미가 문화생활이지요, 사실 저는 젊을 때는 여유가 거의 없었어요. 20년 전 대학 시절에는 데모하면서 국사를 논하느라 비빔어요. 겨우 술이나 한 잔 하고요, 대학 시절에 영화 본 게 1-2편 정도네요. 직장생활 하면서는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없었고요, 지금은 나이 들면서 아주 다르게 살았으면 해요.

박권 취미와 대중문화도 문화생활이겠지만, 저는 술 마시면서 사회 비판하는 게 오히려 문화생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을 보는 건 취미가 맞고 문화생활의 일부분이겠지만요, 직장생활 할 땐 술 먹고 나이트 가고 했던 게 문화였죠, 우리 때는 이태원 고고장 가고 하던 것인데요.

김희 저는 문화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때는 기타 치면서 포크 송 듣고 맥주 마시고 그랬지만 지금 애들이야 영화 보고 그렇죠, 제 친구들도 재능 기부하러 다니고 영화 보거나 연극 관람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가 변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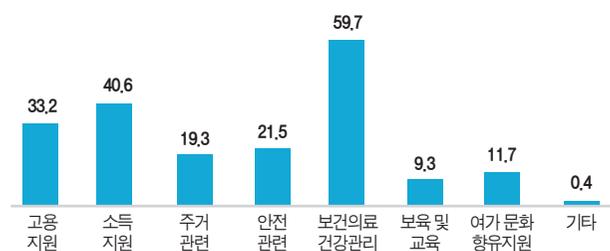
정오 저는 문화의 정의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생긴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때에는 먹고 살기 급급해서 친구들과 막걸리 마시고 어울리는 게 문화였다고 봐요, 주말에는 소소하게 산에 다녀오고 그런 거요.

분야별 노후 준비 수준 100점 만점 기준(단위: 점)



<자료: 보건복지부 2016 노후준비 실태조사>

고령자의 확충 희망 서비스 복수응답(단위: %)



<자료: '고령자 통계'(2016년), 통계청>

출처: "베이비부머'은퇴前 재무-건강-여가 정밀 진단". 국민일보(2016.12.29.)

박권 동네 동시상영 극장에서 하춘화가 나온다고 하면 다 같이 몰려가서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디너쇼라고 명명되어 변했잖아요.

정오 지금 20~30대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그 문화생활도 변하겠지요.

박권 저도 사실 불법다운 받아보는 영화들이 더 많아요, 굳이 영화관을 가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집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니까요.

정가를 주고 문화생활 하는 건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진행 대부분 직접 표를 사서 관람하시나요? 문화생활에 얼마나 지출하시나요?

정오 저는 동기들끼리 한 달에 두 번 정도 산악회를 하는데 그때 2만 원 정도 회비를 내서 등산 마치고 밥도 먹어요, 가끔 해외에 가기 위해 돈을 더 모으기도 해요, 해외에 가면 그냥 트레킹 위주로 가이드 없이 다녀와요, 그럼 저렴하게 몇 십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하고 있어요.

박권 저는 많이 들어요, 티켓 가격보다도 끝나고 술 한 잔 하느라 좀 더 들기도 해요.

임영 저는 명품 백 같은 걸 산 적도 없고 그냥 문화생활에 투자해요, 그런데 뭔가 정가를 다 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가는 워낙 거품이 많아서요, 정가를 주고 보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 비교를 해보고 사요, 우리 세대가 인터넷을 완전히 못하는 세대는 아니니까요, 가끔 보면 저보다도 비싼 좌석을 젊은 남녀가 사서 보는 걸 보면 놀랍기도 해요, 다만 정말 최신 시설임에도 좌석이 넓지 못한 것은 전혀 배려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세종문화회관도 리노베이션한 것으로 아는데 뚱뚱한 사람은 어떻게 보라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권 저는 뮤지컬을 매번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념일에 가는 거라면 할인 받는 게 자칫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구 저희 집은 가게부를 컴퓨터로 작성하는데 집사람이 문화비 항목으로 얼마나 썼는지 표기해놔요, 작년에는 92만원 지출했더라고요, 애들이 많다보니 한 번 공연을 보고 나면 30만 원 정도 소비해요, 올해도 연초에 '영웅도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지출이 예상됩니다, 여행 항목은 별도로 해서 문화비에 포함하지는 않아요.

김이희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미술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전시를 종종 봐요. 전시는 돈이 많이 안 필요해서 많아야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동숭 아트시네마에서 영화보고요. 검색해서 저렴한 것을 찾아보는 편이에요. 뮤지컬은 너무 비싸고, 가끔 보지만 그렇게 만족감을 못 느껴요. 티켓은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예매하고, 책도 거의 안사고 북카페나 도서관을 통해 봐요.

박이권 어차피 머피의 법칙이에요. 일상적으로 할인이 많지만 정작 꼭 보고자 하는 건 할인이 안돼요. 할인되는 앱도 가입해봤는데 기억에 남는 작품은 없네요.

김이희 저도 5-10년 전에는 대학로 연극을 많이 봤는데 코미디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감명 깊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엔 보고 싶은 공연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박이권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문화인가요? 저는 맛집에 다녀온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거든요. 포털을 보면 맛집이 많이 나오는데요. 막상 가보면 과장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조만간 부산에 1박2일로 다녀오려고 해요. 나 혼자 여행을 가면 옆에 앉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고 좋아요. 혼자 다니는 문화가 더느는 것 같아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좋지만, 나홀로 문화생활의 매력 알기 시작했어요

진행 혼자 문화생활을 하시는 편인가요?

오이주 동호회 회원들, 종교단체 사람들, 동창들과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집사람이에요. 대부분 같이 하는 게 많고 가끔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걸 선호해요. 더 즐겁잖아요.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버스 대절해서 지리산 등 가까운 지인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요.

임이영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혼자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혼술, 혼밥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에 오히려 긍정적이고요. 여행도 혼자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혼자 가는 게 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혼자 공연을 보면 늦게 가도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요.

박이권 저는 공연은 혼자 보는 게 좋지만 밥이나 술은 같이 먹는 게 즐거워요. 혼자 먹으면 처량해 보이고 2인분 이상 주문해야 하는 음식점이 대부분이잖아요.

김이희 저는 혼자 가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막상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가요. 지난 번에 딸이랑 10일 동안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집에서 바라보는 딸이랑 다르더라고요. 딸이 여행지에서 일을 해결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고 의지도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사진을 봐도 재미있고요. 영화를 혼자 못 보다가 얼마 전에 처음 해봤는데 뿌듯했어요. 문화를 홀로 즐기는 것이 흐름인 것 같아요. 혼자 영화를 보니 생각이 깊어지고 좋더군요.

정오근 저는 집에서 혼자 막걸리를 2시간 정도 천천히 먹으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데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술을 전혀 못해서 할 수 없이 혼자 먹는 게 습관이 됐는데요. 밖에서는 절대 혼자 못 먹겠어요. 밖에서까지 그래야 할까 굳이 혼자 할 필요가 있을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요즘 개인주의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진행 그럼 가족들과 문화생활 하는 건 어떠세요?

오이주 집사람은 본인이 좋아하는 공연을 5-10만 원선에서 봐요. 아들하고는 일 주일에 한 끼 정도 같이 밥 먹는 정도지 얼굴을 거의 못 봐요. 그런데 일 년에 한 번 정도 아들이 티켓을 쥐서 공연을 보기도 해요. 하지만 같이 가진 않아요. 우리가 돈 다주고 가져도 안가요. 아들이라 그런지 딸이랑 다른 것 같아요.

박이권 문화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족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에요. 가족이 없을 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고 그래요. 아이들은 오히려 문화생활에 방해돼요. 아무도 없을 때나 해방감이 느껴지고, 주머니의 담배도 과감히 꺼내죠. 내 맘대로 혼자서 커피도 먹고, 장도 보러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시간이 있어야 문화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어리면 함께 놀이동산가야하고, 나들이 가야 하잖아요. 지금에야 애들도 크고 혼자만의 시간도 생기니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거죠. 오히려 혼자 노니깐 흥분하고 좋아요. 어차피 가족들도 각자 노는 문화가 달라요. 여자들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남편들은 술 먹고 그러는 것 좋아하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친구들에게 주말에 전화할 생각 못했는데요. 지금은 주말에 전화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 받고 친구들도 좋아해요. 부부사이에 어디냐, 뭐하나 매번 반복하게 되는데, 문화생활은 가족을 극복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윤이구 굉장히 자유를 갈망하시는 듯하네요. 공감 가는 게 예전에는 출장을 자주 가다가 지금은 시간이 여유 있어서 집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도 하고 가사를 도우려 하는데 왜 출장 가는 것을 바라는지 모르겠어요.(웃음) 그래도 아직 가족이 극복대상은 아닌거 같아요. 저는 애들이 취업한지 1년 된 큰딸, 자기 사업한다는

아들, 고3인 막내딸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애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걸 해요.

정0균 저는 퇴직하면서 요리학원 등록했어요. 아무래도 가사와 동떨어져 있던 남편과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밥 타령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배우게 됐어요. 물론 아직 제가 밥을 하진 않지만 언젠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어요. 별도로 개인레슨을 3개월 정도 받았거든요.

박0권 선배님들의 경우 뜻있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얻어서 오피스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신문도 보고 노트북으로 인터넷도 하고, 포커치고 라면 먹고서는 퇴근하고요. 월세부담은 있지만 5명 정도 나눠서 큰 부담은 안 되는거죠. 집에만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집안에 갈등도 생기니까 그렇게라도 나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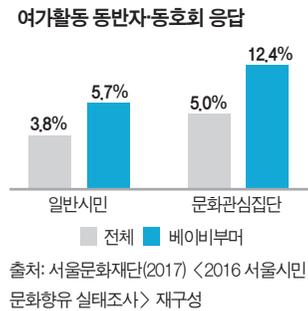
정0균 아무튼 서로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게끔 역할분담이나 목표를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을 듯해요. 제가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자격증을 5개 뒀는데 나중에 실습하러 갔더니 제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저도 공공기관에 위원이나 금융감독원 강사 등 다양한 일로 매일 나가요. 수입목적이 아니라 봉사, 사회활동 기회를 마련해 주니까 보람 있어요. 또 매일 나가니까 집사람이랑 마찰도 별로 없게 돼요. 나름 제2의 인생을 훨씬 더 재미나게 보내는거죠. 저도 주위에 오피스텔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함께 여가를 즐기는 모임도 여럿이죠

진 행 동호회 활동이나 정기적인 문화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정0균 모임은 너무 많아요. 색소폰을 하기도 하고, 산에도 가고, 막걸리도 마셔요. 3만원 내면 20여 가지 술을 마시는 모임도 있어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모임들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어울려서 하는 것이고요. 관심을 갖고 일부러 찾아가는 모임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주지 않기도 하거든요.

임0영 저는 신문광고를 보고 문화센터에서 해금을 배우러 다녀요.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고전무용학원도 잠시 다니고, 대학생 때도 플루트를 배운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음악이 낯설지 않아요. 그런 어릴 적 교육경험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도 기회로 삼으면 문화의 저변이 확



대될 것 같아요. 문화적 기반이 되고요.

윤0구 초등학교 동창들과 매달 산에 가고 독서 클럽 하는 게 있어요. 또 예전에 MBA 과정 동기를 5명과 같이 독서 클럽을 만들었는데 매달 하고 있어요. 끝나고 술도 한 잔 하고요. 정기적인 건 두 개만 있어요.

김0희 저는 교사모임을 하면서 재능기부로 이동센터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외엔 대부분 문화생활을 보는 것만 해서 기타를 배우려고 시도해봤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포기했어요.

박0권 저는 당구 치거나 술 먹는 모임밖에 없어요. 직장 그만두면 춤 배우고 싶어요. 28년 전에 신입사원일 때 사교춤을 한 달 정도 배워 봤는데 TV에서 탕고 나오는 거 보면 재미있어서 배우고 싶어요.

놀 줄 모르는 베이비부머,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요

진 행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문화여가생활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0균 나만의 취미생활이 꼭 필요해요.

김0희 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가끔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막상 가서 가르치면 너무 보람되고 좋아요.

윤0구 저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리는 직접 안하지만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오피스텔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임0영 55세부터 회사에서 퇴직이 시작되는데 이들을 포커스로 한 문화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박0권 사실 우리 세대는 놀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자식들 대학공부 시키느라 바빴잖아요. 보고 배운 게 술 먹는 거였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서 주변에 청소년 문화시설, 노인복지관 등 사회기반시설이 잘 정비됐잖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 없이 공개강좌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기식인거죠. 시설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남자들만을

위한 요리프로그램 같은 거요. 또 좀 더 제대로 된 안내와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는 곳 중심의 문화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플이 생기거나, 나이에 맞는 문화 정보가 우편물로 왔으면 좋겠어요. 특화된 맞춤형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정0균 문화 프로그램이 여성위주로 되어 있어요. 왜 남자들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남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도 없어요. 게다가 남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강사에 대한 섭외가 필요한데 그런 훈련도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 소요산에 간 적이 있는데 입구부터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 모티브 제공이 필요해요. 제일 쉬운 홍보는 날마다 뉴스가 나오는 마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부분 거주지가 아파트니까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를 했으면 해요. 경로당도 할머니 위주로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방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문화 활동으로 뭉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문화는 자신만의 가치 및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죠

진 행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와 문화생활의 만족도는 어떠하신지요? 기타 제안 등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0희 저는 음악과 책 등 문화생활을 하면서 제 세계가 넓어지고 저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윤0구 50대 중반 아빠와 20대의 아이들이 함께 '영웅'같은 뮤지컬을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할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다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밥, 혼술은 좋아서 생긴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반영된 거죠. 가족관계나 다른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50세 넘어서 공무원 합격한 지인과 얘기 하다보니,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무료로 영화보고 하는 게 좋았대요. 그런 걸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혜택을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해요.

정0균 문화라는 기준을 개념화 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문화는 수치로 결과를 측정하고 개념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임0영 저는 문화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문화생활을 하면 제 삶이 가치 있어져

서 좋아요. 정신없이 먹고살기 바쁜 것이 생존의 문제 속에서 문화생활이나 여가 같이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의 양상이라 생각해요. 제안하고 싶은 건 은퇴한 이들을 위해 비용지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시간은 많아지는데 돈이 없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또 서울에 여성행복객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더 확대해 가시적인 정책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박0권 국민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찾아다니기보다 건축이나 조형물을 통해 문화가 스스로 시민의 삶에 다가왔으면 하고요. 생애주기 문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문화생활을 못 즐긴다면 교통비를 주고, 밥 굶어서 못 한다면 점심을 주면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0주 마지막으로 동네 옆에 흥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모십니다."라고 홍보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할머니는 별로 없고 대부분 할아버지만 오시더라고요. 아무리 공짜라도 이 분들에게 뮤지컬 '영웅'을 보라하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정 문화생활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별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65세 이상 노인

노인이라고요? 지금 이 인생의 황금기죠.

- ◆ 일시 2017. 7. 4.(화) 16: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6명
 1. 박0병 : 70대 남성, 무직, 강서구 거주
 2. 남0자 : 60대 여성, 주부, 강동구 거주
 3. 이0림 : 70대 남성, 무직, 중구 거주
 4. 변0숙 : 60대 여성, 주부, 송파구 거주
 5. 정0진 : 60대 남성, 아르바이트, 마포구 거주
 6. 서0원 : 60대 남성, 무직, 동대문구 거주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문화생활의 종류

- 퇴직 후 남은 대부분의 일상적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보고, 여가시간에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인식
- '취미생활'이라 인식되는 범위 내에서의 문화생활은 주로 교양강의를 수강하거나, 역사탐방, 영화·공연·전시 관람 등이었음
- '취미생활'이라 인식되는 범위 내에서의 체육생활은 주로 등산이나 걷기체험, 자전거타기 등이었으며, 문화생활의 범위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음
- 단순히 문화생활을 수동적으로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탐방과 같이 몸을 움직인다든지, 강사로서의 활동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편임

문화생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 한 달에 10~30만 원선의 비용을 투자하며, 거리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이 크게 영향을 미침.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무료 프로그램을 선호하나, 정말 원하는 강의나 공연의 경우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는 데 크게 개의치 않음
- 문화생활을 활발하게 영위하는 사람일수록 향유하는 문화장르의 폭이 넓으며, 문화정보를 진취적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생활을 활발하게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문화향유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워하며, 관심과 취향의 폭이 좁은 편임

문화생활과 삶의 질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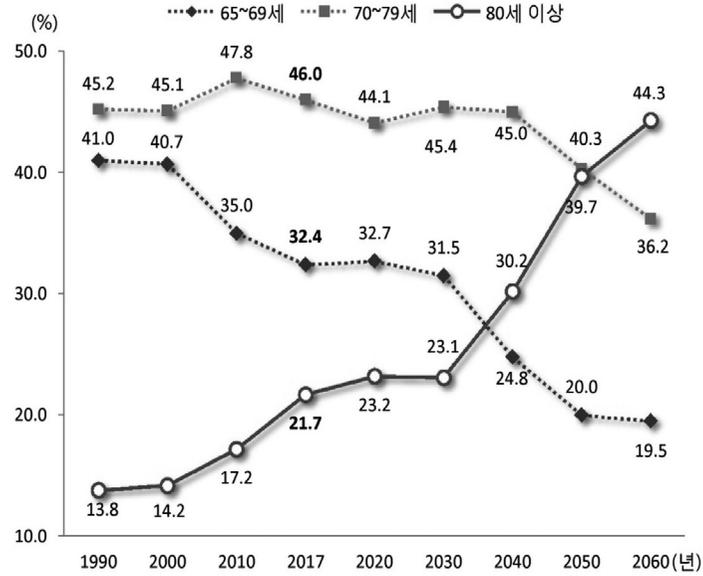
- 문화생활은 성취감을 얻는 방법이며, 스스로의 행복을 위한 것임
- 여가시간을 얼마나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인식
- 혼자 문화생활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즐거움을 느낌
- 배우자 혹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만 때때로 혼자 문화생활을 하기도 함
-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세계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

문화생활의 제약과 기타 바라는 점

- 사라지는 우리의 문화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 필요
- 무료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많아졌으면 함
-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 및 질적 제고
-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 증대(둘레길 걷기 등)

수다 기록

고령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출처: 통계청(2017). 2017 고령자 통계

진행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서0원 안녕하세요, 저는 공직에 있다 퇴직해서 지금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해서 많이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정0진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원래 글쓰기를 좋아했고 의류제작을 30년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고요. 대신 중국에서 한 17년 살다보니 까 중국어를 조금 해서 가끔 중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변0숙 저는 송파구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0림 예전에 신문사에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한국어를 한 7년 가르쳤어요. 중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방송대 중국어과에 편입했다가 지금은 휴학 중입니다. 저는 중구에 사는데, 문화 향유할 시간과 접근성이 좋아요. 얼마 전에는 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시민큐레이터 교육을 두 달에 걸쳐 받았습니. 15강을 수강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남0자 저는 이문동에 살다가 5개월전에 강동구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엔 뒷방에서 손주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15년 활동했어요. 이제는 임기가 끝나서, 요새는 시간이 남아 주로 강의 듣거나 산에 가요.

박0병 저는 70대 초반이고요, 강서구에 삽니다.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을 했는데, 항공사에서 근무해서 여행을 많이 했고요. 퇴직하고 나서 주로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고 삽니다.

인문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강좌 많이 들어요

진행 보통 자유로운 여가시간을 보내실 때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하셨던 활동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서0원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사람과 함께 뮤지컬을 보거나 문화시설을 다녀요. 그리고 도심권 50+센터나 서울시민대학에 거의 매일 가서 두세 과목 강의를 들어요. 그게 하나의 취미인 것 같아요. 집사람은 시민대학에 다녀서 역사탐방하고 둘레길도 다니고요.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변0숙 전에는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피곤하고 귀찮아서 못했어요. 나가 노는 것 보다 집에서 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20년 전 서울시, 서울시립대에서 하는 역사탐방 기억이 나서 그런 걸 계속 했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니 인터넷 카페에 역사탐방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동호회를 통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역사탐방을 가요. 한 달에 한 번은 지방으로 원정도 가요. 역사탐방만 하는 게 아니라 미술관, 음악회, 여행도 가면서 자꾸 폭을 넓히는 거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진행 카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변0숙 50대부터 70대까지인데 83세까지 있어요. 60대가 많고 50대는 드물죠. 저는 그런 인터넷카페가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2001년에 제가 시작한 카페는 없어졌거든요. 예전에는 글만 쓰는 그런 인터넷카페가 많았는데 요즘은 여행, 비독, 당구, 댄스 등 다양한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저는 음악, 미술, 글쓰기, 여행, 걷기 동호회를 찾아다녀요.

남0자 저는 시민대학이나 여러 예술 활동을 많이 찾아다녀요. 이 나이엔 뒷방에서 손주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활동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밖으로 자주 다녀요. 시민단체에서 15년간 활동하고 이제는 임기가 끝나서, 요새는 시간이 남아 주로 강의 듣거나 산에 가요. 젊은 세대들은 현실을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노년 세대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자기 발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요.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대학에 다니는데요. 너무 안타까웠던 건 시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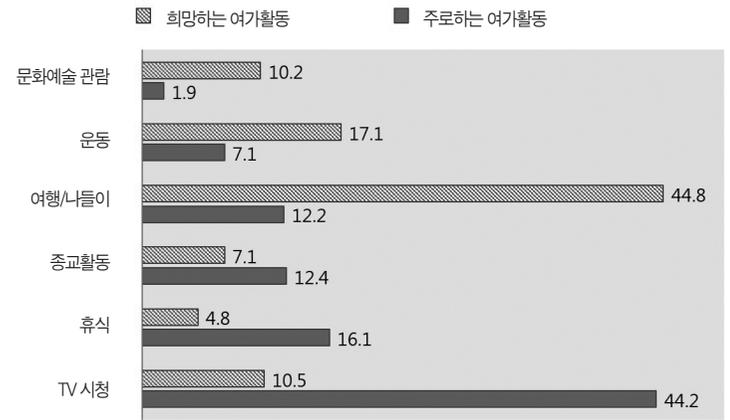
중 유일하게 과학을 가르치는 데가 광운대였는데 사람이 없어요. 참 좋았는데 말이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열다섯 명이 채 안됐어요.

서0원 이번에 들으셨어요?

남0자 작년 가을에, 후반기에 들었어요. 지금은 이사 가서 못 듣지만요. 아무래도 이걸 홍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 몇 사람 모아놓고 하면 교수님들도 힘이 안 나실 텐데,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세요. 몇 사람 앉혀놓고도 말이예요. 그렇게 감동하도록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좋은 자리를 마련해놓고도 사람들이 몰라서 못 가니까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박0병 저도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있어요. 월·화·수는 주로 예술가의 집, 성균관대 세계학연구원, 책 읽는 사회 등 혜화역 근처에서 여러 가지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고 있고요. 주로 한문이나 고전, 사서삼경 등을 공부하고 있어요. 목·금·토는 집 근처 허준박물관에서 동의보감이라든지 역사 강의 듣고, 양천향교에서 한식·주역에 관한 강의를 들어요. 또 검재정선미술관에서 각종 미술사 강의를 몇 년간 듣고 있어요. 일요일은 등산가고요. 이렇게 지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한달에 15만 원내지 20만 원 정도 들어요.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원래 성격은 인문학 쪽이 맞았어요. 우리세대가 학교 다닐 때는 인문계, 특히 한문 이런 거 공부해서는 밥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죠. 지금 인기있는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은 하품 나오는 직업이었거든요.

60대 이상의 여가활동



60대 이상 세대는 여가활동으로 여행, 운동 문화예술관람을 원하지만 주요 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 휴식 등임
출처: 서울문화재단(2017),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재구성

정0진 사실 우리 나이엔 일상 시간 전부가 여가시간이잖아요. 그게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10년째 탔는데, 게으

르면 못 탑니다. 저도 주변에 취미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다 부지런하게 다니시잖아요. 제가 마포에서만 50년 살다보니까 다른 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아요. 그분들이 뭐 하시는가 했더니 다들 그림 전시 같은 취미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서양화를 그리려고. 그래서 제가 그림은 볼 줄 몰라도 전시회에는 종종 가는데, 가면 동네 분들도 만나고 즐거워요. 이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구나 싶고, 좋은 걸 많이 느끼고 삽니다.

남0자 나이 많으면 취미생활 할 시간이 많아서 참 좋아요. 그런데 첫째 조건이 건강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교양강좌는 많은데 건강 쪽은 소홀한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건강해야 나라 재정도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보험료가 얼마나 오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신경 썼으면 해요.

박0병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알아서 찾아가죠. 홍보 충분히 돼있다고 생각해요. 의학, 건강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허준 박물관이라든지 의학강의를 할 만한 데를 가야죠. 인문학 강의하는 곳 가서 건강 강의를 없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건강 강의도 차고 넘친다고요.

서0원 아까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족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안 가요. 광운대도 거리가 멀어서 안가는거죠.

남0자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 들어가면 되는지 한 눈에 꿰고 앉아 있지만, 잘 안다니는 많은 분들은 그걸 몰라요.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취미를 만들고 자주 넓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알고 찾아다니는 몇몇 분들을 빼고는,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달라요.

정0진 선생님 말씀이 다 옳아요. 옳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몰라도 꾸역꾸역 찾아옵니다. 얼마나 부지런 하느냐의 차이예요.

변0숙 집 근처 박물관에 강의를 있다고 해서 기대를 품고 갔는데 남는 게 하나 없고 재미도 없었어요.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야 해요. 예전에 역사탐방 강의를 들었을 땐 재미있어서 송파에서 시립대까지 버스타고 즐겁게 다녔어요. 재미있으면 알음알음 이야기하고 소개받아서 가요. 몰라서 안가는 게 아니예요.

박0병 국립중앙박물관에 여러 강의를 많은데 일반 대중 강연으로 인기가 많은 게 수요일 오후 강의와 토요일 강의예요. 3월에 고고학을 주제로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해서 12월 되면 현대까지 오는 식으로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해요. 그 강의가 재미있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강의가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한

3~400명 수용하는데,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재미가 없어도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건 재미하고 별 상관없는 거예요.

서0원 관심과 취향에 맞으니 좋으셨던 거고, 다른 분들은 취향에 안 맞으니 그런 거죠 뭐.

젊은 사람들과 함께 듣는 강의가 훨씬 흥미 있어요

이0림 저는 최근에 들은 강의를 예로 들어볼게요. 최근에 4차 산업 강의를 들었어요. 지난 대선 때도 화두가 됐었죠. 4주에 걸쳐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아주 흥미 있게 들었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과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교실에도 가봤는데 영 답답해서 못 가겠어요. 앞으로는 생각을 바꿔서 젊은 세대하고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왜 그게 좋은가 했더니, 젊은 세대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요. 미래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론과 질의응답이 무척 뜨거워요. 선생님 강의도 좋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 가서 젊은 사람들의 열기를, 열정을 느끼고 얻는 게 많죠.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세대끼리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하나 덧붙이면 제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처럼 아주 정확하게 세대구분을 하고, 세대 간 간극을 자주 확대재생산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선 같은데 보면 20~30대는 어땠고, 40~50대는 이렇더라, 60~70대는 이러저러하다고 해버리니 아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으니 보수우파, 젊은 세대들은 진보좌파. 그렇잖아요. 60대 중에서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젊은 층에서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세대를 갈라놓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여러 세대 함께 듣는 프로그램을 짤으면 좋겠다 싶어요.

변0숙 저는 예술의전당에서 성악 클래식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음악분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90년대에 갔을 때는 없었어요. 무슨 정원도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걸 사람들이 찾아 갈 수 있게 안내해주면 접근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공연은 못 보더라도 음악분수는 볼 수 있는데 말이죠.

이0림 이번호 <문화+서울>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분들께 보시라고 추천 드리는 건 지금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박찬욱, 박찬경 영화감독 형제들 전시회

입니다. 3D 기술을 활용해서 전시 겸 영상물을 상영하는 게 있어요. 거대한 지구가 360도 회전하면서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던져요. 아주 놀라운 전시회예요. 설치미술도 있고요.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꼭 와서 보라고 했어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와서 보라고 괜찮다고 말했어요. 너무 좋아요.

황혼 욕아하는 친구들은 문화생활을 못해요

진 행 듣다보니까 선생님들이 특별하세요. 주변 사람들 중에 선생님들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변0숙 제가 보기에 우리는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카페 사람들이 공통으로 생각한 게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애들 다 결혼시켜놓고 부담이 없이 즐길 수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 신나게 먹고 여행가고 이게 일이었는데, 개가 손주 보느라고 밖으로 못 나와요. 가진 건 돈하고 시간 밖에 없다고 해외여행 가던 그런 친구인데 말이죠. 손주 때문에 집에 묶여있는 사람이 우리 연령대에 많아요. 어느 강의에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은 건 강하고 돈 있고 손주 안 봐줘도 되서 여기 오신 것이니 행복한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돼요.

남0자 우리 연령대는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같이 놀러 다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산을 타는데, 같이 산을 탈 또래 친구가 없어요. 같이 활동하던 젊은 사람들과 대년요. 봉사단체에 오래 있어서 봉사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일로 연결된 인연이 있죠.

서0원 지금 밤에 강의 듣는 건 혼자 가요. 메일이나 정보를 접하면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짹 뿌려서 듣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가요.

정0진 사실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모두 있어야만 가능해요. 열정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하고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다니거든요. 문화를 접하며 산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생활에 쫓기다보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이집트 파라오 전시회가 있었는데 공짜인 줄 알고 갔거든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안 들어가고 다시 왔죠. 유료인 건 안 가요.



출처: 육아정책연구소(2015).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노인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화 정보를 찾아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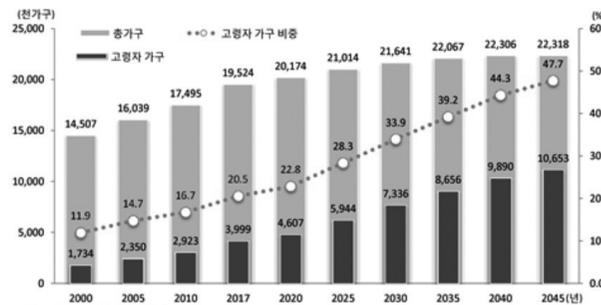
진행 문화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박이병 저는 대부분 이메일로 와요. 일단 친구들 중에서 거기에 관심 가질만한 사람들, 같이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죠.

서0원 저는 서울시, 50+포털 같은 사이트를 일일이 들어가서 하루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봐요. 사람들이 좋은 거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해서 달력에 저장했다가 보내주기도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한테 교육 일정을 물어봐요. 50+센터에 가시면 우선 정보가 많이 있고요. 건강은 노인복지센터, 국립도서관에는 영화나 강의가 많죠. 국회도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고요. 목적의식만 뚜렷하면 돼요. 또 성북동에도 미디어 강좌, 사진 강좌가 무료로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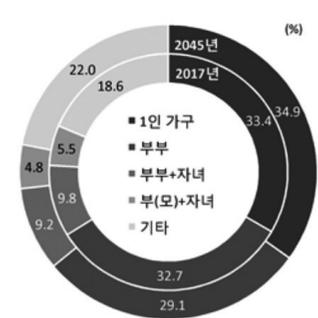
남자 얼마 전에 농업기술박물관에 갔는데요. 그것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장소가 좀 떨어져서 안 좋는데, 젊은 주부들이 배웠으면 싶었어요.

고령자 가구 추이



출처: 통계청(2017), 2017 고령자 통계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



자녀의 성장과 독립으로 배우자 혹은 혼자, 모임으로 문화생활 주로 해요

진행 지금 혹시 자녀랑 함께 사시는지, 아니면 부부만 사시는지요?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0숙 저희 남편은 아직 일을 하니까 문화생활을 전혀 못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둘레길 걷기가 다예요. 그리고 딸과 손주는 미국 살아요. 그런데 미국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을 보면 손주들 어린이집 등하원 때문에 평일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면 오전에만 있다가 얼른 집에 가죠. 저는 아이들과 따로 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딸애가 잠시 집에 와있었는데, 저는 손주 안봐주고 그냥 정선여행을 다녀왔어요. 딸애가 끝이 나가지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기분 나쁘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자기애가 강하대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서운했어요. 여태껏 아이들한테 올인 했어요. 애들 다 키우고 이제서야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박이병 저는 아직 장가 안 간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요. 그놈이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가끔 영화표 같은 걸 줘요. 단점은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집안 어지럽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혼자 문화생활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죠. 친구들하고 갈 때는 경복궁 옆에 있는 현대미술관 서울관에 많이 가요. 친구들하고 가서 보면 생각보다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서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돈 내도 아주 조금내거나 거의 무료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비해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전혀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 근무할 때 뉴욕에서 몇 년 살다 왔는데 그런 데하고 비교해도 손색없어요. 안에 소장품이 좀 뒤떨어질 뿐이죠. 시설 같은 것은 뉴욕이나 런던, 파리보다도 더 좋아요.

서0원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딸이 있어요. 개는 취미가 외국을 나가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때 빠지는 체질이 아니라서 여행을 잘 못 가다보니 딸과 집사람 둘이서 가요. 나는 어디가려고 하면 집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여행은 둘이서만 가더군요.

남자 저는 두 식구예요. 근데 옛날 남자들은 꼭 옛날식으로 여자가 살림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도 하고, 빨래도 해야하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여자가 활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날 동네사람들이 제가 자주 밖을 나돌아 다니니까 궁금했는지 우리 집 양반한테 “아줌마는 뭐해요, 돈 버세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양반은 안 그래도 못마땅한데다가 돈 버는 소리도 들으니까 “돈이요? 나도 몰라요.”라고 했대요. 한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해줘도 여자가 나다니는 거는 못마땅해 하는 게 남자들이예요. 힘들어요.

이0림 저는 아이들은 다 해외에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아내와 같이 할 때가 많죠. 같이 하는 활동이 한 열 번 중 일곱 번은 돼요. 그 외에는 혼자 갈 때가 많아요.

정0진 저는 가족이 5명인데 다 뿔뿔이 살아요. 지금. 애기엄마는 학교에 있어서 지방에 살아요. 큰 아들은 미국 텍사스에 있고, 막내딸은 지방에 있어요. 저는 둘째 아들과 살고요. 둘째 아들과는 같이 살지만 문화생활을 같이하는 건 없어요.

연금, 자녀용돈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무료나 저렴한 프로그램 찾아서 즐기려고 노력해요

진행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체로 다 은퇴를 하셨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지요? 그런 가운데 문화생활에 쓰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변0숙 남편이 조금 벌고 있고, 연금이 조금 나와요. 아들이 결혼 전에는 용돈을 꼬박꼬박 줬었는데 결혼 후에는 가끔 명절이나 생일에 용돈을 받아요. 또 가끔은 공연 티켓을 사서 “이모랑 가거나 아빠랑 가라.”면서 줘요. 아이들이 비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돈이 짝퉁해서요. 문화생활에 나를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나 계산해봤어요. 보통 어딜 나가면 비용이 3만원 정도 쓰거든요. 먹는 것까지 다해서 한 달에 20~3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누리는 거에 비해서 무척 저비용 고효율이지요. 보통 할인이나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런가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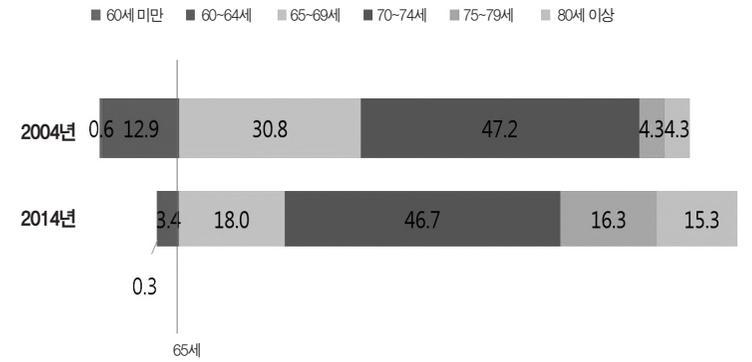
박0병 저도 뻘해요, 연금 받는 게 있고요. 아들도 조금 보태줘요. 사는 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여러 가지 유료강좌 같은 것을 문화생활이라고 치면 20~3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등산까지 하면 30만 원 드는 것 같네요.

서0원 저도 뭐 유료강좌 듣는 게 있고, 달마다 뮤지컬 가니까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들어요.

이0림 저는 들쭉날쭉하네요. 영화를 좋아해서 경로우대를 해주는 CGV 카드나 시네큐브 카드, 롯데시네마 카드를 만들었어요. 영화 많이 보는 달은 좀 나가요. 포럼도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나눌 때를 생각해 봐도 얼마 안 들어요. 월 1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남0자 저희 집은 개인 사업을 해서 연금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옛날에는 개인사업자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부동산으로 조금 나오는 게 있어서 사는 건 그럭저럭 살아요. 거의 무료 강좌를 들어서 문화비용이라고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회비 조금 나가는 거 정도예요. 지하철도 무료고, 무료강좌도 많아서 노년에 문화생활로 돈 들 일이 별로 없어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시기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및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노인이라고요?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죠

진행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넘어오시면서 문화생활은 어떻게 변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0병 저는 노년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하철 타 봐도 한 80세는 넘어야 노인이지 70세는 노인 아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다 산 노인이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연대 철학과 김형석 교수가 인생은 65에서 75세 사이가 가장 황금기라고 말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65세까지는 대개 일을 하지만 65세 넘으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취미생활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시간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행 젊었을 때랑 지금처럼 좀 더 나이가 드신 다음에 문화생활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박0병 큰 차이가 있죠. 젊었을 때는 회사에 매여가지고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출장 가서 시간 남는 때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파리나 런던에 출장을 가면 마지막 날 저녁 비행기 타기 전에 박물관에 가보고 했어요. 그때는 시간이 없었으니 그런 식으로 짧게 관광하고 박물관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 스케줄을 짜서 계속 휴대폰에 입력시켜서 다니죠.

서0원 저도 노년이라 생각 안 해요. 20대 때 이미 120세까지 살꺼라고 얘기 해왔어요. 그럼 60대는 인생의 반 정도 지난거잖아요. 체력의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가짐과 정신적인 게 노년인지 아닌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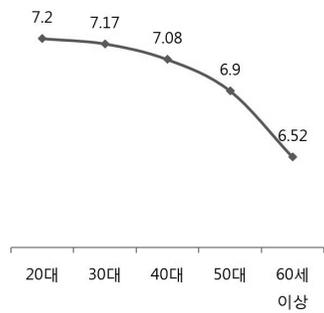
은이들이 많은 강좌를 많이 듣는데, 그런 곳에 가면 젊은 기운을 받아서 젊어져요.

변0숙 제 자신은 노인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웃도 젊게 입으려고 해요. 친구들한테도 노인네같이 웃 입지 말라고 지적을 많이 해요. 나이먹고 달라진 건 강좌를 들으면 잘 잊어버려요. 설명이 길어지면 뒷부분 들을 때 앞부분은 잊어버려요. 나도 저런 데를 기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강좌가 많은데, '거기까지 가서 들으면 뭐 하나, 그 순간 잊어버릴 텐데.'하는 생각에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강연도 TV에서나 보고요. 심지어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조회를 해보니깐 2년 전에 빌려본 책을 또 빌려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듣고 보고 움직이는 것을 하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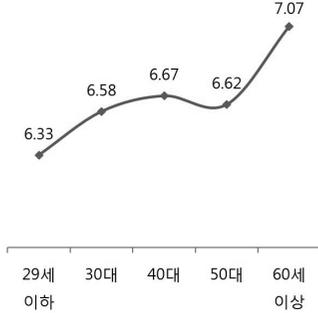
이0림 육신은 노인이죠. 세월은 흐르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라는 글을 최근에 읽었어요. 세월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나는 늙은이가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세월이 순응하되 사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모험도 했었고 상처도 받았지만,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남0자 젊은 애들한테 대접을 받기 싫어서 아닌 척하지만 체력은 어쩔 수 없이 노인네예요. 그리고 기억력도 작년 다르고, 금년 달라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서울시민 행복지수(서울서베이)



문화관심집단의 행복지수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나이가 많을 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문화관심집단은 나이가 많으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출처: 서울문화재단(2017),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2017), 서울서베이(2016기준)

행복추구, 성취감 획득, 행복한 엄마되기... 문화는 고독한 삶을 재미있고 보람되게 해줘요

진 행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런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인의 현재 삶에서 여가생활, 문화생활이 꼭 필요하신지요?

박0병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마누라 눈총 받고 신문보고 TV보는 것만 할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재미있으니까 다니지요. 시간은 유한한데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강의도 듣는 순간엔 물론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지만 듣고 또 듣는 거고, 책도 읽어봐야 주인공도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계속 읽고요.

서0원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인문강좌를 더 많이 들으러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70세가 되면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강의하는 곳에서 91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95세가 되면 강의를 시작해서 강의 베테랑이 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사실 그렇게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 게 생계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취미든 여가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변0숙 우리 어머니는 사실 굉장히 활동적이고 문화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활동도 못 해보시고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지 나는 행복하게 살다 가야겠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딸도 나처럼 이렇게 가슴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핑계 같지만 제 진심이에요. 그렇게 즐기다보니깐 제 자신이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지금이 행복해요. 아이들한테 우리 엄마가 불쌍한 엄마가 아니고 행복하게 사신 엄마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싶어요.

이0림 기차하게 얘기하면 행복추구고, 작게 얘기하면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남0자 노년에는 여가시간을 얼마나 보람 있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노년에 제일 고독하잖아요. 혼자 집에서 독서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홀로 들어앉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 하는 공부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그런 문화생활을 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경로당을 안가거든요. 그러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찾아가는 거죠. 서울역 박물관 강의에서 문화답사도 해요. 종묘도 가고 창덕궁도 가고, 교수가 직접 가서 해설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여가시간을 얼마나 보람 있게 보내고 좋아요.

정0진 저는 평생 일만하면서 문화생활이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화생활이라는 것 참 좋고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다들 존경스러우세요.

우리말·우리 문화 보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 원해요

진행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공공에 제안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서0원 전 북촌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게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뿌리가 거기 있는 건데 망가지는 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변0속 외국 연주회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강수진 발레도 꼭 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봤어요. 바라는 것은요. 예전에 살던 곳을 최근에 가보면 옛 모습이 너무 없어져서 아쉬워요. 그런데 작년에 을지로 역사 탐방 중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곳들이 헐릴 거래요. 오래된 곳도 보존을 했으면 싶어요. 유명한 예술가나 작품만 보존할 게 아니라 그런 서민의 일터나 삶의 흔적들도 좀 남겨줬으면 해요.

이0림 백범 김구 선생이 '문화가 융성된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 일제에 쫓겨서 이리저리 상해에서 중경으로 옮겨 다니고 하셨는데 말이죠. 서울시 행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좀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남0자 요즘에는 지역 방언이 시골에서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방언으로 논문을 쓰고 싶어서 나이 48세에 편입을 해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해봤는데 사회생활 하느라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꿈은 이제 못 이루겠죠? 그리고 서울시에 내가 건의하고 싶은 건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전에는 영화도 상영하고 패션쇼도 하고 그랬잖아요. 문화의 광장으로 다시 되돌려서 한복 쇼도 하고 팽과리 치는 공연도 하고 우리 것을 많이 보여주면 싶어요.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보면 그런 게 그 나라의 고유의 문화니까 굉장히 신비하게 보이더라고요. 또 광화문광장에 숲을 조성했으면 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을 새로 심는 비용보다 숲을 좀 가꾸어봐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찌다가 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데리고 가서 쉴 곳이 없어요.

박0병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얘기했는데 사람이 삶의 질을 따질 때 다들 좋아하는 악기, 할 줄 아는 운동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 줄 아는 악기가 없어요. 그걸 하고 싶은 게 꿈인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 글렀어요.

변0속 우리 언니가 복지관에서 가르쳐준다고 하던데요. 안 늦었어요.

박0병 서울시에 바라는 것은요. 지금 서울에는 여러 가지 문화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그 외에도 각종 문화단체에서도 하고 대학에서도 하고 너무 많아요. 국고낭비 아닌가 싶어요. 분야별로 각 기관, 정부부처도 특화해서 해야지 너무 똑같은 게 쓸데없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이대로 한 백년 지나면 우리말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정부기관부터 대통령이나 장관까지 우리말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영어로 해요. 영어로 말하면 더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잘할 줄 아는 것은 좋지만, 외국어를 우리말처럼 쓰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좀 더 순수한 우리말을 가꿔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없어진다는 건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정부기관부터 시작해서 우리말을 신경 써야 해요. 단체나 프로그램 이름을 왜 꼭 영어로 짓느냐 이거예요.

진행 오늘 너무나도 재미있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잘 정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소년소녀의 삶과 문화생활

[1516 청소년] PC방, 팬덤문화... 현재를 즐기자!

[1819 청소년]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젊은이들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다.

The youth is the hope of our future.

_호세 리살 (José Rizal, 필리핀의 독립운동가)



PC방, 팬덤문화... 현재를 즐기자!

- ◆ **일시** 2017. 8. 26.(토) 11:40
- ◆ **진행** 김희숙 공간민들레 교사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김0민 : 15세, 여성, J여자중학교
 2. 정0민 : 15세, 여성, B중학교
 3. 김0정 : 16세, 여성, S중학교
 4. 홍0은 : 16세, 여성, S중학교
 5. 류0영 : 16세, 남성, B대안학교
 6. 허0호 : 15세, 남성, B대안학교
 7. 양0겸 : 16세, 남성, A대안학교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문화생활의 종류

-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방학숙제를 위해 공연장을 방문하는 등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문화의 영역에 접근
-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거나, 친구들과 모이거나 개별적으로 PC방 또는 스마트 폰을 통해 게임을 함
- 연예인 팬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연이나 전시콘텐츠는 학교에서 단체로 이동하거나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이를 향유하는 문화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편임

문화생활의 장애요소

- 전반적으로 비용과 시간, 흥미요소의 부족으로 문화생활에 장애를 느낌
-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으로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느낌
- 비용이 비싼 문화생활의 경우 비용 조달이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짐
-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자기 주도적인 활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등 문화생활 자체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이 많음

문화정보의 습득 경로

- 학교나 선생님을 통해 주로 정보를 얻고 있으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는 보편적 정보 전달이기 보다는 선별적인 경향이 있음
- 지인(친구, 선생님 등)을 통하거나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알림), 트위터, 인스타 등)를 이용하는 편임
- SNS의 경우는 정보를 생산하기보다 습득하는 데 주목적을 둠

문화생활의 이유

-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의 시간을 즐기려고 함
- 직접경험이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간접경험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함
- 진로를 위해 미리 체험하여 미래를 설계하고자 함
-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자체를 즐겁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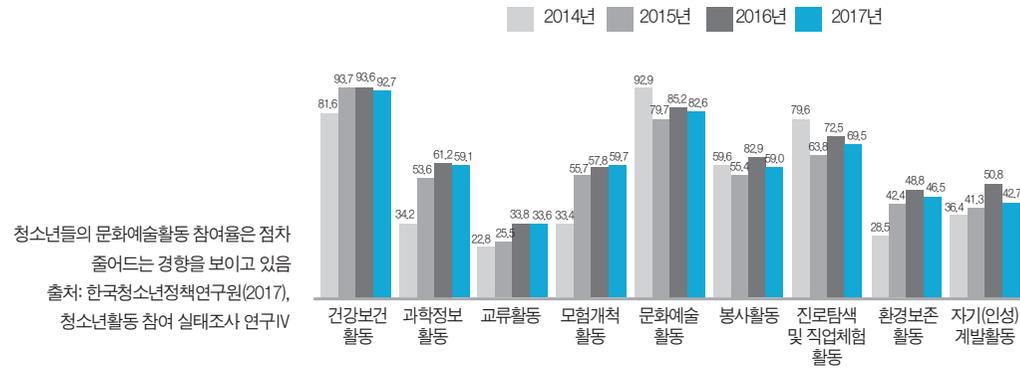
즐기고 싶은

문화생활의 종류

- 향후 진로탐색과 관련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팬문화활동으로 콘서트 관람 등을 원함
- 어른의 간섭 없이 친구들과끼리만 여행을 가서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싶음
-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이나 오락적 요소가 있는 문화생활이 있었으면 함
- 거주지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가 생겼으면 함
-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지서비스 증대하길 바람

수다 기록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



진행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0정 S중학교 3학년이고 강서구에 살아요.

홍0은 저도 S중학교 3학년입니다.

정0민 저는 B중학교 2학년입니다.

양0겸 저는 A대안학교 3학년입니다.

김0민 J여자중학교 2학년입니다.

허0호 저는 B대안학교 다니고 서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류0영 저도 B대안학교 다니고 있는 3학년입니다.

진행 '문화생활 하면 뭐지?'이럴 수 있어요. 평소에 영화나 공연, 전시를 보러갈 수도 있고, 노래방이나 PC방에 갈 수도 있고요. 최근에 해봤던 문화활동 중에 기억나는 걸 그냥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정0민 저는 영화관에서 택시운전사 영화를 봤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군인들이 광주 시민을 막 작대기로 때리고 학살하기 까지 했어요.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김0정 저는 학교에서 댄스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학에 친구들이 공연을 하면 보러 갔고요. 학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같은 것도 해요.

김0민 저는 방학숙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금관 같은 화려한 유물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상생활 유물 위주였어요. 박물관은 어렸을 때 몇 번 가보고 평소에는 잘 가지 않았어요.

류0영 저는 합기도를 하는데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방학 때 나갈 일도 없고 PC방에만 있으니까 운동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진행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류0영 같이 이야기하다 결정했어요. 해보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허0호 저도 영화관에서 택시운전사 봤어요. 군인들이 시민들을 때리고 죽여서 슬펐어요.

홍0은 저는 평소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전시회가 있어서 갔어요. 픽사 전시회인데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평소에 자주 같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날은 제가 부모님께 같이 가자고 해서 함께 갔어요.

양0겸 저는 친구들과 밴드 공연을 다닌 게 기억에 좀 남아요. 저도 직접 밴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하는 공연도 보러 다녀요.

PC방,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TV를 봐요

진행 평소에 학교에 매일 가잖아요. 방과 후나 주말에는 어떤 걸 하고 지내요?

정0민 저는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편이라서 집에서는 문제집을 푸는 정도만 해요. 제가 집순이라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댄스부 활동을 하는데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하루종일 연습해요. 남은 시간에는 그냥 연예인 덕질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문화 행사로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 '00000'를 봤는데 나중에 성추행 관련 기사가 떠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연극은 잘 즐기지 않아요. 게임을 좋아해서 PC방에 더 자주 갔어요. 요즘에는 나가려고 씻고 하는 게 귀찮아서 아예 게임을 샀어요. 오빠가 4만원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사줬어요.

양0겸 저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PC방이에요. 롤플레이팅 게임을 주로 하는데 한번 PC방 가면 최소 1시간 이상, 보통 3-4시간 정도 있어요. 평일 방과 후에는 독서실 가거나 PC방 가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불러서 PC방, 노래방 가고요. 가끔 친구들과 이랑 밴드 공연 다니고, 버스킹하는 것도 보러 다녀요. 콘서트는 혼자 가고 버스킹

공연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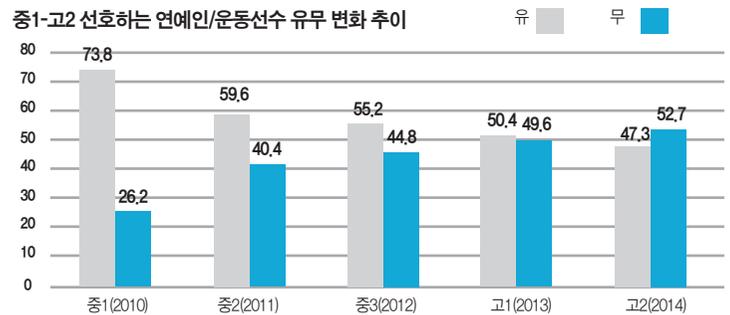
김이민 저는 춤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댄스학원도 다니고 애들이랑 따로 연습을 잡기도 해요. 하루에 기본 2시간 정도 연습해요. 동네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 연습실이나 댄스학원 빈 곳에서 혼자 연습해요. 화요일에만 수학 학원 다녀요. 가끔 대학로에 연극도 보러 다니고 버스킹, 박물관 특별 전시회도 봐요. 이것저것 보는 편이에요.

홍0은 저는 방과후에는 학원을 다녀서 그 외엔 집에서 편하게 TV를 봐요. 주말도 비슷하게 생활해요.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TV 봐요.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는데 보통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요. 시험 끝나는 날엔 친구들과 노래방이나 만화방에 가요.

김이정 저는 주중에는 학교 끝나고 학원가는 게 일상이에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휴식하는 느낌으로 게임 해요. 수행평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할 때도 있어요. 주말에는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갔다가 친구들이 부르면 흥대로 영화 보러 가요. 저는 영화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연극 같은 걸 꽤 많이 보는 편인데 연극은 비싸잖아요. 학생 DC를 해도 3만 원대이다 보니까 잘 보는 편은 아니에요. 흥대에 있는 만화방도 자주 가고요.

류0영 저는 학교 가는 데 오래 걸려서 등하교하면 거의 하루의 반이 지나요. 밥 먹고 운동 갔다가 집에 오면 바로 자요. 주말에는 동네 친구들이랑 PC방에 놀러 가요. 보통 3시간 정도 하고요. 핸드폰 게임은 자기 전에 잠시 해요. 가끔 아빠와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공짜 표가 생기면 친구들이랑 연극을 보러 가요. 음악은 그냥 PC방에서 돌아다니면서 들어요.

허0호 평소에는 학교 끝나고 게임하다가 뉴스 보고 그냥 자요. 주말에도 게임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연락해서 같이 하기도 해요. 저는 영화관에 자주 가요. 그때그때 같이 가는 사람은 다르지만 최근엔 아빠랑 흑성탈출 같이 봤어요.



연예인 덕질은 일상이죠

진행 아까 덕후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또 덕후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다른 친구들도 다 덕후 생활을 하나요?

정0민 전 엑소를 좋아해요. 엑소 사진을 보면서 “잘 생겼구나.”하며 감상해요. 카톡 배경도 엑소거든요. 트위터로 엑소가 ‘오늘은 뭘 했나, 어디를 갔나’ 살펴보고요. 처음에는 잘생겨서 덕질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인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아요. 공인으로서 대중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일화를 통해서 접해요. 엑소 춤이나 노래도 기본으로 하고요.

진행 덕질은 하루 종일 수시로 하는 거예요?

정0민 덕질이 굳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일상이 됐어요. 덕질은 습관이에요.

홍0은 저도 비슷해요. 전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요. 아침에 트위터 보고요. 콘서트도 너무 가고 싶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봤어요.

정0민 저는 엑소 단독 콘서트는 아니고 작년에 드림 콘서트는 가봤어요. 단독 콘서트는 엄청 빨리 매진되는데 제가 똥손이라 그런지 예매가 힘들어요.

김0민 저도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저는 콘서트도 가고 팬클럽 활동도 해요. 활동 기간 되면 퇴근길 보러 다녀요. 직접 본 적은 많아요. 볼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진행 방탄소년단 외에 공연을 보러간 적이 있나요?

김0민 저는 춤이랑 연기를 같이 하고 있어서 연기 선생님이나 지인이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하면 같이 가요. 춤은 따로 공연을 찾기보다 버스킹을 더 많이 보는 거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요. 친구랑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어요.

김0정 저는 워너원 덕질하고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 밖에 안 하다가 워너원 때문에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홈마스터가 콘서트나 팬사인회 가서 찍은 사진을 보정해서 올리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양0경 저는 트와이스 덕질해요. 어쩌다 티켓이 생기면 공연도 보러 가고요.

진행 문화생활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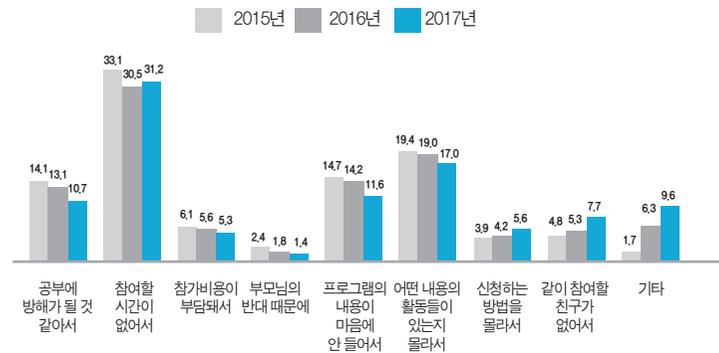
김0민 시험 성적 잘 나오면 용돈 올려달라고 해요.

홍0은 저는 거의 용돈으로 써요.

정0민 저는 용돈을 안 받는 편이라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부모님께 “좀 주면 안 돼?”하고 물어봐요. 연예인 굿즈 같은 걸 많이 사는 편이에요. 오빠가 알바를 해서 오빠한테 용돈을 조금 받아요. 근데 7살 차이가 나는데 오빠가 용돈을 주기로 해놓고 자꾸 밀당을 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주겠다.”고 제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해요. 일단 세상은 자본주의잖아요. 하기 싫지만 용돈 받으려고 억지로 하고 그래요.

류0영 저는 밖에 나가면 돈을 안 써도 돼요. 친구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대줘요. 그럼 저는 우리 집을 빌려줘요. 집이 난장판이 돼요.(웃음)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하고 싶은 문화생활은 많지만 시간도 용돈도 부족해요

진행 문화생활이나 여가 생활을 하고 싶는데 문화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류0영 학교가 너무 멀어요. 평일에는 등학교 하는데 왕복 3시간 걸려요.

허0호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0민 콘서트는 평일 아니면 금요일에 하니까 시간은 넘쳐나는데 돈이 제일 문제예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써야해요. 그런데 엄마도 힘들게 일 하셔서 버신 건데 제가 한 순간에 써버려도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바를 찾아봤는데 중학생 알바는 거의 없더라고요. 검색해보면 댓글 알바나 전단지 알바 정도뿐이에요.

류0영 저는 알바하려고 삼성역 쪽에 있는 드림 센터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업체랑 연계시켜줘요. 그런데 만 15세 이상부터 알바를 할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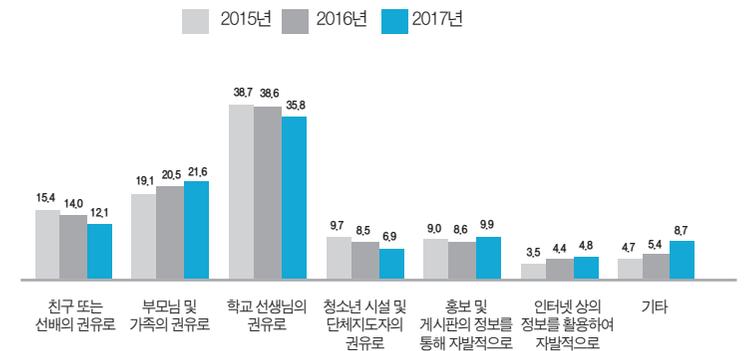
김0민 저는 돈도 문제이긴 한데, 주로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진로가 정해졌고 계속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집중해보려고요.

양0겸 저도 진로 때문에 뭔가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은 둘째 문제인 것 같고요.

홍0은 저도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김0정 저는 막둥이라서 오빠 둘이 용돈을 주다보니 돈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3이라서 학원 문제도 있어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라서 잘 찾아보지 못해요.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학교 행사이거나 학교 선생님 권유로 문화생활 참여해요

진행 아까 학교에서 단체로 연극을 봤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학교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가보자 해서 가기도 하는 것 같네요.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0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체로 연극을 보러 간 건 중학교 입학해서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됐는데, 초등학교 때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양0겸 저는 대안학교라서 동아리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전 그 중에서

밴드 공연을 접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문화 활동 같은 걸 접할 기회가 자주 있고, 정보도 많이 줘서 취미를 붙이게 됐어요. 그런 걸 직접 하다 보니 버스킹도 보러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진행 여러분들은 SNS를 잘 활용해서 연예인 관련 정보나 다른 문화 정보도 얻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많이 얻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면 더 좋을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류0영 저는 학교 선생님한테 문화정보를 주로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0겸 학교에서 주로 정보를 얻어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의 대안학교로 전학 오면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생활 자체가 재미있고 좋아요.

홍0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어떤 정보든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김0민 저는 폰을 주로 많이 하니깐 앱이나 인터넷으로 문화정보를 접하면 좋겠어요.

정0민 중학생이 가장 많이 정보를 얻는 루트는 페이스북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다니는 학교의 거의 모든 애들이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은 잘 안하는데 페이스북에 연극 홍보 게시물이 올라오면 어떤 애들은 재미있겠다고 보러가지면서 다른 친구들을 태그해요.

류0영 요즘 학생들은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어플 같은 게 있어서 사는 곳 주변에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있는 분야 관련 행사가 있으면, 알림으로 정보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싸게 갈 수 있었으면 해요.

양0겸 정보를 접하기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보를 잘 접하는 편이지만 친구들 보면 이런 걸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김0정 문화생활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깐 SNS 홍보는 해도 어차피 보는 사람만 보기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고요. 아예 초등학교 때 좋은 기억이 남게 해주면, 나중에 커서도 그 좋은 기억 때문에 알아서 찾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류0영 저는 친구들이랑 드림센터에서 정보를 얻어요.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예요.

김0민 저는 아무래도 문화 관련 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보니 쉽게 정보를 얻는 것 같아요. 전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역사 탐방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늘 어디어디를 갈 거라고 말씀해주시면 같이 가기도 해요.

문화생활은 재미있고 간접 경험도 돼요 고등학생이 되면 즐기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즐겨요

진행 이런 다양한 문화생활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정0민 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생활은 덕질 같은데요. 덕질은 훌리웃 하는 거죠. 영화를 좀 자주 보거든요. 엑소 멤버가 나온다고 하면 꼭 보고, 아니면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보기도 해요.

홍0은 저는 그냥 학교가 재미없으니까 재미있는 걸 찾으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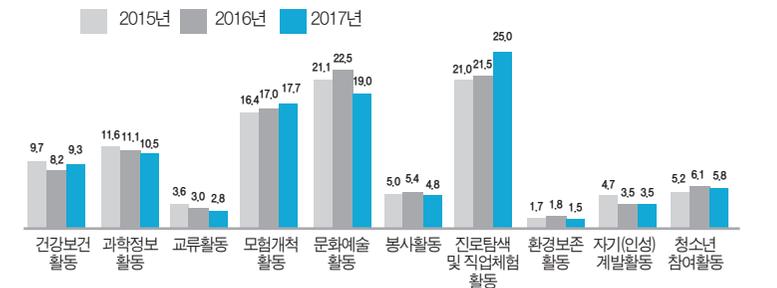
허0호 저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요.

류0영 저도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해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재미있어요.

양0겸 저는 내년에 기숙사 고등학교를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올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다 해보고 싶어요.

김0정 만든 사람, 제작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간접 경험하게 되는 게 좋아요. 여행 같은 것도 못 다니고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못하다보니까 간접 경험이라도 많이 하고 싶어요.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

김0민 저는 진로 때문에 문화 관련 체험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진로탐색, 문화예술활동, 여행 등 하고싶은 게 많아요

진행 혹시 지금까지 못해봤지만 꼭 해보고 싶은 문화 활동이 있나요?

정0민 저는 큰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춤추보고 싶어요. “정말 잘 춘다!”, “짜는 구나!”같은 감탄사를 받고 싶어요. 또 지금은 제가 어리니까 해외여행을 부모님 없이는 못 가잖아요. 나중에 제가 경제 능력이 생기면 친구들이랑 열대 기후 나라에 가서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같은 걸 하고 싶어요.

홍0은 저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또 부산, 대구, 제주도 여행이나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류0영 저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워터파크를 가든, 해외로 여행을 가든 친구들과만 가고 싶어요. 평소에는 통금이 있어서 잘 못나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가족이랑 스키를 한두 번 타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보고 싶어요. 누구 간섭도 안 받고 그냥 애들끼리 하고 싶은 거 하면 좋겠어요.

김0정 제 목표도 여행인데요. 어른이 되면 결혼 안 하고 40대쯤에 돈 모아서 세게일주하는 게 꿈이에요. 혼자 여행 다니고 싶어요.

스트레스 해소, 진로탐색, 재미, 휴식... 문화생활 필요한 이유 많지만 지금 즐겨야 하는 거 같아요

진행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류0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시기라는 게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때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커서는 돈 벌어야 하잖아요. 지금이 지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기고 나중에 열심히 벌려고요.

히0호 그 생각에 동의해요.

김0민 ‘미래엔 할 수 있겠지’하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중간중간 쉬는 것처럼 문화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0경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교 가니까 지금 즐길 걸 다 즐기고 가자는 생각이 들어요.

정0민 학생의 본분은 공부잖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만 하면 얼마나 각박하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즐기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게 지금보다 고민이 없기도 했고 그때 정말 재미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지금 안 즐긴 걸 후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는 힘들겠지만 되도록이면 지금을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놀러가고 싶어요. 돈 때문에 놀러가기 힘들어서 돈 걱정 없이 다니고 싶어요.

홍0은 저는 지루한 공부 같은 것 보다 즐거운 게 더 좋아서요. 이런 게 필요해요.

김0정 저는 아직 장래희망이 없거든요.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를 위해 나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문화생활이 공부만큼이나 저의 가치를 높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더 인정받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진행 문화적인 면에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나 요구 같은 게 있을까요?

김0민 저는 연극이나 전시회 말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정0민 어른들이 저희한테 너희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딱히 청소년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돈이 없는 가정도 많잖아요.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여가 생활을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김0정 저희 학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아침식사로 토스트를 제공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잘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진행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819 청소년

바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문화·여가

- ◆ 일시 2017. 8. 26.(토) 9:30
- ◆ 진행 김희숙 공간민들레 교사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김O환 : 18세, 남성, A대안학교
 2. 박O형 : 19세, 남성, A대안학교
 3. 이O후 : 18세, 여성, H고등학교
 4. 성O진 : 18세, 여성, H고등학교
 5. 소O경 : 19세, 여성, I고등학교
 6. 김O유 : 18세, 남성, S고등학교
 7. 조O영 : 18세, 여성, S고등학교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문화생활의 종류

- 공식적으로는 동아리 활동이나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동전노래방을 이용하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 등의 활동을 함
- 개별적으로도 영화를 관람하거나 게임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웹 서핑, 팬클럽 활동 등의 취미생활을 함
-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전시콘텐츠의 경우 방학숙제나 가족과의 동행 등의 이유로 향유하는 편이며, 공연콘텐츠(콘서트, 연극 등)의 경우 비용이 비싼 측면이 있어 관람하기 어려움

문화생활의 장애요소

- 전반적으로 비용과 시간, 흥미요소의 부족으로 문화생활에 장애를 느낌
- 비용이 비싼 측면이 있어 카페를 이용하거나 연극을 관람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편으로, 용돈을 모으거나 할인티켓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당일 아르바이트를 함
- 학원과 과외시간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학원 스케줄과 취향의 차이 등의 이유로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어려워 문화생활에 제약이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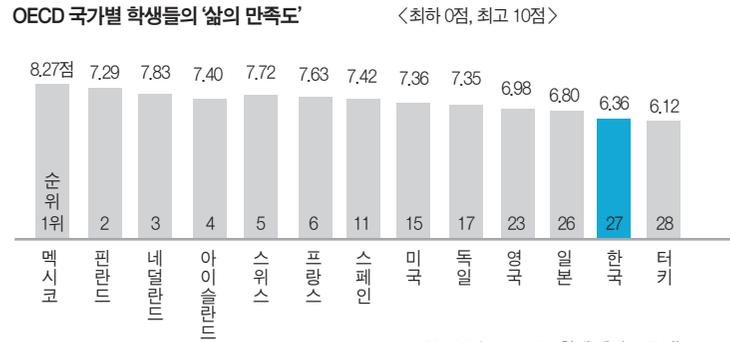
문화정보의 습득 경로

-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거나 문화생활에 흥미를 느끼는 바가 없어 문화생활을 하지 않기도 함
- 지인(친구, 선생님 등)을 통하거나 SNS(페이스북, 카카오톡(알림), 트위터, 인스타 등)를 이용하는 편임
- SNS의 경우는 정보를 생산하기보다 습득하는 데 주목적일 듯
- 지인에게 정보를 듣고 웹으로 검색하거나, SNS를 통해 들은 정보를 지인과 공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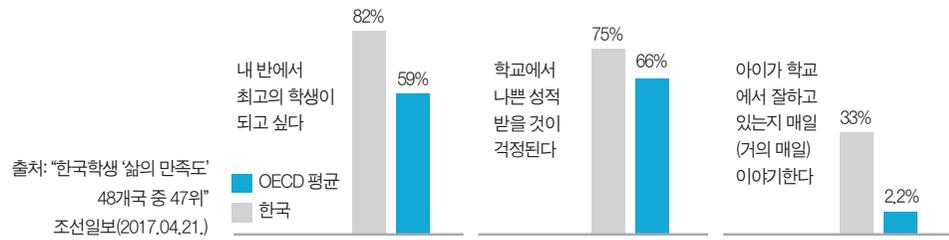
즐기고 싶은 문화생활의 종류

- 친구들과 공감대를 느끼고,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김
-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주목을 받는 활동을 하는 걸 좋아함
-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이 낮아지길 바람

수다 기록



*OECD '2015 PISA 학생 웰빙 보고서'
전 세계 15세 학생 54만명 설문 조사



진행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0경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1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북구에 살고 있어요.

박0형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김0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S고등학교에 다녀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조0영 저도 S고등학교 2학년이고 연극부를 하고 있어요.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성0진 저는 H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0후 저는 H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2학년이에요.

학교에서, 혹은 방과후 나만의 문화활동을 해요

진행 최근에 우리가 "문화생활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0영 어제 학교축제였는데 연극부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했어요. 방학기간 동안 연습도 많이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친구들과끼리 같이 연극 준비하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연극에 쓸 음악을 친구들이랑 찾아봤던 게 기억에 남아요.

김0유 영화 동아리에서 배우를 모집하기에 지원해서 같이 영화를 찍었어요. 친구가 영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했으면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방학에 시간을 내야 하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제 시간을 썼다는 게 뜻 깊었고요. 저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소0경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라서 지금 취업을 한 상태예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고취하기 위해서 인도와 문화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인도 분들이 저희 회사로 오셔서 같이 각자 나라의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박0형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친구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했어요. 러시아나 태국, 중국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일단 태국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이랑 비슷해서 잘 맞았고요. 러시아 친구들은 장기자랑 할 때 swag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뭔가 다르고 새로웠어요. 유쾌하고 약간 어린애들처럼 보이면서도 성숙한 면이 있었어요. 배울 게 많았어요.

성0진 저는 방학 때 영화 보는 걸 좋아해요. 영화 무대인사도 찾아가는 편이에요. 얼마 전 애니메이션 영화 더빙에 참여한 성우 분을 직접 본 게 기억에 남아요. 무대인사가 있다는 걸 알고 이벤트 신청했는데 마침 당첨되어서 좋아하며 갔어요. 유명 유튜버인 대도서관 분이 MC도 해주셨어요. TV에서만 보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은 다르긴 해도 목소리를 실제로 들으니까 두근거렸어요.

이0후 저는 친구랑 함께 파라과이 유학생과 문화교류를 했어요. 같이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고요. 파라과이 유학생들이 많이 준비해 오셔서 양국의 차이점 같은 걸 배웠어요.

김0환 전 좀 특이한 취미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차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방학 때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식으로 다녀요. 중학교 들어

가고 나서 휴대폰이 생기니 검색해서 길을 찾을 수 있어 더 자주 다녔어요. 수도권은 다 돌아봤고 대구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버스를 타고 계속 가다보면 종점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주차돼 있는 여러 대의 버스가 있으니까 사진도 찍어요. 기차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보기도 해요.

진행 흥미로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방과 후나 주말에는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요? 문화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조영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가요. 학원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도 하고요. 특별한 날에는 학원 끝나고 심야영화 같은 걸 보러가기도 해요. 학원 끝나면 10시인데 보통 10시 반에 하더라고요. 끝나는 시간이 좀 늦긴 한데 재미있어요. 주말에는 학원까지 않으면 친구들이랑 통화하거나 놀러가고요. 동네 변화가 같은 데서 밥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놀아요. 일요일에는 교회 가요.

김유 저는 연극도 좋아하지만 체육활동을 더 하고 싶어서 체육거점학교라는 걸 신청했는데 방과 후 월수금에 운동을 해요.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단거리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 같은 것도 하고요. 농구, 배구도 해요. 제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자유롭게 축구를 하거나 PC방에 가거나 해요.

소경 저는 주말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해요. 그곳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을 연결해주는 일을 해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악기 연주를 해줄 수 있게 장비를 지원해주거나 연극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연습실을 빌려주는 업무를 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주말에 남는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서 지원했고요. 올해 1,2월부터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청소년 활동에 대해 잘 몰랐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들만 알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다는 것은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막상 활동을 해보니, 청소년이랑 수련 기관을 중간에 연결해준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을 맞추는 문제라든지, 공간이 협소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 운영 위원회와 같이 교류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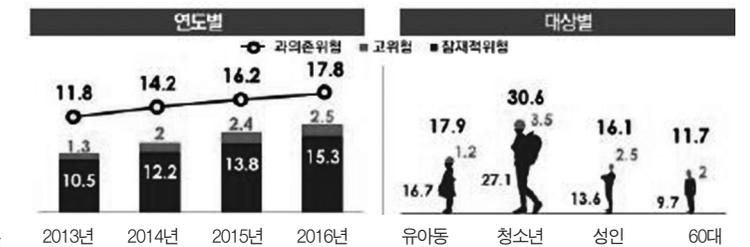
진행 그런 활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나요?

소경 저희도 분야가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을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고, 문화생활을 관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책이나 청소년 권리 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저는 학교 친구들이랑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평소에도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걸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성진 저는 평소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가기 전에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극장에 가요. 주로 친구들을 모아서 학교 근처 영화관에 가서 봐요. 방과 후 수업도 듣고요. 또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인형이나 팔찌, 드림캐처 같은 걸 만들면서 놀아요. 재료를 사와서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후 저는 학교 끝나고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해서 10시 넘어서 집에 오는데요. 10시 넘어서 심야 영화를 보기에는 극장이 집에서 멀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화를 짝막하게 편집해놓은 영상 클립을 자주 봐요. 영화 명장면 같은 걸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되도록 친구들과 영화관에 가려고 하는데 안 될 경우 똑같이 영상 클립을 찾아보며 지내요.

연도별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위험 현황(%)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시간이 나면 자주 게임을 해요

박0형 저는 대안학교라서 저희가 만들어가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다 달라요. 학교에 가는 날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랑 집이 멀어서 이동 시간이 길어요.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제가 빨래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학교를 안 가는 날인데 화상으로 영어 수업을 듣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도 다녀요. 주말에는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요. 오후에 나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한두 시간 정도 게임을 해요. 오버워치도 하고 롤플레이팅 게임도 하고요. 많이 할 때는 서

너 시간씩 엄청나게 한 적도 있어요. 집안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다보니 보상심리가 있어서요.

진행 다른 친구들은 게임을 안 하나요?

조0영 전 피파 해요.

성0진 학교 쉬는 시간마다 모두의 미블 하고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김0유 저도 형이 말하는 게임 많이 해요.

김0환 저는 주말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타러 다녀서 게임은 안 좋아해요. 그러다 피곤하면 집에 들어가서 쉬어요. 저는 컴퓨터 게임보다는 휴대폰으로만 가끔 게임해요.

조0영 평일에는 학원도 다니니까 많이 못하고요. 주말에 게임을 좀 많이 해요. 오래 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게임을 해요. 동생이 게임을 많이 해서 저는 1시간 정도만 해요.

이0후 저는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는데 고정적으로 즐겨하는 게임은 없어요. 모두의 미블을 학교에서 하는 정도예요.

소0경 저는 서든어택이라는 좀 잔인한 게임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다보니깐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도 해서 잘 못해요.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행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0형 저는 딱히 할 게 없어서 하는 것 같아요.

동전노래방, 카페에도 자주 가요

진행 영화관은 다들 많이 가본 것 같은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에 가본 적 있나요? 한두 번 가본건지 아니면 자주 가는지요? 자주 가면 누구랑 가는 지 궁금해요.

박0형 옛날에는 박물관 가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제가 약간 우울

증이 있어서 4년 가까이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었어요. 게임을 하다 보니 눈이 나빠졌어요. 눈 때문에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잘 안가는 편이에요.

소0경 저는 코엑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시에 가본 적이 있어요. 작년 겨울쯤에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도 가봤고, 몇 년 전부터 잡페어라고 해서 청년 일자리 페어 같은 것도 자주 하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일정 찾아보고 친구들이랑 약속 잡아서 갔어요. 그런 페어는 앞으로 진로와 연관된 것도 있지만 전 취미 생활로 다녀요.

성0진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 콘서트에 갔다 오기도 해요. 자주 가고 싶는데 비싸서 세벳돈 모아 1년에 한번 정도로만 가는 걸로 정했어요. 근데 티켓팅이 힘들어서 몇 번 못갔어요. 티켓 오픈하는 시간에 재빠르게 해야 하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만져요. 그리고 제가 디즈니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련 전시회를 하면 부모님이랑 같이 가요. 부모님과 같이 가면 돈이 안 드니까요. 테디베어 박물관, 벽화마을도 부모님과 같이 갔어요.

조0영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학교 수행평가 있을 때만 잠깐씩 가요. 특별하게 연극을 보러 가기도 해요. 친구한테 연극 재미있겠다고 보러가자고 해서 한두 번 가끔 보러 갔어요. 용돈을 모아서 가요. 20% 할인 티켓 이런 거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김0유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재미없어 하는 편이라서 잘 안 찾아보게 되고요. 어두운 곳이 싫어요. 친구도 다 남자라서 그런 건 안 보게 될 뿐더러 접할 기회도 많이 없어요.

조0영 평일에 밥 먹고 진짜 얘기할 거리가 많을 때 아주 가끔 카페에 가요. 시간이 애매하다 싶으면 동전노래방에 가고는 해요.

박0형 저도 동전노래방 가요. 방과 후에 가기도 하고 주말에 시간이 되면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노래방에 가거나 PC방에 가요.

김0환 기차를 너무 많이 타다보니깐 돈이 모자라서 동전노래방은 학교 친구들과 리가요. PC방 갈 돈을 기차표 살 때 보태기도 해요.

성0진 저는 노래방 진짜 좋아해서 일주일에 4번씩 가요. 혼자 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돈 반씩 내서 가기도 하고요. 오락실도 좋아해서 노래방 갔다가 꼭 오락실에 들러서 펌프를 해요. 저는 카페에 잘 안가요. 카페 가면 뭘 먹어야 하잖아요. 패

스트푸드점은 뒷문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눈치 안 보고 얘기하다가 시간 되면 가고 해요.

이0후 저도 친구랑 노래방이나 카페에 많이 가요. 1학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갔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친구들이 바빠서 지주는 못 가요.

방과 후, 학원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요

진 행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안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문화생활을 덜 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면,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요?

조0영 학원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학업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도 학원을 빠지면 학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니까 문화생활을 못 즐기게 돼요.

진 행 다른 친구들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하나요? 그럼 하루 몇 시간이나 학원에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조0영 저는 일요일 빼고 다요.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낮 1시까지고, 주중에는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요.

이0후 저는 월수금은 야자를 하고 화목은 학원에 가요.

성0진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부터 10시 반까지 태권도 도장에 가요. 주말에는 2시부터 5시까지 과외를 해요. 시간 때문에 문화생활을 못 하기보다는 돈 문제가 커요. 콘서트 한 번 가면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또 다른 걸 하다보면 돈 쓰는 시기가 자꾸 겹쳐서 콘서트에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박0형 저는 지금 한 달 정도 학원에 다녔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씩만 학원에 있거든요. 저는 돈과 시간은 충분한테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음악을 듣는 걸 더 좋아해요.

SNS나 입소문으로 문화 정보를 얻어요

진 행 문화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게 되나요?

김0유 저는 친구들이 꼭 보러가라고 얘기해주는 걸 많이 가요. 입소문 따라서 가는 거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누군가 정보를 공유해요. 사진으로 스토리를 따라 읽다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러가는 편이에요.

성0진 카카오키템은 출시되기 전에 사전 예약 하라고 특이 날라 와요. 그걸 해봤다가 출시되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박물관이나 전시는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가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정보를 얻어요.

조0영 저는 페이스북으로 많이 봐요. 일단 눈여겨 봐줬던 걸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이면 같이 가는 편이에요. 친구들이 “여기 같까?”라고 얘기하면 따라가는 편이고요. 주로 친구들이 정보를 찾고 저는 먼저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소0경 아무래도 SNS를 보는 시간이 길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까요. 거기서 본 정보가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김0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정보가 나와요.

김0유 가끔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지해 주시면 보곤 해요.

성0진 저도 선생님들이 얘기해주시면 찾아봐요. 벽화마을에 같은 데 가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어디가 좋고 가까운지 찾아보고 가기도 하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거기가 좋대.”하면 “거기가 좋아?”이러고 그때부터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용돈 받거나 알바비,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에 써요

진 행 유료로 된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돈을 모으나요? 아니면 무료로 하는 걸 찾아서 하는 건가요?

성0진 매달 용돈을 받는데 그 걸로 노래방 가는데 쓰고,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영화관 할인되는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걸 신청하면 1년에 6만원이 들어와요. 그 걸로 영화를 보거나 롯데월드를 가거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김0유 저는 용돈을 모아서 가기는 하는데 제한적이라서 알바를 하기도 해요. 당일 알바라는 사이트에 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많이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해요.

조0영 저는 용돈을 주로 모으는데 용돈이 없으면 저도 알비를 하기도 해요. 호텔 알바 같은 것도 하고요. 용돈을 주로 많이 모아서 가는 편이에요.

이0후 저도 용돈을 모아서 가요. 그런데 친구랑 같이 동아리활동을 할 때는 무료 전시 같은 곳을 가요.

소0경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해뒀다가 할인을 기다려서 간다든지 해요.

박0형 저는 용돈은 따로 안 받아요. 제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주시고요. 문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없어서 친구들이 어디 가져다 하면 따라가는 편이라는 거예요.

김0환 저도 기간을 정해두고 받지는 않아요.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주세요. 그런데 자꾸 달라고 하기도 뭐하니까 되게 아끼는 편이에요.

문화생활은 그냥 재미있어서 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영향도 크죠

진 행 동아리 활동, 노래방, PC방 등 여러 여가문화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이런 걸 왜 하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성0진 제가 흥이 굉장히 많아서 주체를 못하거든요. 노래방에 가서 그 흥을 달래는 것도 있고요.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리즈별로 보는 것도 선호해요. 초등학교 때 친구랑 처음으로 영화관으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맨날 집에서 보거나 학교에서 보던 거랑 너무 기분이 다른 거예요. 그 기억이 좋아서 영화관 가서 보는 걸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조0영 저도 흥이 많아서 노래방에 가고요. 별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고 그냥 해요. 영화나 그런 건 보러 가고 싶으니까 봐요. 딱히 뭘 하는 거에 이유는 없는 같아요.

박0형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음악을 자주 틀어주시다 보니까 저만의 시간에도 계속 듣게 돼요.

김0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동차, 기차 장난감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걸 장난감으로 보는 걸로 만족이 안되서 실물을 보러 부모님과 같이 다녔어요. 실물을 보니 더 좋아져서 지금까지도 버스, 기차를 타러 다니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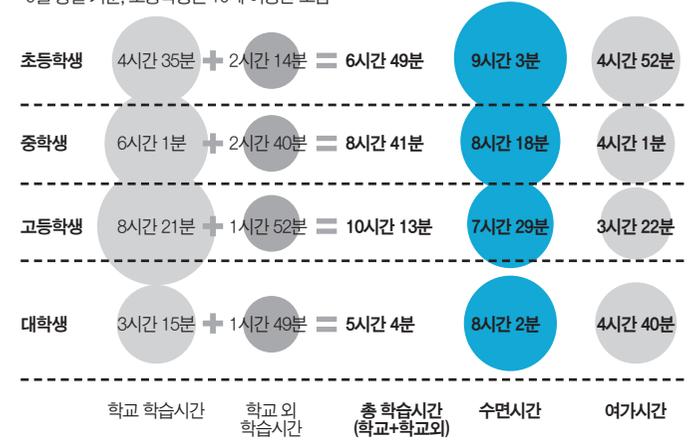
김0유 친구들이랑 얘기하려면 화제가 필요하잖아요.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데 거기 끼려면 알고 있어야 하니까 문화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지. 보고 즐기다보면 재미있다고 추천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친구들이 추천해줄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봐요.

이0후 저도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같이 노는 게 좋은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 나왔다."라는 화제로 진행되는 거죠.

소0경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풀고 할 수 있는 게 여가 생활이다 보니까요.

2014년 한국 학생들의 학습·여가·수면시간
*9월 평일 기준, 초등학생은 10세 이상만 포함



출처: "열공"초등생 '빈둥'대학생...
초등생 학교 외 2시간 공부,
고교생은 하루 10시간 학습*
국민일보(2015.06.30.)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직 찾는 중이에요

진 행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보태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거는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봤다든지, 앞으로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게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든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0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관심 받는 걸 좋아했어요. 학교 축제에 참가해서 무대에 서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못 나갔던 게 아쉬워요. 다른 친구들은 하기 꺼려하니까 눈치 보느라 못 나가는 것도 있었어요.

조0영 여가시간을 위한 시설이 보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시설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거는 없는데 시간이 가장 없어요. 전 시간이 생기면 한적한 데를 가보고 싶어요. 조용하고 여유롭게 탁 트인 그런 곳에

서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이라고 하기는 부족해도, 풀숲 같은 곳에 돛자리 펴고 누워서 쉬고 싶어요.

성0진 저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생기면 서울권을 벗어나고 싶어요. 멀리는 아니더라도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이0후 저도 시간에 쫓겨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제한계에 도전해보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수상스키를 타보고 싶어요.

소0경 저는 여러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펜싱 같은 전문적인 종목을 하루 종일 체험해본다든지, 청소년끼리만 하는 마라톤에 참여해본다든지 하는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공부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더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박0형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이 잘 안 떠올라서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닥치는 대로 다 해보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0환 지금까지 저는 거의 한 가지 활동만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해도 뭐가 재미 있는지 잘 모르는 편이에요. 친구들 만나면 돌아다니는 게 거의 다니니까 다른 애들처럼 많은 것을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스스로 잘 안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진 0행 진짜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문화생활 하는 데 꼭 해줬으면 하는 제안이 있나요? 없으면 그냥 하고 싶은 말이라도 좋아요.

성0진 뮤지컬 같은 건 비싸잖아요. 학교에서 가끔 뮤지컬 같은 걸 보러 가는데 그런 게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0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따로 공간을 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셔야 빌려주기 때문에 주말에는 공간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 0행 오늘 많은 이야기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안 플러스

김순희
신도고등학교 교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였으면 해요. 우리 예술정책도, 서울문화재단도 학교와 교과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되다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문화 경험을 하기 힘들어요. 어쩌다가 밤거리를 헤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정말 준거집단이 필요해보여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학교 밖 문화센터에서 준거집단이 돼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지 않은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비진학 청소년'이라고 해요. 비진학 청소년도 비교적 문화경험을 하기가 힘들어요. 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의 애매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걸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에너지 넘치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제안 플러스

강지수
휘봉고등학교 교사

지역 안에는 수련관이나 연습실이 존재하지만 보통 성인들이 먼저 선점해 있다보니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다니는 동선과는 멀어서 일부러 가야하는 거예요. 동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해요. 학교 안에 연습실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의 지도관리는 교사가 아닌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분이 따로 계셨으면 해요. 그럼 학교에서도 조금 더 최적화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그 공간을 허브로 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르지 않은 이웃의 삶과 문화생활

[장애인] 장애없는 문화생활을 향한 외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기

[다문화가정] 새로운 삶터에서의 문화생활

[외국인노동자]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우리는 용광로가 아니라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어야 한다. 다른 민족, 다른 신념, 다른 갈망,
다른 희망, 다른 꿈을 가진 모자이크 말이다.

*We have become not a melting pot but a beautiful
mosaic. Different people, different beliefs, different
yearnings, different hopes, different dreams*

_지미 카터(Jimmy Carter, 제39대 미국 대통령)



장애없는 문화생활을 향한 외침

- ◆ **일시** 2017. 9. 27.(수) 16:00
- ◆ **진행** **이정훈** 동대문장애인복지관 가족문화팀장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최미애 동대문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
- ◆ **참석자** 총 6명
 1. **이이규** : 20대, 남성, 지체장애인, 성동구 거주
 2. **박이순** : 40세, 여성, 지체장애인, 성동구 거주
 3. **김이선** : 60대, 남성, 시각장애인, 동대문구 거주
 4. **전이현** : 30대, 남성, 청각장애인, 도봉구 거주
 5. **조이숙** : 30대, 여성, 청각장애인, 동대문구 거주
 6. **김이옥** : 20대, 남성, 발달장애인, 성동구 거주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문화생활의 종류

- 집에서 TV를 시청하거나 가족 돌봄, 집안일을 하며 일상적인 시간을 보냄
- 친구들과 사교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가끔 여행을 떠나기도 함
- 가족,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뮤지컬, 영화, 연극 등을 보러 감
-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가끔 뮤지컬, 연극 등을 단체로 관람하기도 함
- 비독 등 취미활동이 숙련될 경우 보조 강사로 다른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가능함

문화생활의 장애요소

- 문화시설 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휠체어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문화시설 내부에 휠체어 통로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대여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짧은 곳도 있음
- 한국 영화의 경우 한글 자막 영화를 개봉된 지 한참 후에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상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람이 힘들
- 문화시설 종사자 중 장애인 응대 시 불편해하거나 부자연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있음.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서비스가 없어서 비장애인들과 소통이 힘들

문화정보의 습득 경로

- 여러 사람이 헤드셋을 통해 목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롤플레이밍 게임의 경우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워 방출을 당하기도 함
- 비장애인과 함께 복지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느리다, 방해가 된다는 항의를 들을 때가 있음
- 극장의 장애인 배려석이 맨 앞인 경우가 많아 좌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음
- SN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음
- 친구나 가족의 추천으로 함께 동행하는 경우도 있음
- 서울시나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나 뉴스레터, 이메일링 서비스를 받음
-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문화활동 정보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만큼 다양하지 않음
- 인터넷 접근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정보 접근이 원활하지 않음

문화생활을 하는 이유

- 장애인을 접할 경험이 없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함. 비장애인과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끼고 보람됨
-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함. 자아성찰을 통해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임
- 즐겁고,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됨. 생동감이 생김

즐기고 싶은 문화생활의 종류

- 연극이나 악기, 미술 등을 배우고 싶음
- 장기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음
- 청각장애인이지만 노래를 배우고 싶음. 소리를 못 들어도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
- 청각장애인은 연극 관람 시 모습만 보고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 수화통역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수다 기록

출처: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교육"아르떼 인포그래픽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www.arte365.kr)



진행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0선 김0선이라고 합니다. 동대문구에 살고 있어요.

이0규 저는 이0규고요. 성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박0순 박0순이고요. 성동구에 살아요.

전0현 저는 전0현이라고 하고, 도봉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0속 안녕하세요. 저는 조0속입니다. 동대문구에 살고 있습니다.

김0욱 저는 김0욱입니다.

진행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주로 뭘 하면서 지내는지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최근에 참여했던 문화생활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0선 일요일에 쉴 때는 운동을 하고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TV도 보고 어르신들하고 말도 나누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한문도 써요.

이0규 평상시에 거의 집에 있는 편이라. 집에 있을 때 TV도 보고, 바둑공부도 하는 편이에요.

박0순 직장에 나갈 때는 주말에 거의 등산하거나 영화, 공연도 보러 다니고 했어요. 대학로나 인사동에도 자주 갔어요. 시간이 나면 되도록 공연이나 길거리 공연을 봐요. 영화는 좀 답답해서 별로예요. 최근에도 뮤지컬 봤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기회가 생기면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전0현 저는 얼마 전에 이사하고 너무 바빠서 최근에는 문화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보통은 아내가 뮤지컬 관람 취미가 있어서 가끔 아내랑 같이 봐요. 집에 TV를 놓지 않기로 해서 TV는 안 보고 나가서 산책 같은 활동을 해요. 주말에는 아내와 같이 봉사활동 하고 수화를 알려줘요.

조0속 저는 십자수가 취미인데 요즘 바빠서 십자수를 못하고 있어요. 대신 가족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가족 돌봄, 아이 돌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주말에는 친구 만나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 여행도 해요. 영화도 보고요,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친구도 만나 재미있게 놀기도 합니다.

김0욱 주말하고 월수금에는 엄마랑 취미로 수영을 해요. 밤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하고요. 토요일은 오후에 나가요. 오후 1시 50분에 시작하니까 집에서 점심 먹고 나가요. 뮤지컬이나 공연, 영화 좋아하고요. 옛날에 농구 대회에도 좀 나가었어요. 어제는 복지관을 통해서 '아이컨스피크'를 봤어요. 할머니가 가족 없이 외롭게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울다 왔어요. 여행도 갔다 왔는데요. 올 6월에 한 여행을 통해서 엄마랑 캐나다 갔다 왔어요. 로키산맥도 갔다 오고, 마지막에 나이아가라 폭포도 갔어요. 그 전에는 제주도, 스페인, 유럽에도 갔었어요.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와 배려, 교육이 부족해요

진행 공공시설에 많이 가셨는데, 문화시설 가셨을 때 좋았던 점이나 불편한 점 어떤 게 있으셨어요?

박0순 요즘에는 사람들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전에는 길에서 제가 뭘 물어보면 움찔움찔 거려서 '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당황하고 있구나.' 느꼈거든요. 요즘에는 당황하거나 좀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반응은 거의 없더라고요. 좀 불편한 건 뭐냐면 장애 유형이 여러 장애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영화나 공연은 청각장애인도 보러갈 수도 있는데 그에 맞는 배려가 없어요. 어떤 곳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요.

진행 특히 어떤데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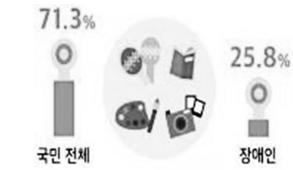
박0순 휠체어 장애인 경우는 문화재를 보러 간다고 하면, 휠체어 때문에 시설 바닥이 망가진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바닥이 망가진다면 그걸 대비해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대비나 배려없이) 안 만들어놓고 무조건 망가지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나와요. 또 어떤 곳은 휠

체어를 빌려서 다녀야 하는데 휠체어가 없는 곳도 있어요. 또 (휠체어가) 있는 곳에 가도 대어시간을 2시간 밖에 안주는 거예요. 솔직히 일반인이 돌아다녀도 2시간 안에 다 못 돌아다니는 곳이었거든요. 2시간 지나면 빨리 가지고 오라고 전화 와요. 또 보통 대여용 휠체어는 대부분 수동이잖아요. 수동은 솔직히 미는 사람이 힘들어요. 미는 사람이 힘들면 타고 있는 사람이 부담스럽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걸 느끼니까요. 좀 더 바란다면 전동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전0현 청각장애인은 한국영화보다 외국영화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한국영화는 자막이 없으니... 한국영화는 여러분처럼 잘 들리는 분들은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영화를 즐길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그걸 즐길 수가 없어요. 요즘 드라마 하는 거 보면 뉘앙스라든지 흐름을 그냥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뉘앙스를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막이 있는 한국영화를 찾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한국영화 자막 다운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지만 최근에 나온 영화를 즉시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참 뒤에 자막 만들어서 올렸을 때 볼 수 있는 거라서 비장애인처럼 바로바로 보기에 어려워서 아쉬워요. 외국처럼 영화를 만들 때부터 자막을 넣어서 제공 한다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요즘 '베리어프리 영화'라고 장애인을 위해서 한국영화를 자막상영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주일에 몇 번,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제한적이에요. 원하는 때 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문화-예술 행사 참여 경험

*연1회 이상 경험자 기준



출처: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교육"아르떼 인포그래픽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www.arte365.kr)

이0규 저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한국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눈이 안 좋으니 자막을 읽으려고 해도 빨리 지나가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영화는 잘 안 보고 거의 한국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외국영화도 더빙이 돼서 나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0선 저녁에 TV를 보면 뉴스나 드라마에 자막이 나와요. 근데 자막이 너무 빨라서 보기 힘들어요. 자막이 좀 느리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0행 추가적으로 문화나 여가생활 할 때 아이런 건 너무 장애 요소가 된다, 불편하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서 특히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박0순 장애가 심해서 밖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을 모시거나, 여러 장애를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다보면 제일 불편한 게 경사로랑 턱이에요. 휠체어뿐만 아니라 목발을 짚어도 턱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또 문화시설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아직도 장애인을 대할 때 움찔움찔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여기 오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교

육을 받아서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대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전0현 얼마 전에 아내와 댄스 배우는 동아리에서 월 회비를 내고 삼바 등 여러 가지 댄스를 배웠어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되니까 힘들어요. 아내랑 하면 수화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맞출 건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트너를 번갈아가면서 하면 이분이 어떤 방향으로 춤을 출지 이해를 못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빨리빨리 캐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화 활동에도 수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해요.

또 TV를 보면 스타크래프트, 피파 등 여러 게임 종류의 프로그래머들은 청각장애인이 없거든요. 프로그래머는 헤드폰으로 소통을 하면서 팀워크를 어떻게 맞춰나갈 건지 말로 소통하니까요. 저도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게임을 하면 제가 파티 들어가는 걸 다른 사람이 꺼려해요.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요. "내가 말을 해도 왜 듣지 않냐?"라고 물어서 뒤늦게 "청각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바로 방출당해요. 사실 청각장애인들도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컴퓨터 게임을 해요. 청각장애인이끼리 모여서하는 게임 길드가 있는데 몇 명 안 돼서 아무래도 한계 있어요. 함께 즐기고 싶는데 불편해요.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가 어려운 이유



출처: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교육"아르떼 인포그래픽②
장애인 문화예술교육(www.arte365.kr)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박0순 연극이나 다른 문화 생활을 하려고 밖에 나가면 "장애인이 이런 데를 와?", "장애인이 연극도 보네", "이런 게 이해가 되나?" 이런 반응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런 반응에 상처도 받았지만 요즘에는 '비장애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장애인)한테도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장애인을 접해보질 않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들이 너무 폐쇄된 공간에만 있지 말고 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좋겠어요. 최근에 동호에 모임에 나가서 사진을 배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도 장애인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당황스러웠던 거다. 장애인을 많이 접해보면 그러지 않았을 거

다, 장애인을 처음 접하는 거다.”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밖으로 많이 나와야겠구나.’그런 생각을 했고 또 ‘되도록 예쁘게 하고 밖에서 돌아다녀야겠구나.’그런 생각을 했어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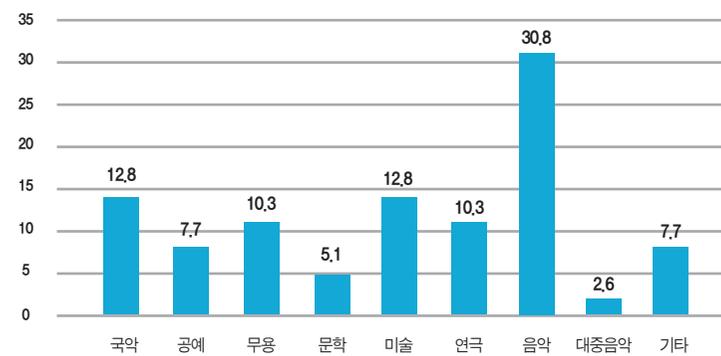
문화활동 참여 자체가 의미 있고 특별해요

진행 그런 문화생활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되는지,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문화를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이순 어떤 문화생활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쉽게 접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큰 뮤지컬을 본다면 특별하다고 느끼겠지만, 제가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건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길거리 공연 같은 거는 대학로나 홍대에 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전0현 저는 바빠서 회사 아니면 집뿐이거든요. 통근을 하면서도 문화생활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활동을 하게 되면 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뭔가 시간에 쫓겨도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는 거 자체가 저에게 의미 있고 특별해요. 평소에 늘 하던 거 말고 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문화생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3년간 수행한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형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7),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및 지원현황 실태조사

조0속 보통 일하는 도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문화생활을 하면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유를 가지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됩니다.

이0규 전 비둑 말고는 문화생활을 잘 안 해요, 저는 워낙 비둑 두는 걸 좋아해서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고, 삶의 일부로 느껴요. 아마추어 단증을 이제 도전하려고 준비하는데 쉽지 않네요. 비둑 한지 8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1로 오

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집에서 했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해서 한국 기원에서 프로들에게도 배웠어요. 그러면서 프로들을 이긴 적도 있어요. 요즘은 가끔씩 대회도 나가고, 복지관에 비둑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도 하고 있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비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입문자분들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보조강사로 있죠. 강사님은 따로 있으시고 옆에서 부족한 걸 알려드리거나 해요.

장애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생활을 했으면 해요

진행 스스로 ‘나는 문화생활을 나는 좀 누린다.’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김0선 저는 복지관에서 매일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컴퓨터, 화요일은 검도를 해요. 목요일은 뜬뜬는 거, 금요일에는 바둑을 하고요.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에 거의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TV를 보든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눈을 하나만 사용하니까 시각으로 보이는 게 어두워요. 주위에서 늦게 한다고 나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그냥 소화시켜버려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다섯 개 하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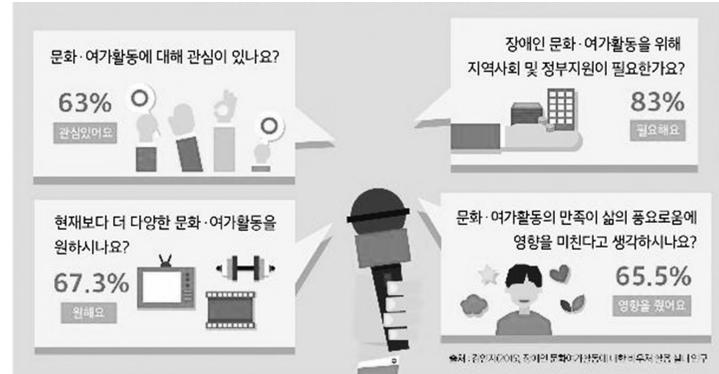
이0규 저도 만족하는 것 같아요.

박이순 저는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증이 생겨서 되도록 집에 안 있고 뭐라도 배우러 다니고 해요.

전0현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개인적인 문화생활 시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집안일을 해야 하고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니까요. 결혼 후 아내와 의논해서 하루 삼십분, 한 시간정도 개인 시간을 존중해 달라고 해서 나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도 가끔 배우고 있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요. 또 청각장애인분들이랑 축구 클럽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싶으면 아내랑 같이 볼 때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우려했던 거 보다는 문화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0속 스스로 문화생활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 아직 미혼이지만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주로 혼자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취미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가끔 친구들 만날 때도 있어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는데요.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통역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문화·여가활동을 얼마나 원할까?



출처: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예술교육"아르떼 인포그래픽@장애인 문화예술교육(www.arte365.kr)

김0옥 문화생활 하다보니까 그냥 재미있고,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진행 다양하게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생활하시는데 문화정보는 어떻게 얻으세요?

전0현 보통 SNS를 통해 정보를 얻어요, 그 외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요,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듣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아내랑 같이 갑니다.

이0규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얻는 편이에요.

조0숙 저도 인터넷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많이 알려줘요, 언니들이나 친구들한테서 정보를 얻어요.

김0옥 부모님이 알려주시거나 서울시 웹사이트를 보기는 하는데, 전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해요.

박0순 복지관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최저가로 많이 찾아봐요, 밴드나 카페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진행 문화 활동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돈을 얼마정도 쓰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김0선 전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

을 주로 등록해요, 컴퓨터, 바둑은 회비를 조금 내기도 하고요.

이0규 저는 거의 모아둔 용돈으로 써요, 적당히 쓰는 것 같아요.

박0순 요즘에는 정보가 돈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많이 찾아보고 노력을 해야지 좋은 걸 싸게 볼 수 있더라고요, 할인도 많이 해주고 이벤트도 많이 해서 그렇게 주로 가고요, 제주도에 여행을 가려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한 달에 3만원씩 저금을 하고 있어요, 규모 있게 가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정보력이죠, 찾아보면 좀 적은 비용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많아요, 국립미술관에서도 메일이 오거든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문화누리카드도 사용해요.

전0현 저는 문화 즐기기 위한 비용은 대부분 급여에서 처리합니다. 결혼 전에는 저 개인 혼자만 쓰면 되니까 좀 넉넉하게 문화생활 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혼자 문화생활하기 좀 그렇잖아요, 항상 아내랑 같이 동반하면서 문화생활을 하니까 지출이 거의 두 배 늘어나서 급여의 3/1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중에는 커피를 마시고,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동호회 회비 내는 것 모두 포함돼요.

조0숙 월급을 벌어서 일단 개인용돈도 쓰고, 부모님 조금 도와드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저축하기도 해요, 문화생활비나 여행비, 친구들하고 함께 만난다든지, 영화 본다든지 하는 비용은 적당한 정도로 쓰고 있어요.

문화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진행 문화생활 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0규 아무래도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게 크죠, 하면 편안해지니까.

박0순 제가 뭘 배운다든가 공연장에 간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면 저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걸 느껴요,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니까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어요, 내가 혼자 노력해서 얻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생동감도 생겨요.

전0현 사람이 살면서 일할 때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하루 일상을 그냥 기계처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삶의 활력을 불어넣

기 위해서 문화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누워있는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빨리 건강을 회복하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건강이 빨리 되돌아 오는 것 같아요. 일찍 퇴원해서 아팠을 때 느낀 무력감을 문화생활을 하면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만있어서는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나라는 퍼즐을 하나씩 맞추면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거죠. 또 문화활동을 하며 사람을 자주 만나다보면 분명 배우게 되는 점이 있어요. 교류라는 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기도하고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하는 것 아닐까요.

조0속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는 않아요. 평생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희망적인 태도를 통해 힘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문화생활이 제게 배움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 서로 교류하면서 즐거워지는 게 좋아요.

김0옥 문화생활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행복하고요. 즐거워요.

김0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고, 눈이 안 좋았는데요. 심장병으로 두 번 수술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집에 있으면서 우울증이랑 여러 병이 생기니까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왔는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뭘 자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웃음)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를 지원하는 장식장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음
출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www.sfac.or.kr)

청각장애인이지만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진행 '문화 활동 중에서 꼭 해보고 싶다.'하는 게 있으실까요? 뭔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장애 요인 때문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어.'이런 게 있을까요?

박0순 저는 연극이나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그 외에 미술도 배우고 싶어요. 그림

이나 드럼을 배우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요. 비용이 저렴하다 싶으면 거의 다 멀더라고요.

조0속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노래방을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어요. 농아 인도 노래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이 되면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즐거울 것 같아요. 소리를 못 들어도 진동을 이용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이나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꿈같이 느껴져요. 다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청각장애인 어르신들 중에는 안 들리시기 때문에 음악은 완전히 끊고 살아 오시다가 늦게나마 자기 청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보청기를 안 했다가, 나이가 60세쯤 돼서 보청기를 껴보면, "어 나 소리가 들리네?" 하는 거죠. 검사비가 비싸서 자기 스스로 들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를 5년에 한 번씩 무료로 제공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도전을 해보신 거예요. 60세가 넘어서 보청기 썼는데 교회에 가서 찬송가 소리도 듣고 정말 너무 좋대요. 그분이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다 따라서하셨는데 모두들 들리신대요. 찬송가 부를 때 고개 들고 기도할 때 같이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웃음) 농인들은 듣지 못해도 다른 서비스와 방법으로 노래를 배우거든요. 농인들도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요.

전0현 특별히 장애라는 것 때문에 방해 돼서 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번에 장기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꼭 가봐야겠다고 목표로 정한 적 있는데 아직 못 갔네요. 돈을 많이 모아서 아내랑 같이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김0옥 최근에 특별한 건 없고요. 좋은 기회 생겼을 때 뮤지컬 공연을 더 보고 싶어요.

진행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애인분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이런 점들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점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필요한 곳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0순 극장에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면 휠체어를 꼭 맨 앞에 놓아요. 그런데 비장애인도 맨 앞에 앉으면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극장 측에서 배려한다고 맨 앞에 놓는데 그건 진짜 배려가 아니예요. 맨 앞에도 놓지 말고 좀 가운데 놔서 편하게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격이 비싼 공연은 잘 보러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저는 밖으로 나오는 게 불편하지 않지만, 중

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못 나오는 분도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규모가 있는 공연에 한 번쯤은 그 분들(중증장애인)을 초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극장 주변이나 문화시설 주변 식당에 가보면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더 심한 건 “우리 가게 들어오지 마.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 행동은 지적을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라도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전0현 여행갈 때 여행사와 MOU를 체결해서 장애인대상으로 조금 저렴하게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또 장애인 프로그램 대회를 주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조0숙 연극을 관람하면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잖아요. 모습만 보고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수화통역 서비스가 필요해요. 어떤 행동에 설명을 좀 주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일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 향유를 하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슬이에요.

김0선 제 바람은 장애인을 위해 한 달에 한번 강당에 와서 연극이나 영화 같은 좋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나 연극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 행 오늘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플러스

이정훈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장

신체장애인은 이동의 제한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신장애인은 이동 제한은 없겠지만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죠. 얼마 전에 대학로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공연장 위치가 너무 위에 있었어요. 일단 이동이 멀었고, 언덕길이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날 발달장애인들을 인솔해서 관람은 했지만, 신체장애인은 못 가겠구나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관람을 하면 반응이 비장애인에 비해 과도하게 좋아요. 과도하거나 약간 타이밍이 다르게 큰소리로 웃으면 다른 분들의 불편한 시선이 와요. 자폐성 장애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막 흔드는 이런 행동이 있으면 시선이 몰려드는데 저희 같은 종사자들은 상관없는데 함께 간 부모님들은 그런 시선에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별도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따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캠페인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안 플러스

정원일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사업팀장

시각, 청각, 지체 장애뿐만 아니라 혈액 투석을 받고 계신분이나, 심장장애를 가진 분들도 다 장애 유형의 한 부분이거든요. 겉으로는 비장애인과 같은데 장기 손상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장애인등급을 받으시거든요. 이렇듯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함께 고민해서 문화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장애로 인한 문화 소외가 없어지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 적응기

- ◆ **일시** 2017. 11. 11.(토) 14:00
- ◆ **진행**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7명
 1. 신O섭 : 70대, 남성, 남한 정착 3년 이하
 2. 주O욱 : 40대, 남성, 남한 정착 3년 이하
 3. 유O희 : 40대, 여성, 남한 정착 3년 이하
 4. 조O란 : 30대, 여성, 남한 정착 3년 이하
 5. 선O희 : 40대, 여성, 남한 정착 3년 이하
 6. 김O란 : 40대, 여성, 남한 정착 3년 이하
 7. 전O식 : 50대, 남성, 남한 정착 6년

요약 정리

여가시간의 범위와 문화생활의 종류

- 주요 여가 활동은 TV 시청으로, 입국 초기 아직 직업이 없는 경우 더욱 TV 시청 시간이 일상적인 활동임
-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의 경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들이를 가고 박물관 등 문화 시설을 이용함
- 입국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복지관인 하나센터에서 주관하는 탁구, 등산, 여행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 하나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문화생활에 대한 정보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 차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곳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곳을 주로 찾음

문화생활의 장애요소

- 학원 수강, 시험 준비 등 취업을 위한 재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남한사회에 적응하느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음
- 문화생활을 하고 싶더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 하나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없음

북한에서의 여가생활

- 남한의 문화 콘텐츠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아서 즐기기 힘들. 특히 뮤지컬 등 북한에 없는 생소한 장르를 즐기기에는 무리가 따름
- 워터파크 등 전혀 생소한 문화 시설의 경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 초기에 접근하기 어려움
- 단오나 노동절 등에 기업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 오락회 이외에는 특별한 문화생활이 전무한 상황임
- 전기가 풍족하지 않아서 TV를 자유롭게 볼 수도 없음
- 그래도 남한의 문화 콘텐츠들이 암암리에 유통되어 대도시에서 사는 2-30대 젊은 층은 아주 일상적으로 남한의 문화를 접하고 있음
-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이 일상적인 여가 생활임. 소음이 발생하지만 아파트 이웃들이 너그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노랫소리가 들리면 찾아와서 함께 어울리기도 함. 이웃과 특별한 교류가 없는 남한 주민들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함
- 김일성과 김정일 생일에 '충성의 노래'라는 문화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이런 문화 행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음
- 지역에 따라 영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영화관 운영이 어려워 폐쇄되기 직전인 곳도 있음. 영화관에서 갓 개봉한 영화를 보는 일은 특별한 자랑거리임
- 북한은 공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만 지키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는 있음. 한국에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집중된 상황에서 일해야 해서 늘 쫓기는 느낌임

문화생활을 하는 이유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문화생활을 함
- 생활의 활력이 되고 즐거움을 느낌
- 주중에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이 나를 위한 보상처럼 느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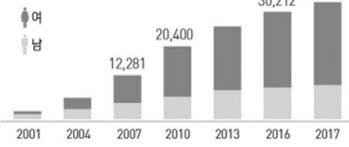
공공 문화정책에 바라는 점

-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함
-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행사에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불쾌함

수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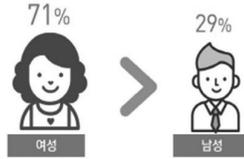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누적 입국자 수



2007년 이후 입국자가 전체의 68% 차지

성별



출처: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인포그래픽스

진행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유희 저는 하나원 220기 수료했구요 작년에 탈북해서 남한에 왔습니다. 양강도에서 왔습니다.

주0옥 한국생활 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조0란 하나원 226기이고요. 저는 평안도에서 왔습니다.

신0섭 하나원 214기 나왔어요. 남한에 온지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저도 평안도에서 왔습니다.

전0식 저는 하나원 150기 6년차인데 동작구에 살고 있어요. 화물운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0란 저는 올해 남한에 왔고 양강도에서 왔습니다.

선0희 저는 하나원 226기고요. 평남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센터에서 기획한 문화프로그램에 주로 참석해요

진행 일하지 않는 시간, 퇴근한 후 시간 등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에 주로 뭘 하시는지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문화활동이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신0섭 나는 하루에 20시간씩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계속 채널을 돌리는 재미로 보고 있어요. 드라마도 보긴 보는데 어떤 건 좀 한심해요. 어제 끝난 드라마는 좀 나운데 지금 새로 하는 건 좀 별로더라고요. 작가들이 작품을 잘 쓰면 배우들도 연기가 잘 나오는데 말예요. 나도 배우는 아니었지만 북한에서 비슷한 걸 해봤는데 작품이 좋으면 두어 번 읽어도 연기 잘 나와요. (TV보는 것 말고는) 하나센터에서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입소하게 되는 기관
출처: 위키백과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
-전국 23개 하나센터 지정·운영 (2017.11월 기준)
출처: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www.koreahana.or.kr)

탁구를 한 주에 한 번 하는데 잘 생각 안나요. 남이섬도 갔는데 그것도 생각 잘 안나고요.

조0란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서 주말마다 여행을 가요. 여행이라기보다 서울 근교에 놀러가요. 남산타워에 갈 때도 있고요. 수영장도 가고요. 평상시에 주중에는 비빔장어요. 애한테 미안하니까 주말에는 힘들어도 꼭 나가요. 공연은 장구치고 무술 같은 것도 보여줬어요. 내가 무조건 데리고 가는 것보다 아이에게 이번에는 어디 가고 싶은지 물어봐요. 박물관 가고 싶다고 해서 박물관에도 갔어요. 아이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문화 빨리 배우게 해주고 싶어서 어린이민속박물관에 갔었어요.

주0옥 최근에 하나센터에서 조직하는 게 참 좋아요. 특히 등산을 좋아해서 빠짐 없이 가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나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 소식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센터에서 조직하는 프로그램에 가는게 편하고 좋아요. 여기 한국하고 북한하고 문화차이가 너무 크고, 남한에 온지 얼마 안되서 아직 회사생활 경력도 없으니까, 남한 분들하고 관계도 없고요. 문화란 게 등산도 문화고, 언어도 문화고 모든 게 문화죠.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일요일에 탁구동아리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유희 근래 교회에서 조직해서 탈북민 40명이 제주도에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 돈을 다 부담해주시고 선물도 주셨어요. 저희를 배려해주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도움 받는 일은 경험 할 수 없어요. 당 대회 조직하면 사람들이 선물을 받아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경도 하기 어려워요. 남한에서는 우리 같은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배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워요.

김0란 남한에 온 지 반 년 정도 됐거든요. 한국 사회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하나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컴퓨터 학원이나 영어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고요. 알바를 잠깐 하고 있고요. 학원 갔다 오면 그 외에는 도서관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한국 분들은 보니까 쉬는 날 여행도 잘 다니고 여가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부러워요. 저는 워낙 열심히 체질이라 편히 누릴 줄 몰라요. 처음에는 너무 바빠서 새벽 1-2시에 잤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TV도 안 봤는데 이제는 가끔 TV도 봐요. 드문드문 이런 시간을 즐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노래방도 가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0희 학원도 다니고 일도 하니깐 힘들어서 문화생활은 잘 못했어요. 집에서 TV 보고 나와서 아파트 밑에서 산책했어요.

전0식 탈북민은 어디서 뭘 조직하고 뭘 하는지 정보를 몰라요. 저도 주 5일 동안 일하는 데에 정신 팔리면 (시간이 생겨도) 어디 가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요. 하나센터에서 조직하는 사계절 캠프 외에는 어딜 가볼 엄두를 못내요. 가끔 파주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 하늘을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다죠. 일할 줄은 아는데 놀 줄은 몰라요.

조0란 본인이 하는 건 인터넷으로 찾아서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근교 정도죠. 아이 위주로 지하철 타고 대공원 등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가요. 주소로 검색하면 몇 호선 타라고 나오거든요.

전0식 저는 인터넷도 잘 몰라요. 집사람이다 찾아보죠.

진 행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문화정보를 받아보겠다 신청만 하면 이메일이 계속 날라 와요. 그런 건 모르신다는 거죠.

조0란 네 몰라요. 솔직히 저희도 아이를 위해 같이 놀고 싶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핸드폰이나 컴퓨터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나가려고 하고요. 하나센터에서 1박 2일 여행을 많이 조직해서 시간 있을 때는 거의 다 다녔어요. 지금은 일 해서 바빠서 못 갔는데. 저희가 가는 곳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근교 정도입니다.

전0식 하나센터에서 조직하는 건 먹고 자고 교통수단까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재정적 부담이 없어요. 돈을 내더라도 정보를 모르니까 (누군가가) 조직해주면 아주 만족스럽게 놀고 오고요. 지난번에 남이섬에 갔다 왔는데 우리는 남이섬 있는 지도 모르죠. 그런데 조직해주면 가서 '아 이런데도 있구나.'하고 인상 깊게 남아요.

진 행 하나센터의 정보 제공이 정말 중요하네요.

조0란 처음에 나오면 막막하거든요. 차도 없어서 더 막막한데요. 하나센터에서 등산 조직하면 매번 갔어요. 그 외에는 갈 데도 없고 갈 줄도 모르구요. 첫 1년은 시간 되면 다 참가했어요.

선0희 저는 주로 TV 보며 집에 있어요.

김0란 토요일이나 주일은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쇼핑 나가서 시세를 알아봐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다 살 수 없고, 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가격이 얼마고, 얼마나 차이나고. 내가 직접 구경을 하는 거예요. 백

화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고속터미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위기를 직감하는 거예요. 백화점하고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며 놀아요

진 행 북한에 계실 때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이런 거 좋았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거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부족했다 싶었는데 이런 건 여기가 좋아.” 이런 것 있으신가요?

전0식 특별한 문화생활이 있었어요? 단오날 같은 특별한 날에 직장에서 조직하면 가는 정도죠. 여성들은 계속 장미당(장터, 시장) 나가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또 어딜 가려면 증명서를 떼야 하고, 몰고 갈 차도 없어요. 차 빌리면 다 돈을 모아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가죠.

선0희 전기가 없어서 TV 보는 것도 힘들어요.

주0옥 북한은 기업소마다 달라요. 잘사는 기업소는 노동절, 단오 등에 기업소에서 운동경기, 오락회 등을 조직해서 녹음기 들고 가족까지 다 불러서 같이 춤추요. 북한문화는 가족단위 활동이 강해요. 남한에서는 집에서 소란스럽게 놀면 안 되어서 그런지 집에서 잘 안 노는데요. 북한에서는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서 술 마시고 집에서 노래도 불러요. 그런 게 그리워요.

유0희 선거 날 북한에서는 놀고 싶은 사람 춤추고 놀 수 있어요. 마음껏 녹음기 틀어놓고 그런 날도 있거든요. 노래할 때 다른 사람이 봐준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데요. 노래방 가서 혼자 놀 수도 있지만 그래도 봐준다는 게 더 흥겹죠.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이 놓고 즐긴다는 게 좋아요.

주0옥 북한에서 노는 방식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친밀감을 줘요.

신0섭 북한에 있을 때, 제 생일 날 집에서 술 먹고 노래하면 온 아파트 주민들이 술 한 병씩 차고 다 내려왔어요. 어제 나하고 싸운 사람도 술먹다보면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인사하고요. 남한에서는 (집에서) 노래를 못할 뿐만 아니라 칼 도마질도 조금 세계 하면 내려오더라고요. “아니, 여기서는 칼 도마질도 못하니?”라고 그랬죠. 한국 사람은 사람냄새가 안나요. 여기는 앞집 사람이 누구인지, 옆집에는 누가 사는지 몰라요. 나는 처음에 옆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도 선거가 있을까?



각 지방 인민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를 뽑는 선거가 있음
출처: 통일부 블로그

주0옥 북한에서는 잘 먹지는 못하고 술에다 인조고기(콩고기) 반찬 놓고 같이 먹 으면서 즐겼어요.

전0식 북한은 생활수준이 낮고 노래방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집에서 떠들고 놀아 도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남한은 네가 나를 방해 안하면 나도 너를 방해 안한다'는 문화적인 게 있어요. 북한은 생활 방식 자체가 서로 억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저 사람한테 붙어서 시멘트라도 한 바가지 얻어야 사니까요. 사람들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니까 친구관계가 돌아가는 거죠.

김0란 저희 집은 큰 기업소가 있는 곳이었지만 시내는 아니었거든요. 설에는 가족이 다 모여서 송별연회를 크게 했던 게 인상에 남아요. 직장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 것도 그렇고요.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한 사람당 얼마씩 걸어요. 콩이든 쌀이든 감자든 모여서 맛있게 해먹어요. 남자들은 술 마시고요. 재미있고 흥 오르면 오락회를 해요. 악기 같은 건 없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면 또 흥이 나서 춤추고요. 재미있어서 배 곡아지게 웃어요. 우리는 동원 잘 갔거든요. 동원으로 모이면 점심 때 모여 앉아서 같이 도시락 먹고요. 어떤 때는 모여서 오락회도 곧잘 해요. 노래시키고 장기자랑 서로 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여기는 모이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주0옥 여기는 모이는 게 없어서 생활이 메말랐어요.

전0식 여기(남한)도 동창회, 협회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 가입 못하니까 그런 거죠. 보면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끼리 놀아요. 우리는 다 뿔뿔이 와서 모이기 힘들죠. 재정적으로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마음의 여유를 못 가지고요.

김0란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는 '총성의 노래'모임을 조직해서 직장마다 대표를 뽑아요. 노래 잘하거나 춤 잘 추는 사람을 뽑아서 밤늦게까지 연습하는데 재미있거든요. 진짜 하는 날에는 분칠하고 치마저고리 여러 가지 입고 연출도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작업복 입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예술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 재간 있는 사람도 많아요. 같이 일하다가 그런 사람들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한 달 반 정도 연습해요.

신0섭 4월 15일에 '총성의 노래'모임은 중앙당 간부부터 학교아이들까지 단위별로 다 참여해요. 직장에서 연습해서 나가는데 재미있긴 하죠. 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요.

진 행 어려서 그렇게 하니까 몸에 밴 자연스러운 거죠?

조0란 실수 없어야 하고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막상하면 재미있는 거죠. 북한은 문화생활 없잖아요. 놀 것도 없고 하니까.

김0란 그 분위기가 재미있는 거예요.

주0옥 개인주의, 집단주의의 차이가 많아요. 남한은 개인주의 사회, 북한은 집단주의 사회죠.

전0식 북한에 남한노래가 많이 들어왔는데 남한노래인지 모르고 연변노래인지 알고 다 불러요. 남한노래라고는 생각 못하고 연변노래라고 생각했죠. 남한노래 많이 들어갔어요.

진 행 한국 남한 드라마나 노래도 접할 수 있나요?

김0란 북한에서 못 보죠. 저는 북한 떠나온 지 오래 돼서 그런지 못 봤어요.

조0란 왜요, 다 봐요.

신0섭 지금도 국경에서나 보고 안으로 내려갈수록 힘들어요.

전0식 나는 평안도에서 왔는데 93년도부터 '알판(CD나 DVD)'이라고 해서 몰래 중국 통해서 들어온 걸 봤어요. 우리 집에 녹화기가 있는데 그게 있는 집이 동네에서 우리 집 하나였어요. 나는 가만있어도 대학생들이 알판 하나 얻어서 집에 찾아와서 보는 거예요. TV 보다가 다 보내고 커튼 쳐놓고 남한 방송 보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감시가 덜했거든요.

신0섭 그거(남한 방송) 보면 추방돼. 나처럼 마음도 약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보라해도 안 보는 거예요.

유0희 충성하겠다는 분이 어떻게 남한에 오셨어요.(웃음)

신0섭 나는 여기 와서도 충성해요.(웃음)

전0식 지금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못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0옥 도시 사는 2-30대는 말도 못해요.

◆총성의 노래모임?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직장에서 총성을 노래하는 모임을 진행
-총성의 노래모임을 준비할 때에는 직장에서 일을 소홀하게해도 봐주는 경향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참가한다고 함
출처: 하나센터 관계자 인터뷰 중

북한에서의 생활방식과 다르지만 '자유'로운 생활이 정말 좋아요

진행 한국에서의 여가문화생활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전0식 특별하게 느껴지죠. 이 분들은 이제 온 지 1년 정도 되니 북한 생각밖에 없죠. 저처럼 5-6년 지나면 북한 생활 잊어버리고 여기 분위기에 맞춰가요. 동네 사람에게 왜 이런 문화적 차이가 나느냐 물었더니 80년대에는 이웃이랑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떡 생기면 나눠먹고 다 했대요. 80년대 지나면서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나는 내가 벌먹고 너는 날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같은 민족이었는데 생활수준 차이가 나면서 북한만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신0섭 남한친구 보고 “너희는 사람 냄새 나지 않아.”라고 했더니 80년대에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자주 모였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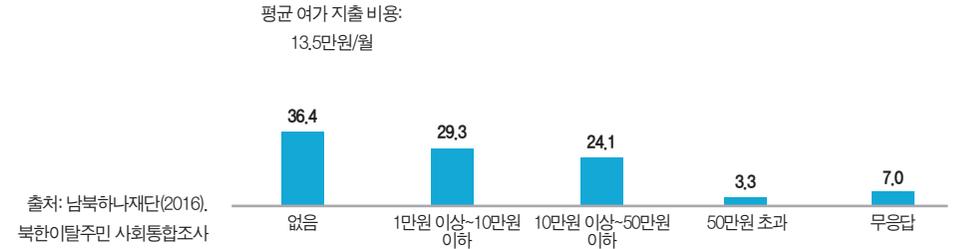
전0식 그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차이죠. 태어나서부터 자본주의 생활방식과, 집단주의 생활방식으로 나뉘는데 차이가 있죠. 근데 내가 겪어보면 남한에도 친구를 위해 목숨 바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람 사는 건 다 같다는 거죠. 북한도 생활수준이 오르면 똑같은 문화생활을 누릴 거예요. 북한도 생활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나를 안 건드리면,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게.”라고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갓 (남한에) 왔을 때 남한 사람 잘 이해 못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옆집 사람이랑 이야기를 안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도 바쁘니까 옆집이랑 이야기 할 새가 없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돈 벌다보면 옆집이 아파서 누워있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알게 돼요. 북한은 공동 일이나 시시간만 때우면 돼요. 북한도 생활수준이 오르면 남한하고 생활이 꼭 같아질 거예요.

신0섭 그건 그래요. 북한은 조직생활이잖아요. 소년단 조직부터 청년 조직, 증명 조직, 당 조직 나이대별로 꼭 조직생활을 하나까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조직 생활에 얽매어야 한단 말이야. 여기는 제 맘이죠. 뭐. 여기는 말도 제 맘대로 하잖아요. 북한에서 “사람 냄새가 안나.”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전0식 저는 북한에서 직업이 좋았어요. 여기 말로는 경찰을 했어요. 그래도 경찰이니 자유스러웠지만 통제는 어느정도 받아야 했죠. 이 땅에 와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부산 가고 싶으면 갔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북한은 훗일을 생각 못해요. 늘 그 막에 먹고 살 준비를 못 하는 거죠. 여기는 내 계획대로 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얼마큼은 저축 해놔서 박스는 좁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거기는 개인이 계획을 못 가져요. 자유가 제일 첫째로 좋아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 지출 비용



비용문제도 있지만 '문화나 정서의 차이'로 문화생활 어려워요

진행 또 어려운 게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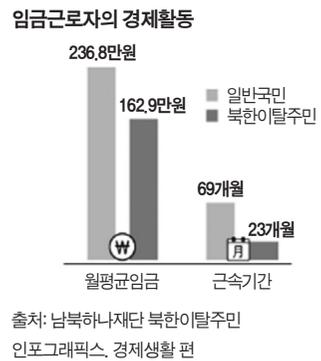
전0식 재정이죠. 제주도에 가려고 해도 4-50만원을 내야 하잖아요. 저는 제주도 두 번 갔었는데 한 번은 하나센터에서 조직해주고 가고, 또 지원 단체에서 조직해줘서 둘 다 무상으로 갔어요. 갓 나온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힘들죠. 나는 지금 가려면 갈 수 있어요. 남한에 온지 1-2년 된 사람들이 5-60만원 내고 가려면, 가족 전체로 봤을 때 백만 원이 넘어가는데 힘들죠.

조0란 워터파크 한 번 가도 15만원이에요.

주0옥 우리는 문화시설 쓸 줄을 몰라요. 사용방법이요. 처음 보는 문화시설이 많아서 좀 힘들어요. 익숙하지 않아서요. 민족 문화 같은 건 괜찮은데 남한에 서양문화가 많잖아요.

전0식 하나센터에서 뮤지컬을 두어 번 조직해서 갔는데 즐기거나 해서 도중에 나와서 간다고 했어요. 표 한 장에 7만원 주고 가도 매번 좋아요. 영 감정이 안 통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걸 안 봤어요. 말로 하면 될 거 노래를 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안 봤는데 여기 와서 감정을 맞추려니까 즐기지만 하죠.

신0섭 나도 한국노래는 적응이 안 돼요. 북한노래는 몸에 배어있으니까 힘 있고, 진취성 있고, 지향성 있잖아요. 한국노래는 아……. 죽으란 소리지 살리는 소리지 모르겠어요. (웃음)



주0옥 너무 감정적이죠. 인간적이고, 생활적이예요.

전0식 북한 사람들은 '영화 예술은 남한이 발전하고, 무대예술은 북한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뮤지컬처럼 젊은 애들 나와서 막 하는 그런 거는 감정이 안 통해요. 북한에서는 춤과 노래를 맞추니까 그게 눈에 익어서 좋죠.

주0옥 남한 와서 영화관에 한 번 가봤어요. 다르더라고요. 북한은 영화관에서 영화 하나 방영하는데, 남한에서는 영화관에 방들이 많아서 방마다 보고픈 영화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TV로 다 나오더라고요. 영화관에 가야 처음으로 본다 싶으면 가서 볼 텐데, 금방 TV로 나오니까 영화관에 가기 싫어요. 요즘 TV 스크린도 크잖아요.

전0식 '청년경찰'도 재미있게 봤어요. 저는 그래도 5-6년 됐으니까 작년에 TV를 제일 최신형으로 샀어요. 거기서 인터넷 찾아서 내가 보고픈 영화, 듣고픈 노래를 듣죠. 하도 많으니까 제목을 기억 못해요. 드라마도 엄청 많아서 제목도 모르구요. 휴일 날 갈 데 없으니까 영화도 보고 심심하면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하늘 한 번 바라봐요.

신0섭 (TV에서 북한사람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거짓말 하는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지방마다 생활수준 차이가 있는데 말이죠. 북한 있을 때 어느 지방에서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요. 북한에서도 돈이 좀 있으니까 영화관에도 가지만 나는 돈 없어서 못가요.

전0옥 근데 북한은 이젠 영화관이 폐쇄될 지경이죠. 돈이 없으니 영화 잘 못 봐요. TV로 드라마나 보지. 극장에 갈 조건이 안 돼요. 지방은 극장이 없어요. 시내에서도 극장 운영이 안 되니까요.

조0란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김정일 시찰 끝나면 협주단이 오기도 하거든요. 극장에서 해요. 그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관에다가 빨간 글씨로 써서 붙여놔요. 극장 앞에 몇 시에 공연 한다고요. 중앙에서 내려온 공연은 하루 이틀 정도만 해요. 다른 도시로 가야 하니까요. 그게 표 사기가 엄청 어렵지만 거기는 뇌물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렇게 다 봐요. '민족과 혁명'영화 시리즈도 유명했어요. 영화관에서 하면 몇 개월 지나야 TV에서 하니까 다들 영화관에서 할 때 보고 싶어 해요. 아이들에게 자랑거리거든요. "넌 못 봤니? 난 봤어."라는 식으로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게, '나는 너희랑 다르다'는 그런 게 있어요.

주0옥 북한에서는 영화를 제작하면 영화관에서 돌려서 돈을 먼저 뽑죠. 여기는 TV로 방영하면 시청률이 있어서 영화나 프로그램이 돈을 버는 게 있잖아요. 북한은 TV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먼저 돌려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온다고 판단하면 TV에서 방영해요. 새 영화는 무조건 영화관에서 봐야 해요.

진 행 북한에서는 북한이 만든 영화만 상영하나요?

조0란 네. 북한에서만 만든 것이예요. 외국영화는 상영하는 걸 본 적 없어요.

김0란 저는 아직 한국에서 영화관에 못 가봤어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집에서 TV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신0섭 한국은 영화관이 멋있더라고요. 영화 보러 들어간 게 아니라 영화관이 멋있어서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영화관 안에 의자도 그렇고. 들어가 보니까 좋았어요. 영화는 재미없어서 눈 감고 술술 돌아봤죠.

문화는 내 일생에 꼭 필요한 보상이예요

진 행 말씀하시며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문화활동은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생활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0옥 스트레스 해소죠. 마음이 즐거워지고요. 뭘 배우려는 건 아녜요. 문화생활이 없으면 소나 말이죠.

조0란 뭐랄까요. 그냥 시간 보내는 것 보다 생활에 활력이 돼요. 일을 해서 다음에 저기도 가봐야지, 많이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돼요. 또 일만 하면서 살면 생활에 의미가 없잖아요. 주중에 일할 때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즐겨야죠. 고생한 대가로 말이에요. 나한테 주는 상이죠.

전0식 글썄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바쳐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하면 내 인생이 재미없죠. 내 인생에서 꼭 바쳐야 하는 시간이죠.

신0섭 즐기지는 거죠. 즐겁게 지내지는 거예요. 좋은데 왔으니까 즐겁게 지내야죠. 북한에서는 풀 뜯어먹으면서도 즐겁게 지냈는데 여기 좋은 데 왔으니 더 즐겁게 지내야죠.

해외여행, 수영장 등 하지 못했던 경험 해보고 싶어요

진행 지금까지 해봤던 거 얘기 하셨는데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걸 말씀해주세요.

유희 저는 수영장에 한 번도 못 가봐서 꼭 가고 싶어요. 북한은 평양에는 수영장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수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인 여자들이 수영을 못해요. 다 노천이니까 좀 불편해요. 아이 때 압록강 가서 막 뛰놀며 물장구 치며 놀던 기억이 많이 나요. 물 안에서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바다에 들어가 봤지만 그건 수영장은 아녘어요. 수영장에는 다이빙대도 있잖아요. 그걸 못 체험해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신아섭 오늘 저녁이라도 가요. 비싸지도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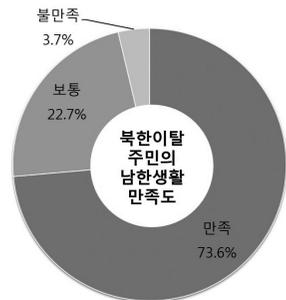
조이란 저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중국에서도 딱 같혀 살았거든요. 나이는 34살을 먹었지만 해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신분증 없는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요. 중국에는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여권 있는 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행장 통과 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신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서 여권 신청했거든요. 여행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신분증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어요. 그거 들고 구청 앞에서 한참 웃었어요. 나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요.

신아섭 나는 한국 생활 너무 고맙고 만족해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픈 거 다 입고 만족이에요. 감사할 따름이죠. 하고픈 거 하려고해도 돈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사실 더 하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전아식 저는 클럽에 한 번도 못 가봤죠. 말은 많이 들었어요. 사회주의 사회에 살았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돈 버는데 정신 팔려 클럽도 못 가봤어요.

김이란 저는 좀 더 배워서 책 쓰는 일 하고 싶어요.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가면 소원이 도서관 파묻히는 거였어요. 한국에 와서 도서관에 많이 갔어요. 근데 여기는 인터넷으로 책을 살 수 있더라고요. 책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지만 원하던 걸 하나씩 좋아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중고책도 살 수 있는 걸 알아서 그걸로 사요. 또 저도 한국에 오고나니까 해외여행 떠나서 세계를 보고 싶어요.

선아희 저도 해외여행을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가보고 싶고, 일본도 가보고 싶어요. 돈 벌어서 가봐야죠.



출처: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다문화 행사에 탈북이주민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 불쾌해요

진행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만든 문화기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에게 바라는 말이 있으신지요?

주아욱 아직……. 사실은 많은 걸 하고 싶어요. 문화생활을 누리고 싶은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보 문제가 있어요. 아직 잘 몰라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는 지역별로 가까운 데서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정보를 찾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취미가 다르니까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생활 정보를 받은 뒤에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정보를 찾으면 해요.

유희 저는 문화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즐기는지는 다르잖아요. 북한사람은 모여서 즐기는 걸 좋아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남한에 살 거니까 남한 방식에 맞춰야 하는 게 맞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요. 적응해 나가려고 해도 모르니까요. 선생님 질문한 것처럼, 어떤 걸 도움 줬으면 좋겠다고 물어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집단주의 교육을 받았고, 남한은 개인주의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우리는 남한에 문화적 도움을 요구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대로 못 따라줘요. 우리가 남한 사람을 따라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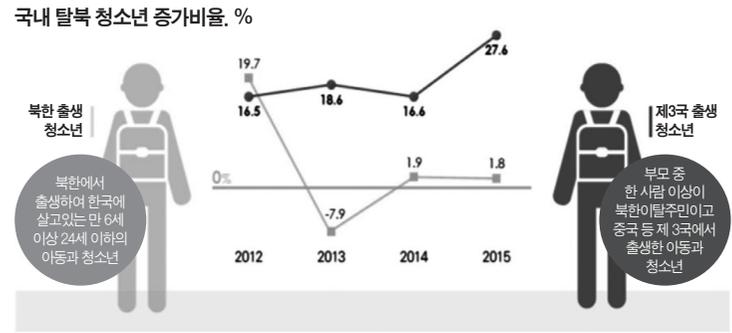
조이란 저는 지금에 만족해요. 한국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누리면 되는 거죠.

김이란 저는 한국 온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 모르는데, 알바 하면서 사회에 부딪히면서 보니 언어가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한의원에서 일을 할 때 “그 베드를 어떻게 치우세요?”라고 하는데 “베드가 뭐예요?”하고 물어봐야 해요. 약국에서 일 할 때에는 약 이름도 다 우리말이 아닌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지만 스트레스가 돼요. 동료들과 얘기하다가도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하면 ‘스트레칭이 뭐지?’란 생각이 들어요. 생활 속에서 그런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언어 같은 부분은 따로 배운다기보다는 부딪히며 배우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아요.

전아식 저는 한 가지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 행사를 조직하면 우리를 왜 다문화 가족에 넣는 건가요?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다문화에 포함하는 거죠? 그게 싫어요. 그리고 행사를 조직하면 다문화주민이랑 북한이탈주민 섞어 놔요. 저는 그게 기분 나빠요. 둘째는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우리 탈북자에게 모든 정보 줄

수 없잖아요. 정보를 하나센터에 주면 하나센터는 우리를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조0란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와 섞는 건 제3국 아동이 있어서 그래요. 엄마는 북한 사람인데 아빠는 중국 사람인 경우도 많아요. 그럼 아이는 중국 아이로 크다가 한국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는 다문화가정에 포함되는 거죠.



진행 아이들이하고는 문화생활을 많이 하시나요?

조0란 주말에 아이가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불쌍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엄마로서 노력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영화도 보고 했던 문화경험이 살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한테도 주입하려고해요. 중국에서 10년 살았어요. 중국에서도 불안하게 살았지만 영화관에 데려다 줬고요. 슈퍼배드, 겨울왕국이 한다고 하면 극장에 가서 보죠.

주0옥 저희 애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하고 놀기 싫어해서 학교 다니면서 동무들과 돌아다녀요. 주민센터에서 문화카드를 발급받았어요. 문화누리카드라고요. 저는 그 카드로 책 사고 학원 다녔는데요. 애는 남한 애들하고 영화 구경도 하더라고요. 내 카드는 없고 엄마 카드에는 돈이 있으니까 엄마 카드 달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진행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 잘해주셔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플러스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연구개발팀 차장

가 남한에 입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문화생활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 봤는데 문화생활이나 여가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 분들은 우선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화는 즐길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신 상황이라고요. 특히 입국 연도별로 분석해서 살펴보면 1-3년 이하 사람들은 기대도 낮고 참여도 낮고 문화생활도 안하지만 10년 이상 넘어가면 일반국민과 같은 수준이 되거든요.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와 여가에 대해 정책 지원을 할 때 입국 1-3년차인 그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언어도 되고 종교단체나 문화단체에 속할 수도 있고, 지역단체에서 지원을 하려고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가치 있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널려져 있는 기회 속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 분들에게 접근했던 모든 방식이 일회성 행사, 모아놓고 사진 찍고 하는 방식이 많았어요.



새로운 삶터에서의 문화생활

- ◆ **일시** 2017. 11. 24.(금) 10:00
- ◆ **진행** 강민기 모아스토리 대표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5명
 1. **아00** : 30대 여성, 한국거주 10년 이하, 필리핀 출신
 2. **어00** : 30대 여성, 한국거주 10~15년, 몽골 출신
 3. **이00** : 30대 여성, 한국거주 10년 이하, 캄보디아 출신
 4. **주00** : 40대 여성, 한국거주 15~20년, 필리핀 출신
 5. **플00** : 40대 여성, 한국거주 20년 이상, 과테말라 출신

요약 정리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의 특징

- 평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이 바빠서 문화생활다운 문화생활을 거의 즐기지 못함
- 가끔 큰마음을 먹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음
- 결혼이주여성보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문화생활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근처에서 열리는 다문화 행사에는 아이들과 꼭 참석하려고 함.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됨
- 드문 기회지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술 관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새로운 경험하는 것을 즐김
- 다문화 가정에 제공되는 여러 공공 기관의 혜택 덕분에 다른 한국인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함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울타리'사이트에서 문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음
-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기회를 찾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음

문화생활의 장애요소

- 모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은 거의 내지 못함. 자신만을 위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도 많이 못 하는 상황임
- 비싼 공연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다음을 기약하는 편임

- 특히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시부모는 연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부부만의 문화생활은 거의 불가능함
- 남편과 영화를 한 번 보려면 남편이 몇 년 만에 하루 월차를 내야 할 정도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드뭄
- 소속된 다문화센터에서도 입국한지 오래되다보니 정보를 주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음. 대부분 입국 1-3년차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됨
- 능동적으로 전화해서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묻거나 자주 다문화센터를 찾아가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방송 출연 등의 기회가 들어와도 다문화 가정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편견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방송에서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불쾌함
- '뭣시는 나라에서 며느리를 사왔다.'며 수근대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위축됐고, 아이들에게 모국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많이 후회가 됨
- 이주여성 수가 적은 국가일수록 정보가 제한됨
-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정보가 전해지도록 여러 창구가 개발되었으면 함

모국에서의 여가생활

- 모국에서도 생활고와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문화생활을 할 기회는 거의 없었음
- 가끔 영화를 보거나 나이트클럽에 가는 정도로 문화생활을 즐김
- 필리핀의 경우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국민성 때문에 모국에서도 집에 노래방 기계를 갖춰놓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과 어울려 춤과 노래를 즐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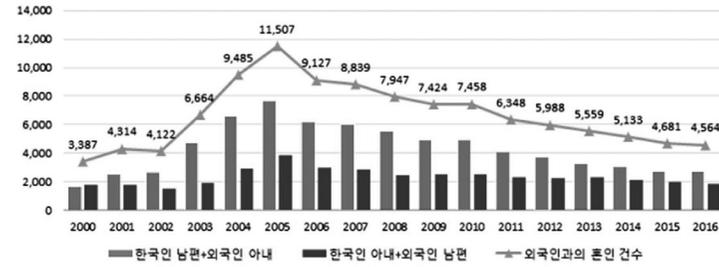
문화생활을 하는 이유

- 힘든 생활에 대한 보상과 스트레스 해소
- 한국 문화콘텐츠로 한국어를 학습함

수다 기록

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외국인과의 혼인통계 재구성

서울특별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



진행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00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아이 한 명 있고 남편도 한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온지 10년정도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한국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한류도 세상(세계)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관심 많이 있어서 활동 많이 참석하고 싶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00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지 10년이 조금 안되었고 아이 두 명 있습니다. 한국 살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볼까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용산구에서 살아요.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00 몽골에서 왔고요 한국 온지 10년이 넘었어요. 구로구에서 살고 있고요. 남편하고 아들 둘 있어요. 남편 포함해서 아들 셋을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플00 안녕하세요, 저는 과테말라 왔고요 한국 온지 20년 넘었습니다. 아이 세 명 있고요. 동대문구에서 삽니다. 반갑습니다.

주00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 온지 20년 조금 안됐습니다. 아이 두 명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 가사, 육아로 시간내기 어렵지만 영화, 여행, 독서 등 문화생활 좋아요

진행 최근에 영화, 공연, 전시를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했던 문화생활 경험 있으시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주시시면 돼요. 최근에 했던 거나 기억에 남는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00 저는 한 달 전에 영화 봤어요. 남편이 다쳐서 긴 시간 집에서 지내게 돼서 그 시간을 활용해 '남한산성' 봤어요. 5-6년 만에 극장에 가서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편 더 볼까?" 했어요. 그런데 아이 데리러 갈 시간 돼서 하나만 봤어요. 평소에는 아이가 어려서 맡길 데 없어요. 시어머니도 이사를 멀리 가서서 맡길 수 없어요.

이00 한 달 전에 남편이 하루 휴가 내서 같이 영화봤어요.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다고요. 큰 아이가 자폐예요. 큰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많이 울었어요. 영화 같이 보는 것도 잘 안 돼요. 시간도 잘 안 맞고 남편도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깐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깐 하루 휴가내서 저를 위한 시간을 몇 년만에 내줬어요. "영화 보고 싶은 거 이야기해봐." 라고 했어요. 미국 영화인데 인기 많은 영화였어요. 제목 길어서 기억 안 나는데 재미있었어요. 조조로 보면서 커피 한 잔 먹고 팝콘 먹는데 너무... 연애 시절 같았어요. (남편이랑) 연애 안 해봐서 그런 게 너무 좋고, 끝나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 사주더라고요. 날이 추운데도 손잡고 걸어서 집에 갔어요. 큰애 올 시간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또 다시 하루 더 휴가 내라고 했는데 바쁘대요. 너무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시간 보냈어요.

플00 20일 전에 처음으로 남이섬 갔었어요. 우리 아이가 자주 문화생활 즐기는 거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영화 많이 보여줘서 영화, 뮤지컬 보는 거 좋아해요. 아들이 가차고 해서 남이섬 갔어요. 저도 몰랐는데 거기서 드라마도 찍었다고 설명해줬어요. 막내아들이 초등학교생인데 한국문화를 궁금해 해요. 바빠서 같이 다닐 시간 없는데 아들이 검색해서 같이 가보자고 해서 시간 내서 갔어요. 남이섬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입장료가) 한국사람은 1만원인데 외국인 2천원 할인 받아서 8천원이예요. 4명이라서 만 원 가까이 할인 받았어요. 거기 구경할 게 되게 많아요. 크루즈도 있고요.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주00 저는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 별로 없었어요. 워낙 아이들이 다 자라서 개인적으로 자기들 할 일도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시간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주변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진도 찍고 이야기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00 저는 요즘에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번에 많이 봤어요. 한 달에 한 두 번 봐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미군부대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군인 신분증이 있으면 50%할인이예요. 그래서 자주 봤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없대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우리 아들도 너무 슬프대요. 마지막으로 본 거는 7월이었어요. 그때 어린이 만화 봤어요. 아이 때문에 만화 봤어요. 영화 보면 한국 영화 잘 많이 안 봐

요. 저는 많이 보고 싶은데 아이가 영어 배워야 하나까 영어 영화 봐요. 제가 본 한국 영화는 무서운 건데요, '조선마술사'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보면 역사 이야기인데 엄청 무서운 거 많이 나왔어요. 재미있는데 밤에 무서워서 잘 못 잤어요.

진행 하루 일과 마친 저녁이나 주말같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주로 뭘 하면서 지내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00 그동안 밀려있는 집안일 해야죠. 빨래 돌리고 널고 청소도 해야죠. 거의 집에 있어요. 애들 공부 도와주고요. 책 읽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TV는 아이들이 어려서 거의 많이 안 보여줘요. 그리고 이는 언니들이 만나자고 가끔 연락이 오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저녁에 나가는 거 신랑이 싫어해요. 남편이 애들 있는 데 어디 가냐고, 자기가 결혼 한 이유가 퇴근하면 아이와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길 바라서래요. 집 불켜져 있는 게 좋대요. 주로 애 엄마들이 남편 와이자 나가잖아요. 낮에 바쁘니까요. 그런데 전 그렇게도 못하니까 "애는 바빠서 못나와." (라는 이야기 들어요.) 이런 식이라서 많이 못나가요.

플00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해요. 한국어로 읽으면 이해는 하는데 제 언어(스페인어)로 된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가끔 미국(사이트) 가서 사서 택배로 오면 읽어요. 집안일 해야 하는데 책 너무 좋아서 지꾸 읽게 되어요. 어떨 때는 저녁도 안하고 아이 왔는데 "아, 밥 안했다." 해요. 또 시간 있을 때 가까운 공원에 아들하고 산책가요. 우리 아들 나무 보는 거 좋아해요. 아들에게 배우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주00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 있으면 진짜 잔치처럼 만들어요. 워낙 아이들도 먹는 거 좋아해서요. 책도 좋아해요. 아이들도 시간 있으면 책을 읽으며 (저를) 체크해요. 내가 한국말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동화책을 크게 읽어요.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서 읽을 수 있는지 봐요. 내가 책 읽으면 아이들이 바로잡아줘요. 또 집안일도 하고 어디 행사 있으면 같이 데리고 가서 봐요. 행사는 다문화 행사를 많이 가요. 요리 대회도 나가구요. 구청에서 하는 것도 많이 참석 했거든요. 아이들도 (다른 나라) 문화가 어떤지 직접 보고 "아, 그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알도록 참석하고 있어요.

아00 저는요,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매일매일 일 나가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있어서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필리핀 우리 가족한테 조금(이라도) 돈 보내야 해서 너무 바빠요. 아침에 다른 활동 하고 오후에 아르바이트 나가고 밤에 우리 집안일 해요. 우리 아들 숙제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줘요. 왜냐면 (숙제

도) 한국말, 책도 한국말이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막 싸워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둘이 공부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냥 "엄마 기다려."라고 했더니 "어 나 엄마 좋아. 엄마랑 같이 공부할거야."라고 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요즘에는 주말에 숙대입구 근처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월수금 아침에 나가다가 조금 힘드니까 주말에 해요.

진행 어디서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아00 다문화 센터에서요. 외국 사람들이 국적 받기 전에 해야 한대요. 요즘에 중요하대요. 사회통합 안 받으면 국적 못 받는데요. 그래서 해야 해요. 시간 있으면 저는 아들이랑 같이 나가요. 시간 많이 있으면 놀러 가요. 시간 많이 없으면 집에서 뭐든 게임 같은 거 하고요. 또 하루 종일 부엌에 있어요. 아침에 맛있는 거 만들고, 점심, 간식도 핫케이크 만들고, 샐러드도 만들어요. 그래서 주말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배배러요. 근데 한국은 너무 비싼 나라인가 봐요. (그렇다고) 많이 들었어요. 진짜 사람들 다 너무 바빠요.

이00 평일 6시 반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 출근시키고 설거지해요. 막내아이 일어나면 어린이집 보내요. 시장 보고 아들 3시에 오면 데리고 와서 간식 먹이고 치료실 가요. 생활이 그래요. 치료실에 매일 가서 시간 보내요. 일주일에 5번, 적어도 4번은 가요. 저는 생활이 뻘뻘해요. 집안일도 해야 해요. 치료실 갔다 오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자기 전에 책 읽어주고 재워요. 남편 오면 과일 깎아 주고. 토요일은 다문화 행사 있으면 나가고. 다문화 장애인 모임에서 프로그램 캠프 있으면 참석하고요. 주일날 교회에 아이 둘 데리고 가요. (교회에서) 점심도 먹어요. 토요일에는 잠깐 좀 쉴 수 있고요. 일요일은 교회에 나가서 밖에서 놀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생활해요. 아이와 남편 위해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되려고요.

진행 문화행사에 갔을 때 어떤 게 좋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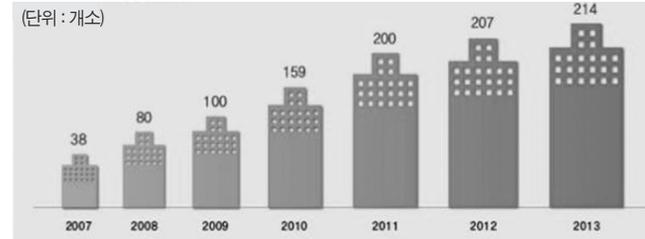
이00 저는 예전엔 주말마다 남편과 박물관 가고 전쟁기념관도 가고 왕궁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해요. 아이 어릴 때 유모차 끌고 갔어요.

어00 큰 아들이 과학 쪽으로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랑 박물관 가자고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박물관 갔다 왔는데 공룡 박물관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은 공룡 백 몇 마리의 이름이 써진 카드를 다 외어요. 어디서 살고 이름이 뭐고 다 알아요. 관심이 많았는데 계속 못 가고 있었거든요. 어린이집 보내고 일 나가고 데리러 오면 저녁이다 보니깐요. 이번 토요일에 가자고 했는데 이주 연속 못 가고 있어요. 애는 언제 가냐고 물어요. 아이와 박물관에 언제 갔는지 생각

해보니까 둘째 만삭 때 철도박물관에 걸어가서 돌이 손잡고 다녀온 게 기억나네요.

어00 저는 옛날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은평구에 있는 여성개발센터에서 공부했는데 수업마다 여러 박물관이나 궁 같은 데로 많이 나갔어요. 그때 한국말 많이 못해서 (문화제)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많이 나갔어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블로그

다문화센터 도움 많이 받고 있지만 오래 산 사람에 대한 지원과 관심 더 필요해요

진행 주로 어떤 방식으로 가시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예매해서 표를 사나요? 아니면 누가 알려주면 따라가거나, 다문화 센터나 학교의 도움을 받으시나요?

플00 저는 핸드폰 문제 있어서 예매 못하고 직접 가서 사요. 아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박물관 알려주면 가봐요. 그렇지 않으면 막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친구들이 어디가 좋다고 하면 듣고 같이 가요.

어00 예전에는 다문화센터에서 정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되서 다문화센터에서 관심을 안 줘요. 왜냐면 '배울 만큼 배웠어, 받을 만큼 받았어.' 생각하세요. 제가 다문화센터에 가면 배울게 없다고 "그냥 가세요."해요. 어차피 한국말 어느 정도 하니까요.

플00 저도 다문화센터 아쉬워요. 처음 온 2-3년까지는 지원 많이 줘요. 그런데 오래 살면 정보도 잘 안 주고 관심도 안 가져 줘요. 우리도 많이 살았지만 그런 정보 많이 없어요. 어떤 공연 있는지, 어디 가면 좋은 교육 있는지 그런 정보 없어서 아쉬워요.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좋은 공연 있었는데 왜 안 왔냐"고 물었어요. 센터에서 정보 줬다고요. 그런데 난 몰랐고, 연락 못 받았어요.

어00 그런 정보 있어도 우리처럼 오래 산 사람한테는 연락 안 해줘요.

플00 우리는 시간 많이 있어야 다문화센터 자주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일하면 시

간 없어요. 자주 못 가니까 정보 못 얻어요. 센터 자주 방문하면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가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차이 있어요.

어00 다문화센터에서 제일 좋은 건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엔 없었어요. 혼자 다 했어요. 요즘은 같은 나라 멘토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처음 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국말도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같은 나라 멘토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주00 다문화센터가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다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생각 바뀌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도움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차례로 다른 친구들이 필요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생각해요. 이제 내 차례로 기여해야 해요.

친구들이나 모임, 다문화 홈페이지 통해 정보 얻어요

진행 다문화센터의 도움 외에는 주로 문화생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요?

어00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울타리'에서 정보 많이 얻어요. 거기 올라오면 다른 공동체 밴드가 퍼서 공유 해주거든요.

이00 그런데 진짜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저도 몇 달 전에 알았어요.

플00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어00 다문화 공동체 모임의 대표가 정보를 아는 사람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그런 모임 대표들하고 잘 지내면 정보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정도 얻고요.

어00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사용해요. 어디 놀러가는 그런 정보 페이스북에 많이 나와요.

플00 필리핀 사람은 많아서 정보 많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열 명 이하예요. 학생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서른 명 있어요. 우리는 계속 사는 사람은 열 명 이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친구가 없어서요. 일 하는데 필리핀 선생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페이스북 친구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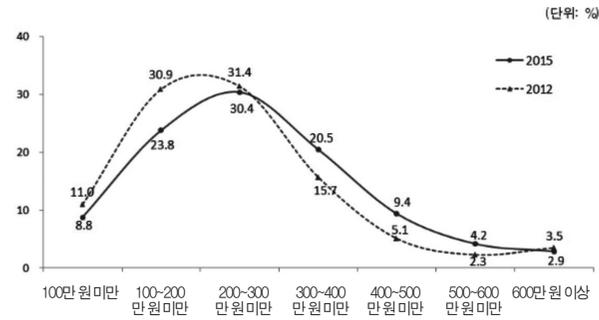
이00 저는 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에 직접 전화해요. "요즘 이런 프로그램 없나



「한울타리」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한 공간
출처: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한울타리」

요?”하고 물어봐요. “그런 거 있으면 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정보 잘 와요. 가만히 있으면 먼저 연락안와요. 우리가 전화해야 해요.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물어봐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가서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12, 2015)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문화생활 비용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나요

진행 “문화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게 있어요.”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혹시 “내가 한국사람 아니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플00 교통편은 갈아타야 하고 주소 찾아가야 해서 어렵기도 하고요. 또 좋은 공연은 비싸요. 한국 사람들 안 비싸겠지만 우리한테는 부담돼요. 좋은 거 보여주고 싶지만 가격 비싸서요. 문화카드 지원은 하나 받았지만 그건 제가 못써요. 그건 아이들 영화 봐야하고 책 사야해요. 전 시간 나면 서점에 가서 책 읽으면서 애들 책도 사요. 인터넷에 가끔 공연티켓 싸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좋은 공연은 4-5만원 이에요. 두 명 가면 9-10만원이고 가면 교통비에 또 맛있는 거 사줘야 해요. 그럼 10만원 넘는데 그건 너무 비싸요. 그것 때문에 문화생활 제대로 즐길 수가 없어요. 또 위치도 어디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는지 몰라요.

어00 여름에 외국에서 유명한 뮤지컬 공연이 와서 보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요. 15만원이에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남편하고 보면 30만원이에요. 갔다 쳐도 아이는 누구한테 맡길 거냐가 문제고요. 주부다보니 30만원은 큰돈이에요. 아이 학원비도 내야하고요. 그러면 아이 크면 하지 뭐 이렇게 돼요. 이러니 지갑이 얇으면 아예 못나가요.

플00 아이들 공연도 2-3만원 넘어가면 부담되어요.

아00 요즘 다문화센터에서 뮤지컬 보는 거 무료로 많이 나와요. 시간 있으면 가요.

어00 얼마 전에 다문화모임에서 뮤지컬 볼 거냐고 연락 왔는데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못갔어요. 알바 취소하고 시간 내서 가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이00 시간하고 돈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저는 여행 좋아해요. 목표는 남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돈 더 모아서 가지고 하게 돼요.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 한 번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서울시 지원 받고 간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 맡길 곳 없으니 남편 못가고 저만 갔어요. 남편은 아이 봐야 하니까요. 남편이 “갔다 와라. 아이 봐줄 테니.”했어요. 직장 상사에게 부탁해서 휴가내고 아이봤어요. 참 여행 가는 게 어려워요. 서울시에 감사하지만 부모님 여행 가면 아이들 누가 봐주나 문제 있어요. 돌보미 부르려 해도 장애아동이라 돈 줘도 안 봐줘요. 가족 여행도 아니고 아이 빼놓고 부모들만 가는데, 마음이 안 놓여요. 편하지 않아요.

주00 저는 불편한 건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 있으면 아이들이 시간 안 되고, 아이들이 시간 되면 내가 시간 없으니까요. 이제는 검색하면 어디 좋은 거 있는지 나오니까 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행 공연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보통 무료인 프로그램을 주로 찾아가시는지, 아니면 할인 받아서 이용하시는지, 그냥 돈 다내고 가는지 궁금하네요.

플00 돈 절대 다 내고 안 가요. 온라인 쇼핑몰에 할인정보 다 찾아보고, 무료도 많이 찾아요. 근데 무료는 선착순이 많아요. 부지런히 빨리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어00 돈 다 내면 바보죠. 어떻게든 카드 할인이나 다른 할인 받으려고 하죠.

아00 어디서나 물건 사면 포인트 멤버십 만들어서 할인 받아요.

진행 어떤 분은 여행 가기 위해 적금 붓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축해서 돈 모이면 공연 가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목표를 정하고 계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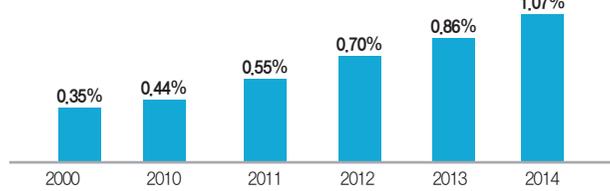
플00 우리 아들 군대 나오면 가까운데 여행 가려고요. 저금통 큰 거 두 개 사서 넣고 있는데 다 모을지 안 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했어요.

주00 목표는 한 번 필리핀 가보려고요. 우리 두 아이 다 데리고요.

이00 저는 적금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이어서 은행에서 다문화 적금 들었어요.

일반보다 이자가 높아요. 은행마다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조건으로 통장을 거의 다 제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조금씩 적금 한 거를 아이들 위해서 쓰려고요. 나중에 남편 노후 준비도 되고요. 돈 관리하는 거 좋아해요.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5.03.17.)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외국인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 싫어서 모국어도 안 가르쳤어요

진행 선생님들이 지원을 받는 것 중에 좋은 거랑 “이런 건 좋은 의도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거 안 좋아요,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으신가요?

주00 우리는 무료 좋아할 때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필리핀 오래 못 갔는데 무료로 갈 수 있대요. 그런데 다큐멘터리처럼 찍고 촬영한대요. 나는 관촬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학교생활 할 때 놀림 받는다고 해서 거절했어요. 사생활 노출 때문이에요.

플00 저번에는 제가 아는 선생님이 다문화가정을 도와준대며 다큐멘터리 방송 소개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 더 어렵게 과장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에게 별로 안 좋잖아요. 외국 애들이니 아무래도 학교 가면 차별 받는데 그 다큐멘터리 찍으면 더 힘들잖아요. 받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어00 저도 얼마 전에 방송 섭외가 들어왔어요. 고민하다가 저 혼자면 괜찮은데 집에서 촬영해야하고 개인 생활 노출되니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걱정되더라고요.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힘들고 못 사는 거 보여줘야 하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요. 몽골 보여주면 유목민 생각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꼭 그런 거만 골라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몽골은 못살고, 외국 며느리 몽골 가서 사왔다고 특히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플00 저는 아이들에게 스페인어 안 알려줬어요. 한국어 잘 하라고요. 너무 후회해요. 우리 고향 식구들 통화하고 싶어하는데 아이들 말 못하니까 왜 스페인어 안 가르쳤냐고 뭐라고 해요.

어00 저도 한 동안 외국 출신인거 숨기려고 전철에서 말 안하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제가 몽골사람인 게 자랑스럽다고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니까 스스로 위축돼요. 애들에게도 모국어(몽골어)를 가르쳐야 했는데 지금 후회돼요. 애들이 지금 모국어도 못하고,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주00 저는 아이들한테 필리핀 말 가르쳤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많이 사귀고요. 왜냐하면 영어도 할 수 있잖아요. 영어 과외 비싸요. 그리고 아이 친구 엄마들이 우리 애들 영어 잘하니까 사귀라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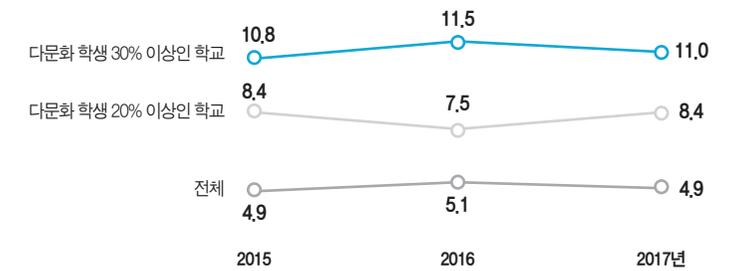
이00 영어 잘하면 나쁘게 보지 않는데 다른 언어 쪽은 아녜요. 한국 엄마들 영어 가르치려고 애쓰잖아요.

어00 그런 것보다 다문화 학생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아요. 다문화 학생 많으면 전학 가는 한국 학생 많거든요. 특히 구로구에 중국교포가 많고 외국인도 많이 살아서 학교도 7-80% 다문화학생인 거예요. 그러니 다문화 학생이랑 같이 공부하기 싫다고 한국 애들 많이 전학가요. 그래서 다문화 학교 따로 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이랑 키우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느냐, 다문화면 다냐.” 이런 기사 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한국 학부모들 입장도 이해돼요. 그분들도 똑같이 힘들게 살고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다문화 가정이지만, 똑같이 여기서 일하고 살고 모국에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어요. 똑같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00 우리도 똑같이 세금내는 국민이에요.

아00 저는 다문화 가족이라 너무 좋아요. 한국 다문화가족은 좋은 혜택 많이 받아요. 다른 한국 친구들이 좋겠다고, 한국 사람보다 다문화 가족이 좋겠다고 해요. 우리 아들 학교에서도 방과 후 수업 무료로 많이 해요. 다문화 가족이라 엄청 많이 잘 해주요. 우리 아들 학교도 다문화 특성화 학교예요.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서울 초·중학교 전출률 (단위: %)



출처: “다문화 아이 많아 싫어요... 자녀학교 옮기는 부모들”, 세계일보(2017.11.01.)

자료: 서울시교육청

모국에서도 바쁜 삶에 문화생활 많이 못누렸지만....

진행 한국 오시기 전에 어떻게 문화생활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이00 제 기억에는 계속 일해서 전혀 문화생활을 못했어요. 캄보디아에서도 사는 게 팍팍해서요. 캄보디아랑 여기 비교하면 소통은 좀 어렵지만 여기에서 더 잘 살고 있어요.

플00 저는 과테말라에서 공부만 하고 문화생활 시간 없었고요. 처음에 한국 와서 사는 게 바빠서 즐기고 싶어도 못 즐겼어요. 요즘에는 시간 조금 내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00 저는 대학 다니다가 왔는데 공부하고 주말에는 알바 했어요.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크게 영화보고 그런 건 없었는데 가끔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이나 갔어요.

이00 저는 필리핀에서 그냥 무용 같은 거 했어요. 필리핀에서는 학생 때 참석 많이 해요. 무용이나 필리핀 춤이요. 또 저는 노래 좋아하지만 노래가 저를 안 좋아해요. 필리핀에는 집마다 노래방기계 있어요. 생일파티하면 무조건 노래 불러요.

주00 춤, 노래를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해요.

삶의 선물 같은 문화생활, 남들에게는 일상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특별해요

진행 여러 가지 문화생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문화생활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건지 어쩌다 한 번 생기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플00 전 일하면서 내 시간 가질 때 커피숍 가서 조용한 음악 들어요. 책도 읽어요. 집에 있는 거보다 카페 가서 조용하게 있으면 스트레스 풀려요. 특별한 선물 같아요.

이00 저는 사람 많은 데 좋아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 마시고요. 그럼 스트레스 풀려요. 언니들이랑 놀면 좋는데 막상 집에 오면 너무 답답해요. 저는 사람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면 병 생겨요. 남편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은 바빠서요.

어00 글썄요.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것 같아요. 남들한테는 일상이지만 저한테는 될 하나 보든 하든 그 순간이 특별한 것 같아요.

주00 나도 매 순간마다 특별해요.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아침에 이렇게 눈 뜨는 것도 특별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행 이런 문화활동을 왜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이00 맨날 좋은 시간만 있지 않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살맛난다.'는 마음이죠. 힘들지만 이런 시간도 나한테 있구나 싶어요. 스트레스 푼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힘내, 수고했다."는 말처럼 나를 위로해주는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돼요.

플00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문화생활 있어야 해요.

주00 저는 하루 한잔 커피 마시는 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예요.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하루 한잔 커피 마시면서 나만의 시간 써요. 또 노래방도 가요. 스트레스 풀기 위해 가요. 스트레스만 푸는 게 아니라 한국말 배우려고 가요. 이렇게 책만 보면 잘 입력 안 되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하면 금방금방 외워요. 아이런 방법도 있구나 싶어서 자주 가요.

이00 경험하는 게 너무 좋아요. 새로운 경험이 너무 좋고요. 또 제가 한국말 부족하니까 새로운 한국사람 만나면 좋아요.

어00 저를 위한 위로의 시간이예요. 스트레스 풀고요.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보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국에서 온 오케스트라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진행 꼭 해보고 싶은 문화생활 있을까요?

주00 궁 안에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가이드도 있어요. 거기서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니까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어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큰)마음 먹고 시간을 내야해요. 너무 바쁘니까. 그거 한 번 꼭 해보고 싶어요. 또 애들이랑 필리핀에 가거나 다른 곳이라도 2박3일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오면 좋겠어요.

이00 템플스테이 해보고 싶어요.

이00 저도 가족 여행.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다 같이요. 전 큰아들이랑 비행기 못 타봤어요. 가야지, 가야지 했는데요. 돈도 돈이지만 아이가 아파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봐 비행을 못 타요. 외국 가보는 경험 시켜주고 싶어요.

플00 저는 군대간 우리 아들이 제대하면 꼭 여행 가고 싶어요. 빨리 빨리 돈 모아 야 해요.

어00 물론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죠. 그런데 저는 몇 년 전에 큰 아이 어렸을 때 오케스트라 공연을 무료 티켓을 누가 줘서 간 적 있어요. 몽골 분들과 한국 분들이 같이 하는 공연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잔잔한 음악도 있고요. 그 공연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 어리니까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때도 아이 잠깐 말기고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실수했다고 전화와서 나왔지만 잠깐 2-30분이라도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 되면 그런 것을 가보고 싶어요.

진 행 공공기관에게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바라는 점 말씀해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플00 뮤지컬 이런 거 보러 갈 때 아이랑 같이 못 가잖아요. 뮤지컬 보러 가서 아이 못 들어가면 조그만 방 있어서 아이 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말기면 돈도 많이 들고 불안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면 무슨 일 생겨도 갈 수 있으니까요. 또 다문화 가족 위해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생겼으면 해요.

이00 저는 한글 교실 더 많아졌으면 해요. 우리 동네에 외국사람 많아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한글교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외국인이 버스 타는데 기사가 '뒷문으로 내리세요.' 했는데 이해 못하더라고요. 외국사람도 화나고 아저씨도 화났어요.

주00 한글 교실 많아요. 지역마다 센터가 많아요.

어00 센터 있어도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만 이용하지 다른 외국인들은 사용 못해요.

이00 우리 주민센터는 없대요. 확인해봤는데 복지관에 있긴 한데 시간이 안 돼요. 목요일마다만 한 시간 하고요.

진 행 아침부터 즐거운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플러스

강민기 모아스토리 대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경험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화생활이 특별하지 않고 시간과 돈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돈이 얼마나 있는지의 문제죠. 만 원이든 오천 원이든 질이 적당한 공연을 자주 본다든지 조조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지금보다는 좀 더 경험을 많이 하면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출되지 않고 경험을 많이 못한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실 때부터 삶에 쫓겨서 오셨고 그것에 익숙해지시니 여유를 경험 못하게 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모아스토리에서 결혼이주여성분들에게 뮤지컬 보러가자고 하면 “아이걸 왜 우리가.” “우리가 갈 수 있나?” 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가시면 되는데 가는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많으신 거죠. 결혼이주여성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험을 자주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자주 해봐야 큰 것을 하게 되거든요. 저금통 작은 것 사시고 영화라도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재단에 요청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생각보다 오케스트라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요. 기업에서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봐주는 대학생을 모아서 돌봄지원을 하기도 해요. 재단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1년에 12번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 좋겠어요. 전문 오케스트라 말고 대학생 오케스트라 그런 분들이 공연 하시고 기업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로 아이도 말기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은 공연을 즐기시기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혼자 하기는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같이 협력하면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근로자

낮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 ◆ **일시** 2017. 11. 26.(일) 15:00
- ◆ **진행** 이효정 한국외국인복지지원센터 교육문화팀장
남미진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 ◆ **참석자** 총 3명
1. **팜00** : 30대 여성, 한국거주 10년 이하, 베트남 출신, 소기업 근무
2. **이00** : 40대 여성, 한국거주 20년 이상, 미얀마 출신, 상담통역
3. **나00** : 30대 여성, 한국거주 10년 이하, 우즈베키스탄 출신, 상담통역

요약 정리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의 특징

- 한국어교실 등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공공기관에서 만났거나 같은 고향 친구들끼리 모임을 이뤄서 단체로 문화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음. 한국어와 영어 다 안 되는 근로자가 많아서 개별적인 문화생활은 거의 하지 않음
-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국인 친구와 함께 서울 명소를 다니거나 교외, 혹은 짧은 해외여행을 다님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공공기관에서 한국어 등 강좌를 듣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이들은 보통 주말에 같은 나라 출신 노동자들과 자국 식당에 모여 술과 음식을 즐기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함
- 다른 문화생활보다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
- 이주민을 위한 영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해 만족스러운 예술 경험을 함
- 외국인 등록증이 있으면 문화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잘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음
- SNS를 활용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자국 근로자들끼리 문화생활 정보를 교환함

문화생활의 장애요소

- 한국어 구사가 힘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문화예술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음
- 국적이나 연령보다는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이 정보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곤 함. 인터넷 정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채류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 문화 활동을 위해 문화시설을 찾았어도 한국어나 영어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할인이나 카드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서울의 복잡한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서 문화활동을 위해 함께 길을 나섰다가도 실패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음. 가는 길이 복잡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음
-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 힘들고, 시간이 나더라도 휴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비자 종류에 따라 아이를 양육 여부가 달라지는데,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한국의 다른 워킹맘처럼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개인적인 문화생활 시간을 거의 내기 어려움
-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에 쏠려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화 지원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모국에서의 여가생활

- 모국의 문화 인프라에 따라서 문화 경험의 차이가 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문화적인 시설이 전무한 국가 출신일 경우 주로 친구들과 집에서 어울려 놀거나 동네의 무료 영화상영 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화생활다운 문화생활을 경험한 경우가 드뭄
- 과거 구소련 지역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거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슷한 콘텐츠를 즐기려면 비용이 너무 비싸 관람할 엄두가 나지 않음

문화생활을 하는 이유

- 힘든 일상생활을 견딜 수 있는 삶의 에너지가 됨
-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수다 기록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국적미취득자 (1,363,712명, 79.7%)					국적취득자 (149,751명, 8.8%)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의 미성년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기업투자, 취재 등)	혼인귀화	기타 (일반귀화, 입양 등)	
573,378명 (33.5%)	144,912명 (8.5%)	82,181명 (4.8%)	216,213명 (12.6%)	347,028명 (20.3%)	93,249명 (5.4%)	56,502명 (3.3%)	197,550명 (11.5%)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정보통계담당관실

진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팜00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국에 근로자로 왔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올 때 한국어 관심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어 관심 생겼어요. 한국어 공부하게 됐어요. 한국어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관심 가지게 됐습니다.

이00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지 오래 됐습니다. 강산이 두 번 넘게 변해 20년 넘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처음 올 때 이주여성 아니었고, 관광으로 왔어요. 그냥 한국에서 일하면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취직해서 일했고 나중에 신랑 만나서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나00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처음에 대학교 유학 왔다가 취업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영화보기, 여행하기 좋아해요

진행 최근에 영화, 여행, 공연, 축제 등 문화활동 해보신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팜00 저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와서 한국어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요. 여행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있을 때 친구랑 한국에 유명한 곳을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5월쯤에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에 올라갔어요. 한국인 선생님과 같이 갔는데 선생님이 호텔 예약하고 저는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약해서 갔어요.

진행 선생님하고도 여행을 잘 가시나봐요?

팜00 우리 반이 오래 같이 공부한 사람이 많아서 선생님하고 지낸 시간이 오래 됐어요.

진행 여행 자체가 한국어 공부도 됐겠네요.

팜00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행하려고 돈을 조금씩 모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더 내자고 했어요.

이00 솔직히 저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문화나 여행을 별로 즐기지 못했어요. 1년에 한두 번 고향 가고요. 한국에서 상담하고 통역하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과 많이 친해요. 쉬는 날 같이 여행 가자고 하는데요. 저는 일요일 근무해서 같이 자주 못 가고, 1년에 몇 번만 가요. 가을에 사진 찍기 좋은 곳이나 단풍 구경삼아 남이섬 가고요, 여름에 수영장, 겨울에 스키장도 가요. 가족하고는 못 가요. 아들이 지금 군대 가있고 남편 취미가 저하고 달라가지고요. 같이 가면 재미없어요. 맨날 낚시해요.

나00 저는 원래 취미는 영화 보기예요. 예전에는 혼자 살았어요. 학교에서 공부 하면서요.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문화의 날을 했어요. 난타 공연, 박물관, 미술관 갔어요. 지금은 가족이랑 살다보니 아이들 돌봐야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래도 시간 생기면 영화를 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큰 애가 많이 커서 같이 금요일 쉬는 날마다 영화 봐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청년경찰'이에요. 영화 덕분에 엄청 많이 웃었어요.

진행 최근에 기억나는 걸 말씀하셨는데 일하지 않고 쉬는 날 보통 뭘 하고 지내시는지요?

이00 저는 6일 근무하고 토요일 하루 쉬어요. 매주 쉬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외국인근로자 친구들 아파서 병원 가자고 하면 (제가 한국말을 잘 하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시간 내요. 자유 시간은 토요일 오후밖에 없어요. 그때 영화 볼 때도 있어요. 솔직히 공연은 못 봐요. 너무 멀어서요. 또 공연은 일부러 시간 맞춰서 가야 하니까 공연은 많이 못 보고 영화보거나 가끔 친구들이랑 밥 먹고 그래요. 친구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가 '한국에 유명한 데 어디 있냐.', '사진 잘 나오는데 어디 있냐.'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런데 안가다보니 친구들보다 모르더라고요. 가끔 인터넷 찾아서 많이 알려줘요.

나00 저는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쉬어요. 다른 날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아예 시간 없어요. 밥하고 아이 봐야 해요. TV도 무조건 10시 드라마는 보려고 하는데 요즘 그것도 못 보고 있어요. 10시 드라마는 꼭 봐야 하는 건데 못 봐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예요. 금요일은 좋아하는 날이에요. 금요일에는 저 혼자 있어요. 큰 애는 학교, 작은 애는 유치원 보내고 남편은 출근하고요. 혼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날이 거의 없으니까 일단 잠을 충분히 자려고 하고요. 일어나서 장 보러 가거나 가끔 짬짬방 가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기저기 쭈시고 아프니까 가끔 가서 땀을 흘려요.

팜00 저는 여기 일하러 왔으니까 돈 벌기 위해 일주일 동안 6일 근무하는데요. 가끔 토요일에 쉬면 계절에 따라 여행 갈만한 데 찾아가요. 날씨가 안 추울 때 경북 공이나 이순신릉에도 갔다 왔어요.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박물관이나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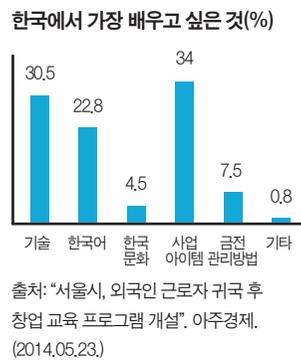
일하느라 관심 없는 경우 많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있는 외국인근로자도 많아요

진행 다른 외국인근로자분들은 일하지 않는 날 어떻게 지내세요?

이00 취미가 다 다양해요. 한국어 열공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속 잡아서 사진 찍고 다니거나, 쇼핑 다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나00 우즈벡 사람들은 결혼이민자가 많지 않고 대부분 근로자이거나 유학생이에요. 근로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분들은 돈 벌기 위해 왔으니까 돈만 생각한대요. 나머지 문화 같은 걸 배우겠다는 의지 거의 없다고 느꼈어요. 그 분들은 쉬는 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동대문에 우즈벡 식당에 가서 우즈벡 음식 많이 먹는데요. 먹고 나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가끔 낚시터 가서 낚시 하는 것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바다가 없어서 강이나 바다에 가서 낚시 하는 거 좋아한대요. 그리고 당구 치러 가는 것도 좋아한대요. 유학생들은 다르긴 한데, 한국어 배우기 위해 오신 분들이니 한국어, 한국문화에 관심 너무 많으세요. 연극, 영화, 콘서트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독도에 관한 관심이 많으세요. 여기 왔던 사람들도 일본 거나 한국 거나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독도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실제 가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교통 너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갈아타고 오래 기다려서 갔는데 볼 것도 별로 없다고 하고요. 울릉도에서 관광객 위한 활동하기도 한대요. 독도에 많이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팜00 베트남 사람 중 제가 아는 친구들은 한국어 관심 많이 없는 경우 거의 집에서 지내요. 아니면 여기 저기 다니며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밥 먹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게 힘드니까요.



한국어 모르고 교통편 힘들어 개별적으로 문화생활하기 어려워요

진행 혹시 여러분들은 박물관이나 공연장, 미술관 같은 문화공간에도 가보셨나요?

팜00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혼자 갔었어요.

이00 저는 박물관에 가본 적 없어요.

나00 박물관 되게 많이 가봤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나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본 적 있고요. 최근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주민 영화제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베트남 영화 봤어요.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나라 영화를 무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베트남 사람을 한국에서 만난 게 다인데, 거기서 찍은 영화라 재미있었어요. 모르는 것 알게 되고 생활 습관이 나오니까 좋았어요. 그런 영화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진행 그런 문화공간이나 문화행사 갔을 때 좋은 점, 불편한 점 있으셨나요?

나00 그때 사람 많지 않고 무료로 하니까 좋았는데요, 그런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친구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알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이라든지 여기저기에 광고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00 교통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행가거나 문화공간 갈 때 어려워요. 나같이 오래 살고 한국어 알면 덜 힘든데, 다른 근로자 친구들은 인터넷 사용이나 교통편 같은 일반적인 것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행갈 때 개별적으로 안 갑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길 잘 몰라서요.

진행 한국어 못 하는 분들은 정보 구하기 더 어렵겠네요. 요즘은 시나 구에 외국어 정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문화적인 건 모르겠지만 일상생활 관련된 것, 쓰레기 버리는 법,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법은 본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을 텐데 문화 관련한 건 없나요?

일동 없어요.

나00 우즈벡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가고는 하는데 어디에 정보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요. 우리 여기 가고 싶어 하는데 교통 정

보나 주소 알려줄 수 있냐고요. 그럴 때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할인 하는 것 정보를 받아서 문자로 보내요. 갈 수 있게끔 말이에요.

진행 상담 업무 하면서 어떻게 문화생활 하는지 좀 더 이야기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이런 건 어렵더라.”, “이건 나도 몰라서 도와줄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찾아볼 수 없었어.” 그런 거 있었나요?

나00 경복궁 어떻게 가냐고 질문 받으면, 경복궁 역 알려주고 라인 알려주는데요. 역 번호가 있으니 번호로 말을 하래요. 그때 지하철역마다 번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교통이 제일 힘들어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할 때도 경복궁 역에서 만나서 입장해서 가면 되는데 거기서 만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센터에서 모이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센터 오면 여기서 차를 대절해서 경복궁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대절비가 없으면 추진이 안 돼요.

이00 근로자끼리 가면 헤매서 못 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두번 갔는데도 그랬어요. 진짜 찾기 어려워요.

진행 교통편 정보가 허술하다는 거죠? 그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개별적으로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더 잘 못 가시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요.

이00 개별적으로는 처음 온 사람들은 잘 안 가요.

진행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지면 그때는 모여서 가나요?

팜00 만약 어디에 장소 어렵게 찾아가야 하면, 택시 타거나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버스 번호 있잖아요. 그 버스가 위치가 다 나와요. 위치 따라서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8년 전에 한국말 잘 몰랐어요. 그때 제가 국립박물관 가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이름 치면 찾아가는 길도 나오잖아요. 그걸 따라 갔어요. 한국 말 잘 못할 때도 한글 그대로 넣어서 지도 보고 찾아갔어요.

본국에서는 문화생활을 거의 못 했어요

진행 한국 오시기 전에 태어난 나라에서 문화생활은 어떻게 하셨는지, 좋았던 것, 여기서 계속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팜00 저는 베트남 있을 때 집안 형편 어려웠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친구가 같이 있을 시간 되면 친구 집에 가서 놀았어요. 친구 어머니 이 밥도 해주셔서 같이 먹고 놀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집 비었으면 친구 불러서 같이 놀았어요. 우리는 농사지어서 논에서 벼 베거든요. 동창이 우리 집이 추수하면 도와주고 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여행 다니기 좀 어려워요. 교통이 편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또 시골이어서요. 또 우리는 박물관이 좀 멀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박물관 가게 해줬어요. 호치민 박물관이 하노이에 있는데요. 조금 공부하고 가게 됐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기분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경복궁, 박물관 같은 것들 다 찾아서 갔어요. 그때는 한국에 처음 와서 친구 별로 없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한국어 거의 공부하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같이 밥 먹는 거만 하고 있었어요. 먹고 노는 것도 질리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거의 친구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 동네에 다섯 명 있는데 그때는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센터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요즘에는 한국에서 사는 게 편해요. 친구도 많고 어떻게 다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나00 저는 우즈베크에서도 영화는 많이 봤어요. 극장에 가서 영화 많이 보고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을 때 부모님 몰래 나이트클럽에 가곤 했었어요. 원래 독립하기 전에 구소련 때 너무 못살아서 경제적 어려웠던 시기라 문화생활을 거의 못했어요. 그런 명소나 갈만한 곳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독립하고 무역, 창업 하는 사람 많아지고 경제적 여유도 생기면서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사였어요. 2년 동안 교사 일을 하다가 현지에서 배우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2년 교사 할 때 담임 맡은 반이 2개 있었어요. 한국어 가르쳐주니까 한국에 관심 많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리 반에 한 학기에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 탄 사람 많았고, 1년 마치고 4급 탄 사람도 많았어요. 유학생활 하고 돌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가끔 잘 지나냐고 연락와요. 그때 그 사람들처럼 한국 식당에 같이 간 적이 되게 많아요. 젓가락 잡는 방법 수업 하면 실제로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밥 시주면서 젓가락 잡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한국 교육관이라는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많이 가보면서 약기 같은 거 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다양한 거 많이 했었어요. 우즈베크 한국 대사관 가서 대사관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행사에도 동참 하면서 문화생활 했었어요. 우리 가족끼리는 대부분 영화 보고 연극 봤고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놀이공원 데려가서 신나게 타게끔 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00 저는 고향에 있을 때 생활이 어렵고 맘팔이다 보니까 문화생활은 많이 못 했어요. 고향에 무료 영화관 있었어요. 프로젝터로 밖에서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는데 많았어요. 공연도 동네에 많이 왔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다보니까 정부에서

공연 많이 해요. 동네에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어요. 연예인은 아니지만 잘생긴 연예인 지망생이 많이 와서 연극 보여줘요. 그런 걸로 문화생활 즐겼어요. 공연장 가고 영화관 가서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다 공연장, 영화관 많이 가요. 살기 좀 편해진 거죠.

나00 우즈벡은 옛날엔 오페라나 국립극장 그런 거 무료였어요. 나중에는 유로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도 한국보다는 싸죠. 우리나라는 훨씬 싸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비싸요.

요즘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문화생활 할인 혜택 받아요

진행 아까 교통, 언어처럼 이야기된 문제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서울에서 문화생활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한다고 할 게 있을까요? 교통이나 언어 이외에 더 추가할 거 있으세요?

이00 카드 할인이요. 한국 사람들은 카드 할인이 되니까 한국사람 붙잡고 같이 하게 돼요. 공연도 카드 할인되는 게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발급 못 받아요. 상대적으로 싸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팜00 외국인 혜택 받을 수 있는데 한국어를 몰라요. 한국어 알면 아마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티켓 살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나오는데 한국어 몰라서 잘 못 받아요. 예전에 어떤 공연보러 갔을 때 00카드 있으면 50% 할인 해준대요. 그때는 한국어 몰라서 그냥 다른 카드로 사서 100% 다 냈어요.

나00 저는 어디 가든 외국인 등록증을 꼭 챙겨요.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면 몇 퍼센트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롯데월드 갔어요. 저에게만 외국인등록증이 있었고 친구들은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저만 할인 받았어요. 또 가지고 있는 카드 다 꺼내 보여주면서 어떤 걸로 할인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근데 많은 카드 중에 제일 할인 많이 받는 게 외국인 등록증이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외국인인데 아이디카드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인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망하고 ‘이 비싼 가격 들어가야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00카드 50% 할인이라고 해서 할인받았어요.

페이스북으로 친구들과 문화정보 공유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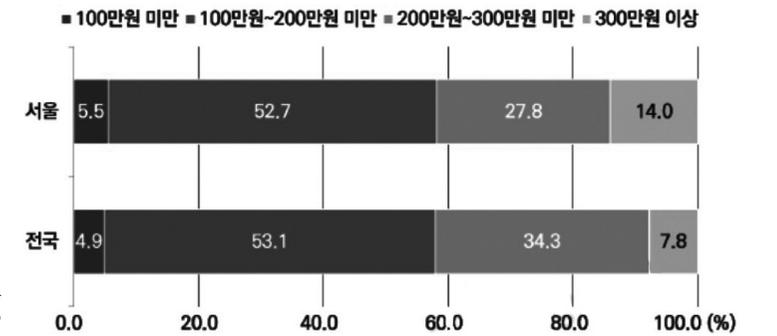
진행 내가 ‘아 뭘 하면 좋지?’ 생각 들거나, 주말에 여행가고 싶는데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고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보 얻는 방법이 있어요?

팜00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행사 있는지 다 올려요. 한국 어디가 유명한지, 이 계절에 어디에 가는 게 좋은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은행나무길에 갔어요. 폐친들이 11월 10일부터 며칠까지 단풍잎 제일 예쁘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이00 저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많이 참고해요. 페이스북에 한국 친구도 있고 외국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한 명이 갔다 온 사진 올려요. 이쁘다 싶으면 나도 검색하는 거예요.

나00 저도 물론 인터넷 통해서 검색 하긴 하지만 아이가 학교 다니고 있어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봐요. 사진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을 해요. 그걸 보고 괜찮은 그런 게 나오면 저도 따로 가려고 하고요. 거기에서 정보 받아요. 제 생각에는 리플렛이 생겼으면 해요. 서울에 있는 명소나 갈만한 데 사진이나 이름 정도를 써둔 리플렛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 뿌리거나, 대부분 공항을 통해 들어오니까 거기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리플렛을 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요. 돈이 약간 있으면 번역해서 배포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이 대부분 문제니까 사진에 이름 달아서 제작했으면 해요.

2015년 외국인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전국 대비 서울



빠듯한 생활이지만 문화생활 하려고 애써요

진행 다른 질문 드릴게요. 보통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시는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료를 찾는지, 돈 내고 가야하는 것을 찾을 때도 있는지요?

팜00 서울은 교통비가 비싸지 않아요. 행사 같은 거 티켓도 비싸지 않아요. 우리 부부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행사 있으면 20만 원

정도는 문화생활에 써요. 다른 친구는 혼자 한 달 먹고 놓고 친구 만나거나 게임 하거나 하느라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쓸 수 있어요. 술 먹는 거 비싸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하고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집에서 간단한 음식 한 걸 가져가서 친구랑 먹기도 해요.

이00 저는 가고 싶으면 무조건 가요. 돈이 얼마 들든지 없으면 누구한테 꺾서라도 가요. 가고 나서 다음 달에 갚던가요. 먹는 것도 아끼지 않아요.

나00 저도 문화생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들어도 가려고 해요. 물론 무료로 진행되는 것도 알게 되면 가려고 하지만 자비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따로 통장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매달 10만원씩 입금해 줘요. 여기 저기 보러 가거나 문화 활동에 쓰는 비용 생각해서 다른데 아예 안 써요. 안 가면 그냥 거기 있는 거고 가게 되면 거기서 쓰고요. 왜냐면 생활비를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게다가 애들이랑 같이 사니까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학교, 어린이집 할인 못 받고 다 내면서 살아요. 그래서 문화비용을 따로 마련해요. 매달 가든 안 가든 10만원씩 입금 해놓고 갈 때 신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놀아요. 공짜라고 하면 오히려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에서 무료행사하면 하나님 믿으라고 할까봐 오해하고 안 가기도 하고요.

문화생활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휴식도 되는 특별한 활동이죠

진행 시간과 여건이 되면 영화, 여행 등 다양하게 각자 나름대로 문화적인 것을 누리셨는데 이런 게 특별한 거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00 특별한 시간이죠. 어쩌다 한 번 가게 되면 애들처럼 설레고요. 이런 걸 많이 해줘야 힘들게 일하는 거에 대해 보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죽도록 일을 하는데요. 10시 드라마도 못 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점심을 빨리 먹고 어제 못 봤던 드라마 다시보기로 봤는데 요즘은 점심에도 볼 수 없고 집에 가서도 애 봐야 하니까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 시청조차 저에게 특별하게 됐어요. 우즈베키스탄 요리 하면 2시간 걸려요. 7시쯤에 애들 데려와서 요리 시작하면 9시쯤에 다 준비돼서 먹고요. 씻기고 설거지 하고 뭐하면 11시예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빨리 자야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고 문화생활하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에 연차가 남길래 놀이공원 가려고 했어요. 연차 쓰겠다고 마음먹고 기회 잡았더니 애가 아프기 시작해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00 저는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부러 시간 내거나 없는 시간 쪼개서가 아니고요. 약속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라 특별한 건 없어요. 시간 날 때 보고 만나고 즐기고 그렇게 해요.

팜00 저는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저만 재미있고 즐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친구한테도 내가 “또 다음에 또 어디 갈까 뭐 할까?”,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뭐 할까?”하고 이렇게 지꾸 물어요. 그래서 친구도 지금 너무 좋아해요. 저도 결혼은 했고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비자 나온 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거라 아이는 베트남에 보냈어요. 그래서 육아는 안하고 남편이 바쁘면 같이 못 가지만 시간 있으면 같이 문화생활 하러 가요. 가끔 남편 가기 싫으면 집에 있으라고 하고 혼자 가요.

진행 그럼 본인이 문화생활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팜00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이고요. 마음이 즐겁기도 하니까요. 또 친구 만나고 여기 저기 다니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몸이 움직이니까 건강해지기도 해요.

나00 사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 간다고 해놓으면 삶에 대한 재미가 생겨요. 그렇게 해야 다른 날도 즐겁게 느껴져요. 스트레스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결정하기 전에 어디 다녀오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잘 결정하게 돼요. 매달 가지는 못 하지만 돈을 모아놓으면, 어디 비싼 데를 가도 그 돈 있으니까 제가 돈에 대한 부담 못 느껴요. 이미 거기에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생활비를 안 써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서요.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상인데, 문화활동을 많이 해줘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00 저는 문화생활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관관계도 좋아지게 해주고요. 또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진행 마지막으로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더 필요하거나, 바뀌거나, 새롭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이런 제안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00 주로 어려운 게 언어예요. 어디 여행 가거나 박물관에 가도 뒤에 설명서가 다 한국어 아니면 영어잖아요.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니 “우리는 가서 사진이나 찍읍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길 안내 이런 것도 주로 한국어와 영어만 있

고요. 요즘에는 이주여성 많은 나라인 베트남, 몽골, 필리핀 언어로도 되어있긴 하 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더라고요. 표지판도 일본어, 중국어, 영어 있지만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 능숙하지 못해요.

진행 오늘 너무 여러 가지 얘기 재미있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 플러스

이효정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교육문화팀장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높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이럴 거다 상상하고 왔는데 실상을 보면 본인이 거주하는 데는 갭이 커서 실망감이 크고요. 그런 걸 다독여줄 수 있는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문화 관련해서 지침이나 시각,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사업도 많이 바뀌었어요. 2005년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가 시작됐을 때 관심 높았다가 2010년 전후로 '외국인 근로자는 돈만 벌고 가니, 정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쪽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자'라는 시각으로 방향성이 전환된 시점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가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칸막이가 있고 또 어느 한쪽으로 지원이 몰리기도 하는 거 같아요.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공공주체들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연구기획·진행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 정책연구팀

김해보 경영기획본부장
남미진 정책연구팀장
박은희 정책연구팀 연구담당
류지민 정책연구팀 연구스태프
황복이 정책연구팀 연구스태프
김정윤 집필정리 위촉연구원

연구자문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연구협력지원

김창영 ㈜월드리서치 상무
고혜지 ㈜월드리서치 연구원

도움주신 분들(가나다 순)

김동수 송정중학교 교사
강민기 모이스토리 대표
강지수 휘봉고등학교 교사
김순희 신도고등학교 교사
김희숙 공간민들레 교사
백세로나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하나센터 사회복지사
성진경 은평씨앗학교 교사
유경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장
이경미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하나센터 팀장
이재희 한국농어인협회 총무부
이정훈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문화지원팀장
이호정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교육문화팀장
장인숙 남북하나재단 연구개발팀 차장
정원일 강남장애인복지관 문화사업팀장
최미애 동대문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
함요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홍보팀장
황윤성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부장

2017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

발행인 주철환
발행일 2018년 1월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디자인/인쇄 글자와 기록사이

서울문화재단

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www.sfac.or.kr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

전화 02-3290-7133 이메일 suggest@sfac.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02-3290-7133)으로 문의바랍니다.
(비매품)

